

모로코

정보수정일자: 2013. 12. 30

작 성 처 : 카사블랑카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4
한국과의 주요이슈 / 19

II. 경제

경제지표 DB / 26
경제동향 및 전망 / 27
주요 산업 동향 / 30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56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 58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64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 67
대한수입규제동향 / 70
관세제도 / 72
주요인증제도 / 75
지식재산권 / 77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 79

3. 무역관련 환경 및 특성

수출유망품목 / 83
시장특성 / 84
바이어 발굴 / 89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92
주요전시회 개최일정 / 95
수출성공, 실패사례 / 96
수출시 애로사항 / 98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100
- 투자인센티브제도 / 102
- 외국인 투자동향 / 104
- 한국기업 투자동향 / 117
- 한국기업진출현황 / 133
- 투자 진출 성공, 실패사례 / 134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139
- 투자방식 / 142
- 투자 진출 형태 / 144
- 진출 형태별 절차 / 146
- 투자 입지 여건 / 149
- 무역투자진출시 애로사항 / 153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제도 / 155
- 조세제도 / 162
- 금융제도 / 16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170

V. Business 참고정보

- 물가정보 / 172
- 취업유망 분야 및 유의사항 / 174
- 비즈니스에티켓 / 178
- 이주정착 가이드 / 181
- 생활여건 / 187
- 취향정보 / 202
- 출입국 및 비자제도 / 204
- 관광, 호텔, 식당, 통역 / 209
- 출장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228
- 유관기관 웹사이트 / 248
- KOTRA무역관 안내 / 250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모로코 왕국 (불어: Royaume du Maroc, 영어: Kingdom of Morocco) 아랍어: AL MAMLAKA AL MAGHRIBIA
위치	아프리카 북서단 (북위 23 - 36도, 서경 13 - 17도)
면적	710,850km ² (서부사하라지역 252,120km ² 포함 / 한반도의 3.2배)
기후	북부(지중해성), 중부(대륙성), 남부(사막성)
수도	라바트 (Rabat),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2012년)
인구	3,290만명(2013년), 2014년 인구총조사 실시 예정
주요도시	카사블랑카(406 만명), 라바트(72 만명), 마라케시(90 만명), 아가딜(46 만 명), 탕제 (69 만 명), 페스(71 만 명)
민족	아랍인-베르베르인(99.1%), 유대인(0.2%), 기타(0.7%)
언어	공용어(아랍어, 베르베르어), 상용어(프랑스어)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8.7%, 기독교 1.1%, 유대교 0.2%(6000명)
건국(독립)일	1956.03.02 (프랑스로부터 독립) 독립기념일은 독립선언일인 1955.11.18일로 지정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실권자)	국왕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99.07.30 즉위)

자료: 모로코 통계청

나. 경제지표

GDP	1,047억 달러 (2013년 11월기준)
실질경제성장률	4.5% (2013년 기준)
1인당 GDP	5,537불 (2013년 기준/PPP)
실업률	9.2% (2013년 2분기 기준)
물가상승률	1.3% (2013년 기준)
화폐단위	디람 (Dirham/DH - 국제통화 표기로는 MAD로 표시, 모로코 디람)
환율	US 1불 = 8.4 디람 (2013년 기준)
외채	146억 달러 (2013년 2분기 기준)
외환보유고	179억 달러 (2013년 10월 기준)
산업구조	서비스산업(53.2%), 제조업(31.7%), 농업, 수산업(15.1%) ('12년 기준)
교역규모	수출: 180억 달러(2013년 1월~10월 기준)

	수입: 375억 달러(2013년 1월~10월 기준)
교역품	수출: 인산염, 석유제품(나프타), 동(스크랩), 의류, 기타비금속광물 등
	수입: 원유, 자동차, 영상기기, 가스, 철강, 화학, 기계, 가전 등

자료: 모로코 통계청, 외환청, IMF

다. 한-모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1976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76년) 사증면제협정(1993년) 투자보장협정(1999년) 이중과세방지협정(2000년) 정보통신협력협정(2001년) 관광협력협정(2006년) 부산시-카사블랑카 자매도시 협정(2011년) 한-모로코 4대강 사업 기술협력협정(2012년)
교역규모	(2013년 1월-10월 기준) 수출: 6,446만 달러 / 수입: 1,528만 달러
교역품	한국의 수출(2013년 1월-10월 기준) ○ 자동차 (64,467천달러), ○ 건설광산기계 (15,288천달러) ○ 기계요소 (14,942천달러)
	한국의 수입(2013년 1월-10월 기준) ○ 석유제품 (24,743 천달러) ○ 동제품 (17,337천달러) ○ 의류 (15,903천달러)
해외직접투자	22 건, 59,917 천 달러 (2012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교민	교민 약 400여명

자료: 모로코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라. 행정 구역별 인구

(단위: 명)

Taza - Al Hoceima - Taounate (Al Hoceima, Taza, Taounate)	1,846,200
Tadla - Azilal (Béni Mellal et Azilal)	1,479,000
Le Grand Casablanca (Casablanca, Mohammedia)	4,029,000
Marrakech - Tensift - Al Haouz (Marrakech, Essaouira, Kelâa Sraghna)	3,162,000
Guelmim - Es-Smara (Guelmim, Tan-Tan, Tata, Es-Smara)	471,700
Gharb - Charda - Beni Hssen (Kénitra, Sidi Kacem, Sidi Slimane)	1,897,200

Rabat – Salé – Zemmour– Zaër (Rabat, Salé, Skhirate)	1,777,200
Souss – Massa – Draa (Agadir, Tiznit, Taroudant, Biougra, Inezgane)	3,264,000
Chaouia – Ouardigha (Settat, Berrechid, Benslima)	1,632,000
Oued Eddahab – Lagouria(Dakhla , Aousserd)	102,000
Laâyoune – Boujdour – Sakia El Hamra(Laâyoune, Boujdour ,Tarfaya et Lmarsa)	261,300
Doukala – Abda (El Jadida, Sidi Bennour, Safi et Youssoufia)	2,040,000
Meknès –Tafilalet(Meknès, El Hajeb, Ifrane, Azrou, Midelt, Khénifra)	2,184,400
Fès – Boulmane (Fès, Sefrou, Boulemane, Moulay Yacoub)	1,045,800
Tanger – Tétouan(Tanger, Tétouan, Larache, Ksar Kbir, Chefchaouen, Asilah)	2,519,800
L'Oriental (Oujda, Nador, Berkane, Taourirt, Jerada et Figuig)	1,938,000

주: 괄호 안은 주요도시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조직

모로코의 정체는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로 국시는 신(알라), 조국, 국왕이다. 정부 형태는 국왕제(국왕은 3권 초월)이다. 현 국왕은 지난 1999년 7월 서거한 하산 2세 (Hassan II, Roi du Maroc, 1961.3.3 즉위)의 뒤를 이어 왕위를 승계한 모하메드 6세(Mohamed VI)로서 모로코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모로코의 왕권은 절대적인 권력이다. 장자 상속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왕은 수상 임명권과 각료 임명권을 행사한다. 행정부는 의회 다수파 중 국왕에 의해 지명되는 수상과 수상의 제청에 의해 국왕이 임명하는 각료로 구성된다.

1) 왕권

모로코는 788년 이드리스드(Idrisid) 왕조가 통일한 후 11세기에 알모라비드(Almoravid) 왕조가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였으나 12세기에 알모하드(Almohad) 왕조로 교체되었고, 12세기 말에 메리니드(Merimid) 왕조가 뒤를 이었다. 이후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중엽까지 와타시드(Wattasid) 왕조가 지배하고 사디(Saadi) 왕조가 뒤를 이었다. 1666년부터는 알라위트(Alaouite) 왕조가 시작되어 1999년 즉위한 시디 모하메드 6세의 18대 국왕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국왕은 헌법상 종교 최고지도자(Amir Al-Muminin), 국가원수, 국가 통일의 상징이자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자이며 이슬람교와 국헌의 수호자(헌법 제 19조 명시)이다. 모로코의 정체가 입헌군주제이고 수차에 걸친 개헌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등 행정, 사법, 입법 3권을 초월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왕권은 국왕이 다른 왕자를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는 한 장자 상속(헌법 제 20조)된다.

국왕은 총리 임명권과 총리의 제청에 의한 각료 임명권(헌법 제 24조)도 행사한다. 또한 각료 회의 주재권, 법률공포권, 의회 해산권(헌법 제 25, 26, 27조)을 갖고 있으며 군 참모 총 장을 겸직하고, 군. 민 관리 및 대사임명, 조약 비준권, 사면권 및 비상사태 선포권(헌법 제 30, 31, 34, 35조)을 가지고 있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2월에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2011년 3월에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정치개혁안 발표와 7월 헌법 개정 투표를 실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왕은 국가 원수 겸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유지하지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에게 정부 대표의 지위를 부여한다. 더불어 본래 2012년 실시 예정이었던 총선이 1년 앞당겨진 지난 2011년 11월에 치뤄졌다.

2) 행정부

행정부는 의회 다수파중 국왕에 의해 지명되는 총리(Prime Minister)와 총리에 의해 제청돼 국왕이 임명하는 각료(Ministers)로 구성돼 있다. 총리는 국왕과 의회에 책임을 지며 법률을 집행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의 수상은 2011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정의발전당(PJD)의 지도자 압델라이 벤키란(Abdelilah Benkirane)이다.

3) 사법부

사법부의 법관은 국왕이 주재하는 사법평의회에 의해 임명되며, 지방법원, 행정법원, 상고법원, 대법원 등이 주요 사법기관이다. 법원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개인의 재산권(금액 1,000디람 이하)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Communal and District Courts(지방법원)과 행정부에 대한 소송, 행정 계약이나 공권력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을 담당하는 Administrative Tribunals(행정 법원)이 있다. 이외 가족법, 상속, 계약, 노동분쟁, 민사 소송 등을 심의하는 Tribunals of Original Jurisdiction (민사 1심 법원)과 형사 소송, 민사 1심 법원의 상고 등을 심의하는 Courts of Appeal (상고법원)이 있다.

이외 Supreme Court(대법원), 지방 관리나 중앙 정부 공무원의 횡령 및 배임에 관한 재판을 전담하는 Special Court of Justice(특별법원)이 운영 되고 있으며 정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범죄나 위법행위에 심의를 하는 High Court(고등법원)과 The Standing Tribunal of the Royal Armed Forces(군사법원)이 설치돼 있다.

4) 의회

과거 단원제이던 의회는 제 4차 헌법 개정(96.9.13)에 따라 상원(Chambre des Conseillers) 및 하원(Chambre des Representants)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변경됐다. 하원은 임기 6년으로 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325석이다. 하원 의장은 임기 3년으로 최초 의장 선거 후 제 3차 년도 4월 정기 국회에서 의장이 교체되며, 각 위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1년 이며, 정당 그룹별 의원 수에 비례하여 구성돼 있다.

상원은 임기 9년으로 지역 선거인단 대표에 의해 총 의석(270석)의 3/5을 지역별로 선출하고, 나머지 2/5 의석은 직능별대표와 전국의 임금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한다. 상원의원은 재선이 가능하며, 매 3년마다 1/3씩 교체(제 4 차 개정헌법에 의해 선출된 상원의원의 임기는 추첨에 의거 3년, 6년 임기 의원을 선출)되고 있다. 상원의장 및 의장단은 매 3년마다 선출하며, 의장단 구성은 정당 그룹별 의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의원 대표로 구성되고 있다. 회기는 년 2회 정기국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 회기는 의원 과반수 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소집되고 있다. 법률안은 총리 또는 의원에 의거 상. 하 양원의 일방 사무국에 제출되며 모든 법률안은 양원에서 별도 심의되고 있다.

의회제도는 1996년 제4차 헌법 개정을 통해 확립된 양원제이다. 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정원은 325석이다. 상원은 임기 9년으로 총 의석(270석)의 3/5은 지역별로 선출하고 나머지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모로코에는 15개가 넘는 정당이 있는데, 주요 정당으로 독립당(PI), 대중운동당(MP), 국민독립재건당(RNI), 사회국민연합당(USFP),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정의발전당(PJD) 등이 있다.

나. 정치 제도

1) 선거제도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공히 만 18세 이상의 모로코 국적자에게 주어진다. 모로코는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 국민투표, 의원 및 지방 선거 등 각종 선거를 치렀다. 최초의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7일의 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였다. 지난 1996년 9월 13일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을 통해 상·하 양원제를 채택했다. 최초의 지방선거는 1960년 5월 29일에 있었고, 2009년 6월 26일 선거를 마지막으로 총 9회 시행됐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1963년 5월 최초로 치러졌고 매 5년마다 선거가 있다. 지난 2011년 11월 25일에 총선이 실시되었고 온건 이슬람성향의 정의개발당(PJD)이 제1당 지위를 차지했다. 2007년 선거시 37%의 낮은 투표율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45.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총선이 1년 앞당겨진 조기 총선이었고 의회 권한이 강화된 헌법 개정안에 따른 첫번째 투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2) 정당제도 및 현황

모로코에는 18개의 정당이 난립해 있는데, 주요 정당으로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PJD(정의개발당), Istiqlal(독립당), USFP(사회, 국민 연합당)당 등이다. 2011년 11월 25일 치러진 총선 최종 개표결과 정의개발당(PJD)이 총의석 395석 중 107석을 얻어 제1당 지위를 차지했고 Istiqlal(독립당)이 60석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국왕 모하메드 6세와 정치적 유대관계가 깊은 다른 8개 정당은 총 160석을 얻는 데 그쳤다.

3) 향후 전망

2011년 2월 20일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이후 국왕직속 '경제사회위원회'가 구성돼 행정, 사법, 입법 등 국가전반의 개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7월 1일에는 국왕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돼 98%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 총선 5일 전인 2011년 11월 20일에 수도 라바트와 카사블랑카에서 3,000명 규모의 조기 총선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총선 이후에는 총선 결과 인정 거부운동이 일어났지만 현재 정부가 다방면으로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여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 행위는 잠잠해진 상태이다.

또한 모로코 국민들의 시위는 여타 아랍국들과 달리 왕권의 퇴진이 아니라 왕권 축소를 주장하는 특징이 있다. 2012년 1월에 카사블랑카에서 왕정의 정치개혁이 헌법 개정 및 총선 이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반정부시위가 재발했다.

다. 주요 인사

1) 국가원수 겸 최고 통수권자

- 직위 : 국왕 (Roi du Maroc)/ 입헌군주제
- 성명 : 모하메드 6세 (Mohamed VI)
- 출생 : 1963년 8월 21일 (라바트)
- 취임일 : 1999년 7월 30일
- 임기 : 종신
- 학력
 - 1967-1981: 왕실교육을 통해 초, 중, 고등학교 과정 수료
 - 1985: 라바트 소재 모하메드5세 (Mohamed V) 대학교 법학분야 문학사 학위
 - 1987: 모하메드 5세 대학교 정치학 석사
 - 1993: 프랑스 니스-소피아 앙티폴리스(Nice-Sophia Antipolis) 대학교 법학박사
- 경력
 - 1973.6.28 왕세자 책봉
 - 1983년 인도 뉴델리 비동맹정상회의 모로코 수석대표
 - 1988년 DELORS 전 EU 집행위원장실에서 연수
 - 1994년 모로코 군 소장 진급
 - 1999년 7월 하산 2세의 사망, 새 국왕으로 즉위

2) 정부각료

□ 총리

- 성명: Abdelilah Benkirane
- 생년월일: 1954년, Rabat 출생
- 경력
 - 국회의원 (1997-)
 - 이슬람주의 정의 개발당 총리 (2004-2008)
 - 현 이슬람주의 정의 개발당 사무총장 (2008.7-)

3) 국무 장관

- 성명: Mr. Abdellah Baha

4) 내무 장관

- 성명: Mr. Mohand Laenser

5) 외교 장관

- 성명: Mr. Saad-Eddine Al Othmani

6) 재정경제 장관

- 성명: Mr. Nizar Baraka

7) 상공신기술부 장관

- 성명: Mr. Moulay Hafid ELALAMY

8) 문화 장관

- 성명: Mr. Mohamed Amine sbihi

9) 관광 장관

- 성명: Mr. Lahcen Haddad

10) 대변인

- 성명: Mr. Mustapha El Khalfi

라. 외교관계**1) 외교노선**

모로코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비동맹 중립, 대 마그레브 권 건설, 아랍권 단결 및 아프리카의 단결과 서부사하라(Western Sahara)의 영토 보전 및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 알제리와는 서부사하라 영토분쟁으로 대립관계에 있으나, 최근(2011)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폐쇄돼있는 육로의 개방을 논의하는 등 관계 복원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부 사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의 중재 하에 분쟁 당사자인 모로코, 폴리사리오와 유관국인 알제리, 모리타니가 참석한 비공식회의에서 모로코 정부가 포괄적 서부사하라 자치안을, 알제리 정부가 독립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 실시안을 제시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모로코는 그 간 이스라엘과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아랍권-이스라엘 간의 관계 개선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하산 2세 국왕의 서거로 영향력이 감소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유혈 충돌 사태를 계기로 모하메드 6세 국왕이 관련국과의 중재역할을 수행하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유럽과는 역사, 지리, 전략적, 경제적인 이유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및 스페인이 중요한 동맹국인 동시에 최대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 관계 다변화 차원에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및 인도와 기존 비동맹 외교에 바탕을 둔 친선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인사 상호 방문 및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국제협력단(JICA), 해외협력기금(OECF) 및 어업 협력 기금 (OFCE) 등을 통해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모로코 정부가 육성하고있는 고부가 가치 제조업 관련 일본무역진흥회인 JETRO는 카사블랑카에 위성 사무소를 수개월내에 열것을 발표하는 등 항공 분야 발전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

2009년 3월 6일 모로코는 이란과의 외교단절을 선언했다. 이란 국가지도자운영위원회 소속 알리 아크베르 나테그-누리는 “바레인은 역사적으로 이란 땅 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로코는 이란이 중동 사회 및 모로코 사회에 시아파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함이라며 이란과의 외교 단절을 선언하며 중동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모로코의 이와 같은 행동이 중동의 강대국 중 하나인 이란과의 외교 단절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둔 모로코의 결정은 아랍권에서 자국 지위를 높이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 단절 후 양국간에 어떠한 교류도 없으며 2009년 모로코는 이란 원유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2월 카이로에서 열린 이슬람 국가 협회(Islamic cooperation) 회의에 참가한 모로코 총리 Abdelilah Benkirane는 이란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회동을 가졌다. 이후 인터뷰에서 모로코 총리는 모로코와 이란은 역사적으로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회동이 차후 모로코와 이란 관계 확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로코는 아랍 국가 관계에 있어 이란 같은 시아파 확장에 우려를 나타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모로코 내무장관 Mohand Laenser은 2012년 2월28일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시리아 내정 관섭과 걸프만 국가에 시아파 영향력 행사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레인과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같은 국가 같이 이란과 외교적 마찰이 있었던 국가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히며 모로코 내 시아파 세력 확장과 극단 세력 확장 방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2) 지역협력체 참여 정도

아랍 및 아프리카권 단결 정책을 기반으로 실리 추구 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 모로코는 마그레브 아랍연합(UMA) 및 아랍연맹(Arab League)을 통한 역내 국가, 아랍권 및 회교권 전체 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모로코는 1989년 2월 UMA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서부 사하라 문제를 둘러싼 알제리와의 갈등 및 서방권의 대 리비아 제재 등으로 UMA는 유명무실화 상태에 있다. 현재 모로코는 외교부 장관 주도하에 마그레브 청년연합(Union des jeunes maghébins)를 창설하는 등 UMA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EU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로서의 일체성을 부각, 아프리카 제국들에 대한 지원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폴리사리오의 OAU 가입에 항의해 1984년 OAU를 탈퇴한 바 있다. 특히 서부 사하라 이남 국가들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로코의 최대목표는 EU 회원국 가입이다. 1987년 EU에 가입 신청을 한 바 있으나 2012년 현재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모로코 수산협정과 재정 자원 협정 등을 통해 유럽연합 시장 편입을 위한 제도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0.3.1일부로 모로코-EU 간 관세 인하 협력 협정이 발효되어 지난 2012년 3월 관세가 전면 철폐되었다. 모로코는 튀니지, 팔레스타인에 이어 지중해 연안 중동국가로는 3번째로 EU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국가이다.

3) 주요국과의 관계

□ 대 프랑스관계

프랑스와 모로코는 과거 식민지 관계였다고 여겨질 수 없을 만큼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모로코 총 수출의 약 20.5%, 수입의 13%, 외국인 투자의 35.1%, 무상 원조의 30%, 해외 거주 교민의 43%, 해외 취업자 송금의 63% 등을 점유하는 제 1의 교역 및 협력국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테랑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모로코-프랑스 관계가 한때 경직되기도 했으나, 중도 우파인 시락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 교환 방문 등 관계가 강화됐다.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대 프랑스 관계는 더욱 호전돼 프랑스는 모로코에 3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으며, 고속철도 건설(Tanger-casablanca 구간)과 우라늄 추출사업 참여에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2년 프랑스와 모로코는 양국간 원자력 자원을 무기 아닌 자원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양국간 원자력발전 협약을 체결하며 지속적인 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모로코철도청(ONCF)와 프랑스철도공사(SNCF)간 기술협력 (65백만유로 규모) 등 협력협정이 체결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프랑스 전문가들이 파견되었다. 고속철도 차량과 주요 시설은 프랑스 알스톰(Alstom)사와 수의계약 체결을 맺었으며, 모로코는 오는 2035년까지 총 연장 1,500Km에 달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로코와 알스톰사와의 계약이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것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모로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고속철의 필요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고속철 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모로코 실정에 맞지 않는 대규모 공사라고 비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모로코의 재생자원 개발에 아낌 없는 투자를 벌이고 있다. 모로코 해안 지하 자원 발굴에 투자, 연구비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2013년 6월 해안자원 발굴에 관한 2개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또한 2011년부터 프랑스는 모로코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1억3백만 유로라는 거대한 자금을 풍력, 태양열 발전에 투자했다.

프랑스이민국통합국(OFIG)는 1963년 이후 2013년까지 모로코에서 프랑스로 이민가는 사람 수는 약 820,000명이며 매년 20,000 여명의 모로코-프랑스 이민자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모로코로 떠나는 프랑스 퇴직자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2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퇴직자 층이 연간 4만 명 이상이 모로코에 다녀가며 그 중 아예 모로코로 이주하는 퇴직자들 수도 점점 늘고있다.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과는 역사, 지리, 전략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 제1차 모로코-EU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안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 대 미국관계

1787년에 모로코가 신생 독립국인 미국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이후 미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1년에 9.11 사태 발생 이후 모로코는 미국의 대 중동 외교정책의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1956년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동 평화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미국의 대 중동 외교정책에 중요한 동반자 위치를 굳히고 있다. 동서 냉전시기도 미국과 구 소련 양 진영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균형 외교를 펴 왔다.

한편 모로코는 1981년 구 소련이 폴리스اريو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으나 걸프전 발발 시 쿠웨이트를 즉각 지원하여 미국으로부터 차관 지원 및 서부 사하라 문제에 있어 모로코에 대한 지원을 약속 받은 경우를 보면 실리 외교에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9.11일 사태 이후 아랍 국 중 미국에 가장 협조적인 나라로 인식 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 모로코- 미국 간의 FTA협정체결로 경제, 정치적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

2013년 9월 13일 워싱턴에서 이루어진 외교부 장관급 회담에서 양국은 앞으로 매년 전략적 회담을 워싱턴과 라باط에서 교차 개최하기로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견고한 협력관계를 다졌으며 자원, 식량안보에 관한 공동 실무그룹을 꾸려 연구를하기로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모로코는 미국으로부터 약 35억달러의 수입량을 기록하여 미국이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3번째 수입국가로 집계되었으며 미국에서 모로코는 아랍국가 중 6번째로 큰 수입국가로 집계되었다. 한편 2012년 9월 '무슬림의 순진함'이란 조악한 3류영화 예고편에서 촉발된 반미시위는 모로코에서 이란까지 거의 아랍권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서 제작된 영화에서 이슬람 선지자 모하메드를 모욕한 것으로 간주한 이슬람권 주민들이 격한 반미시위를 벌였으며, 이집트와 리비아에 이어 예멘과 모로코, 튀니지, 수단등지로 확산됐다. 이와함께 미국과 적대적인 이란과 동시에 우방인 바레인에서도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또한 미국과 모로코는 2001년부터 African Eagle으로 명명된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위 공동 군사 훈련은 미군 1200명, 모로코군 900명, 약 2100명 규모의 훈련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되는 연간 훈련 중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훈련이다.

양국의 공동 훈련 목표는 모로코와 대테러 공조 및 상호 작전 능력 재고이며 12~18개 작전 수행 및 실 사격 훈련, 육해공 합동 훈련, 저공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양국간의 군사훈련이 무마될 뻔 한 위기가 있었다.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독립 연맹의 분쟁 지역인 서 사하라에 대한 UN의 인권 유린 모니터링 제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이 위 제안의 지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서사하라 분쟁에 민감한 모로코 측이 공동 군사 훈련을 철회했었다. 그러나 미국토보안부 고문과 모로코 측의 논의 끝에 미국이 해당 제안의 지휘 주도권을 철회하면서 양국의 공동 군사 훈련은 재개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미국이 모로코와의 군사 훈련 보다는 최근 발생한 말리 사태와 알카에다 및 테러 세력에 대한 감시, 북 아프리카 정세를 관찰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21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가 워싱턴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모로코 양국은 목요일, 세관 및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양국 간 무역 교류를 촉진하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양국 합의에 서명을 했다. 재정경제부 장관, Mohamed Boussaid와 미국 무역 대표부(USTR)의 Michael Froman은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모로코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환경 개선을 돕는 협정에(2006년부터 발효) 서명한바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에 따르면, 모로코는 미국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양쪽 협정을 맺는 중동 지역의 첫 번째 나라'를 대표하며, 앞으로 '투자에 대한 공동 원칙'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서비스 무역'을 맡게 될 것이라 밝혔다. 2006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래로 모로코와 미국의 무역 교류는 크게 증가 했으며, 양측 무역 총량은 전반적으로 300% 증가를 기록했다. 모로코에 대한 미국의 외자유치는 2012년 주식시장의 투자가 6억 달러 정도로, 같은 기간 4배나 증가하였다..

□ 대 알제리 관계

서부사하라에서 스페인을 축출하기 위해 1967년 알제리와 모리타니아와 함께 서부 사하라 독립 운동을 지원한 경우와 1969년 알제리에 분쟁 지역을 양보함으로써 서부 사하라에 대한 주도권을 얻음과 동시에 알제리와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75년 모리타니아와 서부 사하라 영토의 분할 소유에 합의함에 따라 알제리와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하산 2세 전 국왕이 1989년에 리비아, 튀니지, 모리타니, 알제리와 아랍마그레브연합(UMA)¹⁾을 창설하여 북아프리카 아랍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모색하였으나, 서부사하라 영유권 문제로 알제리와 갈등관계를 지속하면서 협력 관계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 총선 이후 신임 외무부 장관이 2012년 1월 알제리를 방문하여 알제리 대통령과 양국 관계 진전 방안 및 UMA 부활을 통한 정치·경제협력 활성화를 논의하는 등 최근에는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1년 알제리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 해 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94. 8월 마라케쉬 ASNI 호텔에서 발생한 호텔 습격 테러범들이 알제리에 의해 사주됐다는 혐의로 양국 국경은 2012년 현재 폐쇄돼 있다. 2012년 현재 양국 대립비용만 연간 국민총생산의 1%를 차지할 정도로 두 나라의 경제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한편, 2011년 11월 총선 이후 신임 외무부 장관이 2012년 1월 알제리를 방문하여 알제리 대통령과 양국 관계 진전 방안 및 UMA 부활을 통한 정치, 경제, 협력 활성화를 논의 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모로코 라바트에서 모로코-알제리 산업 포럼이 개최되어 알제리의 영향력 있는 기업의 대표들과 모로코 수출업 협회, 경제인연합회, 주요 금융사, 상공회의소 등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사하라 사막 분쟁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은 제외한 채 상업과 경제 관련 회의만 진행, 양국간 상업적·경제적 파트너십 증진, 시기성과 상호보완성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 이후 알제리는 9월 12일 모로코와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등 사하라 인접국가들을 알제로 초청해 서사하라 문제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사하라 국토분쟁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론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2012년 현재 모로코 대 알제리 교역규모는 82억 디람인데 반해 교역량의 85%가 수입으로 모로코는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 하고있는 바 향후 알제리로의 수출량을 늘려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 중국 관계

1956 년도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후 처음으로,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 세가 2002 년 2 월 5 일 중국 방문을 하였으며, 모로코 국왕의 중국방문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99 년 10 월 모로코를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02 년 양국은 보건, 관광, 환경 등 6 개 분야에 이르는 사회발전 공동 협약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는 발전하기 시작 하여, 중국은 2013 년 전반기 미국을 밀어내고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모로코 수출량은 지난 5년간의 수치보다 두배 가량 증가하며 2011년 28억불을 기록했다. 중국의 모로코 제품 수입 규모는 2.3억 달러(2011년)로 모로코에 대해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양국 간 첨예한 경제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로코는 올 8월 15일 중국산 베니어 합판에 대해 25%의 반덤핑과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조치를 취했다. 이전엔 수량제한조치를 통해 중국산 제품의 과도한 반입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 양국간 대립이 예상된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모로코 여러 산업분야에 투자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철근 공장 (Faston 사) 및 오토바이 조립공장(Motochina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최근 모로코는 중국과 인산비료 수출량을 기존의 12,000톤에서 50,000톤으로 증가시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역량은 점차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 기타

2011년에 정부가 칠레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10년부터 캐나다와 FTA 체결 협상에 착수하였다.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관계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제 10회 청소년 아프리카 국가컵 축구대회와 2015년 제 27회 아프리카 국가컵 축구대회(African Cup of Nations)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마. 최근 정치 현안

1) 테러

2007년 중 2차례에 걸쳐 알카에다의 사주로 알려진 테러 시도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의 테러목적은 사회 불안심리 조성과 미국 대사관 공격이었으나 모두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모로코는 유럽과의 인접성으로 인하여 이슬람 세계에서는 상당히 개방된 편인데, 원리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알카에다의 입장에서는 모로코가 이슬람의 율법을 많이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를 느껴왔다. 2011.4.26일에는 관광도시인 마라케시에서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테러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2) 밀수

모로코는 밀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로코 소비시장의 경우, 구매 결정에 있어 제품 품질보다는 가격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여 수입된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밀수거래로 인해 암시장 성행, 탈세, 제조업 발전 저해, 불량제품 유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제품의 유통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밀수는 주로 스페인과 인접한 지중해 연안을 섬들을 거점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북부 Nador, Tanger 등이 내륙 밀수 거점 지역이다. 밀수된 제품들은 메디나(Medina, 구도심)의 재래식 시장(수크)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담배, 술, TV, 오디오 등 전자제품,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모로코와 알제리 간 국경지대 밀수 척결을 위해 양국이 대안을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대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 간 정치 갈등으로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밀수입 시장 발전은 알제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밝히며 국경지역, 즉 서남 알제리 지역과 동 모로코 지역의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상업 시장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하였다. 국경지역 발전은 누구나 보증하는 매우 유리한 지역이나 매번 모로코-알제리간 정치적 대립으로 양국 근접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무산되거나 힘들어 졌다.

모로코 정부는 밀수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량의 제품이 암거래되고 있어서 모로코 정부는 군 병력까지 투입하는 등 척결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3) 서부 사하라 문제

모로코는 과거 스페인 자치령이었던 서부사하라를 1974년부터 사실상 통치하고 있으며 현지의 주민들은 폴리사리오(Polisario) 전선을 결성해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은 알제리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내전을 계속해왔으나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은 지난 1988년 유엔 중재의 평화안을 수용해 내전이 일단락되었으며 1991년 유엔 사하라주민투표감시단(MINURSO)이 그 지역에 파견되었다.

유엔이 내린 중재안은 주민투표를 진행해 서사하라의 독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후 양 당사자는 유권자의 대상을 놓고 대립하여 주민투표는 1992년 1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 후 모로코는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 측의 주민투표 조기 실시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이로써 서부 사하라 지역의 분쟁은 해결의 가능성이 요원한 상태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인광석과 수산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의 영유권 문제가 주변국의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모로코 정부는 서부사하라 지역에 군 시설을 설치하고,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등 영유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엔 서부사하라 투표임무단(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the Western Sahara: UN MINURSO)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중국, 프랑스, 이집트, 러시아 등에서 219명이 파견, 주재 중이다.

2012년 모로코는 서부사하라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진 알제리와의 관계 재구축에 나섰으며, 폴리사리오 측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였던 OAU(아프리카 통일기구)와도 협상을 통해 서부사하라의 실질 자치를 인정받으려 하고있다. 위 문제에 대해 모로코는 알제리와 모리타니, 기니 등과 9월 회담을 통해 국제기구에 모로코 자치안을 승인받는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폴리사리오 측이 난민을 억압하고 테러위협과 마약, 무기밀매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다.

서부 사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의 중재 하에 분쟁 당사자인 모로코, 폴리사리오와 유관국인 알제리, 모리타니가 참석한 비공식회의에서 모로코 정부가 포괄적 서부사하라 자치안을, 알제리 정부가 독립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 실시안을 제시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부 사하라 분쟁 문제는 말리의 계속되는 내전 등 불안정한 국가 상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2012년 모로코, 알제리 양국의 대립비용만 연간 국민총생산의 1%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기에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오바마 대통령, 사하라 자치 정부 수립 계획 찬사를 보냈다. 2013년 미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방미 한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했다. 미 민주당 행정부와 오랫동안 분쟁 주제였던 사하라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지난 4월, 유엔 서부사하라 총선지원단(MINURSO)의 위임 연장에 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협상 때 취한 입장과는 다르게 변경했음. '미국은 모로코가 제안한 자치 정부 수립 계획은 진지하고 현실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고 보며, 사하라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고 본다'고 백악관의 대변인이 발표 했다. 정상회담이 있기 몇 시간 전에 Jay Carney(백악관 대변인)는 모로코 자치 계획에 대해 '진지하고,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를 내렸다.

4) 반정부 민주화 시위

모하메드 6세 국왕이 1999년에 즉위한 후 입헌군주제와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아랍 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2011년 2월에 튀니지 민주화 혁명의 영향을 받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1년 3월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능 강화, 사법권의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7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년 9월과 2012년 1월에 카사블랑카에서 왕정의 정치개혁이 헌법개정 및 총선 이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가 재발했다.

5) 국왕 특별 사면 시위

2013년 7월 30일 모로코 국왕 무함마드는 어린이 성범죄자인 스페인 국적의 다니엘 갈반(64)을 사면했다가 수만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서자 다음달인 8월 4일 뒤늦게 사면을 철회했다.

스페인 부유층인 갈반은 모로코 현지 아파트 두 채를 사놓고 살면서 3~14살 빈곤층 어린이 11명을 끌어들여 성폭행하거나 포르노 영상을 찍은 범죄 사실이 인정돼 2011년에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지난달 모로코를 방문한 스페인 국왕은 자국민 죄수 사면을 부탁했고, 모로코 국왕은 즉위기념일 특사로 스페인 죄수 48명을 사면했다. 갈반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도 라바트와 카사블랑카 등 대도시에서 수만명이 시위에 나섰고, SNS 등을 통해 8월 6~7일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었었다. 국왕은 뒤늦게 “사면 당시 범죄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당장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는 성명을 내고 “왕실법원의 요청에 행정부가 수감자의 범죄 기록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교도소장을 해임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왕의 사면 철회에 따라 스페인 경찰은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의 사면으로 풀려난 소아성범죄자 다니엘 갈반을 스페인 남동부 무르시아에서 체포했다고 내무부가 밝혔다. 모로코 국왕 대변인에 따르면 갈빈 비나는 마드리드로 이송돼 스페인 최고형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6) 2014년 재정안, 부가가치세 인상조정

새로운 부가 가치세 인상 품목

- 0% → 10% : 원목, 농업 제품
- 0% → 20% : 수산업 기계 및 그물, 파라핀(양초), 건과일
- 7% → 19% : 정어리 통조림, 가축 사료
- 14% → 20% : 유지방 제품, 마가린, 영업용 자동차
- 10% → 20% : 쌀, 소금

2014년 1월부터 농산품을 비롯한 모든 소비재와 서비스 제품 부가 가치세가 상승할 전망이다. 모로코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제품 중 하나인 정어리 통조림의 경우 현재 7%인 부가 가치세가 2014년 10%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모로코 농수산업 조합 회장인 Hassan Sentissi는 모로코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제품 중 하나인 정어리 통조림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더구나 정어리 통조림은 모로코 생선 통조림 산업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정어리 통조림 외에도 참치 통조림과 고등어 통조림도 각각 2%, 10%의 세금 인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부가 가치세 조정인상은 정어리 통조림 뿐 아니라 건과일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월부터 건포도와 건무화과에 대한 세율이 약 20%까지 오를 전망이다.

의회 의결로 제정된 이번 부가가치세 조정안은 초안과는 아무런 변동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조정 초안에서 다루었던 차에 대한 부가 가치세 인상은 변동없이 진행되어 현 14%에서 20%로 상승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은 가격인상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 동안 면세 제품이었던 EU지역 알콜 제품과 아프리카 지역 커피에 대해선 최소 2.5%의 인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커피와 차 중개업자들은 이번 인상 조정안으로 인해 커피, 차 시장에 더욱 많은 밀수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밝히며 연간 소비량 50,000톤 중 약 6,000톤의 밀수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기름(식용)제품에 대한 인상도 이루어 질것이며 현 10%인 부가가치세를 20%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리브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은 철회 되었다. 올리브유 세금 철회 배경에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식료품이라는 점, 빈곤층 및 서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점, 제품에 대한 세금 식별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모로코 농수산 협회는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 조정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이론적으로 안정을 찾아 줄 수는 있겠지만 농수산 업자들에게는 굉장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 밝히며 이번 조정안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또한 농수산 협회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항상 주장했던 농수산 제품에 대한 세금 인하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졌다며 농수산 제품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세금 인하라 주장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협정

2001년 설립된 세계 은행의 국제 정보 격차 해소 재단(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Inc.)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보 통신 교육 정보화 자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3년 모로코의 전자 정부 구축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의 파트너로 한국이 선정되어 한국 전산원은 2004년 1월 27일 세계은행 국제정보 격차 해소 재단(DGF)과 모로코 국가 정보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계약을 맺고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양해 각서에는 전자정부 로드맵수립, 국가 통신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DGF로부터 실비 수준의 12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술 실무자들이 모로코에 파견되어 모로코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 정부 및 초고속 국가망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술 자문을 담당했다. 모로코 정부의 전자 정부 프로젝트 책정 예산은 6,000만 달러 규모이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모로코는 정보화 의지가 높고 통신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이다.

이후 모로코 정부는 2009.10월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추진전략 (MarocNumeric 2013)'을 채택하여 정보통신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한국 정부와 '정보보안센터(Ma-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구축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1월 2일 정보보안센터를 개소했다.

2011년 3월 국내 기업 LG CNS는 모로코 정부기관 해킹 방지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동년 7월에는 센터의 완공에 앞서 모로코 산업신기술부의 부커 바드르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LG CNS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초청으로 국내 주요 IT와 정보보안 시설을 탐방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모로코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5일간의 연수 과정을 통해 정부통합산센터 및 문화관광부 보안센터 등 주요 시설을 벤치마킹했으며, LG CNS와 모로코 전자정부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한-모 공동위원회

1986년부터 추진된 양국 장관급 경제협력회의로서 2009년 한국에서 개최됐으며, 2012년 개최는 9월 중으로 예정되어있다. 올해 회담에 앞서 모로코 외교장관인 Saâd Dine El Otmani은 5월 7일 김성한 외교부 제2차관과 한-모 수교 50주년 기념 회담을 가진 이후 성명을 통해 한-모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며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노하우와 인력을 전수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09년 공동위원회에서 모로코 측이 발표한 인프라 구축 계획과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다.

- 인프라 구축: 130 억 달러
- 관광산업육성: 50 억 달러
- 상수도보급확대: 23 억 달러
- 에너지확충: 30 억 달러
- 고속도로 건설: 100km/년
- Tanger 항만확충

- 모로코의 산업육성 전략
 - 서비스(offshoring): 19 억 달러(2013 년까지, 고용창출 10 만 명)
 - 식품, 섬유, 공예품, 수산물
 - 자동차 (140 억 유로)

모로코는 이러한 발전 전략에 따라 10년 동안 매년 GDP 1.8% 성장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44만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무역수지 적자를 5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모로코 외무부 본부대사는 공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한-모로코 경제 협력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 한국기업의 대 모로코 투자진출 확대
- 은행, 금융 부문에서의 양국 간 업무 약정 체결
- 모로코 제품을 한국에 홍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모로코 상품전 개최

2012 년 제 6 차 공동위원회는 11 월 모로코에서 진행되었다. 모로코측 수석대표로는 Abdelkader AMARA 상공 신기술부장관, 한국 측 수석대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포함 총 13 명 (외교부 8 명, 관계부처 5 명)이 참가했다.

우리측 의제는 모로코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모로코 국책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분야 강화였으며 모측 관심사항은 한국의 대모로코 투자확대, 개발협력, 한-모로코 아프리카 삼각협력사업, 수자원환경 협력, 정보화 협력 등이다.

다. 한-모 산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1년 5월 23일 카사블랑카에서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와 모로코 상공신기술부 간에 산업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각서는 양국 간 평등과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두고 민관 산업, 투자,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한-모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유리한 기후적, 지리적 조건을 보유한 모로코와 풍부한 자본 및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양국 정부간 장기적인 산업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제1차 한-모로코 산업협력위 개최를 추진했다.

두 나라는 양측이 합의하는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며, 격년 마다 개최되는 한-모 공동위원회의 분과위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각서는 발표일(11.5.23일)부터 5년간 유효하여 이 후 5년 단위로 갱신된다. 2012년 3월에는 포우아드 도우이리 모로코 에너지광물수자원환경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수자원 관리 및 4대강 사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결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2012년 3월 26일 모로코와 수자원 관리 및 4대강 사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그동안 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모로코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4대강사업 해외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물자원 관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와 모로코의 교류가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이 모로코에서 발주예정인 '세보우(Sebou)강 유역정비사업'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지원과 관련국 고위급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로코로 출국했다. 모로코 '세보우강 유역정비사업'은 세보우 강 유역 4만km²에 약 6000억 달러를 투자해 댐 건설, 제방축조, 수로변경 등을 하는 지역 홍수방어 프로젝트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모로코에서 오마르 카바즈 국왕고문 등과 만나 국내기업의 모로코 세보우강 유역정비사업 수주활동에 대해 회동을 가졌다.

라. 정의화 국회의장 및 국회대표단 모로코 공식방문

2012년 1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대표단(이철우, 임해규, 강성천 의원 등)은 모로코를 방문하여 모하메드 셰이크 비아딜라 상원의장, 카림겔라브(Karim Ghellab)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면담을 가지고 하원 본회의장을 시찰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정의화 부의장은 “2012년은 한-모로코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로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되기를 희망한다.”고 인사한 뒤 지난 3월 26~27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 모하메드 6세 국왕 방한 초청이 성사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의화 부의장은 “모로코는 지중해와 대서양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한-모로코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바, 양국간 교류가 높은 잠재력에 비해 부족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주재국 내 첫 플랜트 사업을 수주한 Jorf Lasfar(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향후 우리 기업들의 모로코 투자 및 교역관계도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하며, 모로코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 한-모로코 수교 50주년 기념 공식방문

김성한 외교부통상부 제2차관이 한-모로코 수교5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5.6(일)~9(수)간 모로코 방문했다. 방문기간 중에는 Mr. Benkirane 정부수반, Mr.El Otmani 외교부장관, Mr.Sbihi 문화부장관을 포함한 모로코 정부지도자들을 만나 양국관계 증진방안을 함께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KOICA봉사단원 오찬 간담회, 모로코 진출 기업인 대표 간담회, 한-모로코 중등교사양성 IT센터방문 및 기념식수 등의 일정도 가졌다.

바. 한국-모로코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우리나라와 모로코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교육 분야에서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공동위원회가 2012년 6월 25일(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 우리측은 한충희 문화외교국장이, 모로코측은 Lamia Radi(라미아 라디) 외교부 문화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한-모로코 양측은 2013-2015 문화교류시행계획서에 서명하고, 2012년 한-모로코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평가했으며, 영상, 교육, 청소년, 문화유산 등에 관한 교류를 포함, 문화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모로코 문화공동위는 양국간 문화, 과학협력협정(1977)에 의거 1993년 제 1차 회의(서울), 1999년 제 2차 회의(라바트), 2007년 제 3차 회의(서울), 2009년 제 4차 회의(라바트)가 개최된 바 있다.

문화공동위원회를 전후해서 양국간 문화교류행사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한-모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2012년 5월 8일과 10일에 수도 라바트와 카사블랑카에서 한국 비보잉팀과 모로코 공연팀의 합동공연이 펼쳐졌고, 2012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주모로코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Martil, Fés, Khouribga 총 세 개의 지방도시에서 한국영화 '미녀는 괴로워'가 상영되었다.

사. 한-모로코 플랜트산업 협력 포럼 개최

한국플랜트산업협회 KOPIA(Korea Plant Industries Association)와 KOTRA(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가 주최하고 한국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한-모 플랜트포럼 (KOREA-MOROCCO Plant Cooperation Forum)』이 국내외 100여명의 주요 인사 및 기업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012년 6월 26일 카사블랑카 골든튠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모로코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계획을 필두로 도로와 항만, 철도, 통신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다 과거 유럽 일변도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번 행사는 어느 때 보다 양국기업의 관심이 높았다.

이성욱 KOPIA부회장의 개회사와 이태호 주모로코한국대사의 축사, 모로코 에너지광물환경부 국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하였으며 1부에서는 모로코 전력청(ONE), 인광석공사(OCP), 전력회사(Cegelec)의 각 기업의 활동분야 및 향후 계획등을 발표하며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식의 2부에서는 KOPIA, GCS, 현대중공업이 각각 플랜트 산업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기업소개, 프로젝트 소개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후 양국 업체들의 B2B미팅이 이어져 개별적인 상담활동이 이어졌다.

한편 Jorf Lasfar의 화력발전단지 수주를 필두로 하여 우리 기업들의 모로코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포럼의 개최는 양국간 산업 협력에 방향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양국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연수과정에 참가자 주모로코 한국 대사관 방문

2012 9월, 서울에서 3주간 실시된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 (Gestion et Développement des Ressources en Eau)” 연수과정에 참여한 모로코 정부 중견관리들이 방한에 앞서 대사관을 방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이 연수과정은 2012년에 처음 실시하는 KOICA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수자원 개발 및 관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한-모로코 수교 50주년 발전경험 공유 세미나 참석

2012년 10월 30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한-모로코 수교 50주년 발전경험 공유 세미나’에 참석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세미나에서 ‘Future Vision of Korea: Hub of Talent and Knowledge’ 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동일 라흐리미 알라미 모로코 기획부장관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차. 대우건설, 모로코 인광석 프로젝트 관련 진출

대우건설은 모로코 인광석 공사(Office Cherifien des Phosphates: OCP)로부터 3억 2,800만 달러 규모의 인광석 비료공장 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건설 중에 있다.

모로코 경제수도인 카사블랑카에서 2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죠르프라스파(Jorf Lasfar) 복합비료 산업 단지에 2곳을 건설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완공 예정이다.

2012년 1월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은 OCP로부터 760억원 규모의 인광석 및 비료 수송용 이송장치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28개월간 카사블랑카에서 조르프라스파 산업단지에 인광석 및 비료를 수송하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를 11km 구간에 걸쳐 설치하는 공사로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EPC)한다.

카. KT, 모로코 이동사 'Maroc Telecom' 인수 추진, 결국 포기

KT가 모로코 이동통신업체인 마로크 텔레콤 주식 인수에 나서며 두 번째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나섰다. 2012년 12월 26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KT는 프랑스 통신기업 비방디 SA가 소유한 모로코의 이동통신사 마로크 텔레콤 주식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의향서를 제출했다. KT는 11월 17일,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것이라고 밝혔다. 마로크 텔레콤의 최대 주주인 프랑스의 통신·미디어 그룹인 비방디 유니버설은 마로크 텔레콤 주식의 53%를 55억 유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KT가 비방디가 소유한 마로크 텔레콤 주식 전체를 인수할 경우 1대 주주 지위에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2013년 4월, KT는 모로코 통신사 인수를 포기했다. KT측은 마로크텔레콤의 시가와 KT가 입찰하려는 금액의 차이가 커 입찰 경쟁에 참여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1대 주주 참여를 위한 경쟁 입찰에는 참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사업협력 등 다각적인 형태의 투자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투자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타. 한국기술교대, 모로코 자동차 기술 훈련원에 기술 전수

모로코 정부는 지난 2008년 자동차산업 기술인력 양성과 고용창출을 위해 한국 측에 '자동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을 요청했고, 코리아텍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가 KOICA의 '모로코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을 용역 받아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013년까지 2월까지 3년에 걸쳐 위 사업을 진행했다.

코리아텍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모로코 자동차직업훈련원을 위해 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수립, 모로코 고용직업훈련부 차관 및 훈련원장, 공무원 등 관리자 한국기술교육대 초청연수, 모로코 직훈련 교사 한국기술교육대 초청연수, 책임 전문가 파견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모로코 자동차 직업훈련원의 3개 공과 6개종의 교재(기계공과, 자동화시스템공과, 자동차공과)를 주도적으로 개발했다.

모로코 자동차 직업훈련원의 명칭은 이프미아 카사블랑카(IFMIA Casablanca: L'Institut de Formation avancee Aux Metiers de L'Industrie Automobile a Casablanca)으로 공식적인 공립학교로 승인돼 올해 2월 90명, 8월 90명 등 총 180명의 공과학생을 모집했다. 이들에겐 자동차 훈련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입학생들은 자동차관련 산업체에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등 이프미아 카사블랑카는 모로코에서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프미아 카사블랑카는 2013년 10~11월경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파. 대우건설 모로코 사피지역 화력발전소 건설권 수주.

대우건설이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2조원 규모의 발전소 공사를 따냈다. 대우건설이 1976년 해외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수주한 단일 해외 건설 공사 중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은 2013년 8월9일 모로코에서 1조9710억원 규모 사피 민자 발전 사업의 설계·구매·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민간 사업자인 '사피 에너지 회사'가 발주한 것으로, 약 4년간 사피 지역에서 남쪽 해안가에 1320M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공사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로 모로코에서 총 34억6100만달리(약 3조8548억원) 규모 공사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 국내 건설사가 모로코에서 지금까지 수주한 공사의 89% 수준이다. 모로코 진출은 1998년이지만, 201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비료 플랜트 등 대형 공사 3건을 잇따라 수주했다.

하. 전북대, 모로코 태양광 기술작업 전수 '순항'

전북대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가 모로코 연구진을 초청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태양광 에너지 기술 전수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2013년 6월 모로코 정부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공무원들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지원센터는 2013년 10월 22일부터 최근까지 모로코 신재생에너지연구소(IRESEN) 연구원과 모로코대학 교수 등 11명을 초청,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와 결정질 태양전지 및 모듈, CIS계 박막태양전지, 유기태양전지 등 태양광에너지 전 분야에 걸친 교육을 펼쳤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는 모로코 신재생에너지연구소에 우리나라 첨단 기술로 제작된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공정연구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장비 설치 후에는 2개월간 국내 최고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 전수 역할을 주관한다.

이 사업의 책임을 맡은 양오봉 교수(화학공학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전북대가 이러한 공적 원조사업 수행을 통해 단순 원조가 아닌 실질적인 국제협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태양광 기업과 모로코 간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로코 태양광에너지 연구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지난 2011년 12월에 전북대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22억원의 사업비로 수행 중에 있다.

II.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2013					
국가 일반	인구	(명)	3,264 만명					
	면적	km ²	710,850 km ²					
	한반도 대비면적	배	3.2 배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1Q)	2013 (2Q)	2013 (3Q)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3.7	4.3	3.7	4.5	4.5	4.5
	1 인당 GDP	US \$	4,708	4,921	5,252	5,537	5,426	51
	명목 GDP	US \$	90,802	99,027	100,221			
	정부부채/GDP	%	48	51.3	54.3	66.7		59.6
	소비자물가상승률	%	1.0	1.4	2.0	2.5	1.5	1.3
	민간소비변동율	%	5.5	5.38				
	종합주가지수							
	실업률	%	9.1	9.2	8.9	8.7	8.8	8.9
대외 경제	수출실적	백만 US \$	17,584	20,980	21,367	5,154	5,782	5,226
	수입실적	백만 US \$	32,646	40,376	44,522	10,401	11,987	10,999
	대외의존도	%						
	무역수지	백만 US \$	-15,062	-19,397	-23,155	-5,247	-6,195	-5,773
	민간투자증가율	%						
	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백만 US \$	46.8	34.4	23.9			3,214
	총외채	백만 US \$	26,577	28,079	25,700	13,794	13,740	14,630
	외환보유고	백만 US \$	23,613	21,018	15,595	13,663	17,034	17,963
	이자율	%	3.2	3.2	3			
	환율	Dh/ US \$	8.42	8.07	8.51	8.55	8.4	8.4

자료: 모로코 통계청, 외환청, IMF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2013년 경제상황

제조업, 건설업, 관광업 등 주요 산업 활동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은 2011년 4.3%을 기록하고 이어서 2012년에는 여름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작황 부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최대교역국인 유로존의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2.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에는 작황이 개선되어 4.5%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된다.

모로코 주요 수출품인 인광석 및 파생품 수출량이 증가했으나 인광석 원자재 값 하락으로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21.2% 감소했다. 탕제 르노공장의 전반기 차량 수출량이 9월기준 10만대를 넘기며 원래 목표를 초과달성함에 따라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조업 생산이 2012년 대비 0.6% 상승해, 자동차 산업(17.5%), 항공 산업(19.2%), 정유 산업(3.5%), 전자 산업(9.9%), 식품 가공 산업(7.4%) 등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에너지 및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물가억제정책과 유로에 연동된 타이트한 환율정책으로 큰 변동없이 2011년 1.4%에서 2012년 2.0%로 조금 오른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9월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 발표 기관인 World Economy Forum에 따르면 2013년 물가상승률은 1.3%를 기록 총 대상국 183개국 중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IMF는 2014년 모로코 물가 상승률을 1.7%로 기록, 안정적인 물가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모로코 실업률은 8.9%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2분기 기준 8.8%을 기록했다..

모로코 경제에서 농업은 2013년 1분기를 기준으로 GDP의 16.2%, 고용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3년 3분기 기준 농업은 2012년도 동기간 대비 가공식품 및 농업 부분 수출량이 7.7%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제조, 관광, 금융 부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농업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52.6%, 인광석 등의 광업 및 섬유, 식료품 가공 중심의 제조업이 32.7%, 농업 및 수산업이 16.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 전반이 중동의 정세, 테러 발생 유무, 유럽 경기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쉽다.

2013년 8월 기준 모로코의 대외교역액은 약 5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부내용으로 2012년 동기간 대비 수입은 -2.4% 감소한 375억 달러, 수출은 -1.4% 감소해 2012년도 전반기와 비슷한 180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약 194억 달러에 달해 전년도 대비 3.4% 증가했다.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로서 관광수입과 해외거주 교민송금으로 보전되고 있다. 2013년 8월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32% 상승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약 270억 디람으로 나타났으며(2012년 160억 디람) 투자 수입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상승했다. 2013년 9월 기준 OCP의 인광석 수출 금액이 2012년 동기간 대비 약 21.2% 감소 약 294억 디람을 기록했다. 하락세는 세계 경기 악화로 인해 2014년 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설로 한바탕 흥역을 치른바 있는 모로코에 대해 IMF는 2011년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외자유치와 기간산업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요 수출품인 인광석 및 파생품 수출 호조, 탕제 르노 공장의 생산량 증가, 관광산업의 부활이 무역적자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Standard&Poor's, Moody's, Fitch 등 3대 신용평가기관들은 2013년 모로코 경제전망을 놓고 모로코 최대 교역국인 유로존의 채무 위기와 가뭄현상, 고유가에 따른 경제위기를 이유로 들면서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나. 2012년 경제동향

모로코 정부와 민간경제인들은 2012년 실질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인 3.7% 보다도 더 하락한 2.9%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농업수입 부가가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실제로 2012년 1분기 IS(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4%, IR(소득세)는 24.5% 각각 증가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 IMF와 World Bank는 모로코 2012년 경제 성장률을 3.7%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은 2012년 꾸준히 이루어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에 각 부문별 성장률이 소폭 감소했다. 2012년도 전년도대비 정유제품 2.7%, 천연고무 및 플라스틱 0.3%, 기타비금속광물제품 0.2% 감소했고, 식품 부문만 0.9% 증가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환율정책과 보조금지급 등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밖에 실업률은 9%대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도시거주자와 고학력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2011년 총선 전후로 확산된 민주화 시위와 관련하여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사업확대 정책에 따라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집트, 튀니지 지역 정세가 불안하고 지난 9월 반이슬람 영화로 인한 반미 감정 격화와 리비아 미 대사관 폭탄테러로 인해 서방국가에 대한 적대감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국, EU 등 서방세계와 관계가 돈독한 모로코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의류, 자동차 외주물량이 모로코로 몰리면서 관련 부품소재와 기계장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12년 무역수지적자는 1,984억 디람에 달해 전년도 대비 8.6% 증가했다. 수출이 4.7%, 수입이 6.7% 증가를 기록하였는데 에너지 품목 소비 증가, 곡물 구입량 증가와 세계 시장에서 모로코의 대외 경쟁력 약화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외교역규모는 2012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에 비해 수입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상수지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12년 수출액은 1,832억 디람이며 수입은 3,816억 디람이며, 외채는 257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유류보조금과 식품 보조금 비율이 높으며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 운영비를 50% 대거 삭감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확립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런 기조에 따라 2013년 예산안 입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예상밖의 경제성장을 둔화와 무역적자 심화로 예산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재정적자까지 심화되면서 보조금 개혁, 임금인상폭 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석유값 인상은 특별한 부메랑 효과 없이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탄가스, 밀가루, 설탕 등의 보조금을 낮추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연금제도 개혁도 퇴직연령과 분납금 인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제도 개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모로코의 PIB(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7.5%대이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모로코 정부는 현 재정 적자를 PIB의 5%대로 유지하는 한편 2016년 까지 3%대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무원 임금인상, 보조금 지출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비가격지수는 상반기 평균 109.95(기준 100)이며 매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7월에는 전월대비 부동산 경기 침체, 주가 하락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금류 사육, 과수, 채소 재배 피해가 잇따르며 0.3%(식료품 0.7%, 비식료품 0.1%) 상승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금융업

1) 금융 시장 개황

모로코의 금융 기관은 중앙 은행, 16개의 상업은행, 보험회사, 주식시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1959년 설립된 모로코 중앙 은행인 BANK AL-MAGHRIB는 발권 은행으로 외환 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시중 은행을 통제, 정부의 재정 정책을 자문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의 기초를 인플레이 억제, 모로코 디람화 가치 유지에 두고 있다. 모로코에는 15개의 금융 기관이 있으나, 이중 3개 대형 은행이 예금의 63%, 대출의 55%를 차지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소득층이 양극화돼 저축률이 낮은 편이고 부유층은 아직도 부동산 투자에 매력을 갖고 있다.

경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1993년부터 자유화되었으나 자본 거래는 아직까지 규제되고 있다. 1996년 BIS비율 8%가 도입되었고, 단일 차입인에 대한 대출제한 비율이 자본금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모로코 정부는 최대교역대상인 유럽연합(EU)통화인 유로화에 자국화폐인 디람의 가치를 연동하는 환율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2012년 1유로=11.04 수준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화에 대한 디람의 가치는 다소 평가 절하되어 2013년 기준 1달러= 8.4 디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은행제도

모로코는 프랑스 금융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중앙 은행, 상업 은행 16개, 정부 소유의 특수은행 5개 및 신용조합 15개와 보험 회사, 연금 기금 및 주식 시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신용 및 자금 공급을 직접 통제해 왔으나, 1991년 금융 자율화 조치 이후 신용 공급이 자율화됐으며, 중앙 은행에서 이자율 조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조정 및 개입하고 있다.

시중 은행은 대부분 유럽계 은행들이 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며, 최대의 민간 은행은 Atti Jariwafa 은행으로 2004년 BCM (Banque Commerciale du Maroc)과 Wafa 은행 간 합병으로 출범 했다. 지분의 29.6%를 모로코 그룹 ONA가 소유하고 있으며, Banco Central Hispano, Credito Italiano, Credit Commercial de France 등의 외국계 은행들이 지분 참여 하고 있다. 중앙 은행인 Bank Al-Maghrib은 모로코 재무부와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재정 정책 수립, 지폐 발행, 정부 외환 감독 관리, 정부 재정관리, 상업 은행 및 특수 은행 감독 등 업무와 일반 상업 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모로코 보험, 사회 복지부는 보험 시장에 은행 진출을 허가 하였다. 이로 인해 2005년부터 생명 보험 시장이 활개를 띄게 되었다. 보험 시장에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로 은행은 보험시장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은행을 모회사로 삼고 있거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 분야에서, Wafa 보험사와 Attijariwafa 은행은 국왕 가족 투자기금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RMA-Watanya는 BMCE은행과 상호주식이 있다.

또한 모로코는 이슬람 문화권의 금융 허브로 발돋움 하기 위해 2012년 5월 이슬람 은행 도입을 위한 법안 제정을 발표했다. 모로코는 이슬람은행 도입을 통해 기존 은행의 경쟁을 부추겨 금융 경쟁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률에도 매년 2%의 추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로 인해 2013년 후반 첫 이슬람은행 지점이 설립될 예정이다.

- BMCE
- BMCI
- Banque Centrale Populaire
- Societe Generale
- Credit du Maroc
- Attijariwafa Bank
- CAM (Credit Agricole du Maroc)
- CIH (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 Citibank Maghreb
- Arab Bank

3) 특수 금융 기관

모로코에는 중앙 은행과 제휴한 국가 경제 개발 은행(BNDE), 예치 관리 금고(Caisse de Depot et de Gestion: CDG), 부동산 호텔 은행(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CIH), 모로코 시장 금고 (Caisse Marocaine des Marches), 국가 농업 신용 금고(Credit Agricole), 국가 투자 회사 (Societe Nationale d'Investissement: SNI) 6개의 특수 신용 기관이 있다.

4) 국제 금융 시장

모로코 투자와 무역 활동을 위해 현지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하지만 금리가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많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5) 보험

보험 시장은 국제협약에 의해 2002년도에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화 되었으며 2006년도에 자동차 보험도 완전히 개방 되어 경쟁환경이 조성됐다. 2009년 까지 보험회사들이 모로코 국내 경제에 투자한 액수는 1040억 디람에 이른다. 모로코 보험 시장은 자국 민간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의해 양분돼 있다. 현재 최대 보험회사로는 반민영기업인 CDG 소유의 5개 보험회사 연대 Atlanta, Sanad, CNIA, RCAR, SCR 그룹이 있다.

모로코 보험 시장은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평가되며 2012년 12월말 기준 시장규모는 260억 디람 규모로, PIB(GDP)대비 3%대로 추정된다. 가장 큰 부분은 생명보험(88.4억디람 규모)으로 전체 보험 매출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2011년 대비 2012년 6.5%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보험 매출액의 약 30.8%를 차지했다. 규모로 따지면 약 80.2억 디람 규모이다. IMF에 따르면 보험산업의 성장은 6년 연속으로 전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며, 보험사 수도 2000년도 이후로 거의 두 배가 됐음을 지적했다.

국내 총생산 점유율 면에서도 2010년 2.8%를 차지했으며. 모로코 국내 보험시장 발전은 모로코 국내 보험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부추겼으며 이에 따라 보험 관련 업체들은 보험 혜택을 수혜 받지 못하던 국민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몇몇 모로코 보험업체들은 국내 시장을 넘어 보험 미개발 단계인 아프리카 국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업체 뿐 아니라 보험관련 기관들은 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법률안 및 관련 규제 개정을 진행 중이다.

모로코 보험 협회(Fédération Marocaine des Sociétés d'Assurances et de Réassurance FMSAR)는 모로코 보험회사 17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과도기에 있는 보험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모로코 보험 시장은 인수 및 합병 사례가 많았으며 가장 최근 사례는 CNIA사와 ES-Saada사의 합병이 있었다.

국가 사회 보험 공단인 CNSS 가 있으며, 연금 보험 공단으로는 CIMR이 있다. 시장점유율 상위 보험 회사들로는 지난해 1위 회사이었던 RMA watanya를 제치고 Wafa assurance(22.0%)가 1위를 차지했으며 뒤를이어 2위 RMA watanya(19.5%), 3위 AXA assurance maroc(13.4%), 4위인 CNIA Assurance(12.4%)가 있다. 이밖에 SCR, RCAR, Sanad, Es Saada Assurance, Atlanta Assurance 등이 있다.

모로코의 보험 보급률은 낮은 편이지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 보험가입 정책 및 정부 지원으로 인해 보험시장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정부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층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의료지원체제 차원에서 필수 건강보험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모로코 보험시장은 이슬람식 보험인 '타카풀' 같은 대체 보험에 대한 발전 잠재성을 인지해왔다. 이슬람 율법을 기본으로 한 이슬람식 보험인 타카풀은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전체 보험 시장의 10-15%를 점유할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 모로코 보험사인 Wafa Assurance CEO인 Rames Arroub는 말레이시아의 타카풀 점유율은 모로코 보험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례라 평가하고 있다. 타카풀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율법인 '상호부조'와 '각출' 개념에 기초해 있다. 타카풀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보험사로 들어가지 않는다.

현재 타카풀 상품 발전 용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되어있다. 해당 은행법 개정안은 2013년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과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타카풀 상품은 이슬람식 재정 상품으로 정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다.

글로벌 보험사들, 특히 중동 걸프만 국가들이 모로코 타카풀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외 기업들의 모로코 시장 진출은 타카풀 시장의 중요한 투자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걸프만 국가 기업들과의 협력 사업으로 유럽 불황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로코 관련 기관들은 시장 진입 초기 해외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 타카풀 산업 실행에 있어서 해외 기업과 모로코 기업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로코의 보험 산업의 성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와 국제 자본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보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지역기업이 해외사업확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이 규정은 업계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 확장에 새로운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Wafa Assurance의 CEO Ramses Arroub는 모로코 보험시장에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는 비즈니스 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이라 했다. 모로코의 보험 및 재보험회사연맹 회장인 Mohamed Hassan Bensalah에 따르면 현재 보험산업분야에서 계획 중인 2011-15 Contract Programme을 구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신정부의 정책 등 정치적 변화라고 했다.

의무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BMCE, Attijariwafa, Banque Populaire 같은 우량기업이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컨소시엄을 이루어 동반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 부문에서 큰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며, 생명보험시장은 모로코 보험시장의 총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했다.

6) 증권 시장

증권 시장은 1993년 관련법 개정과 경제 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카사블랑카 증권 거래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 중의 하나이며,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2012년 현재 상장된 기업수는 79개사이다. 5개 대기업이 증권시장 총자산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5대 기업의 거래 금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기업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분야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전체 증권시장의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통신사 23%를 차지하고 있다.

모로코는 카사블랑카 경제 도시 건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기업 들의 카사블랑카 증권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증권 시장 매력도 향상을 위해 해당 기관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많은 개정안이 진행 중 이다. 뿐 아니라 영국의 금융 향상을 목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TheCityUK와 카사블랑카 금융 도시 프로젝트인 CFC가 모로코 국내 보험회사 경쟁력 강화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장 등 부차적인 시장 개척을 목표로 협력 협정을 맺었다.

보험회사의 주식시장 점유율은 2011년 처음 10개월 만에 약 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카사블랑카 증권 거래소에 따르면 특히 상장된 보험사의 주식이 총 21개 부분에서 세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나. 농수산업

1) 농업

농업은 모로코 산업의 근간이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변화가 좌지우지 된다. 2013년 2분기 기준 GDP의 약 14.6%를 차지하고 있고 약 4백만명이상이 종사함에 따라 경제성장 및 연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강우량 등 기후조건에 따라 생산량 변동폭이 결정된다.

- GDP 성장률: 3.8%(‘10) → 4.3%(‘11) → 3.7%(‘12) → 4.5%(2013년 1분기)
- 농업성장률: -1.6%(‘10) → 6.0%(‘11) → 6.1%(‘12) → 6.6%(2013년 2분기)

2011년에는 비교적 양호한 작황과 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11년 겨울, 기록적인 가뭄과 2012년 여름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한 작황 감소로 말미암아 2012년 농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경제상황이 2011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전체 곡물 생산량은 2012년 가뭄과 작황 감소를 겪었지만 하반기 평균 이상 강우량으로 인해 농업 작황 증가로 인해 99%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Fes-Boulemane 지역의 곡물 생산은 2012/2013 분기동안 3억 9천만 kg이 측정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정부는 관개시설 확충, 농업장비 현대화 등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농업분야의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농업·식품 분야의 공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전체 농경지는 약 870 만 헥타르이고, 950만 필지로 나뉘어져 있어, 전형적인 소규모 영세 농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농경지의 85.7%가 관개 시설이 없는 상태이다. 현대적인 대형 농장의 규모는 약 100만 헥타이며, 주요 작물은 오렌지, 감귤, 포도, 올리브 및 채소류 등이다. 이 중 오렌지, 감귤의 80%, 토마토 등 채소류의 33%가 유럽 등지로 수출된다. 2012년 1분기에는 극심한 가뭄과 냉해피해까지 겹쳐 농산물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하여 당초 예상했던 7천만 키타(1키타=0.1톤)의 농업수입이 48백만 키타로 집계되는 등 농업 부가가치 수입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도 6월말부터 마라케쉬, 메크네스 등 내륙지방에 이상고온현상으로 작황이 좋지 못해 농업 수입이 감소했다.

모로코 정부는 불안정한 세계 곡물시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제공뿐 아니라, 농업을 모로코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농업개발정책인 'Plan Vert' 정책을 2009년 4월 발표했다. 위 정책은 낙후되어있는 농업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관개시설 및 제반시설을 확충하며 지역별로 Agripole(농업거점도시)를 지정해 효율적인 농업 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육성기금(Fond de Développement Agricole)을 2010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2012년 8월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Maroc Vert 산하 프로젝트인 농업현대화프로그램(Verocon)에 35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농업 현대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의 모로코 재정 지원 협약의 일환으로 <conseil agricole> 프로젝트 시행으로 농업부가 1억 8천만 디람을 지원 받게 된다. 해당 프로젝트 목표는 농업 분야 발전 강화와 소작 농업 업체 지원 특히 농업 상품화에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농지 대비 20%대에 불과한 관개시설 및 제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요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85~120억 달러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를 하고 있다.

2) 수산업

모로코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3,500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및 어업 기지 라스팔마스 항이 모로코 서부 사하라의 라운(Laayoune)항과 마주 보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모로코 수산업의 대표도시는 Safi, Essaouira, 카사블랑카, 아가딜이며 주요 어종 은 정어리, 멸치, 고등어, 대구, 도미, 오징어 등이다. 수획된 상품들은 대부분 냉동, 통조림 제품으로 가공되어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산업 부문은 2013년 2분기 기준 GDP 점유비중이 약 1%로 낮다. 특히 수산업 수출액은 2013년 9월 기준 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6.7% 감소가 일어났다. 어업종사자는 약 10만 명, 관련산업 종사자까지 모두 합치면 50만명에 이른다. 모로코 농수산부에서는 연간 어획 가능량을 15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으며, 적정 어획고를 연간 약 100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족자원 보호와 수산업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 영세어업 및 연안어업의 어획량이 전년도 대비 14% 증가했다. 전년도 대비 전반적 어획량 증가(정어리, 고등어, 참치 등)로 인한 결과이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2개월의 휴어기를 4개월로 연장했으며, 유럽(스페인) 어선의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모로코 근해 조업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산업 현대화 5개년 계획(Plan Halieutis) 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낙후된 수산업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항구를 개발해 물동량을 증가하는 방안을 통해 현재 GDP 2~3%선인 수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3배인 6%대(219억 디람)까지 증대시키는데 있으며 수산업 종사인구를 현재 5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증가시키는 계획이다.

또한 유럽연합측은 농업, 수산업, 지방 발전 분야는 모로코와 유럽연합 협력에 중요 분야로 인식, 2011-2013년 동안 Pilier II와 Maroc vert 프로젝트에 약 260억 디람을 투자했다.

총 90억 디람(약 10억 달러)이 소요되는 이 계획으로 LAAYOUNE, TAN-TAN, TARFAYA, SIDI IFNI의 항만 현대화와 DAKHLA의 신 항구 건설에 30억 디람(약 3억 5,000만 달러)이 투자된다. 또한 어업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업 방식 전환, 미 개발 어장 선단 재배치, 선박엔진 (400마력 이상) 및 어선 현대화(톤수 증대), 냉동시설 신축, 가공처리 시설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전반적으로 모로코 수산업은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식품가공

과일, 채소, 생선(가공)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정부가 농수산 가공업을 장려하고 있어 포장 및 가공기계류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로코는 과일, 야채, 육류는 국내 수요량의 100%를 국내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유제품 수요량의 82%, 설탕 50% 곡식 60% 오일 20%를 국내생산하여 충당한다.

특히 모로코는 통조림 및 보존식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국내 판매액은 전년 대비 9%성장한 18억 디람을 기록했다. 이러한 통조림 및 보존식품의 증가추세는 식습관 서구화와 소비자의 소득증가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통조림 및 보존식품 판매액은 19억 디람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모로코 대형 식품 기업은 모로코 국내업체 및 해외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생활 습관의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활발한 해외기업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 1 교역국인 프랑스 회사들이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유제품의 DANONE, 치즈의 BEL, 생선 통조림의 GROUPE ELITE, 향신료의 BSN AMORA, 화장품용 허브의 YVES ROCHER, 애완동물 동물 사료의 SANDERS, 포도주의 CLARAC ET CLAUZEL, CASTEL, WILLIAM PITTERS, 종자 산업의 GROUPE SNS등이 모로코 식품 산업 및 관련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최근 모로코 식품가공업 중 주목을 받는 분야는 바로 할랄(Halal) 식품가공 분야이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다'는 의미로, 할랄 인증은 무슬림들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 처리, 가공된 식품과 공산품에 부여되는 일종의 인증을 가리킨다. 이슬람 율법의 핵심은 돼지고기와 술(알코올), 피 등을 먹지 않는 것이므로 식품의 원료로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원료가 들어가는 식품을 만든 제조설비에서 식품을 제조하면 안되는 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 할랄 시장의 규모는 7000억 달러 규모(한화 약 850조원)이며, 할랄 인증 식품, 공산품을 사용하는 무슬림 인구도 18억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모로코에는 지금까지 할랄 인증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2년 9월 13일 메크네스에서 열린 국제 할랄 엑스포에서 모로코 할랄 인증을 발표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생활패턴의 서구화로 포장 식품 및 즉석 식품의 수요량이 증가 추세이다. 2011년 포장식품 소매 판매의 성장률은 5.2%를 기록했다. 2013년 성장률은 6.6%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까지 해마다 6%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카사블랑카, 라뱃, 마라케시, 페즈 같은 유통시스템과 관광 산업이 발달한 주요도시의 즉석식품에 대한 수요량은 2012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 음료 및 식품산업

청량음료 시장이 2005~2010년간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모로코 음료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코카콜라가 지배하고 있던 시장에 펩시콜라가 새롭게 진출했으며, 현지 음료업체도 틈새시장을 노리고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추세이다.

식품 산업은 전체 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000개의 식품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 중대형 기업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올리브 오일, 포도 및 와인, 신선한 채소 및 야채 등은 모로코 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 산업 제작 시스템은 취약한 편이며 특히 수출 시스템은 가장 취약하다. 모로코 제품은 우수한 품질 및 브랜드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럽 등 시장에서 저가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마. 에너지 산업

모로코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원의 대외의존도가 97%로 심각한 수준인데다 전력 수요가 매년 8% 규모로 증가해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확보 차원에서 모로코 정부는 그린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천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수질, 대기 오염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경제 발전과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로코 정부의 노력이다. 2012년 원유 수입 규모는 36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9.6%을 차지했으며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원유 수입 규모는 12억 디람을 기록 전체 수입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생산의 80%는 화력발전에 의존(석탄 59%, 연료유 24.1%, 복합 화력 16.1%)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비싸며,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제조업 등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원유를 장기적으로 천연 가스로 대체(2010년 4%에서 2030년 30%)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정유 설비 및 공급, 전기 공급 등의 분야를 민영화했다.

모로코 전력수요는 매년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전기소비량 증가율은 8.4%로 2009년 4.2%의 증가율과는 두배가량 차이가 난다. 2012년도 전력 소비량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했다. 모로코 내 전력 생산량은 14.8% 증가하였고, 스페인과 알제리에서의 에너지 수입량은 9.6% 증가했다. 모로코의 전력 생산은 20여 개의 수력 발전소와 10여 개의 화력발전소로 구성돼 있다.

모로코 에너지부 산하의 전력청(ONE)은 1963년 설립되었으며, 전력공급과 송전, 도시 농어촌 배전을 책임지고 있다. 1996년 '농촌종합전력화정책' 공표 이후, 2008년까지 22억 불을 투자해 약 35,000 마을에 전력을 공급하였으며, 이 중 3,653 곳은 태양열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1996년 22%수준이던 농촌지역 전력 공급률은 2011년 기준 96.5%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에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 비용 충당을 위해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과 5100백만 달러 규모 대출 계약을 체결 했다. 위와 같은 지방 전력화 정책 프로젝트 성공으로 인해 ONE는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지역 전력화 정책의 고문역할과 공동 개발 파트너로써 참여하고 있다.

모로코는 1997년 스페인과 지브롤터 해협을 관통하는 송전망을 연결 해 양자 간 잉여전력을 교환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연결되어있던 기존의 2개 전기 송수선에 3번째 송신선 연결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1200MW의 발전용량을 1700MW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모로코 정부는 2015년 까지 새로운 재생에너지 플랜에 124.5억 유로의 투자비용이 투입 될 할 것이며 그 중 97.5억 유로는 전기 발전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전기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97.5억 유로 중 64.5억 유로는 전기 송신, 분배, 열전기에 사용될 것이며 33억 유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억 유로는 정재기술 및 저장 능력 개선을 포함한 관계시설 개선에 사용 될 계획이다.

'Energy Pro'라는 이름 하에 2020년까지 풍력(14%), 태양(14%), 수력(14%) 등 재생에너지원을 이용 한 전력생산 비중을 42%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15% 감소시키는 정책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MEMEE(에너지, 광산, 수도, 환경부)은 2010년 6343MW이었던 전기 생산능력을 2020년 까지 14,580MW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모로코는 북부(지중해) 및 서부(대서양) 해안지대의 연평균 풍속이 초속 8미터 이상을 유지하며, 풍부하고 강도 높은 일사량을 보유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최적의 입지여건으로 꼽힌다.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 분야에 90억 달러 투입해 총 2,000MW의 발전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풍력 발전 분야 또한 40억 달러를 투입, 2,000MW를 생산할 예정이다.

모로코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2030년까지 연평균 2.6Mtep에 달하는 화석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며 2만5000개의 신규고용창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42%까지 확대된다면 연간 석유수입량 260만 톤과 900만 톤의 CO₂ 배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nergy Pro’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으로 정부는 6억 디람에 이르는 예산으로 2010년 500MW 규모 1차태양발전소(Ouarzazate) 건설계획을 발표했으며, 2012년 추가적으로 380mw 규모의 Ain Beni Mathar, 500mw 규모의 Foug el-Oued, 100mw 규모의 Boujdour, 500MW 규모의 Sebkhath-Tah 총 5개 구역, 총면적 10,00헥타르에 이르는 태양발전소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위 태양발전소 개발이 마무리 되면 5개 발전소에서 모로코 전체 전기 수요량의 20%의 해당하는 4500GW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순서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전력청(ONE)과 민간 기업(ONA Group, Nareva) 주도로 다수 풍력발전단지(2000MW 생산능력)도 운영되고 있다. 전력청이 추진하고 있는 Ouarzazate의 1차 태양발전소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기금지원을 하였으며 유럽연합(EU)가 앞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모로코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Energy Pro’ 외에도 EU의 재정지원을 받아 26억 달러를 투자해 2015년까지 3300km의 송배전망 개선사업을 추진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전략을 통해 만성적인 국내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최대 전력수요처인 유럽연합(EU)과 인접해 생산전력의 판매도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모로코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위치에 있는 만큼 스페인, 알제리 등 인접국과 전력망 연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EU, 아프리카에 전력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로코는 스페인과 2개의 400kV급 송전망을 구축중이며 알제리와는 400kV급 2개, 225kV급 2개 등 총 4개의 전력망을 완공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모로코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5억 달러, UAE 3억 달러를 무상원조 했으며 하산 2세 기금에서 2억 달러를 유치,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개발 기금을 설립했다. 또한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국가사무소는 모로코 에너지 투자 협회에서 재생에너지 개발비로 7억 5천만 유로의 투자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2011년 프랑스는 1억 3백만 유로의 투자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 했다. 미국 역시 63만 달러의 기술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협약에 사인했다.

현재 모로코 정부가 중점추진하는 사업은 태양열/광, 풍력사업으로 2020년까지 5개 지역에 총 발전용량 2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90억 달러 소요). 모로코는 2.65GW에 해당하는 무한한 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63GW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현재 풍력발전 규모는 1500MW이며 모로코 전력청(ONE)은 2030년 6000MW를 목표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자 모집하고 있다. 또한 유럽기업들의 주도로 개발중인 사막 기술 발전 프로젝트에 4천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막의 태양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배급망을 확장하는데 있다. 그러나 모로코 정부는 Di(이번 프로젝트의 주도 업체)와의 공동개발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난은 이번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0개 하수처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21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총 30억 달러 소요가 예상된다. 관개용수 공급 위한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는 2013년 하반기 공개입찰 예정이며, 2035년까지 16만6500m³/day 처리시설을 목표로 한다.(현재 11만1000m³/day, 3억 유로 소요 예상) 모로코 인광석공사(OCP)는 증축 중인 인광석 채굴·가공 플랜트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5년까지 해수담수 플랜트를 지속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최근에는 석유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대체산업이 주목 받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마라케쉬에서 제1회 국제태양에너지 박람회가 열려 총 9개 국가, 50여개의 관련 업체들이 참가, 5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전시참여자의 절반가량이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태양 에너지 개발에 높은 관심을 둔 유럽국가들이었으며 관람객의 70%정도가 유럽국을 포함한 인접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태양에너지 개발분야에서 아프리카의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로코의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를 알리며 첫 전시회이지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2013년 2월, 제 2회 국제태양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며, 지난 전시회의 높은 명성을 이어갔다. 방문객 및 참여업체들의 약 80%가 만족함을 느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는 점에서 해당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됨을 알 수 있다.

모로코 정부는 또한 자국 원유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하자원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모로코는 최근 육지와 해안에서의 지하자원 발굴 작업이 곧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또한 추후 자원발굴에 대해서도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2년까지 약 40곳의 해안(대부분 얕은 해안)에서 이루어진 굴착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반면 육지 대부분은 1960년대 와 1970년대 굴착이 이루어 졌다. 스페인의 Repsol 과 Anadarko를 포함한 30개의 해외 석유회사들은 현재도 측량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굴 작업 향상을 위한 탄소법안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매년 정부에 지불해야하는 석유, 가스 채굴 사용료가 각각 연간 수익의 10%와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자원 채굴에 참여하는 새로운 회사들은 10년 동안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과 2009년 천연가스 발견은 모로코 석유 생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을 부추겼다. 아일랜드의 Circle Oil사는 Sebou와 Ouland N'Zala 지역에서 천연가스 발견에 성공했으며 스페인의 가스기업인 Rapsol, 영국의 석유기업 Dana은 모로코의 ONHYM(국립 탄소, 광산 사무소)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Tangier-Larache 지역에서 두 개의 가스 기동을 발견했다. 또한 201년 4월 Circle Oil의 Grab basin 지역에서 굴착작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KSR-11m(탐사로봇)을 이용한 작업 역시 성공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Intra Hoot 지역의 천연가스 발견역시 성공적 이었다.

2010년 12월부터 시추작업에 돌입한 Sebout 지역에서 역시 여러 가스층을 발견했다. 2011년 말 Circle Oil사는 2012년에 더 많은 가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Circle Oil사와 ONHUM은 2011년 1월 모로코 내 가스 공급이 가능한 파이프라인 설치사업을 발표했다.

모로코 정부는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해 확실한 정책은 없지만 원자력 발전 역시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하나의 옵션임을 숙지하고 있다. 2010년 초 정부는 1000WM 생산 능력을 갖춘 2개의 원자로 건설을 제안 했으며 2020부터 2030년 사이에 완공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국제 원자력 에너지 사무소의 도움으로 1980년대 처음으로 이루어 졌으며 2002부터 2004년 동안 이에 대한 연구 결과와 지리 업데이트가 마무리 되었다. 2013년 8월8일 라바트에서 프랑스와 평화적 원자력 사용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프랑스로부터 우라늄 발굴, 추출, 담수화, 인력 트레이닝 등 기술전수에 동의했다. 현재 원자력 발전 안전과 보안에 대한 법안은 논의 중에 있다.

바. 유통업

모로코 소비자 유통은 모로코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163억 디르함 매출에 이어 전년대비 24% 성장한 2012년 210억 디르함을 기록하였다. 이는 국가 총 생산(GDP)의 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모로코에 현대적인 시설과 규모를 갖춘 대형 유통 매장이 생겨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카사블랑카, 라바트, 페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르잔(MARJANE)과 메트로(METRO)가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대형 유통 매장은 특히 위와 같은 대도시에 50%가 분포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형 유통 매장은 아가달, 탕제, 페스 같은 모로코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베니 멜랄, 우즈다 같은 중형도시 역시 대형 유통 매장들이 오픈 예정이다

대형 유통 매장 시장은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며 연 평균 13%에서 14%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4개 이었던 매장 수는 2012년 말 기준 253개로 늘어났다.

마르잔은 모로코 최대 그룹 ONA의 계열사이며, 선진국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CONTINENT, CHAMPION 등 유럽 유수의 하이퍼 마켓을 소유한 PROMODES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또한 프랑스의 오상(Auchan)으로부터 경영지도를 받았다.

한편 독일의 유통망 METRO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현지인들에게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도매 단위로 판매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METRO는 현재 모로코 현지 기업인 Retail Holding SA에 매각하며 Atacadao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중이다.

마르잔과 메트로로 양분돼 있던 모로코 대형 유통 시장에 프랑스 대표적인 유통 체인인 오상(AUCHAN)이 시장 진출을 발표하며 모로코 제1의 그룹인 ONA와 2001년 1월에 제휴하여 ACIMA라는 상호를 출범 전체 지분중 49%를 인수 2002년부터 영업을 개시했으며 2007년 8월에 모든 지분을 매각했다. 현재는 왕실계열 모로코 홀딩 그룹인 SNI가 Marjane과 Acima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모로코에는 상기한 3개 대형유통매장 이외에도 ASWAK ASSALAM과 LABEL'VIE등이 영업 중이다.

2012년 매장별 현황

매장명	매출액	점포수
Marjane	100억 디람	32개
Acima	20억 디람	35개
Carrefour label'vie	54억 디람	37개
Aswak Assalam	15억 디람(2011년 기준)	11개

그러나 Marjane, Acima, Aswak Assalam, Carrefour, Atacadao 등 모로코 내 넘치는 대형 유통 매장 증가로 대형 유통 매장 시장 과열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형 유통 매장의 등장으로 인해 모로코 소비자의 높은 수요량 균형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소비자의 70%는 대형유통 매장을 선호하며 실제 소비에 있어 대형 유통 매장 최우선으로 선택한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 매장의 성공 요인으로는 이전 어느 형태로도 볼 수 없는 사업 모델로 1년 내내 지속되는 가격 할인, 경품 행사, 프로모션, 세일 행사, 판촉 행사가 있으며 이러한 행사들은 대형유통 매장이 시장에 진출해 점유를 늘릴 수 있게 하는 획기적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대형 유통 매장 분야 매출액은 210억 디르함을 기록했으며 모로코 국내 생산 량의 3%를 차지했다. 2011년 대비 24% 증가를 보였다(2011년 160억). 또한 2000년 14개 이었던 매장 수는 2012년 말 기준 253개로 늘어났다.

대형 유통 매장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 추세이며 매년 성장률이 13%에서 14%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Label'vie대표 Riad Laissaoui에 따르면 현재 대형 매장 발전 트렌드는 제품의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이다.

대형 유통 매장들은 현재 모든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 중이다. 이 때문에 원래 저가 품목이나 최소제품들로 최저가격을 제공하는 전략을 세운 Atacadao 나 BIM같은 Hard-discount 매장들은 Acima와 Marjane같은 대형매장의 가격 할인과 프로모션 행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대형 유통 매장들은 가격 할인을 위해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 대량 제품 구매와 협상 능력으로 인해 제품 가격 할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대형 유통 매장들은 광고와 지리적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Atacadao나 BIM 은 더 높은 할인을 위해 매장 장식이나 인테리어를 포기하고 있다.

현재 대형 유통 매장은 Cofarma(Marjane, Acima), Lavel'vie, Ynna Holding(Aswak Assalam) 3개의 대형 회사가 점유하고 있다.

특히 Marjane과 Acima를 소유한 Cofarma사는 시장의 59%를 점유하고 있다. Cofarma는 모로코 전역에 30개의 Marjane 매장을 개점하였으며 35개의 Acima, 9개 Electroplanet 매장을 소유하고 있다. 2014년 까지 Cofarma는 40개의 매장 개장과 새로운 상업 중심 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뒤이어 Lavel'vie는 시장의 39%를 점유하고 있으며 Aswak Assalam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유통 매장의 시장 점유에도 불구하고 터키 유통 매장인 BIM은 눈부신 성과를 기록했다. 비록 여타 대형 매장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BIM은 판매 분야에서 10%까지 점유율을 늘렸다. 현재 80개에 가까운 매장을 2015년 까지 350여개로 확대 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 특히 BIM 매장들은 구매력이 강한 중산층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BIM은 매장 개업이나 제품의 70%를 터키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모로코의 유통 산업 현황은 소규모 다단계의 중간상인과 우리의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같이 “수크”(SOUK)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재래 시장으로 구별되고 있다. 수크는 규모별로 소규모(판매자 600명 이하), 중간규모(판매자 600명-100명 이하), 대규모(판매자 1000명 이상)으로 구분되며 중개자는 농부, 상인, 서비스공급자, 무역업자 4종류로 구분된다. 카사블랑카를 예로 들면 섬유, 기성복, 주방기기, 조명기기 등의 가정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데르브 오마르 (DERB OMAR)지역 일대, 모로코 북부 지역인 스페인령 세우타 등에서 밀수입된 가전에서 식품류까지 다양한 제품의 집산지인 데르브 갈레프(DERB GHALLEF), 두바이를 통해 중개 무역되는 수입품을 주로 판매하는 키사리아 하파리(KISSARIAT HAFARI), 벤 즈디아(BEN JDIA), 고급 기성복, 보석, 이미테이션 제품을 취급하는 갤러리 본 오마르(GALLERIE BEN OMAR) 등의 대형 재래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정부 도시화 정책에 의해 대부분의 수크는 도시외곽으로 밀려나 현재 도시 내부에 자리잡은 수크는 아가달과 페스 2곳뿐이다. 도시 외곽이동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도시 고객의 방문 빈도수가 감소 했다. 그러나 수크는 모로코의 중요한 유통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모로코 내 도시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시장 형성은 완성 단계에 들어섰으며 상업 분야의 다양성도 넓어지고 있다. 도시 내 시장들은 나날이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시내 곳곳에 위생 제품, 수공예품, 기름, 꿀,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 특산품 등 한 제품에 특성화 되어있는 소규모의 전문점이 위치해 있다.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고 고수익 창출이 목표인 고급상점들은 도시 중심에 위치한 상업 지구에 형성되어있음. 이러한 상점들은 주로 향수가게, 신발(babouches : 모로코 전통신발)가게, 의류 매장, 보석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모로코에는 제품에 따라 전문화된 대형 유통업자들이 있다. 기계, 전기 제품을 취급하는 STOCKVISS사, 건축 토목자재를 유통시키는 돌보-롱고 메탈(DOLBEAU-LONGO METAL), 콩투와 메탈뤼르 지끄 (COMPTOIR METALLURGIQUE)등이 있다.

사. 정보 통신 산업

모로코의 정보통신 산업이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 10년 전 모로코 정부가 정보통신분야산업의 민영화 조치 이후로 1999년 85억 모로코 디르함이었던 산업규모가 2007년 말 300억 모로코 디르함으로 성장(GDP의 7%)했으며, 2011년에는 530억 모로코 디르함 규모로 발전했다. (1달러=8.3모로코 디르함)

통신시장이 발달하면서 지난 5년간 통신 관련 업계에 약 12만 개 일자리가 창출됐고, 그 중 약 3만7000명이 취업을 했다. 모로코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인 Maroc Telecom의 2013년 3분기 기준 연 매출액은 2012년대비 4.7% 하락한 214억 디람에 모로코 디르함에 이르러 단일 기업으로는 모로코 최고를 기록했다. 2013년 전반기 순이익은 2012년 대비 6.9% 감소한 94억 디람을 기록했다.

2013년 Maroc Telecom 매출 예상액은 700억 디르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aroc Telecom은 현재 아프리카 시장에도 진출해 있어 향후 기업 전망도가 밝다. Maroc Telecom의 높은 수익률은 서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의 자회사들의 선전으로 분석된다. 2013년 3분기 기준 아프리카 국가 자회사들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9.5% 상승한 57억 디람을 기록했다.

2013년도 3분기까지 모로코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호조세를 보이며 4430만명을 기록했다. 모로코 인터넷 네트워크는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된다. 과거 우리나라와 모뎀과 비슷한 전화와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인터넷 정액제, ADSL, USB형태의 3G, 전용선 모뎀이 상용되고 있다.

현재 모로코에서는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3세대(3G, WCDMA 휴대전화를 포함한 이동통신 무선접속 규격) 네트워크 발달에 따라 최근 휴대전화업체들과 인터넷 업체까지 적극 개발에 나서 스마트폰을 내놓았고, 신제품 스마트폰이 미국·유럽 등지에 출시될 때마다 모로코의 IT 웹진과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해외 단말기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모로코에서도 터치스크린과 스마트폰이 빠르게 성장하며 보급되고 있으며, 2013년 2분기까지 판매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총 핸드폰 시장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8월에 총 판매된 단말기의 약 42.69%가 스마트폰이 차지했다.

2013년 1분기 스마트폰 단말기 사용자수는 전년도 1분기 대비 약 120% 성장했다. 시대에 흐름에 따라 모바일폰 시장의 붐으로 일반 유선전화 시장은 난항을 겪으며 2013년 2분기까지 가입자 수는 2012년 대비 0.71%떨어진 312만명 이며 보급률은 9.63%이다.

폭발적인 이동통신 사용자 증가로 인해 모로코 모바일 시장은 과열 경쟁 양상으로 접어들었으며 고객들은 통신사 경쟁으로 최근 선불요금에 대한 보조 정책을 받고 있다.

선불 요금 보조 정책의 보편화로 인해 Maroc telecom은 월별 평균 요금 하락이 발생했으며 2013년 9월 말 평균 요금은 70디람을 기록하였다. 해당 금액은 동년 6월 보다 1.5디람 하락한 금액이며 전년 대비 10디람 가량 하락한 금액이다.

또한 무선(3G)인터넷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013년 3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시장의 84.87%를 차지 하고 있으며 ADSL은 15.10%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3분기까지 'www-.ma' 도메인 등록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10.37% 상승한 50,104개에 달하며 3G 기술 발달로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522만명, 사용자 수는 1600만명에 달한다. 반면, 유선망 기반 인터넷 보급 속도는 무선(3G)에 비해 느린 편이다. 또한 Maroc Telecom은 2013년 말까지 4G 네트워크 확립을 목표로 4G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5년 하반기 모로코의 제2 통신 업체인 Meditel이 유선전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Maroc Telecom의 유선전화 시장 독점체제가 무너졌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시장이 Maroc Telecom, Meditel의 양극체제에서 2010년 ONA 그룹이 Inwi를 설립하면서 3사 체제로 전환됐다. 모로코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통신시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기존 통신업체인 Maroc Telecom, Meditel은 각각 프랑스의 VIVENDI, 스페인의 Telefonica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어서 통신방식을 유럽식 UMTS를 채택하고 있다.

2013년 3분기까지 현재 3G 인터넷 시장은 Maroc Telecom이 43.66%, Meditel이 43.31%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13년 3분기 핸드폰 통신 시장은 Maroc Telecom이 44.3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Wana corporate(Inwi)가 27.68%, Meditelecom이 28.01%로 뒤를 잇고 있다. 2013년 3분기 유선전화 시장은 Wana corporate(Inwi)이 54.22%의 점유율로 업계 1위 자리를 유지 중이며 Maroc Telecom이 44.79%, Meditel이 0.99% 점유하고 있다.

2013년 2분기까지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Maroc Telecom이 1,800만명, Meditel이 1,150만명, Wana corporate(Inwi)가 950만명으로 예측되며 현재의 업계 위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 전자 상거래

2008년부터 모로코 내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관련 기관과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시작되었다. 2010년부터 모로코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및 중동 시장에서 제1의 전자상거래 국가로 자리잡았다.

2012년 IMRG(interactive Media in retail group)과 Vis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중동지역은 연간 45%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2008년부터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중동지역 중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 2009년 180%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011년엔 100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2년 성장률은 45%를 기록했으며 총 판매액은 8천7백만 달러에 이른다.

모로코 전자상거래는 정부 정책인 Numeric 2013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정책은 정보 통신 분야 일자리를 3200개에서 5800개로 증가 시키고 학교에 인터넷 보급률을 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증가 시키며 5가구 당 1가구 인터넷 보급률을 3가구 당 1가구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국민들에게 높은 인터넷 송신량 제공, 중소기업의 정보화, 국가 중심 발달, 인터넷을 통한 정부기관 접근을 포함한 4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 1/4분기 현재 은행 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온라인 웹사이트 전자결제 사용 건수는 5천4백만 건의 거래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 합계 460억 디르함에 이른다. 위와 같은 수치는 2012년 1/4분기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이다. 위와 같은 온라인 결제 증가는 400개 전자상거래 웹 사이트와 인터넷 보급률 성장, 800만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신용 카드 대중화 등 여러 요소들이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2013년 1분기까지 모로코 내 발급된 카드 수는 약 9백 만개이며, 2013년 카드 발급 횟수는 2012년 보다 4.2%증가했다. 이중 840만개는 VISA, MASTERCARD(신용카드), 모로코 국내 브랜드인 CMI(체크카드 개념)이다. 위와 같은 성장률은 2012년 말에 비해 VISA, MASTERCARD(2.4%)와 CMI카드(11.6%)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한 결과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청구, e-정부, 인터넷 쇼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의류, 게임, 하드웨어 판매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거래 수는 2011에 비해 98%증가 하였으며 2012년 매출액은 1억 3천 1백만 디르함을 기록했다. 해당 분야 별 전자 거래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온라인 쇼핑분야(31%→34%), 온라인 결제(44%→49%), 여행, 이벤트(11%→18%), e-정부(5%→7%) 분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모로코의 전자상거래 발달은 3개의 메이저 중개사가 바탕이 되었다. 3개의 메이저 중개사들은 Le CMI, Maroc Télécommerce, CNDP이다. CMI는 웹 사이트들과 전자결제 멤버십 계약을 맺어 고객들이 제품 구매에 있어 Visa, Mater Card를 이용한 결제를 승인하는 역할을 하며, 2001년 모로코 메이저 은행인 Attijariwafa Bank가 설립한 Maroc Télécommerce는 전자 상거래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모로코 및 국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상거래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지 주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어 고객들과 기업들에게 국제 기준에 맞는 온라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NDP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설된 기관으로 통칭 국가 개인 정보 관리 위원회이며 개인 정보 보호법 09-08법안의 27번 조항을 근거로 창설되었다. 해당 기관은 총리 소속 기관이며 위 법안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원들의 불만사항 접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CNDP는 09-08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건설업

세계 경제위기 이후 건설분야의 부진에 모로코의 건설 장비 및 자재 시장도 잠시 주춤했으나 2010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SOC(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로 인해 시장이 다시 성장세를 띠기 시작하며 2011년 7.4%의 성장률을 보였다. 2013년 성장률은 2011년 같은 7.4%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국민 주택 보급 사업과 “판자촌 없는 도시” 2004~2012년 계획 등 국가 정책이 건설업 경기 호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산업은 모로코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서 모로코 정부는 도시지역의 만성적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2007년 건설부문에 총 36억 달러를 투자하는 5개년 계획을 채택해 주택, 관광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카사블랑카와 수도인 라바트 지역 주거 및 상업지역 개발·정비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광단지 개발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2만 달러 이하 국민주택(Social Housing) 보급 사업을 위해 2009년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기준 7만 9천호가 보급되었다.

그간 아랍의 봄 영향과 유럽 세계 경제 위기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는 상태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꾸준히 시장은 성장해왔다. 2011년 모로코에서 시멘트는 총1613만 톤이 소비되어 2010년 1457만 톤에 비해 10.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12년 에도 시멘트 판매 호조는 계속되어 2011년 상반기 810만 톤에서 2013년 상반기에 890만 톤이 소비되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초반 기록 된 두자리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 총 소비량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기록, 시멘트 소비량은 2013년도 8월 기준 전년 대비 10.2% 감소했으며 2013년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와 건설시장 부진으로 인한 결과이다. 부동산 용자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도시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과 상업지역 정리, 국민주택 보급사업 외에도 우리의 토지공사와 같은 주거도시계획부에서는 낙후된 교외지역을 개발하는 국토균형발전계획을 1997년부터 계속해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2020년까지 지역별 거점도시를 선정하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 지중해에 면한 Tanger 항구 건설 프로젝트가 18억 달러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물류, 도로, 철도, 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 시설 건설이 동시 추진 중이며 여러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건설도 예정돼 있다.

Tanger는 항구는 현재 보유한 1개의 선착장외에도 2010년 5월부터 Tanger Med II 건설작업을 개시하였으며 2016년 완공 예정에 있다. 또한 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47억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7개 지역에 96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 투자 계획도 추진 중이다. Settat 지역에서는 홍수 예방과 지하수 공급을 위한 댐 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자원 운항의 새로운 거점으로 베토야만에 인접해있는 새로운 Nador West Med 항구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Nador로부터 30km 떨어진 베토야(Betoya)만에 위치한 Nador West Med 항구는 에너지 자원 관리, 특히 탄소를 최우선으로 한다.

2011년 11월 세계은행은 모로코 태양광 발전소에 2억9천만 달러를 보조했다. 해당 보조금으로 와르자렛에 500WM 생산능력을 가진 태양광 발전소 설립이 가능해졌다. 와르자렛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은 9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가진 모로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사업이다.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은 National plan for logistic(물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Emergence plan(주요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Halieutis Program(어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Maroc Vert(농업 인프라 구축사업), National port strategy 2030(항만 개발사업 2030) 등이 있다.

더불어 모로코 고속도로 개발은 2008년 발족된 2008-2015 고속도로 개발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1416km가 건설완료 되었으며 마지막 359km 구간이 2015년까지 건설될 것이며, 임대주택 프로그램도 가동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로코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현재 모로코에 건설장비 관련 기업은 112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대표적인 기업은 ELG, Fenie Brossette, SOBERMA, SAMDIA, M.i.f.a와 같은 기업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자본에 의해 설립됐으며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이다.

철도 사업 역시 활력을 띄고있다. 2011년 모로코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으로부터 3억 유로를 대출받아 철도 산업 개발을 지원했다. 또한 2035년을 모로코 주요도시와 지방을 잇는 약 2000KM의 철도 레일 건설을 목표로 모로코 철도청(ONCF)는 130억 달러 투자를 투자했다. 또한 카사블랑카-탕헤르를 잇는 고속철도 2014년 사업 예산 55억 디람이 책정되었다.

해외협력업체들도 모로코 내 건설 산업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 중 스페인 계 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다. 프랑스, 중국, 터키 계 업체 들도 건설 산업 분야 중 특히 고속도로 건설 개발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 계 업체 같은 경우 낮은 인건비로 발굴 및 토목공사에 협력 가능하다.

건설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9년 대비 33.3% 증가하여 2010년 8.8억 USD를 기록했다. 2011년 1분기에는 2010년 동분기대비 10.9% 상승한 2.3억 USD를 기록했다. 정부의 주택 15만호 건설을 비롯해,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분야 의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에 힘입어 건설 산업은 2015년까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차. 항공 산업

모로코 항공산업은 유일한 국영항공사인 Royal Air Maroc 의 항공기 정비 산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 1999년에는 유럽 EADS의 모로코 자회사와 Royal Air Maroc 정비센터 등 2개사에 불과하던 기업 수가 2013년에는 97여개로 크게 증가했다. 2013년 전반기 수출액은 약 35억 디람의 수출 규모 (전년도 대비 24.7% 증가)를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10,000명 수준인 (2012년 기준, 9,500명) 동분야 고용인원은 2015년까지 17,000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항공분야 성장률은 2012년 대비 25%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모로코의 항공정비기술은 민간과 군용 모두 미국과 유럽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연간 15~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멕시코, 미국, 유럽에 이어 항공우주 산업 설비 세계 제 4위의 생산 국가로 자리 잡았다.

모로코 항공산업이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세계항공산업을 선도하는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유럽 기업들의 모로코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모로코가 전략적으로 우수한 항공인력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다. 또한 2006년에 모로코과 EU는 항공분야 협정을 맺어 항공법, 안전문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발전을 이룩했다.

모로코에 진출한 주요 항공기업으로는 EADS(Morocco Aviation), Boeing, Safran 등 미국과 유럽 대형기업이 대표적이며 2013년 2월엔 캐나다 항공기업인 Bombardier가 카사블랑카 Nouaceur 항공단지에 공장 설립을 발표했으며 Bombardier사는 2억 달러 투자금액으로 모로코에 진출했으며 850개 일자리 창출 4,400개 간접 일자리 창출등을 이루어냈다. 항공산업(부품제조)의 매출규모는 2010년 12백만 유로에서 2012년 말에는 1억 유로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들 외국계 기업이 모로코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동체, 조종간, 기내의자, 전장류 등이며 엔진의 보수정비, 연구개발, 디자인 등의 분야로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모로코 정부는 항공 산업분야를 미래 산업으로 보고 중점 육성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가 산업개발계획인 <Emergence Plan>의 일환으로 카사블랑카 모하메드V세 국제공항 인근에 'Nouaceur' 항공단지를 확장 중에 있다. 기존의 70헥타르 부지에 조성되었던 단지를 2016년까지 125헥타르 규모로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300개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Nouaceur 항공산업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을 갖춘 항공 산업 단지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 탄력을 받고있다. 총 8,200만 달러의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4.7억 달러의 부가가치 창출, 12,0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2020년 까지 해당 산업 규모를 두 배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이다. 또한 2013년 6월 모로코 산업장관은 일본 방문을 통해 양국간 항공우주분야 협력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 일본무역진흥회인 JETRO는 카사블랑카에 위성 사무소를 수개월내에 열것을 발표했다. 또한 2013년 12월에 모로코-일본간 투자 및 무역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모로코 정부는 유럽과 미국 항공업체의 외주확대 수요가 증가함을 파악하고 이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Hassan 2세 재단은 항공분야 투자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역외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Académie internationale Mohammed VI 는 항공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으며, 2008년 설립된 항공우주산업연구소도 항공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11년에는 항공학 전문가 양성기관(Institut des Métiers de l'Aéronautique-IMA)을 설립, 우수한 교육진들이 항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육성하게끔 하여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중국, 튀니지등과 차별적으로 항공 산업분야에 진출하고있다.

또한 모로코 정부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프랑스 기술 학교인 Ecole Centrale Paris를 2014 년부터 설립해 많은 전문가 육성에 힘쓰고 있다. 항공 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기술 경쟁력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높은 기술과 고품질의 재화를 생산하여 점차 동분야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모로코에 진출한 유럽과 미국 항공기업들은 지리적 이점, 연중 건조한 기후, 양질의 인력 등을 투자결정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으며, 다른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사회 환경과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카. 자동차 산업

모로코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 대비 5%에 달하며 모로코 전체 수출량의 14%를 차지하는 국가 주요산업임. 모로코 자동차 시장은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EU-모로코 간 관세 완전 철폐(2012년 3월), 모로코 현지공장 설립 등의 영향으로 유럽 브랜드가 80% 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0월 기준 모로코 자동차 부문 수출액은 약 244억 디람으로 전년도대비 18.1%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2월 탕제에 위치한 르노-닛산 자동차 공장 완공 이후 생산을 본격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8월 27일 10만 번째 수출에 성공하며 예상 보다 빠른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위와같은 결과는 원래 르노의 목표했던 9월 10만 번째 수출 달성을 뛰어 넘는 수치였다. 이러한 수출 결과는 효과적인 생산라인 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모로코 내 자동차 제조 공장은 탕제 르노-닛산 공장이외도 카사블랑카에 Somaca 공장이 위치해있다. Somaca 공장은 총면적 29만 m²으로 2400명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 75000대 이다. 2012년 58400대를 생산 했으며 그 중 약 30000만대를 수출했다. 2013년 연간 생산수는 60000대로 예상하고 있다. Somaca 공장은 2012년 모로코 판매 1위 상품인 르노의Sandro를 비롯해 Logan, Kangoo를 생산 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조립되는 르노(Dacia) 완성차는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 튀니지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모로코는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로서 완성차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다. 특히 탕제에 위치한 르노-닛산 공장은 모로코 제 1 항구인 탕제-메드 항구와 근접해 있어(30km) 수출에 유리하다. 르노-닛산 공장과 탕제-메드 항구 사이에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인프라 구성이 우수하며 운송 팀과 하역 팀등으로 역할 분담이 잘 구성되어있어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모로코 자동차 시장은 15억 유로로 평가되며 인구수에 비해 비교적 미 발전 분야이다. 매년 평균 약 13만대 자동차가 팔리고 있다. 모로코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 가격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저가 자동차가 판매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한 민감함을 보인다.

2009년과 2010년 침체기를 겪었던 모로코 자동차 산업은 2011년부터 호조를 보이기 시작. 2011년 신차 판매대수는 총 99,750대로 2010년 판매대수 91,000대와 비교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더욱이 탕제지구 르노 자동차공장의 출범과 2012년 5월에 열렸던 자동차 엑스포의 효과로 자동차 산업은 더욱 호조세를 보이며 2012년 신차 판매대수는 총 130,316대로 전년도 대비 16.2% 증가했다. 2013년 1분기 신차 판매수는 전년도 동기간 2.6대비 증가한 30902대가 판매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불황여파로 2013년 총 신차 판매수는 125,000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로코의 풍부한 인적자원, 우수한 제품 품질, 정치적 안정성 또한 외국인 투자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으로 모로코 정부는 Melloussa(Tanger)에 르노-닛산 자동차 공장 완공 이후 현재 두 번째 자동차 공장 유치를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카사블랑카의 Somaca 공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억 4천만 디람을 투자예정이다. 새로운 프로젝트 X52(신 모델)을 위해 투자이며 카사블랑카 Somaca 공장은 X52의 프로젝트 실행 공장 중 루마니아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공장이다.

유럽과 인접한 모로코의 지리적 여건상 모로코의 자동차 부품회사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28개 자동차 공장(탕제항으로부터 3일내 접근 가능)에 부품 공급이 가능하다. 28개 공장에서 소요되는 부품규모를 감안할 때, 오는 2015년까지 모로코는 총 140억 유로 규모의 수출(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5월 모로코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 업체 8곳과 6억 디람상당의 투자를 체결하며 자동차 부품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는 카사블랑카, 탕제, 부즈니카 등 상업 위주 도시에 밀집하며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필터,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브레이크, 클러치 디스크, 속업쇼바 등이 있다.

또한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 Leoni와 일본 회사 Yazaki가 Bouskoura와 Ain Sebaa지역에 자동차 케이블 공장을 건립하였으며 투자금액은 약 1천 3백만 유로에 달했다. 스페인 부품회사인 PROINSUR는 9백2십만 유로 투자금으로 탕헤르 자유 무역 지구에 플라스틱 조립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2013년 7월 기준 주요 10대 브랜드 판매동향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제조사	2013년 7월기준 판매대수	증감율(%)
DACIA	17,248	4.46
RENAULT	11,352	-9.02
FORD	6286	6.25
HYUNDAI	6181	9.85
PEUGEOT	5900	-14.9
FIAT	4266	20.99
CITROEN	3453	-1.34
VOLKSWAGEN	3342	-20.58
NISSAN	2267	9.2
TOYOTA	2105	-29.15

2013년 1분기 브랜드 별 판매량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Dacia가 1위를 기록했다. 총 판매량 17,248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4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르노는 11,352대로 2위, 포드는 6286 대로 3위, 현대는 6181대로 4위, 푸조는 5900대로 5위를 기록했다.

모로코에서 조립되는 Dacia 자동차는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 튀니지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모로코는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로서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라 할 수 있다. 2013년도 4월 기준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581대를 판매, 전년도 대비 1.4%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BMW는 364대를 판매해 13.33% 하락했으며 아우디는 379대를 판매해 1,56% 하락했다.

2012년 주요 10대 브랜드 판매동향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제조사	2012년 판매대수	증감율(%)
DACIA	27,042	21.13
RENAULT	18,506	4.09
PEUGEOT	10,625	5.89
FORD	9,155	55.06
HYUNDAI	7,842	47.6
VOLKSWAGEN	6,485	13.79
CITROEN	5,681	20.23
FIAT	5,357	48.48
KIA	3,755	-17.92
NISSAN	3,208	59.29

2012년 브랜드 별 판매량은 Dacia가 1위를 기록했다. 총 판매량은 27,042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13%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르노는 18,506대로 2위, 푸조는 10,625대로 3위, 포드는 9,155대로 4위, 현대는 7,842대로 5위를 기록했다.

모로코에서 조립되는 Dacia 자동차는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 튀니지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모로코는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로서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라 할 수 있다. 2012년도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도 호조를 보임이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1,320대를 판매, 전년도 대비 17.58%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BMW는 1,336대를 판매 (17.22% 증가), 아우디는 1,289대를 판매했다. (13.58% 증가)

타. 제조업

모로코 정부는 취약분야 이었던 제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자유 무역 지구 제정 및 여러 혜택을 통해 해외 기업 공장 설립에 힘쓰고 있다. 이와 맞물려 중국 및 동남아시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비교적 저렴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현재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상주해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 이점 또한 해외 기업 공장 입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모로코는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아우르며 유럽과의 접근성이 역시 용이하다. 탕헤르 항만과 유럽 대륙과의 거리는 불과 16KM 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겨냥한 해외 기업들의 모로코 공장 설립이 증가했다.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는 탕헤르 항만은 위와 같은 이점을 바탕으로 2017년 까지 800만개의 컨테이너 수용 능력이 가능한 시설확대 공사 중에 있다.

또한 모로코의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상승은 해외기업 공장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모로코 제조업은 현재 항공, 자동차, 가전제품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의약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공장들이 들어서있다. 자동차의 경우 카사블랑카 Somaca 공장과 탕헤르 르노 자동차 공장이 설립되어 있으며 항공기에 경우 캐나다 기업인 Bombardier가 입점해 있다. 모로코에 설립된 주요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은 유럽 기업으로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이 주요 국가이다.

모로코 주요 제조 공장

제조사	국적	제품	위치
Renault	프랑스	자동차	탕헤르
Somaca	모로코	자동차(르노 자동차 생산)	카사블랑카
Fagor	스페인	가전제품	모하메디아
Simone	스페인	전기기기	탕헤르
Bombardier	캐나다	항공기	카사블랑카
Yazaki	일본	자동차 부품	탕헤르, 케니트라, 메크네스, 카사블랑카
Souriau	프랑스	항공 부품	탕헤르
Sanofi-Aventi	프랑스	의약 제품	카사블랑카
Bayer	독일	의약 제품	카사블랑카
Pfizer	독일	의약제품	엘 자디다
Ratier Figeac Aero	프랑스	항공부품(온도계기판)	카사블랑카
Europack	스페인	포장재	탕헤르
Delphi Packard	미국	자동차부품(자동차케이블)	케니트라
Fujikawa Automotive	일본	자동차부품(자동차케이블)	케니트라
Lear Automotive	미국	자동차부품(자동차케이블)	케니트라
Schlemmer Maroc	독일	자동차 부품(자동차 틀)	탕헤르
Relats Maroc	스페인	자동차 부품(자동차 틀)	탕헤르
Valeo Vision	프랑스	자동차 부품(조명)	탕헤르
Denso Thermal System	일본	자동차 부품(냉방기)	탕헤르
Jobel Sa Maric	스페인	자동차 부품(좌석)	탕헤르
Volkswagen	독일	자동차	탕헤르

르노-닛산 탕제공장과 Somaca공장은 모로코 내 유일한 자동차 공장이다. 두 공장은 국내 판매보다는 해외 시장 수출에 목적을 둔 제조공장이다. 르노-닛산의 2012년 수출 대수는 47000대 이며 Somaca는 약 3만 여대를 수출했다. 특히 르노-닛산 탕헤르 공장은 2012년 수출대수를 넘어 2013년 10만대 수출에 성공했으며 2014년 34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Yazaki는 스즈키 자동차 부품업체로써 이미 모로코에 4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Delphi Packard, Fujikawa Automitive, Lear Automotive, Schlemmer Maroc, Relats Maroc, Valeo Vision, Denso Thermal System, Jobel Sa Maric 8개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모로코 산업부장관과 2013년 5월 6억 디람 상당의 투자를 성사해 제조업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또한 독일 유명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2013년 6월 탕제 시장과 구두합의를 통하여 폭스바겐 제조공장 설립에 동의 했다. 또한 일본 전자제품 업체인 소니역시 모로코 제조 공장 설립을 검토중 인것으로 밝혀졌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모로코-EU 협정

2000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모로코-EU간 관세 철폐가 2012년 3월 1일자로 완료되었다. 매년 해당 품목군들의 관세율이 일정 비율로 인하되다가 직물(양장품, 기성복, 가죽, 신발등), 화학 제품, 준화학 제품, 금속공예품, 자가용등을 마지막 단계로 모든 EU제품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2013년 3월 라밧에서 개최된 모로코-EU간 자유무역지구 협정 회의가 열렸다. 위 협정 회의의 목적은 모로코가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통합을 위한 것이다.

EU는 그간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모로코는 팔레스타인, 튀니지에 이어 북아프리카에서 3번째로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EU는 이외에도 남아공('00.1월), 이스라엘('00.6월), 이집트('01.6월), 레바논('02.1월), 알제리('02.4월) 등과 제후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소위 "Barcelona Process"를 통해 EU-지중해권 국가간 2012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EU-모로코 제후협정은 공산품을 크게 5개 품목군(자본재, 원자재, 부품, 국내제조 공산품, 국외제조 공산품)으로 분류하여 모로코의 연도별 수입관세 인하 또는 철폐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왔다.

유럽연합(EU)은 모로코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지난 2000년 3월부터 모로코-EU간에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를 실시하였고 지난 2012년 3월 1일부로 관세가 전면 철폐되어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모로코는 대외거래의 약 75%를 유럽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 전반이 유럽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원자재, 부품, 모로코에서 생산되지 않은 공산품은 2000년 3월부터 매년 25%씩 관세율이 인하되어 2004년에는 완전 무관세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소형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제품, 섬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2003년부터 10년 간에 걸쳐 매년 10%씩 관세가 인하되었다. 또한 모로코의 경제 현대화를 위한 과도기 원조 제공과 모로코의 전통적 농산품에 대한 이전 수준의 EU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안전, 사회개발, 환경보호, 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모로코와 재정 지원 협약에 체결 했다. 모로코 재정 경제부 장관은 2013년 12월 5일 라밧 에서 유럽 연합과 1조8천억 디람 규모의 재정 지원 협약에 동의하였다. 이번 협약의 MENA지역 국가 협약 중 최대 규모이다. 재정 경제부 장관은 라밧에서 유럽 연합 대사 Rupert Joy와 협의에서 해당 지원 협약을 담은 Statut Avance 문서에 사인했다. 유럽 연합 측은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Statut Avance를 골자로한 이번 협약은 모로코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단계인 Hakama 프로젝트는 8억 4천만 디람 총액으로 공공 서비스 투명성과 질 향상을 목표로 시행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유기적인 재정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인 <Emploi-PME> 프로젝트는 4억 4천만 디람 규모로 중소기업 창업 강화와 중소기업 활동 강화 프로젝트이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및 노동 관련 기관 능력 강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문맹 교육 사업으로 3억 9천만 디람이 투입된다. 2016년을 목표로 문맹률 2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conseil agricole>로 농업부가 1억 8천만 디람을 지원 받게 된다. 해당 프로젝트 목표는 농업 분야 발전 강화와 소작 농업 업체 지원 특히 농업 상품화에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유럽연합측은 농업, 수산업, 지방 발전 분야는 모로코와 유럽연합 협력에 중요 분야이며 2011-2013년 동안 Pilier II와 Maroc vert 프로젝트에 약 260억 디람이 투입되었다. 이번 유럽연합 지원 협약은 모로코의 지중해 국가 경제 시장 진입을 겨냥하는 전략이다. 이번 협약은 구조 계획뿐 아니라 경제, 사회에 걸쳐 분포되어있다. 유럽 연합 측 대표인 Rupert Joy는 이와 같은 기록적인 재정 지원이 현실적인 실행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모로코-미국 자유무역협정

모로코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는 2004년 6월 타결되어 2006.1월 발효되었으며 2015년까지 95% 이상의 공산품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도 2006.1월 발표되어 향후 10년에 걸쳐 수입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 전면 철폐될 예정이어서, 터키산 섬유 및 의류제품의 모로코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 아가딜협정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 지중해 4개국이 2004년 체결한 '아가딜협정'은 2006년 7월 발표되었으며, 모든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수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도 제거되어 지중해 아랍권 4개국 간 자유무역지대가 창설 되었다. 모로코는 EFTA(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도 1998.1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이처럼 모로코는 다자 및 지역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유무역협정 효과분석 결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기존 협정의 보안과 더불어 신규 협정체결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최근 무역동향

1) 2013년 1월-10월

2013년 1월-10월 모로코의 대외교역액은 4,668억 디람(CAF기준)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1%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2012년 동기간 4,768억 디람 기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였고 수입은 2.4% 감소해 수입량의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경상수지 적자는 1,634억 디람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2012년 전반기 경상수지 적자 1,690억) 2013년 1월-10월 대수입비(커버율)은 48.2%로서 전년 동기(47.7%) 대비 0.5% 증가했다.

2013년 1월~10월 모로코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디람, %)

구 분	2012년 1월-10월	2013년 1월-10월	증감	
			금액	비율(%)
수입(CAF기준)	3,229	3,151	-78	-2.4
수출(FOB기준)	1,539	1,517	-21	-1.4
수 지	-1,690	-1,634	56	3.4

자료: 외환청(Office des Changes)

2013년 1월-10월 무역량은 2012년에 동기간에 비해 다소 주춤한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금액과 수입금액 모두 지난해 비해 다소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증가세가 2012년 전반기 보다 다소 약화된 덕분에 경상수지 적자가 다소 감소했다. 이러한 수입증가세 감소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자원, 원유, 완제품, 식료품 수입 감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10월 주요 수입품목금액

(단위: 백만 디람,%)

제 품	2012년 1월-10월	2013년 1월-10월	증감율(%)
기계장비	6,156	5,210	-18%
화학 용품	6,906	6,682	-3.3%

산업용 자동차	6,761	6,919	2.3%
플라스틱 제품	2,600	2,833	8.3%
밀	9,121	7,325	5.5%
가스, 석유, 탄화수소	16,706	15,832	-5.5%
원유	29,847	29,057	-2.7
오일가스, 중유	30,951	30,539	-1.3

2013년 1월-10월 수입금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가스, 석유, 탄화수소와 기계장비 감소이다. 특히 가스, 석유, 탄화수소 수입량은 2012년 1월-10월 167억 디람 대비 5.5% 하락한 158억 디르함의 수입금액을 기록했다. 기계장비 수입량은 2012년 동기간 615억에 비해 18% 감소한 2013년 520억 디르함을 기록했다. 또한 원유와 석유량은 2012년 1월-10월 298억 디르함에서 2013년 동기간 290억 디르함으로 5.5%의 감소량을 보였다.

2013년 1월-10월 주요 수출품목금액

(단위: 백만 디람,%)

제 품	2012년 1월-10월	2013년 1월-10월	증감율(%)
인광석 및 파생품	41,284	32,316	-21.7
농산물	25,908	27,798	7.3
가죽 및 식물 제품	27,795	26,550	-4.5
자동차	20,727	24,645	18.9
전기제품	6,487	5,878	10.4
항공 부품	5,555	6,347	14.3
의약품	684	771	12.7

2013년 1월-10월 수출판매액은 2012년 동기간 대비 1.4% 감소한 1,517억 디람을 기록했다. 수출 품목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광석 수출판매액은 2013년도 1월-10월 동안 2012년 동기간 대비 21.7% 감소한 323억 디람을 기록했다. 2013년 1월-10월 기준 모로코 수출판매액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인광석과 가죽 및 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상승세를 보이며 대수입비가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2013년 1월-8월기준 전체 수출 중 프랑스의 비중은 22%, 수입비중은 13%로 가장 높은 교역 비중을 차지했고, 스페인이 수출 비중 19%, 수입비중 13%를 각각 기록하였으며, EU와의 관세장벽이 철폐되면서 당분간 EU 편중 현상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전반기 수입국 제 3위를 기록했던 중국은 FTA 발효국인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4위로 내려가며 예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모로코 주요 교역대상국 현황(2013년 1월-8월)

(단위: 백만 디람, %)

수 입			수 출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스페인	34125	13	프랑스	26917	22
프랑스	33346	13	스페인	23916	19
미국	17899	7	브라질	8425	7
중국	17619	7	미국	6224	5
사우디	15230	6	인도	5327	4
이탈리아	14123	6	이탈리아	4682	4
독일	12379	5	UEBL	3339	3
러시아	10537	4	독일	3294	3
터키	7232	3	네덜란드	3293	3
영국	4661	2	영국	3103	3

자료: 대외 무역부(Ministère du Commerce Extérieur)

2) 2013년 1분기

2013년 1분기 모로코의 대외교역액은 1,331억 디람(CAF기준)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2012년 1분기 1,403억 디람 기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였고 수입은 5.1% 감소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449억 디람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2013년 1분기 대수입비(커버율)은 49.6%로서 전년 동기(49.6%) 대비 동일하다.

2013년 1분기 모로코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디람, %)

구 분	2012년 1분기	2013년 1분기	증감	
			금액	비율
수입(CIF기준)	938	908	-30	-3.2
수출(FOB기준)	465	445	-20	-4.4
수 지	-473	-463	-10	+2.2

자료: 외환청(Office des Changes)

3) 2013년 2분기

2013년 2분기 모로코의 대외교역액은 1430억 디람(CAF기준)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12년 2분기 1,487억 디람 기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였고 수입은 7.6% 감소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460억 디람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2013년 1분기 대수입비(커버율)은 48.3%로서 전년 동기(45.9%) 대비 2.4% 증가했다.

2013년 2분기 모로코 대외교역 동향

(단위 : 억 디람, %)

구 분	2012년 2분기	2013년 2분기	증감	
			금액	비율(%)
수입(CAF기준)	1022	945	-77	-7.6
수출(FOB기준)	465	485	+20	+4.3
수 지	-557	-460	+97	-18.5

자료: 외환청(Office des Changes)

4) 2013년 3분기

2013년 3분기 모로코의 대외교역액은 1,368억 디람(CAF기준)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12년 2분기 1,344억 디람 기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였고 수입은 4.3% 증가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490억 디람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2013년 3분기 대수입비(커버율)은 47.2%로서 전년 동기(49.6%) 대비 2.4% 감소했다.

2013년 3분기 모로코 대외교역 동향

(단위 : 억 디람, %)

구 분	2012년 3분기	2013년 3분기	증감	
			금액	비율(%)
수입(CAF기준)	899	929	30	4.3
수출(FOB기준)	445	439	-6	-1.3
수 지	-454	-490	-36	7.4

자료: 외환청(Office des Changes)

5) 2012년

2012년의 모로코의 대외교역액은 5,707억 디람(CAF기준)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11년 5,326억 디람 기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하였고 수입은 7.9% 상승해 수입량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경상수지 적자는 1,870억 디람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2012년 대수입비(커버율)은 47.8%로서 전년 동기(48.9%) 대비 1.1% 감소했다.

2012년 모로코 대외교역 동향

(단위 : 억 디람, %)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	
			금액	비율(%)
수입(CAF기준)	3,577	3,861	284	+7.9
수출(FOB기준)	1,749	1,846	97	+5.5
수 지	-1,927	-2,014	-187	4.5

인산염 수출은 전년대비 33.2%가 증가한 358억 디람(42억 달러)을, 인광석은 40.4% 증가한 126억 디람(15억 달러)을 수출을 기록했다.

그 밖에 기성복(180억 디람, +1.4%), 전선 및 케이블(150억 디람, +9.2%), 양품류(74억 디람, +6.2%), 갑각류 및 조개류(48억 디람, +5.5%), 구리스크랩(33억 디람, +77.5%), 아르간(22억 디람, +43.9%), 산업용차량(18억 디람, +65.3%)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트랜지스터(48억 디람, -2.2%), 가공어류(42억 디람, -14.9%) 토마토(24억 디람, -12.9%)등은 수출이 부진하였고 디젤 및 중유가스(319억 디람, +63.4%), 원유(313억 디람, +24.8%) 수입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 했다.

2011년기준 전체 수출 중 프랑스의 비중은 20.3%, 수입비중은 13.8%로 가장 높은 교역 비중을 차지했고 스페인이 수출 비중 18.1%, 수입 비중 10.6%를 각각 기록하였으며,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등 EU와의 교역비중이 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모로코 주요 교역대상국 현황(2012년)

(단위: 백만 디람, %)

수 입			수 출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프랑스	47,831.6	12	프랑스	42,216.5	24
스페인	50,875.6	13	스페인	30,269.2	16
중국	25,585.1	7	인도	10,005.9	5
미국	24,597.8	6	브라질	10,918.1	6
사우디	24,410.5	6	미국	8,015.4	4
러시아	20,263.3	5	이태리	6,368.8	3
이태리	18,934.3	5	네덜란드	5,318.5	3
독일	18,443.4	5	영국	5,147.6	3
이라크	10,053.8	3	독일	4,883.6	3
터키	9,797.0	3	터키	2,898.9	2

자료: 대외 무역부(Ministère du Commerce Extérieur)

모로코의 대외교역액 추이

(단위 : 억디람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10월 기준)
수출	1,391	1,444	1,749	1,846	1517
수입	3,054	3,3966	3,577	3,861	3151
수지	-1,663	-1,952	-1,927	-2,014	-1633

자료 : 대외 무역부(Ministère du Commerce Extérieur)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모로코 교역 현황

한-모로코 교역 규모는 2010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1년 우리나라의 對 모로코 수출은 362백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으며, 수입은 137백만달러로 10.6% 감소했다. 2012년 對 모로코 수출은 508백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3%로 크게 증가했다. 수입도 21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1%로 증가했다. 2013년 1-10월 우리나라의 對모로코 수출은 23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8%감소, 수입은 9,700만 달러로 51.1% 감소했다.

모로코-한국 무역 통계 총괄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10
모로코수출	391	302	322	362	508	237
(증가율)	(0.1)	(▽22.7)	(6.8)	(12.3)	(40.3)	(▽48.0)
모로코수입	173	109	153	137	218	97
(증가율)	(64.4)	(▽37.1)	(40.9)	(▽10.6)	(59.1)	(▽51.1)
무역수지	218	193	169	225	290	140

자료: KOTIS

나. 주요 수출입 품목동향

2012년도는 자동차(18.6%), 레일 및 철구조물(297.6%), 정전기(7,196%), 영상기기(9.5%)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월~10월까지 대 모로코 수출 현황은 2012년 동기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인 자동차(-43.5%), 건설 광산 기계(-25.2%), 인조섬유(-5.0)들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계요소(85.7%), 정밀 화학 원료(11.6%), 고무제품(12.2%) 등의 제품이 수출 호조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 모로코 수출현황(2013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2(1월~10월)		2013(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114,160	23.4	64,467	-43.5
2	건설광산기계	20,429	46.1	15,288	-25.2
3	기계요소	8,047	3,304.2	14,942	85.7
4	인조섬유	13,625	1.9	12,947	-5.0

6	정밀화학원료	10,539	-41.3	11,757	11.6
5	전선	10,461	240.2	10,746	2.7
7	기타기계류	18,633	2,690.4	8,968	-51.9
8	합성수지	9,871	-35.5	8,844	-9.4
9	기타석유화학제품	9,840	-13.9	8,844	-10.1
10	고무제품	7,418	27.9	8,319	12.2
총액		139,250	-54.4	237,070	-48.0

한국의 대 모로코 수출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111,172	0.6	131,882	18.6
2	영상기기	30,167	-20.4	33,038	9.5
3	레일 및 철구조물	7,899	6,822.4	31,409	297.6
4	정전 (static electric)기기	361	177.8	26,330	7,196.9
5	건설광산기계	16,764	35.4	24,295	44.9
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2,166	49.3	20,111	65.3
7	기타기계류	1,781	1,756.9	18,707	950.4
8	인조섬유	16,835	17.6	16,147	-4.1
9	정밀화학원료	20,663	39.7	13,279	-35.7
10	화전 (rotary electric)기기	5,257	16,775.9	12,096	130.1
총액		362,317	12.3	508,464	40.3

주: 정전기: 배전 및 제어기기, 변압기 / 인조섬유: 폴리에스테르 섬유

기타기계류: 대우건설 현장설비 부품 / 화전기: 교류 전동기

자료: KOTIS

모로코로부터 수입은 나프타, 銅, 구리 반도체(IC) 순이다.

한국의 대 모로코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2년(1월~10월)		2013년(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86,077	95.1	24,743	-71.3
2	동제품	36,176	23.8	17,337	-52.1
3	의류	14,244	23.1	15,903	11.7
4	반도체	13,572	26.9	12,144	-10.5

5	알루미늄	5,564	0.3	5,813	4.5
6	아연광	936	-	3,372	250.0
7	기타금속광물	15	-	2,627	17,396.9
8	해조류	2,893	206.3	1,516	-47.6
9	연체동물	931	-	1,475	58.4
10	기타비철금속제품	1,959	-17.4	1,450	-25.9
총액		139,352	65.9	96,508	-51.1

한국의 대 모로코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나프타)	44,116	-39.1	86,077	95.1
2	銅(스크랩)	33,336	47.9	43,436	30.3
3	기타비금속광물	15,824	16.5	27,954	76.7
4	의류	12,865	20.1	16,015	24.5
5	반도체	13,402	4.4	15,645	16.7
6	알루미늄	5,905	-16.5	6,840	15.8
7	해조류	1,085	-76.1	5,150	374.7
8	기타금속광물	0	-99.6	2,967	7,063,476.2
9	기타비철금속제품	2,850	27.5	2,101	-26.3
10	아연광	0	-	1,853	-
총액		137,257	-10.6	218,303	59.1

주: 기타비금속광물 : 구리, 기타비철금속제품 : 알루미늄, 코발트

자료: KOTIS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세계무역기구(WTO)는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우루과이 라운드 각료 회의 결과 1995년 1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모로코 역시 WTO 가입국가로서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수입을 개방하고 있다.

그동안 모로코는 WTO 회원국 중에서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 공산품에 대한 최고관세율을 50%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수입현장에서 가격조작(Undervalue) 관행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EFTA(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등과 무역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인 가운데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1)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모로코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지난 2000년 3월부터 모로코-EU간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를 실시하였고 지난 2012년 3월 1일부로 관세가 전면철폐되어 자유 무역지대가 형성되었다. 모로코는 대외거래의 약 75%를 유럽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 전반이 유럽 경기에 큰 영향을 받고있으며, 관세장벽 외에 비관세장벽들이 자유무역의 또 다른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 농수산업 장관 Aziz Akhannouch는 11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모로코, EU 간 수산업 조항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 사이 11월 15일에 EU 장관 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동의를 이루어냈다 모로코-EU 수산업 협약에 대한 최종 통과는 위 해당 통과를 걸쳐 최종적으로 12월9부터 12일 까지 진행될 유럽의회에서 최종 판가름이 난다

유럽연합의 경기 침체로 인해 유럽 기업들의 투자 및 진출이 주춤한 상태이며, 유럽산의 덤핑공세와 함께 2012년 對모로코 수출이 40%이상 급증하여 2013년 수출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EU와 모로코간 자유 무역 지역 구성 방안에 대한 회의가 2013년 3월 라बाट에서 개최되었다. 모로코, 유럽연합 간 자유 무역 지구 회의는 효율적이고 더욱 세밀한 무역협정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아직 관세가 철폐 되지않은 분야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협의의 가장 큰 목적은 양측간 제도적 근접성을 고착 시키고 모로코가 유럽시장의 진입하는 것에 있다.

2) 미국

모로코-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04년 6.15일 타결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95% 이상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양국간 FTA 체결로 2005년 12억 달러 이었던 교역량에 비해 2010년 3000% 증가한 35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10년 교역량 성장률은 19% 증가했으며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로코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미국과의 FTA 체결효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모로코산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출증가보다 미국산 제품의 모로코로의 수입증가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터키

2006년 1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터키산 제품의 모로코 수입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며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될 예정이다. 터키는 세계 2위 수준의 섬유산업 강국이어서 터키산 섬유 및 의류제품의 모로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나. 반덤핑제도

반덤핑법규의 관련법규는 왕령(Dahir 15조 13-39항)이며 관련부서는 모로코 상공부 및 재무부이다. 세부 덤핑규정은 모로코 국내업체의 제소에 의해 상공부가 덤핑여부를 조사하며 덤핑판정이 날 경우 재무부에 요청,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외국산 수입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발달이 미약한 수준이며 밀수품 단속이 정부의 최대 현안 사항 으로서 있어 덤핑에 대한 규제가 관심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면서 반덤핑제도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 합판에 대해 2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5년간 미국산 PVC에 대해 22,9%에서 56.2%까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유럽, 인도산 철강합판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실행됨에 따라 룩셈부르크 철강회사인 ArcelorMittal에 29.12%, 인도 철강회사인 Tata Steel에 22,11%의 반덤핑관세가 6개월동안 일시적으로 부과된다. 추가적으로 터키산 철강합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도 이루어 질 예정이다.

더불어 최근 중국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모로코 경제인협회(CGEM)등을 중심으로 인보이스 가격을 속이는 상품에 대해 보다 철저한 세관의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모로코 진출은 소매업에 집중되고 있어 모로코 소매상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 정부조달, 입찰

정부나 공기업을 통한 물품조달이나 입찰의 경우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물품조달이나 입찰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부적으로 인맥을 통해 이미 거래상대방이 결정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 선택에 있어 공무원 개개인의 관심사는 어떤 기업이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떤 기업과 손잡을 경우 자신의 부가 증가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라. 수량규제(쿼터)

모로코에는 수입수량규제가 없는 대신 국가 정책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농수산물, 중고의류, 재생타이어 등의 품목에 대해서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예) 농산품에 대해서는 밀(73%), 설탕(60%)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FTA 확대

모로코의 주변국과의 FTA 시행으로 인하여 모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대 모로코 수출이 점차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로코는 EFTA(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국가와 1998년 1월 기준 향후 12년 동안 관세철폐를 규정하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바 있으며, 2001년 5월 Agadir 선언에 따라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등 4 국간 자유무역지대(Arab-Mediterranean FTA) 설립을 위한 협정이 2004년 2월 체결됐다. 또한 2010년부터 캐나다와 모로코간 FTA계약을 위한 협상에 착수 했으며 현재 양국간 FTA 4차 협의가 2013년 6월 라باط에서 개최되었다. 추가적으로 EU-모로코간 수산업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FTA 협정은 2004년 6월 서명되어 2006년 1월 발효되었으며, 미국은 FTA체결이후 공산품 거래가 3,000% 상승하는 등 모로코 수입 국가 중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터키와도 2004년 4월 FTA 를 체결(2005년 1월 발효)하여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모로코-EU 간 관세 철폐가 2012년 3월 1일자로 완료되었다. 매년 해당 품목군들의 관세율이 일정 비율로 인하되다가 직물(양장품, 기성복, 가죽, 신발등), 화학제품, 준화학 제품, 금속공예품, 승용차등을 마지막으로 모든 EU 제품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EU와의 관세 철폐 완료로 현재까지 집계된 한국 제품의 직접적인 피해 상황은 없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 직물류, 철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타이어, 가전제품(냉장고) 등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모로코 내 제조공장이 설립되면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과의 FTA협상은 지난 2010년 10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 FTA 체결을 위한 여건조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국간 교역규모가 작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아직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캐나다와의 FTA협약을 위한 협상이 캐나다, 모로코에서 3차례 진행되었으며 최근 협상은 2012년 라باط에서 개최 되었다. 또한 주 모로코 멕시코 대사는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양국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 유럽기업 우대

모로코는 유럽에 대한 오랜 식민생활과 유럽에 대한 근접성으로 인하여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모로코 기업들이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유럽 기업들은 모로코에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모로코 업체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등 아직도 모로코 기업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또한 모로코 정부역시 유럽 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취약분야로 꼽혔던 제조업 분야가 정부 주도하에 유럽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발전궤도에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탕헤르, 카사블랑카와 같은 도시의 자유 무역 지역에는 다수 유럽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향후 다수의 유럽 기업들도 입점 예정이다. 위와 같은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은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과는 역사, 지리, 전략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 제1차 모로코-EU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안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3월 1일부로 그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관세 철폐가 완료되어 자유 무역지대가 형성되어 앞으로의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 아시아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 추세

과거 유럽 일변도 였던 모로코 시장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수출, 투자가 감소하자 품질이 좋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시아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나 저품질 제품, 저가품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일본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나 가격이 비싸 상대적으로 한국, 대만의 제품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모로코 무역교역량 3위 국가인 미국을 제치고 모로코 대외 교역량 3위국으로 부상했으며 주된 수입품목 중 하나인 차는 매년 1200만 달러 규모로 모로코는 중국 차 수출 제 1위 국가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탕헤르, 케니트라 지역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다수 진출하는 등 모로코 제조산업 투자에 한창이다. 한류로 인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삼성, LG와 같은 한국기업의 이미지가 좋아 앞으로 다양한 한국산 제품이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기대된다.

5. 관세제도

가. 주요 관세 제도

모로코로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가 대표적이다. 기존 재정관세의 일종인 수입국고 공제세(PFI)는 폐지되어 수입관세에 포함 됐다.

1) 수입관세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제품의 특성과 자국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영세율(0%)로부터 최고 25%까지 적용되며, 농산품에 대해서는 추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모로코는 WTO 가입국들 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은 국가였으나 최근 들어 대외통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던 최고관세를 기존 50%에서 2012년 2월 기준 25%로 낮추었고 적용 관세율은 2.5%, 10%, 17.5%, 25% 등 4종류로 단순화 되었다.

모로코 공산품 수입관세 인하일정

(단위 :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5	5	2.5	2.5
10	5	2.5	2.5
20	17.5	10	10
27.5	27.5	25	17.5
35	35	30	25

2) 수입국고 공제세: PFI

모든 수입상품에 공통 적용되며 세율은 15%로 고정이다. 단, 투자진흥 및 개발에 필요한 자본재나 그 부품, 부분품, 부속품은 수입국고 공제세가 면제된다.

3) 내국 소비세: TIC

수입관세(D.D) 및 수입국고 공제세(PFI)와는 달리 특정 카테고리의 수입상품이나 청량음료, 포도주, 맥주, 설탕 등과 같은 국내산 제품에 부과되고 있다. 비알콜성 음료는 100리터당 7-20디람, 맥주는 100리터당 550디람, 담배는 52%, 에너지 제품은 톤당 7디람이 부과 된다.

4)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국내세이나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세율은 긴요긴급품목(에너지, 식용유 등 일부 식품, 학용품 등)에 최저 7%가 부과되며, 부동산 및 차, 커피 제품에는 14% 일반 상품의 경우는 20%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단, 의료장비 및 기기일부, AIDS/당뇨/천식/심장병 등 일부 질병 치료약, 비영리 단체용 자본재, 장비, 기구, 산업용 기계, 플랜트류, 공공단체에 대한 선물, 원조품, 농산물 원료와 제품, 자본재와 부품·부속품, 세관에서 경제적 제도 일환으로 수입되는 원료 및 제품에는 면제된다. 또한 모로코에서 제3국으로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업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나 면제는 불가능하다.

나. 주요 관세율

주요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모로코 재무부 산하 세관당국에서 발간되는 수입 관세율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모로코 세관(Administration des Douanes et Impots Indirects) 사이트(www.douane.gov.ma)에서 간략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HS CODE 검색 및 품목별 관세율, 특정 나라와 모로코와의 협약에 대한 관세율,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부 품목이 많으므로 정확한 HS코드 10자리를 모두 입력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관세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로코 HS코드를 통한 관세율은 <http://www.douane.gov.ma/adil/>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다. 관세 지불 제도 개선

1) 전자 결제 시스템(EDI)

관련 세관 부서와 은행 간에 전자 시스템을 연결하여 수입업자의 물품 통관 요청 시 거래 은행에 관세 송금 지시를 하며, 입금 처리 후 세관에서 업자에게 증빙을 지급하면 물품을 통관한다. 기존에는 모든 결재를 수표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통관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 신속하고 편하게 관세를 지불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었다.

2) 신용 통관 제도

수입업자는 우선 물품을 통관하고 추후 관세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업자는 관세 당국과 협약서 체결 후 일정 금액한도 이내에서는 신용 통관을 할 수 있다. 상기 제도는 우선 카사블랑카 지역 항구 및 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모로코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 신용 카드 이용 제도

화물이나 공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관세를 은행 신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법적 근거를 준비 중이다.

라. 수입쿼터

모로코에는 수입 쿼터 제도가 없으나 국가 경제 정책상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쿼터 제도 대신 수입되는 상품의 성질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CE, ISO 등의 유럽 규격 인증과 글로벌 심사 기준이 모로코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며, 가격 협상 시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모로코 자체 검사 기준을 요하는 분야는 통신산업분야와 식품분야로 이동통신기기수입은 모로코 통신감독원(ANRT)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식품분야는 식품관리위원회(EACCE)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 외 특별 인증제도가 없는 제품들은 바이어 차원에서 샘플을 송부 받아 정부 부처의 수입인증 획득 후 본 선적이 진행된다.

나. 주요인증

1) 이동통신기기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의 통신기기 심사를 거쳐야 수입 가능하다. 모로코는 중고 핸드폰 수입이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 통신감독위원회: Agence Nationale de Réglementation de Télécommunication

모로코의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 산업을 관장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각 통신 업체를 통제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또한 통신법 제정의 틀을 제공하며, 통신요금 규제 및 주파수 사용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 식품

모로코 수입관리청(EACCE: Etablissement Autonome de Contrôle et de Coordination des Exportations)에서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농수산물, 식품에 관해 검사를 실시한다. 가공식품 제품은 품목명, 내용물(ingredients),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무게 등이 표시가 된 라벨링이 필수이며 통조림 제품은 제조일 및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3) 목재 및 펄프

ISO 외에 따로 받아야 하는 자체 인증은 없다.

4) 보석, 액세서리 류

모로코 세관(DOUANE)에서 인체 유해 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사 후 자체 인증 표시를 찍는다.

5) 금속

ISO, RADIO 등의 인증이 필요하다. 모로코는 스크랩(폐철)을 다른 산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속류에 관한 심사가 까다롭다.

6) 전자, 전기

유럽 규격 CE 마크가 모로코 내에서도 유효하다. 가전제품에 대한 모로코 정부당국의 별도의 인증 및 시험(Test)제도는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다.

7) LED 조명기기류

모로코에 LED조명 (등기구, 램프) 판매 유통시 강제 인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8) 레이저 기기류

통관과정에서 따로 요구되는 인증사항은 없으나 제품 세부 사항에 따라 인증사항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므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9) 인증 양식이 없을 경우

위 언급된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 제품은 인증 양식이 없으며 모로코 업체 샘플 송부후 모로코 업체가 제품에 만족하면 정부 부처의 인증을 받아 수입한다.

유형	기관명	홈페이지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
수입허가	대외무역부	www.mem.gov.ma	중고타이어, 중고 의류 가연성 화학제품
선적전신고	산업부	www.mce.gov.ma	모든 수입품목
품질검사	대외부역부	www.mem.gov.ma	공업품목
위생검사	보건부	www.srweb.sante.gov.ma	동물, 가축사료
식물검역	농림부	www.agriculture.gov.ma	농산물
정부부처동의	보건부	www.srweb.sante.gov.ma	의약제품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모로코는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모로코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률은 1916 년도에 처음 공표된 후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실정에 부합되게 개정되기 시작했다. 개정된 지적소유권법의 특징은 239 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며, 민·형사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모방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유권 침해 시 최소 1 개월에서 최고 2 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최소 2,500 달러에서 최고 5 만 달러가 부과된다.

모로코 산업 및 상업 지적재산권공사 OMPIC(Office marocain de propriété industrielle et commerciale)에 따르면 모로코 기업인들은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허등록 등을 생소한 업무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업체 및 각종 경제인협회를 대상으로 이해 대한 홍보를 기획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특허, 브랜드, 모델, 디자인 등 관련 상세한 정의를 규정했으며, 등록 시 1 차 등록 후 3 개월 안에 신청자가 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으며 제품의 디자인과 모델 등록 시 비공개 신청을 없앴다. 또한 1916 년도 법률상에 명시된 모로코 일부 지역에서만의 보호조항을 삭제해 등록된 지적소유권은 모로코 전역에서 보호되도록 했다.

모로코는 공업소유권의 사용 및 등록에 관련되는 다수의 국제 조약에 서명했으며, 법령(dahir/1919.6.23)에 의해 산업소유권보호법(Protection de la Propriete Industrielle)은 특허 및 상표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로코는 사법체계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국인 동시에 저작권보호협정(브뤼셀 협정)에도 가입했다.

모로코 특허청(OMPI, L'Office Marocain de la Propriete Industrielle)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1916 년 6 월 23 일, 모로코 국왕의 명령으로 창설됐다. 상공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신청(발명특허, 상표권, 의장등록) 접수, 등록, 교부 및 공표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은 또한 산업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경제 주체에게 인식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명특허, 상표권, 의장특허(등록)의 제반 권리를 관장한다.

모로코 특허청은 특허권에 대한 자료, 상표권에 관한 국가 색인표, 상표권 및 의장등록에 관한 등록 장부, 재산권에 관한 연례 통계, 특허권에 관한 분기별 통계, 연구자료, CD-ROM 에 수록된 외국특허(ACCESS, WORLD), CD-ROM 에 수록된 국제적 상표(ROMARIN)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현재 모로코 특허청은 아랍 연맹, 아프리카 국가의 특허청과 연계해 특허 관련 협력을 하고 있으며 아랍 연맹과는 특허 관련 전략에 관해 정기적인 포럼(마지막 개최 2012년 5월 23일~24일)을 열어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나. 상표권

상표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상표는 완제품, 반제품뿐만 아니라 자연상태나 인공상태의 원자재에도 부착할 수 있다. 상표는 보험사, 은행, 여행사, 운송회사 같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상표는 모로코 특허청 및 상공부 산하 지방관청 및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모로코 특허청(OMPIC)은 모로코 최대 전자상거래사인 Maroc Telecommerce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상표등록을 받고있다. 또한 온라인 상표 등록시 1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 특허권

개인 혹은 법인은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청 및 모로코 내의 모로코 특허청(ONPI)에 특허 신청을 낼 수 있다. 단일종류의 유럽식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모로코 특허보다 유럽 특허의 신청 절차가 길고 수수료가 비싼 편이나 유럽 특허가 보호범위 측면에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뮌헨 협정에 조인한 모든 국가에 이 특허가 적용돼 선호되는 편이다.

특허협조조약의 가입국에 거주지 혹은 주요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은 동 조약 하에 특허를 소유하도록 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 특허에 대한 신청서는 신청자 자국의 중앙특허청 및 조약에 가입한 국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특허의 이점은 모로코 외에도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하는 여러 국가에 확장되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 저작권

문학 및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하기 위한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저작권은 작가에게 재산권 및 윤리권 등 2 개의 주요한 권리를 제공한다. 재산권은 저자에게 금전적 수익을 위해 창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윤리적 권리는 문학 예술 작품의 비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예술작품의 고유성 및 작품에 대한 작가로서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동 권리는 영구적이고, 양도되지 않으며, 작자 사망 시까지 유지되며,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인계된다. 작가는 작품에 대한 재산권의 일부 혹은 전부, 작품 완성권 및 복제권을 매매할 수 있지만, 윤리권은 매매로 양도되지 않는다

8.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가. 통관제도

1) 개황

모로코 수입시장은 주류 및 식료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품의 수입을 허용할 만큼 내수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 규제 조치는 없으나 일부 불요불급 소비재, 사치품, 모로코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모로코는 대외통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 최고관세를 기존 50%에서 2012년 기준 25%로 낮추고 적용 관세율을 2.5%, 10%, 17.5%, 25% 등 4종류로 단순화했다.

정부가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역의 유럽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무역 상대국 다변화 정책을 위해 모로코는 사우디와 직접 해상 무역로 개척을 동의 했으며 2013년 12월 브라질과 무역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2) 수입허가 및 관리

2012년 3월 모로코-EU간 FTA무역협정이 완료되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 결과 역외국가인 우리나라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더욱이 모로코는 2013년 3월 EU와 경제 자유 구역 협상에도 들어가 시장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EU와 무역 범위가 더욱 근접해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로코- 아랍국가 간의 FTA체결을 위한 협정서명(2004. 2월) 및 모로코-미국 간 FTA 타결 및 서명(2004. 3월), 모로코-터키 FTA체결(2004 .4월)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입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수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모로코는 캐나다와 FTA협상에 있다.

3) 통관 절차

수입상품의 통관절차는 수입신고와 수입심사로 시작하여 물품검사, 세금(관세)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정부당국의 투명한 통관행정 관행정착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전자통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수입 신고

모로코와 제3국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교역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통관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ENGAGEMENT)와 함께 수출입화물 도착 통지서(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세금감면 대상 화물(어망 등 어획장비, 선박용엔진, 건설용 기계 등 자본재)인 경우 증빙 서류,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관세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면장은 수량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입상품에 한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은 상공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에 명시되고 있다.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는 수입면장은 6부의 사본이 구비되어야 하며, 수입 약정서는 수입면장 대상이 아닌 상품수입 시 요구되며, 사본 5통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상공장관에게 사전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사전신고서(DPI)는 국내생산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수입할 때 요구되고, 이는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며, 6통을 준비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 일자 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고,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며,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수입 면장과 수입사전신고의 최초 조건을 수정(Amend)할 경우에는 다시 수입자격을 요구하는 대상이 된다. 수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수입업자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Fichier Central des Importateurs(무역업자 색인표)에 등록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화해지고 있으며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다.

5) 물품검사

물품 검사 시에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수량, 품목, 규격 등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수량이 다수인 경우에는 견본을 지정하여 검사하기도 한다. 물품 검사는 통상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기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보세구역에서 실시한다.

기타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세관원이 현장으로 파견돼 검사한다. 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등을 이유로 수입품을 타 세관 관할 구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 전체 수입가 상당액의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 전에 이동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인보이스 가격조작(under value)이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6) 화물반송(SHIP BACK)

모로코에서는 컨테이너의 반송(SHIP BACK)시 사유를 불문하고 CONSIGNEE의 인수확인증 (ACCEPTANCE LETTER)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인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화물 반송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반송 결정까지 많은 시일을 요한 경우 세관에 컨테이너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나. 운송제도

부산에서 카사블랑카로 상품을 보낼 때에는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지의 항구에서 환적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포워딩 에이전트에서는 통상 40여일 소요된다고 하지만 40여 일 내에 도착한 예는 거의 없다. 더욱이 컨테이너 베이스가 아닐 경우나 환적항 에서 파업이나 선임이 저렴한 선사를 통해 선적할 경우에는 2~3개월이 소요되어 무역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현지의 한국 운송업체로는 한진해운이 진출해 있으며 외국계 운송회사로는 MAERSK 등 유명 운송기업들의 대부분이 진출해 있다.

1) 국제공항

모로코는 주요 도시에 27개의 공항이 산재해 있으며, 이 중 국제공항은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라바트-살레, 우즈다, 아가딜 등 15 개에 이른다. 모로코 공항시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음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카사블랑카의 모하메드 5세(Mohamed V) 공항은 선진국 수준의 시설로 서부 아프리카 제1의 공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간 승객 500 만 명(정기항공편: 350 만명, 전세기편: 150 만 명)을 수송이 가능하다.

Mohammed V(모하메드 썩크) 공항의 경우 2012년 5월, 공항 재정비 사업에 착수하여 북아프리카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위 사업은 배후단지 조성 사업으로 총 2억 디람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2013년 말 완공 예정이다. 또한 공항 인근 지역에 항공 제조업 공장과 부품공장 설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국제 공항으로써의 면모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1월 동안 모로코 전체 공항 고객수는 2012년 동기간 대비 6.57% 증가한 126만명을 기록했으며,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은 56만명, 마라케시 국제공항 35만명, 아가딜 국제공항 11만명을 기록했다. 또한 비행기 운항수는 12,175건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1.4% 증가량을 보였다.

2) 국제항구

모로코에는 24개의 항구가 있으며, 이 중 국제항은 Casablanca, Tanger, Kenitra, Mohamedia, Agadir, Nador, Safi 등 9 개이다. Casablanca는 모로코 전체 선박화물의 40~ 50%를 처리하는 최대 항구로 세계 각국의 화물선, 운반선 등이 입항하고 있으며 관광 유람선도 증가하고 있다.

모로코 북부지역의 주요 항구인 탕제(Tanger)에서 스페인 남부 Algeciras, Gibraltar, 프랑스 남부 Marseille 항구를 운항하는 선편이 발달되어 있으며, 승용차를 함께 실을 수 있어 유럽 에서 차량편으로 모로코를 여행할 수 있다. 또한 모로코 최북단 지역에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Ceuta)에서 스페인 남부 Algeciras 항구까지 하계 휴가 시즌 에는 평상시에는 매일 수차례씩 차량 운송이 가능한 페리를 운항하고 있다.

2,500여 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는 24개의 항구가 있으며, 대외무역 운송의 98%에 달하는 연간 4,0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주요 항구별 물동량을 살펴 보면 최대항구인 Casablanca가 1천만6,00백만 톤으로 40%, Mohammedia가 7,500 천 톤으로 18.5%, Jorf Lasfar가 5,200천 톤으로 12.7%, Safi가 4,800천 톤으로 11.8%, 남부 어업 기지인 Agadir가 804천 톤으로 4.5%, 북부 Tanger가 1,728천 톤으로 4.3%의 수송 분담을 하고 있다.

모로코 북부 지역의 해안선 개발, 어업시설 확충, 무역증대 및 관광개발, 고용창출, 어로 취업인구, 소득증대, 항구시설 및 어항 개발을 위하여 유럽국가의 경험자금 등의 재원으로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탕제(Tanger)에서 35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10억 달러 규모의 신항만 건설(TangerMed Project)이 완료되었다. 탕제 신항만은 약 2000헥타르 면적에 300만 컨테이너가 수용가능하다. 배후시설 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의 고속도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당제 자유 무역지구와 근접해 있어 수출에 유리하며 2015년 까지 800만 컨테이너 수용력을 위해 Tanger Med II 건설 중에 있다. 참고로 탕제 신항만은 2012년 파이낸스 타임지의 국제 무역항 순위에서 라트비아의 벤츠펠드 무역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탕제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세계 나도르(Nadour) 지역에는 대규모 LNG 터미널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모로코 지중해 연안의 개발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9. 수출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

- 보안기기
 - 보안관련 장비 및 시스템
- 어업관련 제품
 - 어망, 낚시줄
- 발전 및 송전관련 전력기자재
 - 변압기, 배전 및 제어기기, 케이블, 발전기
- 산업용 벨트, 컨베이어
- 농업관련 기계 및 공구
 - 트랙터, 수확기, 자동경작기, 탈곡기, 양수기
 - 모로코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대형화 추세
- 산업 기계류
 - 섬유기계, 디지털 직조기계, 식품 포장기계, 플라스틱 사출기계
 -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공장 증 설추세
- 건설 중장비 및 부품
 - 햄머&비트, 천공 및 시추장비
 - 민간 및 공공주택 건설 활발
- 보건위생 제품
 - 관절염, 당뇨병치료제, 의료용전자기기
 - 소득증가로 개인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
- 자동차부품
 - 한국브랜드 완성차 시장점유율 확대로 관련부품 수요 증가
- PVC SOL Tapaulin
 - 각종 텐트 및 광고 간판용 소비 증가

10.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모로코는 석유 등 부존자원이 적어 1인당 국민소득이 다른 중동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약 3,200만 명(세계 38위)의 인구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이다. 연간 수입규모는 290억 달러를 상회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에 이어 4위의 수입시장이다.

나. 시장특성

모로코는 수입의 대부분을 전통적인 공급처에 의존하고 있다. 구식민종주국 프랑스를 비롯 스페인, 사우디(원유), 미국(곡물), 중국, 독일 등 6개국으로부터 총 수입의 60% 이상을 공급받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의 값싼 공산품 덕분에 중국은 올해 모로코 수입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특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양국 정부 간의 경협을 통한 USANCE 결제 조건 수용, 단기 인도기간, 신속한 A/S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한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자본재부터 주류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을 수입하고 있어 가장 개방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입 관세가 높아 가격 경쟁력이 현지진출에 최대의 관건이다.

재화 / 서비스 수출입 통계

(단위: 십억 디람)

구분	2012	2013. 1-7
재화 (FOB)	353	222.1
서비스	74	61.2
합계	427	283.3
재화 (FOB)	183	108.1
서비스	115	39.1
합계	298	147.2

자료: 모로코 외환청 (Offices des Changes)

재화 / 서비스 수출입 통계(전년대비 월비교)

(단위: 십억디람)

구분		2012.1-7	2013.1-7
수입	재화 (FOB)	228.6	222.1
	서비스	63.5	61.2
	합계	292.1	283.3
수출	재화 (FOB)	109.2	108.1
	서비스	41.0	39.1
	합계	150.3	147.2

자료: 모로코 외환청 (Offices des Changes)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은 원유, 가스 비롯하여 화학제품, 밀, 플라스틱 제품, 설탕, 원목, 종이류, 강관, 자동차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밀은 미국에서,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가로, 가스는 알제리에서 공산품은 중국 등 후발 개도국에서, 자동차와 자본재는 유럽과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주요 상권은 대서양 연안을 낀 '카사블랑카-라바트(수도)-케니트라'이며, 카사블랑카권이 약 70%, 라바트-케니트라권이 약 20%, 나머지 지역이 약 10%를 점유하고 있다. 카사블랑카상권은 'DERB OMAR' 지역에 80%가 몰려 있으며, 대부분 수입 및 도매상이다.

현지 수입 상품의 유통 단계를 보면 '수입상-도매상-소매상' 단계나 수입 딜러의 직접판매 형태가 일반적이며, 주요 지역마다 밀수품 유통의 근거지 (카사블랑카의 경우 '데르브 갈레프DERB GHALLEF')가 있다. 모로코 정부가 지속적으로 밀수 척결에 나서고 있으나, 밀수품 유입에 의해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해 밀수로 인해 산업적 피해금액은 1천6백만 디람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로코-알제리 국경 사이 밀수 시장 확대로 양국 경제 상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양국간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안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

상업중심지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유통중심지가 생겨나고 있는데 MARJANE에는 전자 제품 등이, BENOMAR는 의류, 가구, 귀금속 등 전문유통점이 선을 보이고 있다. 전자 제품 전문 쇼핑몰인 Microchoix, Electroplanet 등 전문 유통 매장이 증가추세이다. 2011년 카사블랑카 해안가에 대형 쇼핑몰인 모로코몰(Morocco mall)이 개장하였고 프랑스 라파에트 백화점 이외에도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3년에 관광리조트를 포함한 쇼핑센터 Anfaplace가 개장했다.

위와 같은 대형 쇼핑몰 이외에도 카사블랑카 같은 대규모 도시에 소규모 전문점, 고급 상점 지구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시내 곳곳에 위생 제품, 수공예품, 기름, 꿀,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 제품에 특성화 되어있는 소규모의 전문점이 위치해 있다.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고 많은 수익을 내는 고급상점들은 도시 중심에 위치한 상업 지구에 형성되어있다. 위와 같은 상점들은 주로 향수가게, 신발(babouches : 모로코 전통신발)가게, 의류 매장, 보석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형 유통 체인인 Marjane, Acima, Carrefour, Atacadoa(METRO, 독일 Metro AG계 설립, 2010년 Carrefour market label'vie에 의해 인수 Atacadao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중이다.)와 MARJANE(모로코 황실 계열 홀딩회사인 SNI가 운영)이 주요 도시인 카사블랑카, 라바트, 페스, 마라케시 등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하이퍼 마켓과 슈퍼마켓이 산재해 있다.

특히 Marjane, Acima, Carrefour는 대형 유통 체인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산층 증가로 현대적 유통 시스템을 갖춘 해당 대형 유통 매장들은 향후 대폭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는데 유럽업체들이 지리적 이점뿐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다. EU 는 모로코와 전통적으로 경제협력관계가 돈독할 뿐 아니라 D/P, D/A 거래의 일반화, 짧은 인도기간, 신속한 A/S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

모로코 북부 스페인령(세우타, 메릴라 등)을 통한 밀수품 유입으로 시장이 왜곡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활동 위축 및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지하경제가 총 GDP의 50%를 차지, 정부의 밀수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근절에 어려움이 있으나 모로코-EU 간 자유 무역협정에 의거해 2012년 3월 이후 관세 철폐로 밀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유층은 고급 브랜드, 저소득층은 저가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이 저가의 경공업 제품을 석권, 한국의 경공업제품 진출 입지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태이다. 추후 소득 수준이 꾸준한 상승을 이룰 경우 중산층 증가로 이어져 중-고가의 한국 가전제품 및 자동차 판매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기준 산업자재 및 유통물품들의 중고 제품의 수요가 높고 그에따른 설비 보수를 위하여 관련 부품들의 수입 수요도 늘어나고있는 상황이며 일례로 농기계, 자동차부품 등이 해당된다. 중고제품 또는 중저가 제품의 경우 단가는 낮더라도 소비층이 넓게 산재해있어 타겟층이 넓은 반면, 고급 제품 및 고가제품의 경우 소비층이 얇은 단점이 있으므로 모로코인의 소비수준을 잘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출해야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

다. 유통구조

모로코 내에는 전통적인 상거래 관행상 도·소매상 간의 유통단계 구분이 모호하고 혼합되어 있다. 모로코에 현대적인 시설과 규모를 갖춘 대형 유통 매장이 진출한 것은 15년이 경과했으며, 2010년 기준 카사블랑카, 라바트, 마라케시, 페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 체인인 마르잔(MARJANE)과 아시마(ACIMA), 카르푸(CARREFOUR)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5년 전부터 프랑스 유통업체인 AUCHAN이 투자한 ACIMA가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망 확대로 소비자 유통은 163억 달러(2011)의 매출을 달성 했다. 2012년에는 2011년도 대비 24% 증가한 195억을 달성했다.

모로코의 유통 산업 현황은 1990년 중반 이후 문을 열기 시작한 대형 할인 유통 매장과 소규모 다단계의 중간상인, 우리나라의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같이 '수크(SOUK)'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재래시장으로 대별된다.

모로코 정부는 현대식 유통·물류 시스템을 도입·확산하여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라와즈(Rawaj) 계획을 2007년 6월 발표했다. 2020년까지 유통산업의 GDP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모로코 정부는 유통개발기금(Fonds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distribution) 9억 디람을 조성하였으며, 중소 유통업체, 자영업자,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 소매유통의 현대화(대형-체인) 비율은 12%에 불과하여, 앞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주요 대형유통업체로는 SNI(Marjane, Acima), Aswak Asslam, Atacadao, Label'Vie, BIM Giant 등이 모로코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유통 현대화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산업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류, 외식, 미용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의류(29%), 외식(11%), 미용(7%), 가구(6%) 순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분포되어 있으며, 국별로는 프랑스 브랜드가 49%, 모로코 16%, 미국 11% 순이다.

전자상거래(신용카드, 온라인)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2013년 1분기 모로코의 온라인(인터넷) 상품·서비스 구매액은 2012년도 동기간 대비 36% 상승한 4억 8300만 디람을 기록했다. 인터넷 결제서비스수는 130만 6천 회를 상회 하며 이 수치는 2012년 동기간 대비 47% 증가 했다. 통신료, 전기 수도세 지출이 전체 결제수의 44%, 인터넷 쇼핑 31%, 여행상품 구입 18%이며 2011년 실행한 인터넷 행정서비스(E-Gov)가 7%를 차지한다. 은행카드 결제는 모로코 '은행공동결제센터(CMI)가 주관하며, 가맹점 수가 증가함은 물론 온라인 구매 활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모로코에는 수입 제품에 따라 전문화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있다. 예를 들면 기계, 전기 제품을 취급하는 STOCKVISS사, 건축 토목 자재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돌보-롱고메탈(DOL BEAU-LONGOMETAL), 공투와 메탈튀르지끄(COMPTOIR METALLURGIQUE), 가구 제품을 취급하는 키티아(KITEA), 황실계열 홀딩그룹인 SNI의 자회사로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일렉트로플라넷(ELECTROPLANET) 등이 있다.

이들 대형 수입 유통업체들은 외국산 수입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모로코 내 주요 지역에 산재한 판매망(대리점)을 통해 도소매로 유통시키는 경로를 갖고 있다.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는 직판하거나, 해외 유명메이커의 독점 공급 에이전트 계약 체결로 모로코 내 유통을 독점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

모로코의 현대 자동차 현지 에이전트는 Global engines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기아 자동차는 Kia motors maroc에서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입업자 ⇒ 도매상 ⇒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각 단계별로 약 20~30%의 유통마진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협회 및 기관

수출 관련 국가 기관이나 협회에 의뢰하여 관련 품목의 바이어를 찾는 방법이 있으나 홈페이지가 대부분 프랑스어 또는 아랍어로 작성되어 있고, 이메일 및 유선 연락도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 모로코수출진흥공사(Maroc Export)

- 23, bd Ibn Majid Elbahar -ex Girardot, 6°, 7° & 8°ét. - 20000 Casablanca
- Tel: 0522 30 22 10 / 0522 30 75 43
- Fax: 0522 30 17 93 / 0522 45 05 57
- Web Site: www.marocexport.ma

□ 무역협회(Foreign Trade National Council)

- Angle Avenue Annakhil et Avenue Mehdi BENBARKA, Immeuble LES PATIOS, Bâtiment II, 5e étage - Hay Riyad, Rabat
- BP 1478 (RP) Rabat Tel: 0537 57 29 83 / 0537 57 29 84 / 0537 57 29 85
- Fax: 0537 57 29 82 / 0537 57 29 81
- Web Site: www.cnce.org.ma

□ 모로코 상공회의소(Federation of Moroccan Chambers of Commerce, Industry and Services)

- 6, Rue Erfoud Hassan, Rabat
- Tel: 0537 76 70 51 / 0537 76 70 78
- Fax: 0537 76 78 96
- Web Site: www.fcmcis.ma
- E-mail : fcmcis@menara.ma

□ 모로코 경제인 연합회(CGEM/ General Confederation of the Enterprises of Morocco)

- 23, Bd Mohamed Abdou - 20340 - Casablanca
- Tel: 0522 99 70 00

- Fax: 0522 98 39 71
- Web Site: www.cgem.ma
- E-mail : cgem@cgem.ma

□ 카사블랑카 투자지원센터(CRI/ Centre Regional d'Investissement Grand Casablanca)

- 60, avenue Hassan II ,20000, CASABLANCA
- Tel: 0522 48 18 88
- Fax: 0522 48 21 15
- Web site: www.casainvest.ma
- E-mail: info@casainvest.ma

□ 탕제 투자지원센터(Centre Regional d'Investissement de Tanger-Tétouan)

- bd. Omar Ibn Khattab TANGER, 90000
- Tel: 0539 34 23 03 / 0539 34 23 04
- Fax: 0539 94 33 14
- Web site: <http://www.investangier.com>
- E-mail: info@investanger.com

2) 전시회

모로코에서는 주요산업인 농수산 관련 전시회를 비롯하여 환경, 기계,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국제전시회가 증가하고 있다.

연간 전시회 개최일정에 대한 일관적인 정보는 카사블랑카 전시센터 OFEC 홈페이지(www.ofec.ma)와 코트라 해외전시정보 사이트(www.gep.or.kr)를 이용하면 당해년도와 차년도 주요 전시회 개최 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카사블랑카 전시 센터 OFEC(Office des Foires et Expositions de Casablanca)

- 11, rue Boukraa, Casablanca, Morocco
- Tel: 0522 20 11 57 / 0522 20 06 54
- Fax: 0522 26 49 49
- Web Site: www.ofec.ma
- E-mail : foire@ofec.ma

□ 외환청 전시 센터(Exchange Office Exhibition Center)

- Route El Jadida, Casablanca, Morocco
- Tel: 0537 72 41 28
- Fax: 0537 72 12 85
- Web site: <http://www.oc.gov.ma/portal/fr/content/centre-international-conference/calendrier>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찾고자 할 때는 Telecontact, Kompass 등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수출 진흥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 www.telecontact.ma
 - 모로코 전화번호부인 텔레콩택트의 홈페이지. 대부분의 회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배너 광고도 가능하다.
- www.kerix.net
 - 모로코 전화번호부인 케릭스의 홈페이지. 대부분의 회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www.menara.ma
 - Maroc Telecom이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 모로코 가입자수가 가장 많으며 메일 계정, 검색 엔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www.fcmcis.ma
 - 모로코 상공회의소
- www.cgem.ma
 - 모로코 전경련 홈페이지

12.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모로코인의 기질, 습성

1) 키워드 1: 존중(Respect)

모로코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로코 비즈니스맨들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며, 동시에 상대방도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 모로코에서 예의와 존중은 비즈니스의 필요조건이며, 예의 없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모로코 비즈니스맨과 상담할 때 이들과 이들의 문화를 존경하는 언어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키워드 2: 인간관계(Personal Relations)

모로코에서 가족은 사회생활보다 중요시되는 가치이며, 가족은 모로코 문화의 중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족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이어서 모로코에서는 일회성 만남을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되는 인간관계가 비즈니스에서도 크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비즈니스가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넓고 깊이 있는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3) 키워드 3: 체면 혹은 명예(Honour)

모로코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러기에 비즈니스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는 지에 민감하다. 모로코 비즈니스 맨들은 즉각적인 논쟁과 대립을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하여, 이러한 태도가 종종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태도로 발전되곤 한다. 모로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일단 긍정(Yes)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대답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모로코 사람들과의 비즈니스에서는 이들의 대답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전후맥락을 살펴서 판단해 보고, 다시 확인 하는 세밀함이 요구된다.

4) 키워드 4: 인내심(Patience)

모로코에서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모로코 비즈니스맨들은 재촉당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며, 미팅약속을 사전 통보 없이 지키지 않거나, 30분~1시간 늦는 것을 크게 유념하지 않는다.

나. 비즈니스 관행

1) 비즈니스 언어는 프랑스어, 아랍어, 영어 순

프랑스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다음으로 아랍어(모로코 방언)와 영어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다. 비즈니스 미팅에 앞서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게 될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통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금요일 11:00~15:00 는 기도시간

대부분의 모로코 회사들은 매주 금요일 11:00~15:00 를 기도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금요일은 비즈니스 미팅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로코 비즈니스맨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주중에도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방문 또는 면담 전에 개인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라마단 기간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로써 매년 약 1달간 라마단 기간이 존재한다.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력(曆)에서의 9월이다(약 7월 중순부터 8월초). 라마단 기간 동안 모로코 공공기관 및 업체들은 단축 근무 시행을 하며 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또한 라마단 기간 종료후 국가 공휴일이 많아 9월 초까지는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모로코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은 라마단 기간을 피해 모로코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좋다.

4)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모로코 회사들은 최고경영자를 정점으로 한 수직-관료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거래의 성사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최선이며, 실무자와 처음 접촉을 시작하게 될 경우,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다. 비즈니스 에티켓

초면에 인사로는 악수가 일반적이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볼을 맞대는 인사도 널리 행해진다. 그러나 여성과 인사할 때는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면에는 성(姓)을 호칭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름을 처음부터 부르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대화 처음부터 본론(사업)으로 접어드는 것은 좋지 않다. 먼저 건강, 가족 등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대화를 시작하여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부인 등 여성 가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언사는 금하도록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의 의견에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로코 사람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공연한 비난은 비즈니스 관계를 크게 훼손한다. 반대의견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적절한 중개인을 활용하여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 비즈니스 우먼

모로코에서 여성의 사회생활 특히 비즈니스 참여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모로코 여성경영인협회(AFEM, Association des Femmes Chefs d'Entreprises du Maroc)는 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ISO9001를 획득했다.

마. 바이어 상담 및 거래 TIP

모로코 바이어와 만날 때, 아랍어(모로코식) 인사말 정도를 기억해 두었다가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상담이 한결 매끄러워질 것이다. 모로코의 대외교역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럽의 인증·규격 획득여부, 유럽 기업과의 거래실적을 부각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유효하다.

소매지의 경우 대부분이 철저한 가격시장임에 따라서 오퍼가격에 네고(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품의 품질에 대해 관심이 있더라도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협상 이전에 네고 가격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 모로코 시장에 진출할 때는 중·저가품 위주의 소량 오더 수주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지 수입업체와 최초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 빠른 기간 내에 제품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 규모 모로코 바이어들은 5만달러 미만의 소량을 주문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해당 수입품을 모로코 시장에서 테스트하여 검증을 해야하며, 자체 자금 회전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대다수 모로코 바이어들은 재고를 쌓아둔 상태에서 새로운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로코 바이어와의 교신에 이메일이 활용될 수 있지만, (모로코 정부기관의 경우 교신 시 공신력의 문제로 메일 문의보다는 팩스 서신을 선호) 유선으로 송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선박운송 기간이 통상 2~3개월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용장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모로코는 중동 비즈니스 관행을 따르고 있어,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피드백이 느리며 구매 의사 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따라서 거래 진행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바이어 발굴까지에도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13. 주요전시회 개최일정

가. 2014 년 상반기 전시회정보

전시회명	일정	개최장소	취급품목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 International Health Exhibition	01/10~01/13	카사블랑카	의학용품, 의료기기 등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 보안 및 보호 박람회 International Exhibition of Security and Protection for People and Properties	01/23~01/26	카사블랑카	보안 및 보호설비
모로코 카사블랑카 태양열에너지 박람회	02/26~03/01	카사블랑카	태양 에너지
모로코 카사블랑카 호텔 박람회 International Exhibition of Hotel trade and related equipment	03/12~03/15	카사블랑카	주방설비, 식음료, 가정용품, 가구, 장식품 등
모로코 카사블랑카 의약 박람회 Medical Expo	03/19~03/23	카사블랑카	의약품, 의료기기
아프리카-아랍 보건 발전 박람회 Salon arabo africain santé et développement	03/19~03/24	카사블랑카	아프리카-아랍 보건 발전 강화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 도서 박람회 International Exhibition of Publishing and Book	03/29~04/07	카사블랑카	서적, 출판물
모로코 카사블랑카 전자상거래 박람회 E Commerce fair	04/24~04/26	카사블랑카	E-commerce, E-marketing
모로코 카사블랑카 대학생 박람회 International Student Forum	04/25~04/28	카사블랑카	대학생 진로 개발 도움 정보
모로코 카사블랑카 대학생 채용 박람회 Forum Student Training and Employment	04/25~04/28	카사블랑카	대학생 채용정보 제공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 자동차 박람회 International Automobile Exhibition	05/12~05/15	카사블랑카	중소형 승용차, 상용차 등
모로코 라마단 박람회 Ramadan Commercial Exhibition	07/03~07/29	카사블랑카	인테리어 제품, 가전제품 등

14. 수출성공, 실패사례

가. 의약 분야의 다국적기업 진출, 모로코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

모로코 의약품 업계의 발전에는 다국적기업의 인력양성, 노하우 축적, 신규투자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으며 이는 상기 분야 22개 업체 중 65~70%를 차지하는 다국적 기업의 공헌에 힘입은 바 크다.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간부들을 교육하는 플랜을 실행시키며 자회사의 인력을 교육시켜 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모로코에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외국 기업들이 연구개발 분야에 매출액 대비 15%를 투자하며 한 가지 의약품의 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약 4억~5억 달러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모로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전은 관련 연구소에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는데 5년간 상기 분야 투자 가 1.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모로코는 선진 의약품업체의 기술이전에 힘입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남아공에 이어 제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이 유럽기준으로 생산되어 일부는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수출잠재력은 총 생산량의 10%인 2,800만~3,5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모로코 자체생산의 약품들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과 알제리, 아이보리 코스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 권 및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아프리카 비중이 80%로 가장 높다.

일부 모로코 의약품 업계는 얼마 전 인수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구조조정을 끝냈으나 잔존 소형 업체들이 통폐합 되는 것이 확실 시 됨에 따라 향후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다른 문제점으로는 기존 라이선스를 통해 생산을 하던 다국적기업들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모로코 현지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로코-미국 간의 FTA 체결로 그동안 국내 제조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금지가 되어 왔으나 미국 의약품의 모로코 진출이 예상되면서 국내 의약품 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나. FAGOR MOROCCO, 신규 가전생산 라인 증설

Fagor Morocco 사는 가전제품 11개 생산라인에서 200개 모델을 생산하며 17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동 사는 매출액의 3%를 사원 재교육에 투자한 결과 자체 고용 인력으로 제품 생산 조립 노하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06년 4월 기준 본사 파견 기술 인력은 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동 사는 스페인 공장에서 ISO 9001,9002를 획득하는 등 품질 기술 인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곧 모로코 공장에도 시행 예정이다.

신규 생산 라인은 주로 가스레인지와 세탁기로 공세적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비로 400만 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다. FAGOR사의 모기업은 스페인 소재 MONDRAGON CORPORATION COOPE RATIVA(MCC)사로 연간 매출 64억 달러에 17.6억 달러를 해외로 수출하는 거대 기업이다.

이 회사는 100여 개의 계열기업에 4만7,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생산, 재정, 배급 분야로 구분된다. FAGOR사는 모로코에 투자가 용이했다며 해외 투자 시 애로사항들은 어느 나라에 투자하건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사항이라며 모로코는 특히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번 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이 회사의 현안으로는 대 아프리카 수출 목적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의 생산원가가 모로코 공장보다 스페인 공장이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 관세인하 정책으로인해 해외 가전제품들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모로코내에서 생산을 가동하고 있는 이 회사는 현지 시장 판매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모로코 정부에 산업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하고 있는 가전 제품들의 리뉴얼, 'Maid in morocco' 제품의 인식 개선 등 다각도로 판매 전략을 모색중에 있다.

덧붙여, 아프리카 시장 점령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모로코에서의 활동은 충분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2020년까지 아프리카시장의 20억명 고객 유치를 목표로한다고 전했다

15. 수출시 애로사항

가. 수출입 애로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식품, 전자전기 및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형 제품의 경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5 만 달러 미만의 소량 수입이 보통이다. 이는 제품을 현지시장에 테스트해 검증을 받아야 하는 특성과 자금 회전상의 문제때문이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산 품질을 인정하고 있지만 오퍼가격이 유럽의 주요 공급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산에 비해 평균 15~20% 낮아야 수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 2012 년 3 월부로 EU 와의 관세가 전면 철폐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 가격을 가장 중요시하는 모로코 소비패턴으로 인해 한국 산 제품은 중국산 제품과 비교해 가격면에서 경쟁성이 뒤쳐지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이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현지 바이어들이 가격을 중시하는 이유는 소비재의 경우 소비자들의 소득 분포가 양극화되어 있어 저가품만을 찾는 소득층의 구매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기계류 와 같은 생산재의 경우 특히 A/S 나 부품 및 부속품 조달상의 핸디캡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현지 세관당국이 소비재에 부과하는 수입관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평균 수입관세 35%에, 20% 내외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모로코에서는 한국 상품의 이미지가 양호한 편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저가격 중국제에 밀려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체로 수입 유통되는 품목들인 저가소비재류는 중국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고가품 일 경우 유럽, 일본 등의 제품 선호도가 높으나 가전제품, 핸드폰, 위성수신기, 직물 등은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다. 특히 핸드폰, TV 같은 전자 제품의 경우 삼성과 LG 가 시장점유율 상위권에 랭크되어 모로코 소비자들에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제조시설이 있는 회사일 경우 모로코 현지 판매시스템을 갖출 경우 시장점유율에서 유리할 수 있다.

국토 면적과 인구에 비해 구매력이 부족해 내수시장이 제한되어 있어 시장성 있는 품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원인은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없고 산업 설비재와 고급 소비재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유명브랜드가 수입되어 경쟁이 치열하며 일반 공산품은 아직도 밀수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자 및 섬유 등 일부 품목은 모로코 북부 스페인령 세우타(Ceuta)나 메릴라(Melilla)를 통해 밀수입되고 있어 이들 품목과의 경쟁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입규모는 소액, 소량이 일반적이며 밀수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 인하 요구가 심한 편이다.

나. 행정관행

행정처리적인 면에서 한국의 빠른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모로코 현지 행정처리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모로코는 중동 비즈니스 관행을 따르고 있어,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피드백이 느리며 구매 의사 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따라서 거래 진행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바이어 발굴까지에도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모로코 업체들에 빠른 일처리를 독촉하고 수차례 일의 진행 상황을 되묻는 것은 모로코 바이어에게 반감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IV. 투자

1. 투자 환경

가. 개요

1995년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으로 불리는 모로코의 투자 인센티브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되어 현재는 영역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투자행위가 단일 법령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 관련 혜택으로는 각종 세금 경감(지방세, 재산세, 소득세 등), 등록절차 간소화, 법인세, 토지 취득에 대한 등록수수료(총 금액의 2.5%) 면제, 부가 가치세 및 수입관세 면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물품 수입에 대한 낮은 관세율 부과 등이 있다. 또 창업 기업에는 3년간 특허세가 면제되며 경제적 제도 외 일환으로 수입되는(판매의 목적이 아닌 기업 활동의 필요에 의한 수입) 원료 및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TAV) 면제된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투자 인센티브 외에 주요 분야에는 특별 혜택이 주어지거나 정부와의 특정 협정에 의해 관리된다. 특별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주요 분야는 전자, 건설, 광업, 수출, 농업, 호텔, 수공업, 섬유, 석유 등 관련 산업이며 특별 혜택은 내외국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투자기업의 고용인력 교육(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협약을 따르고 있다. 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국제-아랍 투자 보호 협회와 협약을 맺어 투자자들 보호에 힘쓰고 있다. 위와 같은 협약의 목적은 투자자 관리와 진출 확보, 자유로운 투자자본 및 수익 유통, 공공 목적을 제외한 투자 징수 방지 등 이다. 또한 이중 세금 방지를 위해 다수 국가와 협약을 체결했다.

2014년 모로코 투자 진흥 공사는 더욱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진출 기업 접촉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회의 등 약 75개 행사를 통해 모로코에 진출해있는 약 350개의 투자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모로코 투자 진흥 공사는 모로코 투자 촉진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인 <after-care> 서비스를 발족 시킬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한마디로 에프터 서비스로 모로코 내 프로젝트 실행 외국인 투자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41년 모로코 투자 진흥 공사의 목표는 3가지 기조를 세우고 있다. 첫째로는 전통적인 투자국가인 프랑스와 스페인과의 관계 보강을 목표로 하며 두 번째로 투자국가 다양화 확보로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캐나다를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걸프만 지역과의 비즈니스, 은행 프로젝트 협동 강화를 들었다.

2014년 프로젝트로 투자 위원회를 건립해 모로코 내 외국인 투자자 매출과 활동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투자 진흥 공사 운영과 효율성과 관련해 해당 기관은 감사 기관을 설치하여 모든 부서 능력 강화에 힘을 쓸 것이라 밝혔다.

이 외에도 모로코 정부는 '석유법(Petroleum Code)'을 제정하여 석유개발 회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에 인접한 'Tangier 자유지대'를 비롯한 전국 70개 산업공단 및 자유 무역지대(Free Trade Zones)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지역투자센터(Regional Investment Centre)를 개설하여 투자 관련 신고절차를 단순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의 연간 재무보고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6개 지역 투자센터(RICs: Regional Investment Centers)를 운영하여 외국 기업에게 모로코 시장 진출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센터(RIC)는 모로코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전자정부 사이버 네트워크(e-Government Cyber Network)'와도 연결되어 있다. 지역 투자센터에서는 허가 신청 및 기타 문서준비 등 창업절차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2일 이내에 창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나. 투자환경

2013년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지수에서 모로코는 185개국 중 97위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했으나 창업 부문에서 2012년 대비 38위 오른 56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급격한 순위 변동은 해외 기업과 해외국가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모로코 정부가 제도를 단순화하고 모로코에 진출하는 해외기업에게 여러 특혜를 부여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모로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으로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2009년 정부는 국가사업 환경 협회, CNEA를 개설해 새로운 사업자들이 법률, 규율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맞는 국가 기관 접근에 도움을 주고 있다. CNEA는 이외에도 모로코 진출 기업 관련 법 실행 및 World Bank와 함께 사업 환경 조사 사업을 실행 중이다.

모로코 정부는 민영화정책도 적극 추진, 실행 중에 있다. 1993년부터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교통시설 등의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다. 국영기업 민영화로 인한 재정수입은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유연한 확대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민영화로 인한 비정상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 투자인센티브제도

가. 개요

모로코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금융, 외환 부문에 대해 투자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현지인 고용창출효과가 큰 경우에는 모로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의 계약으로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나. 분야별 인센티브

1) 외환 부문

모로코 내에 거주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이 외화로 투자한 경우는 금액과 기간의 제한 없이 순익을 송금하는 것을 보장하며 전체 또는 부분적인 지분양도나 청산으로 인한 송금도 보장해 준다.

2) 금융 부문

프로젝트용 토지 취득비, 투자지역 인프라 비용, 직업훈련비는 모로코 정부와 기업 간 계약의 일환으로 국가가 일부 부담하고 있다. 이외 경제개발 수준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요하는 지역은 공단 구획 정리비의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은 없으나 투자기업은 모로코 법인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 모로코 기업과 동일하게 현지에서 금융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로코 진출 기업에게 제공 되는 금융 프로그램으로 IFP 펀드와 핫산II펀드가 있다.

IFP 펀드의 지원 사항으로는 업체 부지의 20%를 지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5%를 지원,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핫산II펀드(관련 분야: 자동차 산업, 전자제품 제조공장, 항공 장비 공장, 항공기 유지, 보수 분야)의 지원 사항으로는 제품 미터당 2,000 디람 이하(세금포함)의 부지에 대해 30%까지 지원하며 장비 구입에 15%를 지원한다.

3) 조세 부문

등록세 (Registration tax)	자본증자시 자본금의 1%, 1.5%, 3%, 6% (업종별로 비율이 상이함)
인지세 (Stamp duty)	장당 20 디람

소득세 (Income tax)	0%~38% 0~30,000 디람: 0% 30,000~50,000 디람: 10% 50,000~60,000 디람: 20% 60,000~80,000 디람: 30% 80,000~180,000 디람: 34% 180,000 디람 이상: 38%	
법인세 (Corporate tax)	일반적으로 기업 순이익의 30% (보험사, 금융 계열사는 37% 적용)	
특허세 (Patent tax)	비례세 (일반적으로 임대가의 10%에 해당) (기업의 장비종류 및 수에 따라 상이함)	회사 설립 후 최초 3년간 면제, 분기별 납부
관세 (Duty)	일반관세, 특별관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평균 20%로 품목별 ¹ 로 7%,10%,14%의 할인율이 적용되기도 함

기타, 토지 취득 후 회사 설립시에는 토지 취득세에 2.5% 할인세율이 적용되고 (건물 임대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회사 자본 증자시에는 [증자 자본금 - 원자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0.5%의 할인세율이 적용된다. 특허세가 면제되는 3년이 지난 후에는 특허세를 지불하여야 하고 회사 설립 후 특허세 면제의 혜택을 받다가 3년 이내에 기업 활동을 정리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특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 임금료, 근로소득, 토지이익, 농업소득에대한 소득세가 0%부터 38%까지 부과된다. 또한 회사 설립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장비, 자재들을 모로코로 수입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TVA)가 면제된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기업 활동의 필요에 의해 수입되는 장비에만 해당함) 관세의 경우, 수출하는 업체의 국적에 상관없이 모로코에서 제 3 국으로 재수출시 부과세 환급이나 면제는 불가능하다.

한편, 2000년 한국과 모로코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발효되었다. 적용범위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모로코의 경우는 일반 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 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 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 지분의 양도소득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문서:<http://www.law.go.kr/trtyInfoPWah.do?trtySeq=1108&chrClsCd=010202>)

¹ 긴요긴급품목(에너지, 식용유 등 일부 식품, 학용품 등)에 최저 7%가 부가, 부동산 및 차, 커피 제품에는 14% 일반 상품의 경우는 20%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투자동향

2013년 1월~7월 對모로코 외국인투자는 약 195.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 대비 27.1% 증가했으며, 직접투자(FDI)는 25.6% 하락했다. 간접투자는 35% 감소했다.

모로코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단위: 억 디람, %)

구분	2012		2013. 1월~7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직접투자	150.2	88.5	191.9	97.1
간접투자	7.4	4.3	5.6	2.9
민간차입	12.2	7.2	-	-
합계	169.8	100.0	197.5	100.0

자료: 외환청(Office des Changes)

북아프리카·중동지역 정세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하고 모로코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외국인투자 실적을 낸 것으로 평가된다.

모로코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2006~2012)

(단위: 억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9.7	47.3	31.7	23.2	46.8	34.4	23.9

자료: 외환청(Office des Changes)

주요 투자국가로는 프랑스(32.7%), 스페인(10.6%) 등 유럽국가와 사우디(10.6%), UAE(7.4%) 등 중동 산유국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3년 모로코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이 순조롭게 진행 중 이다. 모로코 투자 진흥 협회 회장 Ahmed Fassi가 밝힌 2013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012년 대비 증가추세 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2013년 8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모로코에 투입된 직접 투자금액은 약 270억 디람으로 나타났으며 투자 수입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16%는 산업 분야에 집중 되었으며 올해 1분기 산업 분야 투자액 비율은 전체 투자금액의 6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보인 분야는 식품 분야로써 투자액은 약 60억 디람에 이른다. 이와 같은 높은 투자율은 대형 글로벌 기업인 Danone/Central laitiere와 Kraft Food/Bimo가 각각 50억 디람, 10억 디람의 투자금액을 쏟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형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열릴 투자 위원회 회의 이후 발표 될 예정이다.

2013년 1분기 가장 높은 투자비용을 나타냈던 산업분야는 2013년 9월까지 분야별 투자 순위 1위에 랭크 되어있으며 총 투자비용 77억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수치는 2012년 산업 분야 투자비용 88억 대비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동시에 에너지, 광산 분야에 대한 투자비용은 15억 디람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투자금액의 11%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반대로 부동산 분야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는 2012년에 이어 2013년까지 2년 연속 투자비용이 감소했다. 2013년 1분기 부동산 분야 투자비용은 18억 디람으로 2012년 동기간 투자비용이 24억 디람과 비교해 하락한 금액이다. 하지만 총 투자비용 중 14%를 차지하며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직접투자비용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보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2013년 1분기 동안 약 70억을 투자했다. 이는 2012년 대비 55% 증가량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뒤를 이어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이 14%로 2위를 차지했다.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은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금액을 모로코에 투자하였다. 또한 영국은 3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모로코 투자 국가 3위권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스페인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대 모로코 투자 금액이 계속해서 하락세 있으며 이전에 비해 투자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모로코 정부가 2011년부터 펼치고 있는 투자 정책으로 향후 투자 전망도는 밝을 예정이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인도, 한국 등이 모로코의 잠재력을 높게 사고 있으며 투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로코는 유럽과 사하라 지역 아프리카 국가의 플랫폼 국가로써 해당 지역 여러 국가의 인프라 사업과, 은행 진출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모로코 투자 진흥 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인프라 개발로 총 비용 5조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외국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개발이다. 특히 해당 인프라 개발 계획은 도로, 항만, 공항 등에 집중 되어있다.

나. 투자헌정 개정

2011년 모로코 투자청은 투자헌정의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모로코의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OECD수준에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있으며, 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보장하고 모로코와 외국인 간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한 최저 투자금액을 2 억디람(18 백만유로)에서 약 1,800 만 달러로 낮추었고, 국가의 투자참여 가능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한편, 부대시설(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10%(기존 5%)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고용인력 교육(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지원하고 제조업의 경우 플랜트 건설비용의 최대 30%, 기계설비 구입비용의 최대 10%까지 지원하게 된다.

자동차, 항공, 전자, 의약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인센티브 수혜대상 분야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앞으로는 다각도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한편 개정안은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혜택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고용인원이 5,000 명 이상이거나 2 억 3,500 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해당 투자 인센티브 기한은 회사 설립후 36 개월 내에 이루어 진다.

또한 모로코 정부는 노동법, 저작권법, 재산법, 개인정보보안 등 국제 규격에 맞는 법을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당국은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투자센터 (RICs: Regional Investment Centers)의 기능을 강화해 외국 기업에게 모로코 시장 진출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센터(RICs)는 카사블랑카를 비롯한 모로코 주요 도시에 위치하며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전자정부 사이버 네트워크(e-Government Cyber Network)'와도 연결돼 있다. 동 센터에서는 허가 신청 및 기타 문서 준비 등 신생 기업의 창업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다. 모로코 투자 진흥 위원회(AMDI)

모로코 투자 진흥을 위해 설립된 AMDI는 기존 주요 투자 국가를 넘어 다양한 투자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AMDI는 유럽발 경제 위기 초기부터 주요 투자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을 넘어 투자 국가의 다양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세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여러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공격적인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또한 AMDI는 관광, 농업, 에너지, 교통, 산업 등 주요 국가 경제 개발 전략에도 참여하고 있다. 모로코 산업 진흥 협회인 PNEL의 활발한 산업 개발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AMDI는 항공, 교통, 전기, 정보 테크놀로지, 섬유, 농산업 사업 투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09년 AMDI의 창설이후 AMDI는 모로코 투자 유치에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현재 AMDI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미국에 사무소가 위치해있으며 2012년부터 UAE에도 사업소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AMDI는 영국 런던 및 아시아 지부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2011년 모로코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은 아프리카 3위를 기록하며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 중 투자금액 5위권에 기록되었다.

라. 관광산업 투자유치 육성정책

모로코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근접한 지중해에 위치해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이집트와 함께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힌다. 2012년 기준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51.2%, 인광석 등의 광업 및 섬유, 식료품 가공 중심의 제조업 32.2%, 농업 및 수산업이 16.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의 취약하고 관광 등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 경제 전반이 중동의 정세, 테러 발생 유무, 유럽 경기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쉽다. 관광산업은 인광석 수출에 이어 모로코에서 두 번째로 큰 외화 수입원으로, 연간 관광객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930만 명을 달성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유럽인이 대부분으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순이며, 최근 러시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러시아, 동유럽, 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와 같은 관광객 다양화 정책은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까지 러시아 관광객은 17,000명에서 30,000명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집트의 경우 매년 2백만에서 3백만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로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위와 같은 미개척 국가 관광객 유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 아랍의 봄을 겪은 이집트와 튀니지와 비교해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시 체류 관광객 외에도 은퇴 후 장기 체류하는 유럽인도 증가하며 각종 회의, 연수 등 비즈니스 관광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모로코 정부는 관광산업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Vision 2020이라는 국가 중장기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Vision 2020(관광개발계획)은 2010년 11월 30일 국왕인 모하메드VI가 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한 관광개발에 관한 중장기 국가전략으로서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진행되었던 Vision 2010을 계승해 관광 각 분야의 인프라구축, 산업육성, 홍보 및 마케팅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1년 1차 발전계획(Vision 2010)을 통해 계획시작 당시 440만명이던 모로코 관광객은 2012년 930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관광산업 매출은 70억 달러에 달한다.

비전 2020을 통해 정부는 지중해, 대서양 연안에 대표 관광지를 20군데 개발하고 20만개의 신규 객실을 창출해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여 세계 20대 관광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광지의 다양성 / 관광의 질 향상 / 지속 가능한(친환경)관광이라는 3가지 실천 축을 기반으로 6가지 세부실천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6가지 세부실천계획은 Azur Plan(해안 연안 개발사업), 친환경개발,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스포츠&레저, 의료관광, 숙박시설개발(Biladi)이며 국내외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Vision 2020 관광 육성 정책을 통해 지방 발전, 모로코 경제 분야 2위 달성, 2020년 내에 세계 관광지 순위 20위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Vision 2020

관광객 유치 계획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목표
호텔 수용력	객실 20만 개 증가
투자	해수욕장, 인프라, 호텔 산업 설비에 80 억 유로 투자계획
예상수입	480 억 유로
고용창출	47만 개 일자리 창출
관광 산업의 GDP 기여도 (%)	연간 평균 8.5% 증가

자료: 모로코 투자청

이 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관광산업 육성 세부전략인 Azur Plan 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Azur Plan 프로젝트

투자기관	투자지역	투자규모
Thomas & Piron(벨기에)	Larache	490 헥타르, 만 5,000객실
Kezner(남아프리카공화국)	El Jadida	500 헥타르, 8,000객실
Accor(프랑스), Thomas & Piron (벨기에)	Essaouira	356헥타르, 7,900객실
Colony Capital (미국)	Taghazout	685헥타르, 2만 4,000객실
Fadesa (스페인)	Saïdia Berkane	614헥타르, 2만 8,000객실
Fadesa (스페인)	Plage blanche Guelmin	525헥타르, 2만 6,000객실

자료: 모로코 투자청

Vision2020 정책의 일환으로 4가지 단계에 따라 지역개발에 나서고 있다. 취약지역 개발, 발달지역 개발, 포화지역 개발, 보존지역 개발 등이 있다. 취약지역은 관광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관광 요소를 개발하는데 있으며 발달지역은 호텔 같은 숙박시설의 쓸림현상을 방지하고자 외곽지역 숙박시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포화지역은 현재 관광요소를 유지하며 관광요소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보존 지역은 환경 보전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관광 요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별개발

지역개발	내 용	지역
취약지역 개발	관광 저해 요소 제거	마라케시, 엘사우에라 등
발달지역 개발	쓸림현상 방지	아가딜, 오아시스
포화지역 개발	관광요소 질 향상	탕제, 카사블랑카, 페스 등
보존지역 개발	환경 보호	다클라, 아틀라스 산맥

또한 Vision2020 정책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여행 업체 경쟁구도, 약 13 만명의 청년층 인재 교육, 마케팅 전략 강화, 정책 유지를 위한 금융 매커니즘, 관광 인프라 확보 등이 있다.

모로코 관광 투자는 호텔 및 콘도시설과 골프장, 승마장 등의 스포츠 시설에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아 관광 지역에 건설된 빌라 및 아파트 등은 빠르게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급속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기업들이 부동산 투자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모로코 정부 관광투자협회는 10,300개의 숙박시설과 4200개 일자리를 위한 140 억 디람(12억 유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외 경제 불황으로 총 투자의 82%가 국내 투자자들이었으며 뒤를 이어 미국 투자자가 15%, MENA지역 투자자가 4%이었다.

이에 따라 모로코 관광분야의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중동 기업들이 부분적으로는 부동산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지 건설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관광지별 (평균면적 300~400ha) 주변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지원
- 고급 빌라촌 건설 (빌라/아파트 당 분양가격: 50만~100만 유로)
- 고급 호텔 및 휴양시설 건설

중동 투자자들의 투자 거점은 모로코 북부의 Tanger 이며, 지역거점은 중부지역의 Marrakech, 대서양 연안의 Azur Plan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12년 5월에 열린 총리 주재의 투자위원회에서 관광산업은 총 투자금액의 22%에 달하는 44억 디람을 유치했다. 주요 투자 목적은 노동력 창출로, 투자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의 52%를 차지하며 약 2500개의 고용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모로코의 실업률 저하와 경제 부흥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2년 관광수입은 537억 디람으로 2011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 관광객인 이탈리아(6%), 독일(4%), 프랑스(1%)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 관광부는 비전 2020프로젝트에 대한 가시적 목표달성이 미흡한 점을 인지하고 계획을 보완해 수정하기로 했다.

2012년 기준으로 관광 등 서비스산업이 GDP의 52.6%를 차지하는 등 해당 분야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모로코 경제가 주변 정세, 유럽 경기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로 변했다. 2013년 들어 유연해진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자의 신뢰 증가로 외자 유치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1~ 6월 관광 수입은 252억 디람으로 전년 동기(247억 디람) 대비 2.1% 증가했다. 파리에서 발표한 프랑스인의 활동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 사이 모로코가 포함된 관광 상품을 선택한 관광객은 1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해 선두를 차지했다.

2013년 1~ 9월 관광 수입은 441억 디람으로 전년 동기(247억 디람) 대비 1.7% 증가했다. 또한 작년대비 관광객은 프랑스 23만명 4%증가, 스페인 15만명으로 작년 관광객수 유지, 독일 4만명으로 11% 증가, 영국 4만6천명으로 10%증가, 이탈리아 2만 8천명으로 14%가 증가했다.

2013년 1월~10월 해외송금, 관광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디람, %)

구분	2012년 1월~10월	2013년 1월~10월	증감금액	증감률
교포송금	49,728	49,963	+235	0.5
관광수입	48,626	49,421	+795	1.6
외자유치	19,838	24,604	+4,766	24

자료: 외환청(Office des Changes)

바. 모로코 진출 다국적 기업 현황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농업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모로코 진출기업의 50%가 프랑스계 기업을 선두로 스위스 기업이 15%, 이어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계 기업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진출 분야별로는 의약품, 위생용품, 타이어, 화학분야에 집중돼있다.

모로코 진출기업의 현지활동 제약요소는 금융, 행정 절차, 노사관계 외에도 모로코 내수시장이 협소한 것이 현지 영업활동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수시장의 협소로 모로코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ST MICROELECTRONICS(구 SGS THOMSON)사는 생산 전망을 수출하고 있다.

모로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치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투자 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수년간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모로코에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공공 서비스분야까지 진출을 하고 있으나 이런 투자확대의 걸림돌은 모로코 정부의 투자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부사정으로 인해 지지 부진한 실정이다.

모로코 진출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설문조사, 컨설팅 등 많은 조사결과는 모로코 시장의 상당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확인되었다. 투자확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모로코 내 도로망 및 항만과 공항의 시설미비를 들 수 있다.

우선 도로망의 경우 과도한 고속도로 통행료와 충분치 못한 고속도로망을 들 수 있으며 높은 교통사고율은 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항만의 문제점으로 신속하지 못한 서비스와 고가의 이용료와 물동량 처리의 한계를 들며 카사블랑카 항에 시설과 물량의 집중되어 있으며 공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수단 미미로 기업들이 종업원들에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생산원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 외 투자확대를 막는 요인으로는 시설이 완비된 공단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모로코 진출 외국기업의 97%가 인프라의 존재여부가 투자결정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밝혔으며 이중 34%가 모로코 인프라 사용료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생산비용 상승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상시 거론되는 전기료는 조사대상 기업인중 16%가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전기료 17% 인하조치가 긍정적이기는 하나 경쟁국인 튀니지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행정절차의 불투명성을 들 수 있다. 모로코 정부차원의 투자유치 의지와는 별개로 세부 시행절차들이 상호 부합되지 않는 점이 난제이며 이런 문제들은 모로코 행정부서간의 의견조율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PRICE WATERHOUSE 사 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률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기업들은 법률의 정확한 해석과 분쟁 시 빠른 중재를 원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은 노동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모로코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모-EU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향후 모로코 시장의 잠재력은 현실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노동력이 모로코 투자결정 요소 중 상위를 차지 할 정도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모로코 투자진출 주요해외기업

기업명	분야	국가	기업명	분야	국가
Accor	호텔업	프랑스	Lafarge	시멘트	프랑스
Corral	석탄 정제	사우디아라비아	Pfizer	제약	미국
Dell	컴퓨터	미국	Procter & Gamble	제지	미국
Delphi	자동차부품	미국	Renault	자동차	프랑스
EADS	항공부품	프랑스	Sanofi Avantis	제약	프랑스
Emmar	관광, 건설업	아랍에미리트연합	ST Microelectronics	중장비부품	프랑스, 이탈리아
FADESA	호텔	스페인	Sumitomo	자동차부품	일본
Fruit of the Loom	섬유	미국	Vivendi Universal	통신	프랑스

주: 알파벳 순

자료: investir.gov.ma

사. 현지 투자 사례

1) 의약분야의 다국적기업 진출, 모로코 관련산업발전에 기여

모로코 의약 분야는 2012년 기준 보건비지출은 1인당 37USD/연간으로 마그레브 연합(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모리타니, 리비아) 평균 보다 70% 가량 높다. 최근 정부는 최저 임금과 기본 식품 보조금의 인상하고 보건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로코 의약품 업계의 발전에는 다국적기업의 인력 양성, 노하우 축적, 신규 투자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며 이는 상기 분야 22개 업체 중 65-70%를 차지하는 다국적 기업의 공헌에 힘 입은 바 크다.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간부들을 교육하는 플랜을 실행 시키며 자회사의 인력을 교육시켜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모로코에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를 발전 시켰으며 이는 외국기업들이 연구개발 분야에 매출액 대비 15%를 투자하며 한가지 의약품의 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약 US\$ 4억~5억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모로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전은 관련 연구소에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며 5년간 상기분야 투자가 US\$ 1.2억에 달하고 있다.

모로코는 선진 의약품체의 기술이전에 힘입어 아프리카대륙에서는 남아공에 이어 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이 유럽기준으로 생산되어 일부는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수출잠재력은 총 생산량의 10%인 US\$ 2,800만~3,500만 달러로 추산 되고 있다.

모로코 자체생산 의약품들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과 알제리, 아이보리 코스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권,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아프리카 비중이 80%로 가장 높다. 2011년 기준 모로코 의약품 업체는 인수 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업체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 FAGOR MOROCCO,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 주력

1995년 모로코에 진출한 이 회사는 가전제품 11개 생산라인에서 200개 모델들을 생산하며 170 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매출액의 3%를 사원 재교육에 투자한 결과 자체 고용 인력으로 제품 생산 조립 노하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동 사는 스페인 공장에서 ISO 9001,9002를 획득하는 등 품질기술인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곧 모로코 공장에도 시행 예정이다.

신규 생산라인은 주로 가스레인지와 세탁기로 공세적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비로 400만 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다. FAGOR사의 모기업은 스페인 소재 MONDRAGON CORPORATION COOPE RATIVA (MCC)사로 연간 매출 US\$ 64억에 US\$17.6억을 해외로 수출하는 거대 기업이다.

동 사는 100여 개의 계열기업에 47,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며 생산, 재정, 배급 분야로 구분된다. FAGOR사는 모로코에 투자가 용이했다며 해외 투자 시 애로사항들은 어느 나라 에 투자하건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사항이라며 모로코는 특히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번 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동 사의 현안으로는 대 아프리카 수출 목적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의 생산원가가 모로코 공장보다 스페인 공장이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관세인하 정책으로인해 해외 가전제품들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모로코에서 생산중인 이 회사는 시장판매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모로코 정부에 산업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하고 있는 가전 제품들의 리뉴얼, 'Maid in morocco' 제품의 인식 개선 등 다각도로 판매 전략을 모색중에 있다. 덧붙여, 아프리카 시장 점령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모로코에서의 활동은 충분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2020년까지 아프리카시장의 20억명 고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르노(Renault)의 로간(Logan) 프로젝트, 모로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Renault-Nissan) 자동차 회장은 지난 2007년 10월 드리스 제토 모로코 총리와 의 면담을 통해 모로코 현지 항구도시 탕헤르(Tanger) 자유무역지대에 투자규모 약 6억 유로(약 9억 3,900만 달러)에 달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자동차 조립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 결과 2012년 2월 공장 시공식이 있었다.

공장의 30%는 자동화기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당 60대의 자동차 생산을 최종 목표로 생산 설비가 증축되었다. 탕헤르 르노 닛산 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 34만대를 목표로 자동차 생산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8월 르노 닛산 공장은 10만 번째 자동차 수출에 성공하며 9월로 예상했던 10만번째 자동차 수출 목표를 초과 달성 했다.

지난 2005년부터 르노 사는 모로코 자동차 생산 기업, SOMACA 사와 공동으로 다시아 로간(DACIA LOGAN)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로간 자동차는 SOMACA 사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는 르노 Kangoo와 다시아 Logan Sandro이며 로간은 모로코산 자동차로서 르노사는 SOMACA 사의 주식 약 54% 정도를 소유 하고 있는 대주주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모로코는 요르단,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주변국과의 FTA 체결 협정 및 이미 발효 중이므로 모로코 생산 다시아 로간(DACIA LOGAN)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모로코 현지 시장에서 또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로코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 대비 5%에 달하며 모로코 전체 수출량의 14%를 차지 하는 국가 주요산업이다. 모로코 자동차 시장은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EU-모로코 간 관세 완전 철폐(2012년 3월), 모로코 현지공장 설립 등의 영향으로 유럽 브랜드가 80% 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6월까지 모로코 자동차 부문 수출액은 총 155억 디람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1%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2012년 2월 당제에 위치한 르노-닛산 자동차 공장 완공 이후 생산을 본격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초 프랑스의 르노(Renalt)가 진출하여 12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의 생산을 본격화한 이후 같은 해 상반기에 자동차 부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4%가 증가했다. 정부는 2013년에 추진될 새로운 자동차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계 기업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3년 1분기에 호조세를 보이던 자동차 산업은 2분기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로코 자동차 수입협회에 따르면 2013년 7월까지 판매대수는 73,200대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9% 하락세를 보였다.

4) 항공 우주 산업 분야 투자

EADS, Boeing, Snecma 등 세계 주요 항공산업 관련 기업 약 100개가 모로코에 진출해 있으며, 2011년 동 분야 수출액이 10억달러(총 수출량의 5%)를 기록했다. 정부는 동 부문에 2015년까지 15,000명의 신규 인력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 탄력을 받고있다. 성장률은 2012년 대비 25%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카사블랑카에서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국제 비즈니스 컨벤션이 개최된다. BCI Aerospace와 유럽 항공 우주 산업 관련 기관의 리더들, 모로코 항공우주산업협회(GIMAS)와 Maroc Export가 주관하는 '카사블랑카 항공 우주 산업 컨퍼런스'는 모로코 시장의 성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행사는 항공 우주 사업을 장려하고 하청업체,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아웃소싱 기업, 특히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에 새로운 연결라인을 생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미 항공 업계에서 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행사에는 여러 나라(모로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영국, 브라질,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폴란드, 대한민국, 스위스, 튀니지, UAE)로부터 수십여 개의 사업자(Safran, Bombardier Aerospace, Utc Aerospace Systems, Zodiac Aerospace, Thales 등)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로코 항공 산업의 성장에 따라 이번 행사에 대한 관심은 컨퍼런스의 주최자들이 명백히 잘 보여주고 있다. 모로코는 이번 행사에 Eads, Safran Group, Daher, Souriau, Zodiac Aerospace, Bombardier Aerospace, Air France와 같은 대형고객을 유치하며 항공우주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이 행사는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의 지도자들이 잠재적인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최 측은 카사블랑카 항공 우주 산업 회의를 제조업체, 공급업체, 하청업자 등 전 세계의 업계 단체와의 제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의 공급망을 개발하고 대규모 그룹과 외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모로코 공급업체에게 사업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이 이벤트는 모로코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함.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카사블랑카 항공우주산업 회의는 사전에 관심 있는 업체들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B2B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양방향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사블랑카 항공 우주 산업 회의는 이러한 미팅과 함께 업계의 동향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더 나은 과학기술, 산업, 상업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변화에 적응하고자하는 업체에게 필수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이 행사는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전문 지식을 개발하고 시장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모로코는 카사블랑카 Nouaceur 지역에 Nouaceur 항공산업단지를 창설했으며 해당 항공산업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을 갖춘 항공 산업 단지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해당 항공산업단지에 입주한 Bombardier사는 2억 달러 투자금액으로 모로코에 진출했으며 850개 일자리 창출 4,400개 간접 일자리 창출등을 이루어냈다

아. 지역별 투자 현황

유럽계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는 식민지 종주국으로서 모로코 전체 수입 수출의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고 투자면에서도 전체 외국인 투자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vivendi사가 국영통신 Maroc Telecom의 지분 35%를 인수하는 등 제 분야에서 적극적인 진출을 하고 있다. 스페인도 인접국으로서 모로코 제2의 교역 대상국이며 Telefonica의 모로코 제2이동통신 면허 획득 등 투자진출도 활발히 하고 있다. 그 외의 포르투갈 영국,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모로코도 궁극적으로는 EU 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모로코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2013년 6월 24일 브뤼셀에서 시작됐다. 2013년 3월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압델리아 벵키레인 모로코 총리가 FTA 협상을 개시했으며 양측은 그 동안 실무 준비 작업을 거쳐 6월 24일부터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정책 등 협정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상에 돌입했다고 EU집행 위원회가 밝혔다. EU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바람인 소위 '아랍의 봄'이 시작된 이후 이 지역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유로존의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EU는 교역확대를 통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 FTA가 성사될 경우 경제관계를 비롯한 민간교류, 기업관계 등 양국 관계가 심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북아프리카 국가 중 첫 번째로 시작한 모로코와의 FTA협상 사례는 이 지역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서아프리카와의 관계강화 전략차원의 일환으로 모로코에 대해 에너지, 관광, 정보통신, 발전, 운송, 수자원 분야에서 총 40억불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4년 FTA를 체결한 이후 관련 교역규모가 확대됐다.

아시아쪽에서는 다수의 일본 상사가 주재하고 있지만 대규모 단위의 직접투자는 시행하지 않고 투자 여건개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중국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직물 등 분야에 투자진출도 증가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스타디움, 병원, 도로 건설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는 인광석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동향

한-모로코 투자관계는 1990년대 중반 대우그룹이 모로코 국왕에게 약속한 대규모 전자단지 투자진출 프로젝트가 외환위기로 전면 백지화되고 2004년 수도 라바트 힐튼호텔(대우)이 매각되면서 소원한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건설부문에 있어서 대우건설은 모로코에 진출한지 채 4년도 안되어 유럽 대기업들을 제치고 3개 대형 공사를 주수했다. 그 중 첫번째가 Jorf Lasfar 발전소 2기 건설로서 이미 Jlec의 원자로 4기를 주수한바 있는 프랑스 Alstom사를 제치고 이룩한 쾌거로 2010년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2013년 이미 발전소 2기 건설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Safi의 발전소 건설도 주수할 수 있었다. 한편 국왕 소유의 인산염공사(OCP 그룹)는 2013년 발주한 2개 비료 공장 건설을 모두 한국 기업(대우건설, 포스코 엔지니어링)에 맡겼다. 유럽기업들의 텃밭이었던 모로코 건설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은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을 무기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기존 LG 전자 모로코법인에 이어 삼성전자가 2010년 들어 기존 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본사 및 현지 인력을 대거 충원했다. 대우엔지니어링은 모로코 플랜트 수주를 위한 지사를 2010년 3월 설립하였으며, 대우건설은 Jorf Lasfar 화력발전소(10.5억달러규모) 건설을 위해 2010년 지사를 설립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도 2010년 플랜트 수주를 위해 지사를 설립하였고 올해 1월 Jorf Lasfar 산업단지의 인광석 및 비료 수송용 벨트 컨베이어 설치 공사를 주수했다.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세라젬은 2009년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공간건축, 동명기술공단등이 건축설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등 2012년 한-모로코 수교 50주년을 맞아 우리기업의 모로코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물적 투자 뿐만 아니라 기술분야 투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지난 2008년 자동차산업 기술인력 양성과 고용창출을 위해 한국 측에 '자동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을 요청했고, 코리아텍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가 KOICA의 '모로코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을 용역 받아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013년까지 2월까지 3년에 걸쳐 위 사업을 진행했다. 이프미아 카사블랑카(IFMIA Casablanca: L'Institut de Formation avancee Aux Metiers de L'Industrie Automobile a Casablanca)으로 공식적인 공립학교로 승인돼 올해 2월 90명, 8월 90명 등 총 180명의 공과학생을 모집했다. 이들에게 자동차 훈련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프미아 카사블랑카는 2013년 10~11월 경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3년 대우건설이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2조원 규모의 발전소 공사를 따냈다. 대우건설이 1976년 해외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수주한 단일 해외 건설 공사 중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은 2013년 8월9일 모로코에서 1조9710억원 규모 사피 민자 발전 사업의 설계·구매·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민간 사업자인 '사피 에너지 회사'가 발주한 것으로, 약 4년간 사피 지역에서 남쪽 해안가에 1320M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공사다.

2013년 4월 삼성물산은 모로코 인광석 공사가 발주한 인광석 처리 플랜트 건설공사를 3억 5000만 달러(한화 395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인광석 처리 플랜트 사업은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남서쪽으로 210km에 위치한 조르프 라스파 산업단지에 2개의 비료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삼성물산은 이번 모로코 건설 수주를 발판삼아 아프리카 전역으로 수주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진출현황 (현지법인)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0	1	545	1	1,145
1991	1	108	1	116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2	338	0	338
1995	0	0	0	0
1996	1	500	1	50
1997	2	12,000	1	12,000
1998	10	85,220	1	27,610
1999	0	0	0	0
2000	3	14,500	1	14,500
2001	1	449	0	0
2002	0	0	0	0
2003	0	0	0	0
2004	0	0	0	0
2005	1	200	1	34
2006~2008	0	0	0	0
2009	2	236	2	236
2010	3	524	1	36
2011	1	50	0	0
2012	0	0	0	0
2013	1	400	1	400
합계	29	115,070	11	56,4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업종별 진출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진출법인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7	1,927	9	1,348
광업	2	1,050	1	1,050
제조업	15	87,624	1	29,552
도·소매업	7	3,726	5	3,226
숙박 및 음식점업	5	24,220	1	24,1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200	1	34
합계	47	118,748	22	59,3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제조업종별 진출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중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진출법인수	투자금액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4	2,028	1	1,48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6	45,000	1	27,5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159	1	159
전기장비 제조업	2	40,000	0	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37	1	10
합 계	14	87,224	4	29,15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나. 한국의 대 모로코 투자 가능 분야

1) 에너지

2012년 모로코 총 생산 전력은 2011년 대비 8%증가한 31,005GWh에 달하며 소비전력은 2011년 대비 7.4%증가한 27,561 GWh에 달한다고 모로코 전력 공사(ONE)는 밝히고 있다. 모로코에서 생산 소비되는 총 발전량은 모로코 전력공사가 90 %, 민간 회사가 10%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1994년 모로코 정부가 전기 생산 자유화 정책을 펼치며 민간 기업들이 진출했지만 매년 수요량을 충족 시키기위해 법률상 ONE에 전기 판매를 의무화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중 화력 발전 비중이 80.6% 수소에너지가 15% 풍력 및 기타 발전이 약 5%를 차지하며, 전력 소비량은 최근 연도 평균 7%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모로코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97%에 달하며, 풍부한 태양 에너지 자원, 풍력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원의 다양화, 대외의존도 축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목표로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정치적 의지하에 2010년 1월 태양에너지청(MASEN), 3월 재생에너지청(ADER) 등이 출범하여, 향후 유로지중해 지역 태양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모로코의 태양에너지는 연간 일조시간이 2,800-3,400시간 이상, 넓은 국토, 비용측면에서 유럽에 비해 비교우위 등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2,000MW규모의 태양광/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연간 4,500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공급의 42%를 재생에너지(태양, 풍력, 수력)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태양광/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9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5개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태양열 발전소 프로젝트는 Quarzazate, Aïn Béni Mathar, Sebkhah Tah, Foug El Oued, Boujdour에 5개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모든 발전소는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개발되었다. 2013년 11월까지 Ouarzazate 공장(Noor I)의 프로젝트만 시작되었으며 이 첫 번째 공장은 160MW의 용량과 70억 디람의 투자가 예상된다. 이 공장은 22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치고 6개월간의 테스트를 통해 2015년 여름 완공될 예정이다.

MASEN은 다른 프로젝트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 특히 프로젝트 프로세스의 기술적 구성에 적합한 효과적인 자금 조달 측면에서 - Noor I을 자본화할 예정이다. Noor 복합 산업단지에 이어지는 단계로 MASEN은 2013년 1월 약 300MW의 총 용량을 가진 한 개 이상의 화력 발전소의 개발자 사전 자격 과정을 시작했다.

2013년 8월 초 MASEN은 다음 단계에 참가하는 7개 컨소시엄의 입찰을 발표했다. 3개의 컨소시엄은 200MW의 용량을 가진 Noor II에, 4개의 컨소시엄은 100MW의 용량을 가진 Noor III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2013년 10월 Skhirat에서 열린 Dii (사막개발산업협회)의 4번째 정기 컨퍼런스에서 MASEN의 이사회 회장인 Mustapha Bakkoury는 Noor II와 Noor III의 입찰이 임박했다고 말했다(11월 말 혹은 12월 초). 이에 덧붙여 MASEN 이사회 중 한명인 Obaid Amrane는 이 두 개의 프로젝트의 낙찰은 2014년 2분기 때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Noor I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Noor II와 III의 낙찰자는 국제입찰을 통해 입찰을 위한 기술적 검증 단계와 태양광을 구입하는 계약에 대한 금융, 상업적 측면에 관한 단계 등 2개의 단계에 걸쳐 결정될 것이다. 40~50MW의 용량을 계획 중인 Noor IV는 차후 개발될 예정이다. Noor II와 III, IV의 운행은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Obaid Amrane에 따르면 그 외 다른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모든 지반 공학, 지진, 지형, 환경 영향 조사, 방사선 측정, 수자원을 포함한 지역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MASEN은 2014년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Mustapha Bakkoury에 따르면 두 번째 태양광 공장 건설 계획은 몇 달 혹은 몇 주 내에 발표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느 지역에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인지는 비밀에 부쳤다. 예상되는 곳은 Aïn Béni Mathar로 보인다.

2012년까지 모로코 내 모든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 하에 전력 공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모로코 지방 전력화 정책으로 1996년 22%였던 낮은 전력화 비율은 2010년 96.8%로 증가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모로코내 전력망은 21,954Km에 달한다. 또한 모로코 전력망은 인근 마그레브 국가인 알제리 및 튀니지와 일부 연결되어 있으며, 아랍 투자 기금(FADES)에서 배정되는 총 15억 USD 예산을 투입해 이집트 등 아랍권 국가 간 전력망 연결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95년부터 모로코의 전력망은 스페인과 일부 연결해 잉여 전력을 교환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2012년 스페인과의 전력 교환량은 4,898GWh에 달했다. 마그레브와 지중해 연안국 간의 전력 등 에너지 공급 시스템 연결을 마그레브 전력위원회(COMELEC)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추가비용 등 기술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마그레브권과 지중해 연안 유럽국 간 전력 시스템을 연결 운영함으로써 잉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예기치 않게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모로코는 석유나 천연가스등의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의 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모로코는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확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모로코 정부는 녹색 성장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수질, 대기 오염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경제발전과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에너지 소비량이 매년 7~8%이상 증가하면서 2013년 현재 소비량이 26.5TWh(테트라와트)에 달한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 연안에 천연가스 기둥을 발견하면서 천연자원 자가 생산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일랜드의 Circle Oil는 Sebou와 Ouland N'Zala 지역에서 천연가스 발견에 성공했으며 스페인의 가스기업인 Rapsol, 영국의 석유기업 Dana은 모로코의 ONHYM(국립 탄소, 광산 사무소)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Tangier-Larache 지역에서 두 개의 가스 기둥을 발견했다. 해외 에너지 기업들과의 계약과 투자로 현재도 천연가스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발굴된 천연가스의 효용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모로코 정부는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정책(Energy Pro)을 통해 97%에 달하는 수입 에너지의 의존성을 낮추려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모로코는 연평균 인조시간이 3,000시간을 상회하고 있어 태양에너지 개발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3,500km에 달하는 해안선과 특히 북부지방의 경우, 평균 풍속이 10m/S에 달하며, 최대 25m/S까지 이르는 등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있다.

2010년 주한 모로코 대사와 모로코 태양광에너지 청장의 면담에서 청장은 한국의 기업들이 모로코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재생에너지분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최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과 모로코간의 협력 잠재력이 크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동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국가의 발전 정책과 맞물려 수많은 개발자들과 투자자들, 산업가들에게 태양에너지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불어 비품 제조자들의 관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태양에너지관련 분야의 사업 진출이 유망해보인다.

현재 모로코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40%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2013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총에너지 소비의 10%, 전력소비의 2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2020년까지 총 발전량 2,000MW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Ouarzazate(500MW), Fom El Oued(500MW), Ain Beni Mathar(400MW), Boujdour(100MW), Sebkha Tah(500MW) 등 5개 지역에 태양에너지 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건설비용으로 90억불이 투자될 예정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전력부족분을 스페인과 알제리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전기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잉여·부족 전력을 상호 수급함으로써 전력부족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 송전망 구축 및 도-농간의 전력 공급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내 송·배전 구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에 관련 분야 사업 진출이 유망해보인다.

2015년까지 풍력에너지 22% 증강한다는 계획 하에 총 40억불을 투자하여 풍력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현재 280MW의 설비용량을 2020년까지 2,000M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모로코는 Fom Al Oued(서부사하라 지역 대서양 연안 도시인 Laayoune에서 10km)에 2헥타르 면적의 풍력단지를 건설했다. 풍속은 8.5-9m/s이며 발전 설비용량은 100MW이다. 이 풍력단지의 연간 발전량은 400GWh로 이는 인구 50만 도시의 연간 전력소비량에 해당하며 모로코 연간 전력소비량(23,000GWh)의 1.7%에 해당한다. 생산된 전력은 PhosBoucraa사(인광석 회사), 수도청(ONEP)의 담수화시설, 공항청(ONDA)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투자액은 1억 달러 선이다.

35억 달러의 투자비용이 추산된 풍력발전프로젝트는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모든 계획이 시작되거나 시작 준비 중에 있으며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민간 기업에 의해 생산된 100MW를 포함한 380 MW이상이 이미 사용가능하며 550MW 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250MW와 850MW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입찰은 2013년 말에 ONEE에 의해 시작될 것이라고

이사회는 2000MW의 목표 달성을 위해 늦어도 2014년에는 850MW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낙찰자를 발표해야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16년 5개의 풍력발전소의 운행과 개발, 건설하는데 17억 달러가 사용될 것이다(Boujdour 100 MW, Jbel Lahdid 200 MW, Midelt 150 MW, Tanger II 100 MW, Tiskrad 300 MW). 일단 발전소가 설치된 후에는 2000MW의 풍력에너지 발전소는 연간 6,600GWh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수자원

모로코는 환경적으로 강수량의 변동과 차이가 심한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들어 시기별, 지역별 강수량의 변동 폭이 심화됨에 따라 홍수 및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또한 CO₂ 배출량 증가,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는 2020년 모로코 수자원의 10~15%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 부문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경제 발전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모로코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책,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정책 등을 지역별로 제정해 시행했으며, 오수관리, 대기오염방지 관련 정책을 제정해 친환경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 50% 이상이 국토 면적의 7%에 해당하는 북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도심지 지역에 모로코 식수 80%가 집중되어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밖에 지역에는 안정적인 식수 및 용수를 공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로코 정부는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전략: 2010~2030'을 수립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2050년도에 한 사람 당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혀서 기후 변화 대비 수자원 안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전략의 실행을 통해, 모로코 정부는 연간 관개용수 24억 m^3 , 식수 및 산업 용수 1억 2,000만 m^3 에 달하는 수요에 대응해 낙후 수자원 설비를 교체함으로써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60개 대형 댐과 1,000개의 중소형 댐을 건설하여 해수 담수 및 폐수 재활용 확대하며, 북서부 강수 지역과 남동부의 건조지역을 연결하는 수로 및 수처리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시설 간 연계통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법령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관개용수 공급 체계를 현대화하고 관광지의 수자원 재활용 설비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로코 정부의 수자원 전략 수립은 환경적 조건에서 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부족에 따른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 및 위생 오염 악화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모로코에는 각지에 총 84개의 댐이 있으며, 이 댐에서 연 평균 118억 m^3 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농업이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모로코는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2000년까지 매년 1 개씩, 2000~2010년 매년 2개씩, 그리고 2010~2020년 매년 3개의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모로코는 물 부족 국가에 속하는 만큼 수자원 관리 정책을 시행했다. 2005년도 물 정화시설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해당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해 힘썼으며, 그 결과 2004년도에 약 50% 였던 음용 가능한 식수량이 2009년도에는 총 수자원의 약 87%로 증가했다. 식수 위생 관리를 위한 정부 지출 비용도 초기에는 약 5%였으나, 2009년도에 전체 지출의 약 25%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식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부족한 상황이며 전체 식수 보급과 관리의 약 80%를 ONEE에서 담당하고 있다.

모로코 수자원청(ONEP)은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농업 및 산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시설과 담수설비를 대폭 증설할 계획이며, 약 136억 디람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로 61억 디람을 투자해 농촌지역의 식수 보급량을 95%로 증가하는 목표가 있다.

모로코 정부는 2005년 '하수처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2020년까지 하수 보급률 80%, 2030년까지 하수 보급률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모로코의 하수 배출량은 2005년도에 약 600 m^3 에서 2010년도에는 약 700 m^3 로 증가했다. 또한 모로코는 하수 처리 시설을 늘려 도시-농촌 간 상수도 보급률의 불균형 개선에 힘쓰고 하수처리시설 증가를 위해 2020년까지 약 500억 디람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1USD=8.4MAD)

또한 2014년 지방 보급 가능 식수 발전소 건설, 확장 사업에 55억 디람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 분야는 총 273억 디람을 투자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수도 분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수자원은 농업과 산업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로코 수자원청은 모로코 사자원 사용량의 약 85%가 농업분야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분야에 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처럼 상당해 국가 주도 프로젝트인 'Green Morocco Plan(농업 인프라 구축사업)' 에서 관개시설 확충 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천연가스

모로코에는 마그레브-유럽 가스 파이프 라인이 통과하고 있다. 알제리에서 모로코 북부를 경유하여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스페인까지 가스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지난 1996년 완료 되어 알제리산 천연가스를 스페인까지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인근 유럽 국가에 가스 공급을 위한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모로코는 동 가스관 건설 및 통과 대가로 알제리 국영회사인 Sonatrach 사로부터 연간 10억입방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제공받고 있다. 동가스는 Tanger 근교에 건설 예정인 375~475MW 규모의 화력발전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으로 천연가스 개발과 활용에 대한 방안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로코경제인연합(CGEM)은 2012년 5월 카사블랑카에서 '천연가스에 관한 국제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모로코 에너지 정책에서 가스의 중요성, 세계 가스 산업 현황, 액화 천연가스의 장점, 모로코 에너지 수요와 천연가스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Fouad Douiri 모로코 에너지광물수자원환경부 장관은 동 행사에 참석, 2025년 천연가스가 석탄을 제치고 제2의 세계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의 에너지생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스터미널 건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지난 수년 간 계획안 상태로 방치되어 온 가스법의 제정을 2013년까지 완료하여, 가스 개발, 투자, 보급,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행사를 주최한 모로코경제인연합 산하 에너지연맹(Federation de l'energie) Moulay Abdallah Alaoui 회장은 주재국이 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석탄량이 연 300만톤에 달해 총량의 34%를 차지하는 반면, 천연가스 사용 비중은 전체 7%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가스 사용 확대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고,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대처, 에너지원 다변화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성, 안정성, 개발용이성, 환경보호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천연가스가 당장의 대안이라고 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 천연가스 발견은 모로코 가스 생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을 부추겼다. 아일랜드의 Circle Oil社는 Sebou와 Ouland N'Zala 지역에서 천연가스 발견에 성공했으며 스페인의 가스기업인 Rapsol, 영국의 석유기업 Dana은 모로코의 ONHYM(국립 탄소, 광산 사무소)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Tangier-Larache 지역에서 두 개의 가스 기둥을 발견했다.

2011년 4월 Circle Oil은 Grab basin 지역에서 굴착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KSR-11m(탐사로봇)을 이용한 작업 역시 성공적이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Intra Hoot 지역의 천연가스 발견역시 성공적 이었다. 2010년 12월부터 시추작업에 돌입한 Sebout 지역에서 역시 여러 가스층을 발견했다. 2011년 말 Circle Oil사는 2012년에 더 많은 가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Circle Oil사와 ONHUM은 2011년 1월 모로코 내 가스 공급이 가능한 파이프라인 설치사업을 발표했다.

4) 수처리

모로코 정부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환경적 영향에 따른 지역별 수자원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전략: 2010~2030'을 수립했다. 댐 건설 및 낙후 설비 정비, 하수·폐수 처리시설 확충, 수재난 방지 체계 강화,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同전략은 모로코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정적인 식수 및 용수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부족에 따른 수자원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은 도시지역의 경우 신청하면 즉시 이용 가능하며, 도시의 빈민층 거주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많다. 일반적으로 산업지역 (Zone Industrielle)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산업지역 입주 업체들은 상하수도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으며, 기타 지역 입주 시에도 산업 제조 시설 (공장)에는 상하수도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동 시설 이용에 어려운 점이 거의 없다.

상하수도 서비스 신청 시 주택과 공장을 구분하여 신청을 받으며, Commune(한국의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기입, 제출하면 된다. 모로코는 상수도(수도) 사용료를 지불하며, 하수도 요금은 없다.

또한 모로코 정부가 수처리 시설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앞으로 총 79개 하수처리장을 확보하는데 150억 디람(19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El Fassi 총리의 주도하에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모로코 전국에 42개 하수처리장이 가동 중이며 증가하는 산업 및 생활 폐수가 그대로 바다와 하천으로 유입돼 수자원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지 정부는 이번 하수처리시설 확장을 계기로 하수처리비율을 72%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단계적으로 증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농업 및 산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모로코 수자원공사(ONEP)와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는 상수시설과 담수설비를 대폭 증설할 계획이며, 자체 예산과 국제금융기관의 공여 및 민간투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부는 남서부 해안 지역에 해수를 담수 처리해 매일 25만^m 규모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입안했으며,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사를 대상으로 투자의향서(EOI)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과 상수 및 담수설비 증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

5) 도로

모로코는 총 도로 연장 60,450km, 도로 포장률 60%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최대 상업도시인 카사블랑카에서 시작되어 수도인 라바트를 지나 북부지역 라라쉬(Larache)까지 230km 구간에 선진국 수준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현재 북부 탕제와 남부 아가달까지 785km에 달하는 남북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며, 라바트에서 북부 알제리 접경 도시인 우즈다 지역까지 동서 고속도로 계획이 추진 중이며 1차로 라바트-페스 간 180km 고속도로는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모로코는 도로망 플랜의 4가지 필수 요소로 재산경영 투명화, 도로망의 현대화, 지방도로 프로그램(PNRR2) 마무리, 모든 국민들에게 도로망 접근성 강화를 우선으로 한다. 2011년 7월 페즈~우즈다(320km) 및 마라케시~아가달(225km)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모로코 고속도로 총연장은 1416km에 달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정비된 것으로 평가되며, 2015년까지 1830km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엘자디다~사피(140km)와 Tit Mellil~Berrechid(31km)는 2012년 착공하였으며,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또한 모로코 정부는 2035년 까지 새로운 우회로와 국내 도로망 보강을 목표로 도로망 플랜(PNRR)을 계획했다. 모로코 도로교통과는 모로코 내 41,431km의 포장도로와 추가적으로 727km의 고속도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까지 3번째 도로망 플랜(PNRR3)의 일환으로 마라케시와 와자레트를 잇는 터널과 Oujda와 튀니지 국경을 잇는 고속도로 연구가 완료될 계획이다.

2014년 모로코 정부가 고속도로 프로젝트 예산을 130억 디람으로 측정하였다. 라바트구간(41km), Berrechid/Beni Mellal 구간(172km), El Jadida - Safi 구간(143km)건설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거리 41km에 달하는 라바트 구간 건설 목표는 la wilaya de Rabat-Sale 구간의 원활한 교류와 유동성 강화이며 교통체증 완화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해당 구간에 대한 예산 금액은 2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Berrechid/Beni Mellal 구간은 안전성 확보와 도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Tadra-Azilal 지역 상품의 카사블랑카 유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년전부터 시행된 해당 구간 건설 공사는 약 61억 디람의 자본이 투입되었다. 해당 구간 건설로 경제적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보수 및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해당 구간은 7개의 간선 진입로도 설치 예정이다.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El Jadida - Safi 구간 공사는 약 40억 디람의 예산이 측정되었으며 해당 구간 공사로 Doukkla-Abda지역과 Chaouia-Ourdigha지역 연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 알제리 접경 지역인 Oujda지역 고속도로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철도

2012년 모로코 철도 시설 이용자 수는 3천6백만명을 기록했다. 또한 2012년 철도 이용과 물류 운반을 포함한 전체 매출은 34억 디람을 기록했다. 이는 투자금액의 80%인 4억9천만 디람을 통한 시설 개발로 인한 결과다.

현재 모로코 철도청과 프랑스 알스톰사가 공동으로 2035년까지 땅제-카사블랑카-마라케시-에싸우이라-아가디르, 카사블랑카-페즈-우즈다 등 총 1500km 고속철도 건설과 연간 600만 명 수송을 목표로 탕제(북쪽 항구)~카사블랑카 구간의 고속철도(TGV) 사업을 추진하며 1단계인 탕제~케니트라 200km 구간이 2015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2014년 모로코 철도청 ONCF는 카사블랑카-탕제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에 55억 디람을 사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로코 철도청은 기존 노선의 확장과 현대화에 2010~2015년에 41억 달러를 투입해 2015년까지 승객 5000만 명과 화물 5000만 톤 운송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철도분야 투자계획의 주요내용은 먼저 탕제-카사블랑카 구간 고속철도 건설이 있다. 소요예산은 25억 달러이며 연구 및 인프라 구축에 12.5억 달러, 설비 건설에 7억 달러, 기관차, 객차 구매에 5.5억 달러이다. 재원 조달은 정부 예산 6억 달러, 하산2세 경제 사회 개발 기금 1.25억 달러, 프랑스 및 유럽의 무상 공여 2.375억 달러, 양허성차관 15.375억 달러로 충당했다. 이 건설 프로젝트는 2010년 6월 탕제-케니트라 구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2014년에 완공, 2015년 시험운행 및 점검, 2015년 12월 상업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Casa-port역과 Casa-Mita역 건설 완성 또한 모로코 철도분야 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철로 구간 계획 외에도 기존 열차 재계발과 보수 사업, 신규 열차 구입 사업, 디젤 기관차 구입 사업 역시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의 철도분야 투자계획은 기존 철도망의 현대화이다. 투자 재원은 16,25억 불로 철로, 역, 설비 등의 개선과 철도분야 현대화 및 경쟁력 재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케니트라-카사블랑카 구간의 3선(복선+단선)화, 페즈-우즈다 구간의 전철화, Settat-마라케시 구간 정비, 역 현대화 사업, 철도 안전 시설 개선, 화물 운송 인프라 강화, 기관차, 객차, 화차의 현대화이다. 고속철도 이용자를 제외한 철도 이용자가 연 53백만 명에서 133백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탕제-카사블랑카 구간 고속철도의 경우 연 2백만 명에서 8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땅제-카사블랑카간 이동시간이 4시간25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 땅제-라바트간 이동시간이 3시간 55분에서 1시간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500명 정원의 고속열차는 320km/h의 속도로 운행 예정이다.

노반공사, 차량기지, 신호장비, 역사건설 등 부대설비 건설은 국제입찰로 진행돼 프랑스 고속철(TGV) 도입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해 보인다. 발주처인 모로코 철도청(ONCF)은 한국 엔지니어링사의 입찰참여를 적극 환영하며 본 입찰 참여 외에도 프랑스 엔지니어링사와 하청 등 공동 사업 추진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엔지니어링사의 진출에 가장 큰 장애는 입찰관련 서류가 프랑스어로만 발표·접수되는 데다 발표 후 접수까지의 기한이 통상 3개월로 매우 짧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프로젝트 검토와 입찰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7) 항공

모로코 국영 항공사인 Royal Air Maroc(RAM)은 국제선 및 국내선을 운영하고 있다. 국적기로 파리, 암스텔담, 런던 등 유럽의 주요 도시와 아프리카, 중동, 미주 등 4 대륙 40 개국 75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다.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RAM은 3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지난 1997년 9월 설립된 모로코 최초의 민간항공사인 regional air line은 12인승 소형 경비행기로 모로코 국내 도시를 운행 중이며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로코 내에는 27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 중 국제 공항은 외국 관광객의 주요 입국 관문인 카사블랑카, 아가달, 마라케시 등 10개에 달한다.

모로코의 공항 시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카사블랑카의 Mohammed V(모하메드 썬크) 공항은 국제 공한 인증 ISO9001을 획득한 모로코 최대 국제 공항이다. 전 세계 45개 항공사들의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기준 730만 명의 여행객이 오가는 선진국 수준의 시설로 서부 아프리카 제일의 공항으로 알려져 있다. 터미널 3개로 이루어진 모하메드 썬크 공항은 약 12만 명 수용가능 하다.

현재 28개의 새로운 게이트를 포함한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현재 Mohammed V(모하메드 썬크) 공항 인근에 새 공항 건설, 확장 공사 중이며 Agadir, Marrakesh, Oujda, Rabat, Fes 공항 등이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Mohammed V(모하메드 썬크) 공항의 경우 2012년 5월, 공항 재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인터네셔널 허브 공항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배후단지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로, 총 투자금 2억 디람을 소요하여 2013년 말 완공 예정이며 2012년은 공항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한다. VIP실의 편의시설을 증축하는 한편, 비즈니스 클래스의 별도 출입국 개발 및 항공 서비스 질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공항의 전반적인 질 향상으로 인해 관광객의 추가 유치는 물론, 비즈니스인들을 위한 주변국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의 중심축으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공항 재정비 사업과 더불어 인근 지역에 항공 우주산업 단지인 'Nouaceur' 항공단지를 확장 중에 있다. 기존의 70헥타르 부지에 조성되었던 단지를 2016년까지 125헥타르 규모로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300개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본 방문을 통해 양국간 항공우주분야 협력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일본무역진흥회인 JETRO는 Nouaceur에 위성 사무소를 수개월내에 열 것을 발표했다. 총 7억디람의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40억디람의 부가가치 창출, 12,0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8) 통신

통신은 모로코 경제에서 매년 10%의 성장률을 보이는 가장 빠르고 급격한 성장 부문 중 하나로, 모로코 정부는 현대화를 위하여 광케이블 및 위성 통신망 시설 확충에 투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모로코-유럽, 미주, 중동, 서부 아프리카 간 광케이블망을 확충할 예정이며 ARABSAT, EUTELSAT 및 INTELSAT를 위한 위성 기지국 시설 확충에 본격 투자할 계획이다. 2012년 5월에 열린 총리 주재의 투자위원회에서 통신 업계 3위인 Wana Corporation(Inwi)가 통신망 구축 및 사업확장의 명목으로 48억 디람의 투자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2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의 모바일폰 전체 가입자 수는 2013년 전반기 기준 3,990만명을 돌파하였고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14%이상 증가하는 등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13년 2분기까지 3G 모바일폰 가입자 수는 약 3,000만명으로 눈에 띄는 성장률을 보였다.

통신사별 3G 모바일 가입자 수는 Maroc Telecom이 약 1,800만명, Meditel이 약 1,150만명, Wana corporate(Inwi)가 약 950만명이다. 2009년 이후 모로코 전역에 3G망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이용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였고 현재 정부에서는 4G망의 구축을 노력중에 있으며, Maroc Telecom은 2013년 말까지 4G 네트워크 확립을 목표로 4G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3분기 기준 57.4%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유선전화 시장은 Wana corporate(Inwi)이 54.22%의 점유율로 업계 1위 자리를 유지, 그 뒤를 이어 Maroc Telecom이 44.79%, Meditel이 0.99% 점유하고 있다.

또한 3G와 3G+ 서비스의 강세로 줄어들던 ADSL 서비스가 2013년 3분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2008년 이래로 가입자가 거의 없다가 했던 ADSL 서비스가 2013년 9월이 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ANRT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ADSL 가입자 수는 2012년 9월보다 21.86% 증가한 788만 명이다. 이 수치는 전체 인터넷 가입자 수의 15%에 불과하지만 침체되어 있던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모로코 인터넷 사용자들은 ADSL을 통해 보다 빠른 인터넷 사용을 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상은 2014년 4G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Inwi가 ADSL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Maroc Telecom의 ADSL 독점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Inwi는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임대하여 ADSL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Meditel과 Maroc Telecom은 세 번째로 모바일 업계에 진출한 Inwi에게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내준 경험이 있다. 인위는 지난 5년에 걸쳐 공격적인 가격정책과 사업전략을 통해 통신시장에서 2번째 위치로 발돋움 했다.

시장 관계자는 ADSL의 가격이 낮아지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대중화 될 것이라 기대했다. ANRT는 이와 함께 통신시장의 서비스 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Inwi의 대표 Frédéric Debord 또한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ADSL시장에서 좋은 시장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쟁관계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 Matin과의 이전 인터뷰에서 Inwi의 CEO는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시장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ADSL의 발전은 유선전화 인프라가 얼마나 조밀하게 퍼져있는가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해 Meditel은 이 ADSL 시장에서 인프라 설치를 위한 필수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모로코 통신 시장은 2012-2017년간 연평균 약12%씩 성장할 전망으로, 2011년 전체 매출의 67.2%를 차지한 모바일 서비스는 예측 기간 중 최대 매출 생성 부문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유선전화 시장은 2017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지만 2011년 전체 매출의 23.9%를 차지하여 여전히 산업 매출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유선 VoIP(인터넷 전화) 매출은 기타 시장 부문에 비해 매우 작기는 하지만, 2012-2017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약 26.7%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모로코 통신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Maroc Telecom, Meditel, Inwi에는 이미 유럽계 대형 통신 기업이 투자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진출이 어려웠지만, 현재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드웨어부분에 중점을 둔 현지 시장진출의 성공 가능성이 있으며, 모로코 소비자들은 최고가와 최저가의 제품보다는 중저가의 중간 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집중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다.

9) 문화산업

‘미안하다 사랑한다’, ‘풀 하우스’ 등의 드라마가 방영된 바 있으며 10대, 20대의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하여 ‘시티헌터’, ‘시크릿 가든’ 등 최근 드라마를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드라마에 비해 한국 영화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2010 년 한-아랍 카라반 행사로 한국 영화 상영, 2011년 대사관에서 한국 영화제 개최, 2012년 한-모로코 수교 50주년 기념 한국영화 상영회 개최했다. 2012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간 모로코 3개 지방도시(Marti, Fes, Khouribga)에서 상영하였으며, 상영작은 2011.12월 라바트 영화제에서 큰 호평을 받은 영화 ‘미녀는 괴로워’이다.

한-모로코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모로코 영화센터(CCM)의 추천을 받아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는 한국영화가 소개되지 않았던 지방 3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인사, 경제계, 문화계 인사 및 Moroccan fans of Korea 회원 등 총 관객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됨. 한국음악은 젊은 층과 한류 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및 페이스북 상에 동호회(Moroccan fans of K-POP & K-DRAMA)가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PSY의 노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연일 각종 매체에 방송될 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모로코에서는 한국 드라마인 '대장금', '식객', '태양의 여자' 등이 상영되면서 문화한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경제 한류로도 이어져 현재 모로코 가전제품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또 현대, 기아차 등 한국산 차량의 판매량도 급속히 늘고 있다.

한류와 연계한 유망진출 품목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상이 주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의 젊은 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구류 및 캐릭터 상품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 Rabat 에서는 주말(토요일)에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Rabat 한글 학교(교장: 심재석)는 현재 교사 7명, 학생 수 30명 규모이며 국어와 국사를 주로 가르치고 있다. Agadir 한글학교(교장: 홍성중)는 교사 3명에 학생 수 15명(초등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카사블랑카 소재 Hassan II 대학에서 모로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5. 한국기업 진출현황

가. 우리 주요 투자 기업 리스트

회사명	도시	업종	취급분야	진출 및 진출연도	종업원 현황
삼성전자 모로코 법인	카사블랑카	판매법인	정보통신 가전제품	마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관할 1995년 (2010년 법인으로전환)	8 (본사파견) 20 (현지채용)
LG 전자 모로코 법인	카사블랑카	판매, 서비스	가전제품 통신제품	북부아프리카, 모로코지역 2000년 판매법인으로 전환	8 (본사파견) 70 (현지채용)
포스코 엔지니어링 모로코 지사	카사블랑카	플랜트건설		2010년	2 (본사파견) 2 (현지채용)
세라젬 모로코 지사	라바트	판매, 서비스	의료기기	2009년	1 (본사파견) 5 (현지채용)
대우건설 모로코 지사	라바트	건설업		2010년	2 (본사파견) 4 (현지채용)

LG전자는 모로코에 주재하기 시작한 2000년 7월까지 모로코 내 인지도가 전무했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3위 안에 랭크되고 있으며 평균 3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LG의 급성장은 2010년부터 주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다른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가 모로코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모든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스마트폰, 태블릿 제품군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5년부터 모로코에 대리점을 통해 진출했으나 2010년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해있다.

나. 우리기업 참여 중 주재국 광물자원 프로젝트

프로젝트	규모 (백만달러)	참가입체	진행상황
인광석공사 ODI비료공장 - P2&P4 Site 공사	345	삼성물산 건설부문	진행중 (13' 수주)
조르프 라스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공사	1,024	대우건설	진행중 (10' 수주)
인광석공사 ODI 비료공장 - P1&P3 Site 공사	328	대우건설	진행중 (12' 수주)
인광석 Downstream 이송장치 설치공사	69	포스코 ENG	진행중 (13' 수주)
인광석 이송장치 설치공사	22	포스코 ENG	진행중 (12' 수주)

Jorf Lasfar (조르프 라스파) 발전소 : Jorf Lasfar는 카사블랑카에서 120km 떨어진 해안도시이며 발주처인 Jlec은 모로코 내 사용 전력의 절반을 생산하는 거대 에너지 그룹임(수주액 10억 5천만 달러). 한국수출입은행이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투자 권소시업에 참여하여 자본을 제공한다.

6. 투자진출 성공, 실패사례

가. 현지 투자사례

1) 한국 수출입은행, 모로코 조르프 라스파 화력발전사업에 3억 5천만 달러 투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12년 4월 9일 대우건설과 일본 미쓰이물산 컨소시엄이 수주한 '모로코 조르프 라스파(Jorf Lasfar)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3억5000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발주처는 '모로코 전력청(O.N.E.)'이고 사업주는 '아부다비 국영에너지기업(TAQA)'으로, 석탄화력발전설비 2기(700MW) 건설 및 운영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주계약자인 대우건설이 대규모 발전소에 대한 제작,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EPC 전 과정을 수행하고, 일본 미쓰이물산은 일본산 기자재 구매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이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발전 프로젝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입찰단계부터 대출의향서를 신속히 발급해 프랑스 Alstom 컨소시엄 등 세계 유수의 에너지 기업을 따돌리고 우리 기업이 수주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특히 수주 이전 단계부터 해외사업에서 축적된 금융자문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수출보험공사(NEXI)의 참여를 유도해 일본의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자원 다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조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선금융 후수주' 사업의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수출입은행은 2011년 9월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마루베니상사 등 일본 3개 종합상사와 해외 프로젝트 공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이 그 결실을 맺은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 수출입은행은 일본상사들과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의약 분야의 다국적기업 진출, 모로코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

모로코 의약품 업계의 발전에는 다국적기업의 인력양성, 노하우 축적, 신규투자와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으며 이는 상기 분야 22개 업체 중 65~70%를 차지하는 다국적 기업의 공헌에 힘 입은 바 크다.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간부들을 교육하는 플랜을 실행시키며 자회사의 인력을 교육시켜 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모로코에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외국 기업들이 연구개발 분야에 매출액 대비 15%를 투자하며 한 가지 의약품의 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약 4억~5억 달러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모로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전은 관련 연구소에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는데 5년간 상기 분야 투자 가 1.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모로코는 선진 의약품체의 기술이전에 힘입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남아공에 이어 제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이 유럽기준으로 생산되어 일부는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수출잠재력은 총 생산량의 10%인 2,800만~3,5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모로코 자체생산의 약품들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과 알제리, 아이보리 코스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 권 및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아프리카 비중이 80%로 가장 높다.

일부 모로코 의약품 업체는 얼마 전 인수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구조조정을 끝냈으나 잔존 소형 업체들이 통폐합 되는 것이 확실 시 됨에 따라 향후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다른 문제점으로는 기존 라이선스를 통해 생산을 하던 다국적기업들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모로코 현지 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로코-미국 간의 FTA 체결로 그동안 국내 제조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금지가 되어 왔으나 미국 의약품의 모로코 진출이 예상되면서 국내 의약품 업체는 경쟁력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3) FAGOR MOROCCO, 신규 가전생산 라인 증설

Fagor Morocco 사는 가전제품 11개 생산라인에서 200개 모델을 생산하며 17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동 사는 매출액의 3%를 사원 재교육에 투자한 결과 자체 고용 인력으로 제품 생산 조립 노하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06년 4월 기준 본사 파견 기술 인력은 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동 사는 스페인 공장에서 ISO 9001,9002를 획득하는 등 품질 기술 인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곧 모로코 공장에도 시행 예정이다.

신규 생산 라인은 주로 가스레인지와 세탁기로 공세적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비로 400만 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다. FAGOR사의 모기업은 스페인 소재 MONDRAGON CORPORATION COOPE RATIVA(MCC)사로 연간 매출 64억 달러에 17.6억 달러를 해외로 수출하는 거대 기 업이다.

이 회사는 100여 개의 계열기업에 4만7,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생산, 재정, 배급 분야로 구분된다. FAGOR사는 모로코에 투자가 용이했다며 해외 투자 시 애로사항들은 어느 나라에 투자하건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사항이라며 모로코는 특히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번 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동 사의 현안으로는 대 아프리카 수출 목적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의 생산원가가 모로코 공정보다 스페인 공장이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 관세 인하 정책으로인해 해외 가전제품들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모로코내에서 생산을 가동하고 있는 이 회사는 현지 시장 판매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모로코 정부에 산업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하고 있는 가전 제품들의 리뉴얼, 'Maid in morocco' 제품의 인식 개선 등 다각도로 판매 전략을 모색 중에 있다. 덧붙여, 아프리카 시장 점령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모로코에서의 활동은 충분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2020년까지 아프리카시장의 20억명 고객 유치를 목표로한다고 전했다

4) KT, 모로코 이동사 'Maroc Telecom' 인수 추진, 결국 포기

KT가 모로코 이동통신업체인 마로크 텔레콤 주식 인수에 나서며 두 번째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나섰다. 2012년 12월 26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KT는 프랑스 통신기업 비방디 SA가 소유한 모로코의 이동통신사 마로크 텔레콤 주식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의향서를 제출했다. KT는 11월 17일,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것이라고 밝혔다. 마로크 텔레콤의 최대 주주인 프랑스의 통신·미디어 그룹인 비방디 유니버설은 마로크 텔레콤 주식의 53%를 55억 유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KT가 비방디가 소유한 마로크 텔레콤 주식 전체를 인수할 경우 1대 주주 지위에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2013년 4월, KT는 모로코 통신사 인수를 포기했다. KT측은 마로크텔레콤의 시가와 KT가 입찰하려는 금액의 차이가 커 입찰 경쟁에 참여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1대 주주 참여를 위한 경쟁 입찰에는 참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사업협력 등 다각적인 형태의 투자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투자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5) 삼성물산, 3950억원 규모 건설공사 단독 수주

삼성물산이 모로코 인광석 공사가 발주한 인광석 처리 플랜트 건설공사를 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950억원)에 단독으로 수주했다. 인광석 처리 플랜트 사업은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남서쪽으로 210km에 위치한 조르프 라스파 산업단지에 인광석에 포함된 인을 제련해 비료 원료를 생산하는 2개의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로 북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상품의 다변화도 이루게 되었다고 자체 분석했다. 삼성물산은 모로코 시장 첫 진출을 계기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화력발전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LNG터미널 등 분야에서 수주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6) 대우건설, 모로코에서 2조원 규모 발전소 수주

대우건설이 모로코에서 총 공사비 2조원대에 육박하는 초대형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회사 창립 이후 해외 수주 단일 공사로는 최대규모다. 대우건설은 2013년 8월 9일 모로코에서 약 1조 9710억원 규모의 '사피 민자발전소 공사'를 따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공사는 대우건설이 설계와 기자재 구매, 시공 등을 총괄 수행하게 된다.

사피 민자발전사업은 모로코 사피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해안가에 132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민자사업자인 사피 에너지 회사로부터 공사 전체를 단독 수주했다. 공사기간은 46개월이다. 대우건설은 1998년 대우전자 자동차 모로코 공장 건설을 위해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모로코에 진출했다. 이후 2010년 현지 시장에 재진출한 후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발전소(10억2000만 달러 규모), 조르프라스파 ODI 비료공장 공사(3억2800만달러)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3건의 대형 플랜트 공사를 따냈다. 현지에서 지금까지 수주한 전체 공사금액은 약 34억 6100만 달러이다.

7) Oriflame의 직접 판매 시스템

Oriflame은 스웨덴의 화장품 회사로 직접 판매 시스템을 통해 스킨케어와 천연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Oriflame은 직접 판매(방문 판매)에 대해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편리한 판매 시스템이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12년 총 매출액이 2억 3천만 디르함에 달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방문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원들을 여성 컨설턴트라고 부르며 중간 관리자 급에는 월간 약 4,700 달러의 커미션이 있고 일반 여성 컨설턴트들은 월간 평균 1,100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2013년까지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라바트, 마라케시, 메크네스, 페스, 탕헤르, 테투안, 아가디르 등 거의 모든 모로코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8) BOSCH의 모로코진출

2008년 모로코 가전제품 시장에 처음 진출한 BOSCH는 GFK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2년 모로코의 가전제품 시장이 약 13%의 판매 감소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독일의 가전제품 브랜드인 BOSCH는 65,000대 이상을 판매하여 26%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며 약 1억 2,600만 디르함의 매출을 달성했다.

2008년 모로코 시장에 진출한 뒤 2009년 5320만 디르함의 매출액에 도달하면서 2008년 대비 1200% 성장과 함께 모로코 시장에 자리잡았다. 본래 독일제(MADE IN GERMANY)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던 BOSCH는 주로 백색 가전(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높은 판매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2013년 세척용, 요리용 가전 제품들도 모로코 시장에 자리 잡는데 성공했다.

위와 같은 BOSCH의 성공요인은 잘 정비된 비즈니스 모델과 유통 채널 관리에 있다고 평가된다. 2013년 BOSCH의 제품들은 전국 42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독일 브랜드의 구축 및 광고를 위해 전체 매출의 약 15%를 투자하고 있다. 시장 조건들 또한 유리한 편으로 임원들은 2013년 16억 디르함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

나. 실패사례

1) Lush

Lush는 1994년 설립된 영국의 화장품회사로 비누, 샤워젤, 샴푸, 헤어컨디셔너, 목욕제, 핸드로션, 바디로션, 마스크 팩 등 다양한 수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Lush는 자신들의 제품에 과일과 채수, 오일, 합성 재료, 꿀, 밀랍 등을 사용하면서 동물성 지방을 지양하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회운동에도 참여했다. 이들의 상품들은 100% 식물성으로 방부제의 위험과 환경 문제를 이슈로 다루고 있으나 2004년 모로코 진출 당시 모로코 소비자의 구매능력에 비해 식물성 제품을 함유한 Lush의 제품들은 가격이 높았고 해당 업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문제에 대해 그 당시의 모로코에서는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출 뒤 2년 만에 폐점하게 되었다.

2) Cilek

Cilek은 아동, 성인, 사무용 가구에 특성화된 터키의 가구기업으로 터키에 6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알제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한국 등 15개 국가에 걸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지리적 유리함과 높은 구매력을 가진 지역으로 탕헤르, 라바트, 카사블랑카, 마라케시와 같은 도시에 매장을 오픈했다.

Cilek은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써 전문적인 유통망과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제품 또한 독특하고 뛰어났지만 이들의 실패원인은 가격경쟁력에 있었다. 모로코의 경쟁 기업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치했고 경제적인 패키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였으나 Cilek는 고가정책을 유지하면서 2013년에는 카사블랑카 지점만 남게 되었다. 카사블랑카 매장은 고소득층을 타겟으로한 영아 침실 제품 판매만을 하고 있는 소규모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모로코 정부는 외국인의 소유권을 제한했던 모로코화법(Moroconization, 1973 년)의 대부분의 조항을 1989 년부터 폐지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개방도를 높이고 경제안정을 확고히 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쌓는 것에 집중했다. 또한 주요 외환에 대한 자국화폐(디람화)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도입하거나 구체화했다. 특히 금융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촉진하고자 금융분야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 1995 년 10 월 3 일 25 개의 조항으로 된 투자법(Charter de l'investissement, 법안 제 18-95 호)을 의회에서 채택하여 11 월 8 일 칙령 제 213 호에 의거하여 이를 공포했다. 개정된 신 투자법(Investment Charter)은 총 25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투자목적, 조세규정, 금융 및 행정절차, 농업부문, 시행 절차 등의 5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투자관련 법규는 상법(Commercial Code), 기업법(Company Law), 노동법(Labour Law) 등이 있다.

신투자법의 일환으로 금융 및 해외투자부 산하에 투자촉진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투자에 관련된 외환의 자유송금을 보장했고 외국인의 모로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에의 참여, 114 개 공기업의 사유화가 정부와 외국기업의 직접적협상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제조업, 관광산업, 광업, 수산업, 수공업, 부동산 및 수출의 7 개 투자장려업종을 선정하고 중요도와 투자지역에 따라 우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투자법은 조세부담 경감, 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투자시 수출지원 등의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최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제 2 항).

투자 증진의 필수적인 초기 시설 설비, 장비와 부속 부품에 대한 관세는 최소 2.5%, 최대 10%(종가세: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적용된다(제 3 항).

투자를 목적으로 수입 혹은 모로코에서 구매한 초기 시설 설비, 장비와 부속 부품의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 ajoutée)는 면세 될 수 있다(제 4 항).

- A. 소득세(Impôt Général sur le Revenu)는 소득수입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41.5%를 초과 하지 않는다.
- B.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사업체의 경우 회사 설립 초기 5 년간 소득세(IGR)이 면제되며 향후 5 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제 8 항).

신투자법은 분야별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과거 투자관련 법규들을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대체하고 있다. 신투자법이 담고 있는 주요 투자유치 조치는 조세의 최적 배분으로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특혜 조세 제도를 부여하며, 투자 관련 절차의 단순화 및 투자자에 부합된 개런티를 강화하며, OFF-SHORE 금융, 수출 자유 지대 및 산업용 면세 창고(EIF) 제도 진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로코 투자 진흥청 (AMDI ; Moroccan Investment Development Agency)는 투자증진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 정부기관이다. 모로코 투자정보, 행정기관 컨택 직원 및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사는 수도인 라باط에 위치, 이 외 뉴욕, 마드리드,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로마, 아부다비 이상 7개의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나. 외국인 투자제한

현재 모로코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가 개방화,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지난 1973년 제정된 모로코화법령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었던 분야도 1990년 1월 1일부로 대폭 축소됐다.

과거 외국인 자본참여 한도를 50%로 두었던 모로코 화법의 폐지로 출자비율의 제한이 없게 됐으며 현재 모로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경영 및 산업활동에 대해 외국인도 동등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법령 폐지 이전에는 모로코화에 속하는 투자에 종사하는 법인 및 조합(합명회사)의 외국인 소유권이 50%로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모로코 정부는 2002년부터 지역투자센터(Regional Investment Centre)를 개설해 투자 관련 신속절차를 단순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의 연간 재무보고서 공개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했다.

다. 투자 금지

외국인과 모로코 내국인이 개인적으로 투자가 금지된 분야는 국가 에너지 및 수자원 독점에 대한 경쟁 산업분야, 철도 및 운송업, 인광석의 채광 및 가공,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물, 공공 질서 및 건강, 안전에 저해된다고 간주되는 산업에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또 한 금융, 보험업 및 제약업 등의 산업 분야와 특수한 경우 사기업에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모로코화법에 대한 적용 법령의 폐지로 인해 외국인의 소유권에 대한 규제가 근본적으로 소멸했으나 단, 외국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는 없다.

라. 최신 동향

모로코에 대한 해외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 빈도는 높아질 전망이며 모로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개방 정책을 통해 현재도 주요 국가와의 자유 무역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의 폭스바겐, 일본의 소니 등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모로코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기업들의 모로코 진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8. 투자방식

가. 개요

모로코의 상법은 외국회사의 설립, 확장 등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회사의 설립은 단순한 서류제출로 절차가 마무리 된다. 상법상 영리회사의 종류는 크게 인적결합형태와 자본결합형태로 나뉘어진다. 인적결합형태로는 유한회사(LTD), 유한합작회사(Limited-Partnership Company), 참여회사(Participation Company)가 있고 자본결합형태로는 유한회사(LTD), 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작회사(Joint-Stock)이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회사형태로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소비자구매회사(Consumer Purchasing Co-operative Company), 상호회사(Mutual Company),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1) 주식회사 (Société Anonyme)

주주의 수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최소 5 명이며, 최소 납입자본금은 상장사는 3,000,000 디람, 비상장사는 300,000 디람. 주식액면가는 최소 100 디람이다. 주식회사는 상업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법인(法人)의 지위를 향유하며, 현금출자는 주식가액의 1/4 이상을 회사 설립시에 납입해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일괄 납입해야 한다.

임원 임면 등 회사의 운영에 관한 권한은 이사회가 가지며 이사의 수는 상장회사는 15 명 이상, 비상장회사는 3~12 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회사운영에 대한 상시감독권을 보유하며 상장회사는 15 명 이상, 비상장회사는 3~12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6 년 사이에 정관이 정하는 임기에 따라 임명되는 임원의 수는 상장회사는 최대 7 명, 비상장회사는 5 명이다.

2) 유한회사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유한회사는 개인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로서 모로코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다. 주주가 자기의 출자액만큼 책임을 지는 회사의 형태로서 이익의 분배는 주식수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하며 주주의 수는 최소 1 명에서 최대 50 명으로 구성되고, 최소 자본금은 10,000 디람이며 1/4 은 회사명의 은행계좌에 상시 예치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1 명 또는 다수의 경영진이 제 3 자에 대해 개별 또는 연대 책임을 지며 운영하며,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총회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1 명 또는 다수(연간매출액이 5 천만디람 이상인 경우)의 회계감사관이 경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

3) 합작회사 (Société en Commandite)

2 인 이상의 인적결합에 의해 무역의 목적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합작 파트너들은 설립허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회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채권자에 대해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과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 또는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단순합자회사와 주식 합자회사로 구분된다.

회사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 무에 참여하지 않고 재산출자에 한정된다. 주식합자회사의 특별주주총회에서 무한책임사원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회사형태를 주식회사(SA) 또는 유한회사(SARL)로 변경이 가능하다.

9. 투자진출형태

가. 외국인투자기업 유형

1) 현지법인

현지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내국인자격을 부여 받아 영리 활동을 수행하며 이익에 대해 법인세(IS)와 소득세(IR)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회사(SA)와 유한회사(SARL)가 가장 보편적인 현지법인의 유형이며 기타 합자회사(SC)도 종종 사용되는 형태이다. 모로코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현지법인 설립과 소유의 제한을 전면 철폐하여, 현재 외국인의 현지법인 지분 100% 소유가 가능하다.

2) 해외지사

상법에 의해 지사의 설립자체는 자유롭고 간단한 서류제출로 마무리 되지만, 외국법인의 모로코 현지 지점인 해외지사는 현지법상 내국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지사설립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 활동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며, 모로코 현지에서의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이 보다 적합하다.

3)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모회사 조사기관의 기능을 하며 다양한 교섭인원(잠재고객, 공급업자 등)과 접촉하며 교섭인원에게 정보 및 홍보, 광고를 제공한다. 가장 설립이 간단한 외국인의 현지진출방식으로서 본사의 위임장 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모회사의 명의와 회계를 사용하여 어떠한 계약 체결도 할 수 없으며 상업행위 또한 할 수 없다. 입찰참가, 공사시행 등 한시적으로 제한적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진출유형이며, 법인세(IS)는 연간 지출액의 8~10%에 대해 35% 세율이 적용된다.

4) 인수합병 (M&A)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M&A의 발전 배경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의 절감, 경영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확보 등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나. 투자주체별 유형

1) 단독·합작 투자

모로코에서 예정하고 있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단독(100%)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기업을 설립 할 지 우선 결정해야 한다. 송·배전 등 일부 국가전략산업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 철폐되었으며,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서 조세감면, 저가부지임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어, 외국인의 투자비율 확대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지원 서비스

국왕이 정부부처 간 투자위원회를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자유로운 기업설립 및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모로코 경제발전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현지법인 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절차 합리화와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별로 투자인센티브 부여 권한이 확대되고 일괄지원(one-stop)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다수의 모로코 진출 외국기업들이 현지법인 설립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모로코 투자청(AMDI)은 1995년 제정한 ‘투자현장(Investment Chart)’의 개정을 추진하며, 2009년 공표된 ‘산업전략(Plan Emergence)’과 병행해 전략산업 분야에 있어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도모했다.

투자현장 주요 내용으로는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한 최저 투자 금액을 2억 디르함에서 1억 5000만 디르함으로 낮추고, 국가의 투자참여 가능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한편, 부대시설(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10%(기존 5%)까지 지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고용 인력 교육비용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하고 제조업은 플랜트 건설비용의 최대 30%, 기계설비 구매비용의 최대 10%까지 지원한다.

상시 고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이거나 20억 디르함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 맞춤형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유형별 설립절차

1)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구 분	기 한	소요비용	관련기관
회사명 중복확인 및 회사설립 요청서 작성 (Certificat négatif)	1-3 일	151 디람	상업등기소
정관(Statuts) 작성 및 공증	2-3 일	20 디람/페이지	공증사무소
등기(Enregistrement)	즉시	주식회사: 50 디람 유한회사: 출자액 0.5%	재무부
정관(Statuts) 제출	설립일부터 30 일 이내	373 디람	관할법원
주식인수(Souscription)	1-2 일	70 디람	공증사무소
주금납입	-	-	은행
영업신고(Patente)	영업개시 전		국세청
사업자번호 등록	회사설립 후 3 월 이내	172 디람	관할법원
법인세(IS) 등록	회사설립 후 3 월 이내	-	국세청
소득세(IGR) 등록	회사설립 후 1 월 이내	-	국세청
근로감독당국 신고	영업개시 전	-	노동부
사회보장보험가입	직원고용 시	-	CNSS
설립증명서제출	회사설립 후 1 월 이내	40 디람	관할법원
설립공고	회사설립 후 1 월 이내	-	재무부

* 주: 1USD = 8.4디람

2) 지사

구 분	기 한	소요비용	관련기관
지사수권문서작성 및 공증		사안에 따라 변동	공증사무소
모기업 명칭/정관/소재지 증명서 작성 및 공증		사안에 따라 변동	공증사무소
지사설립신청서 및 상기 증빙서류 제출	즉시	155 디람	상업등기소

나. 추천 법무·회계법인

- Ernst & Young
 - 주소: 37 bd Abdellatif Ben Kaddour 20050 Casablanca
 - 전화: +212 522 957 900
 - 팩스: +212 522 390 226
 - 홈페이지: www.ey.com
 - 담당자: Mr. Abdelmejid Faiz (Director)
 - 이메일: audit@ma.ey.com
 - 특기: 회사설립 등 투자진출 자문제공, 1984년 모로코사무소 개설

- August & Debouzy
 - 주소: bd Ghandi, Ghandi mall, immeuble 9 20050 Casablanca
 - 전화: +212 522 779 595
 - 팩스: +212 522 779 596
 - 홈페이지: www.august-debouzy.com
 - 담당자: Mr. Kamal Nasrollah (Director)
 - 이메일: contact@augdeb.com
 - 특기: 2008년 사무소 개설

- Benjelloun Amin Faycal
 - 주소: 355 bd Mohammed V 20300 Casablanca
 - 전화: +212 522 249 219
 - 팩스: +212 522 400 307
 - 담당자: Mrs. Amin Faycal Benjelloun
 - 이메일: afbenjellounnotaite@menara.ma
 - 특기: 공증사무소

다.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

- Ministry of Finance & Foreign Investment
 - 주소: Ancien Quartier Administratif, Rabat, Morocco
 - 전화: +212 7 76 01 47, +212 7 76 06 61
 - 팩스: +212 7 76 40 81

- Custom And Indirect Taxes Administration
 - 주소: Place Mohammed V, Casablanca, Morocco
 - 전화: +212 2 22 41 16
 - 팩스: +212 2 26 07 06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주소: Quartier des Ministeres, Rabat-Chellah, Morocco
 - 전화: +212 7 76 18 78
 - 팩스: +212 7 76 62 05

- A.M.I.P.R.O.S. (Grains Importers Association)
 - 주소: Boulevard Mohamed V, Casablanca, Morocco
 - 전화: +212 2 30 24 04, +212 2 30 21 79
 - 팩스: +212 2 31 10 66, +212 2 30 52 27

11. 투자입지여건

가. 투자매력도

모로코의 지정학적인 위치상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및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 2000년 3.1일부로 모로코-EU 간 자유무역협정(EURO MEDITERRA-NEAN AGREEMENT)이 발효되었고 단계적으로 관세인하가 진행되다가 2012년 3월 관세가 완전철폐 되었다. 2004년 3월과 4월에 미국, 터키와 각각 FTA를 체결해 투자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 정부가 2020년 재생에너지 비율 42%를 목표로 'Energy Pro' 프로젝트를 실행 중인 가운데 모로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모로코는 북부(지중해) 및 서부(대서양) 해안지대의 연평균 풍속이 초속 8미터 이상을 유지하며, 풍부하고 강도 높은 일사량을 보유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최적의 입지여건으로 꼽힌다.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까지 태양광 발전 분야에 90억 달러 투입해 총 2,000MW의 발전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풍력 발전 분야 또한 40억 달러를 투입, 2,000MW 생산목표를 수립했다.

모로코는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임금과(327\$/월, 튀니지 338\$/월, 남아공 1,280\$/월), 탁월한 지리적 이점으로 노동 집약 분야의 임가공 현지 우회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는 인근 알제리, 리비아 등과는 달리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통신, 교통 등 인프라 및 생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국왕의 영도력에 대하여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여 정치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일부 야당 및 재야세력에서는 현 국왕의 독재와 인권탄압사태에 대하여 반대와 항의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보와 권력을 독점한 국왕 지지세력에 가려 세력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절대 왕정의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경찰의 힘이 강력하고 사회질서가 잘 잡혀있는 편이며 외국인들에 대한 치안상태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서부 사하라 영토권 문제로 한때 폴리사리 (POLISARIO)를 지원한 알제리와 갈등으로 국경 폐쇄 상태에 있으나 최근 들어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문지인 "FDI 매거진"은 2013년 8-9 월호에 "African Countries of the Future 2013/2014" 순위를 발표했다.

UNCTAD 의 조사 결과와 인프라 수준, 경제적 잠재력, 친기업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아프리카 55 개국 중 가장 매력적인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10 개국을 선정한 결과, 모로코가 남아공에 이어 종합 2 위를 차지했다.

부문별 매력도 순위에 따르면, 인프라 부문에서 이집트에 이어 2위, 인프라 전략 부문에서는 1위, FDI 전략 부문에서는 모리셔스와 함께 공동 1위, 친기업환경 부문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모리셔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편, 모로코 일간지 "Le Matin"지는 2013년 8월 27일(화) 동 FDI 매거진 발표를 인용, 모로코가 2012년 70개 사업에 총 28억 4천만 달러의 FDI를 유치함으로써 2011년 대비 10%의 FDI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사항을 보도했다.(북아프리카 국가중 이집트 28억 달러, 튀니지 19억 달러, 알제리 15억 달러).

모로코는 對 아프리카 FDI 유입액 중 8.3%를 차지했으며, 對 마그레브 지역 5개국 FDI 유입액 중에서는 25%를 차지했다.

모로코는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의 유리한 위치, 야심찬 분야별 전략, 국제규격에 맞는 인프라, 가격 경쟁력, 고급 인력 등의 강점과 정치적 안정, 경제성장 등이 결합되어 투자자들에게 친기업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對 모로코 최대 투자국은 프랑스로서, 프랑스의 지중해 이남 투자사업 중 54%가 모로코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부동산(34%), 산업(22%), 금융(15%)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1) 모로코의 전반적인 개방화 정도

모로코는 매년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외환부족을 해결하고 현재 9%선을 웃도는 실업률을 낮추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0년대 초 외국인 투자법을 대폭 보완해 외국인 투자에 관한 한 완전히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국가 기간 인프라 및 공익성 분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100% 투자도 가능할 정도로 대폭적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우리업체의 투자대상 분야로는 IT관련 업종, 수산물 가공처리, 전선 및 전기관련 제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이 유망하다.

또한 모로코 정부는 2002년부터 지역투자센터(Regional Investment Centre)를 개설해 투자 관련 신속절차를 단순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의 연간 재무보고서 공개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했다.

2) Tanger Med 프로젝트를 통한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

모로코의 산업활동 강화, 10 만 개의 일자리 창출,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모로코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Tanger Med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Tanger 항구의 장점인 유럽과의 근접성을 살려 항구단지 건설 및 물류유통 및 산업 지대를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2007 년 7월 28 일 Tanger Med 신항만의 첫 번째의 컨테이너 부두가 개방되었고 2008년 8월경 두 번째 컨테이너 부두가 개방되었다. 탕제 신항만의 물동량은 2007년 300만개의 컨테이너로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800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탕제 신항만은 인근의 11개의 국제항이 있으며 항만을 포함해 총 2000헥타르 규모를 자랑해 북아프리카 최대 국제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Tanger 시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의 첫 관문인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이 더딘 것을 감안, 모로코 정부는 Tanger Med 프로젝트를 통해 Tanger 시를 비롯한 모로코 북부지역 개발 및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모로코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을 예상, 모로코 정부는 고속도로, 철도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Tanger Med 항구 개발을 위해 20 억 유로(약 31 억 5,4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Tanger Med 신항만에 Maersk, CMA /CGM, MSC 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들어서면서 Tanger Med 신항만의 세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1단계 TangerMed I은 2개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여객터미널로 구성되며 지중해 지역에서 규모가 제일 큰 항구로 거듭날 2단계 항만(TangerMed II) 조성공사는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 지원시설로 구성되어 2015년 가동 예정에 있다. 산업단지인 'Free Zone'은 자유무역지대로, 500헥타르의 부지에 자동차, 부품소재, 섬유·의류 분야 수출형 제조기업 400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다.

2010년 탕제-테투안 지역의 총 생산은 2300억 디람(dirham현지화)를 기록하며 국가 전체 생산의 7%를 차지했다. 전기·전자 산업이 7600억 디람의 생산으로 가장 높은 생산규모를 나타냈고 직물산업과 농산물 가공업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12년 2월에는 르노 닛산(Renault Nissan)의 자동차 조립공장의 건설이 완료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9월 현재 모로코 완성차 수출규모는 32억 5천만 디람에 달한다.

이런 엄청난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난과 교통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모로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 및 도로 교통망을 확장,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며 Tanger 항구 주변에 20 만 호 이상의 주택 건설을 통해 주택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anger Med 신항만은 자유무역지대와 고급 휴양지,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기업들이 모로코를 생산기지 제1 순위로 선택하는 상황이므로 자유무역지대는 향후 주요 EU 생산기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

3) 투자 플랫폼, 기반 시설 투자 계획

유럽과 사하라 지역 아프리카 국가의 플랫폼 국가로써 해당 지역 여러 국가의 인프라 사업과 은행 진출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모로코 투자 진흥 위원회는 인프라 개발을 위해 총 5조 달러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이 계획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도로, 항만, 공항의 인프라를 개발할 예정이다.

12.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투자제한

모로코의 몇몇 산업분야는 외국인의 투자가 아예 제한이 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허용이 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경작지 매입은 외국인은 법적으로 농업 용지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관광 안내나 산악 안내업은 모로코인들에게만 허용된다. 또한 모로코 법률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지점 또는 여타 자격으로 운영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외 기업은 모로코 내에서 1년 이내 기한의 채권 발급이 불허된다. 전문직종인 공증업, 이슬람종교 공증인, 회계사 등은 외국인에게 허가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제한 되는 분야는 환경, 문화서비스, 수도전기공급, 사설교육, 전문 서비스 등이 있다. 모로코는 문화서비스 관련 기존 또는 향후 양자 및 다자 협약에 의해 국가별 다른 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전기공사와 수도공사가 지사를 통해 판매, 민간에게 경영 위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설교육 분야는 학교전 사설교육, 유아원, 초·중·고등학교과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교원과 보조교원 포함)에 대하여 고용허가 획득 조건부로 외국인에 의한 초·중등 사립학교 운영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서비스 분야(회계사, 건축사, 법률서비스, 건축 서비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의사, 의료 및 유사기관 개설, 기타 의료업, 제약업, 운송업, 필름 배급 및 제작, 수산업, 공모 시장, 은행업, 보험업, 통신업, 담배 판매, 향만서비스업 등)는 강력한 규제를 받거나, 시장 접근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조건부 허용된다. 거주, 자격요건, 내국인 동업자와 같은 영업주소, 양자협약에 의한 상호 허용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 수입규제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직물, 전자전기 및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형 제품의 경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 달러 미만의 소량 수입이 보통이다. 이는 제품을 현지시장에 테스트해 검증을 받아야 하는 특성과 자금 회전상의 문제때문이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산 품질을 인정하고 있지만 오퍼가격이 유럽의 주요 공급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산에 비해 평균 15~20% 낮아야 수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 2012년 3월부로 EU와의 관세가 전면 철폐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우리나라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이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현지 바이어들이 가격을 중시하는 이유는 소비재의 경우 소비자들의 소득 분 포가 양극화되어 있어 저가품만을 찾는 소득층의 구매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기계류와 같은 생산재의 경우 특히 A/S나 부품 및 부속품 조달상의 핸디캡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현지 세관당국이 소비재에 부과하는 수입관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평균 수입관세 35%에, 20% 내외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모로코에서는 한국 상품의 이미지가 양호한 편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저가격 중국제에 밀려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체로 수입 유통되는 품목들인 저가소비재류는 중국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고가품 일 경우 유럽, 일본 등의 제품 선호도가 높으나 가전제품, 핸드폰, 위성수신기, 직물 등은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다. 국내 제조시설이 있는 회사일 경우 모로코 현지 판매시스템을 갖출 경우 시장점유율에서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모로코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우리 기업의 모로코 수출도 2010년부터 꾸준히 올해까지 호조를 보인다. 또한 2010~20년의 10년간 모로코의 최대 기념비적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인 카사블랑카 스타디움의 설계를 우리나라의 공간그룹이 수주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됨. 이에 모로코 정부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향후 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소비시장

국토 면적과 인구에 비해 구매력이 부족해 내수시장이 제한되어 있어 시장성 있는 품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원인은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옅고 산업 설비재와 고급 소비재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유명브랜드가 수입되어 경쟁이 치열하며 일반 공산품은 아직도 밀수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자 및 섬유 등 일부 품목은 모로코 북부 스페인령 세우타(Ceuta)나 메릴라(Melilla)를 통해 밀수입되고 있어 이들 품목과의 경쟁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입규모는 소액, 소량이 일반적이며 밀수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 인하 요구가 심한 편이다.

라. 행정관행

행정처리적인 면에서 한국의 빠른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모로코 현지 행정처리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모로코 업체들에 빠른 일처리를 독촉하고 수차례 일의 진행 상황을 되묻는 것은 모로코 바이어에게 반감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3. 노무관리 제도

가. 개요

모로코의 노동법과 노사관련 법률은 프랑스의 영향으로 받아 다른 개도국에 비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발달되어 있다. 모로코 노동법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04년 6월 7일 기존 노동법을 보완한 신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노동계약과 관련한 개별 분쟁은 사회재판소(Tribunaux Sociaux)에서 관장한다.

노조가 등장한 것은 프랑스의 식민통치시대인 1930년경부터이며 최초의 노조는 CGT(Conseil General de Travail)이다. CGT는 주로 식민통치시대에 모로코 노동자들의 권익의 보호와 독립운동의 성향을 띤 노조운동을 전개했다. 독립 이후 1957년 7월 16일 국왕칙령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설립이 인정됐고 이후 모로코 내에 3개의 주요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1955년 설립된 모로코 노동자연합(Union Marocaine du Travail/UMT)이 지금까지 유지되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그 외에도 주요 노동조합으로 UGTM(union Generale Des Travailleurs Du Maroc), CDT(Confederation Democratique Du Travail)가 있다.

국왕칙령에 의거하여 모든 노동자들은 노조에 참여 및 가입이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자신만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별 행동은 금지되어 있다. 노조가입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자신의 권익보호가 가능하며 노조의 설립은 종업원 7일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된다. 노조의 활동은 때때로 대규모 파업이나 태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노조의 행동에는 정치단체(정당)가 후원을 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국가의 기간산업부문이나 국가산업의 지장을 주는 파업 등은 국왕의 칙령이나 강력한 경찰력으로 사전에 조직적으로 차단된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개별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를 통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필수적이나 현재 모로코의 높은 실업률과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사용자들에 비해 노동자의 권익 주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노조의 단체 활동은 사회안정을 우선하는 정부 정책에 상반되기 때문에 노조의 조직적인 권익확대 노력이 위축되어 있다. 노동법은 프랑스 보호령시대에 계수되어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상당히 보호하는 제도적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성적 실업문제로 실효성은 미약하다.

나. 고용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며 신문광고,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Centre de formation professionnel)의 추천, 의뢰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통 노동자들은 노조가입 근로자 및 비 노조가입 근로자로 구분되며 노조가 없는 업체의 경우 통상 사무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고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정규직(CDI) : 가장 일반적인 고용 방식이며 상호 계약이 파기될때까지 고용되는 방식이다.
- 계약직(CDD)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계약기간은 24개월을 넘길 수 없다.
- 임시직(CDT) : 계절직 혹은 임시적으로 일이 있을 때 고용하는 방식이다.

임시직은 근로관계를 무기한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으며 정규직의 계약 중지 중(파업이 아닌 경우) 다른 피고용인의 대체, 기업활동의 일시적 증대, 근로성격이 계절적일 경우에 체결할 수 있다.

인력을 고용할 시 고용계약서를 고용주, 피고용인 모두 배석한 가운데 작성해야하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한부씩 소지해야한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를 고용계약서에 명시해야하며, 계약기간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1년단위로 갱신된다. 임금과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하며 마지막으로 피고용인의 서명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유효하다.

고용 후 고용자는 사회보장당국(CNSS)에 급여, 고용주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CNSS 신고기록이 노사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다. 인력

모로코는 총 인구 3,230만 명 중 70% 가량이 30세 미만의 젊은 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력이 풍부하다. 2011년 집계된 노동인력(15세이상) 1153만 명으로 2010년 대비 08%로 증가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10% 정도이지만 도시지역과 고학력층의 실업률이 높은 편이어서 양질의 노동력을 구하기는 쉬운 편이다.

2011년 실업률은 8.9%로 2010년 대비 0.3% 감소했다. 청년 노동인구(15-29세)의 실업 분포도는 평균 3명중 2명이 실업자이며 고등 교육 이수자의 경우 4명 중 1명이 실업자이다. 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51.8%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구직 시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업의 이유로는 실업자의 24.6%는 학위 취득후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며 29.5%는 이직 희망 퇴사 및 해고, 16.8%는 학업 중도 포기를 그 사유로 꼽았다.

반면 전문적인 기술과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일반 인력에 비해 급여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업의 생산성을 분석하는 경제지표 중 하나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발전에 힘입어 1983~1988년 0.2에서 2000년 이후 0.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아시아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지만 다른 아랍국가에 비해서는 우수하다.

모로코의 유명한 인력 수급 회사로는 Rekrute.com이 있으며, 신문 광고 혹은 온라인 상의 공고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 노동부와 직업훈련부는 향후 주력사업분야인 공업·호텔경영·농업·수공업 분야에 있어서 인력 집중양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인력양성방안은 직업훈련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며, 재원은 Hassan II 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라. 임금

일반적으로 모로코의 임금수준은 개도국으로서는 높은 편이다. 2011년 7월 기준 모로코의 최저 임금 (SMIG: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은 시간당 11.70 디람이며 2012년 7월에는 12.24디람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모로코에는 최저임금제(SMIG)를 제외하고는 법정 임금 관리제도가 없다. 임금 및 봉급은 피고용자 및 고용주 간에 자유로이 협의할 수 있지만, 임금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피고용인은 모로코 화폐로 보수를 지급받게 되어있으며 현물 혜택은 현물 지급 관행이 있는 직종 또는 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다. 노무자에게는 보수 지급일 간 최대 간격 16일로 매월 최소 2회 지급하며 직원에게는 매월 적어도 1회 지급하여야 한다.

모로코 대졸 사무직종 초임은 월 4,000~7,000 디람 수준이며, 기술직(간부급)의 경우 월 8,000~10,000디람 정도이다. 고용주가 국내식당(Cantine)마련, 주택보조비, 교통비지급 등의 추가 복지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간 협의에 따라 제공하기도 한다.

산업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급여에 사회보장세(Charges Sociales)가 가산되며 급여는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협상 대상이지만 최저임금(SMIG)보다 낮은 수준일 수는 없다. 유급휴가는 월 1.5일이다. 유급 연가 기간은 계속 또는 비계속을 불문 하고, 근무 5년 기간 전체 당 실근무 1.5일 비율로 증대하나 이러한 증가로 전체 연가 기간이 실근무 30일 이상이 될 수는 없다. 유급 연가는 피고용인가 고용주간 합의에 따라 연속되는 2년에 걸쳐 분산 또는 축적할 수 있다.

모든 피고용자는 연차에 따른 보너스를 받는다. 2년차에 경우 임금의 5%, 5년차 이상부터 10%, 12년차 이상부터 15%, 20년차 이상은 20%를 받게 된다. 2004년에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1년에 2,28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10시간 이후부터는 추가근로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사회보장기금(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에 가입해야 하고 임금 지급 대상자 리스트에 등록해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정규직원은 누진제에 따라 산정되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무기간에 따라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 5년까지는 연간 96시간의 급여, 6~10년은 144시간, 11~15년은 192시간, 15년 이상은 연간 240시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보수 정산시 “보수명세서(Bulletin de paye)”라고 하는 증빙서를 발급해야 하며 동 보수 명세서에는 근로 감독 당국이 정한 표시(indications)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반대나 이의 없이 보수 정산을 확인하는 보수 명세서를 수령하는 것이 보수나 제 수당에 대한 동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피고용인이 명세서 여백에 ‘읽고 승인함(lu et approuve)’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을 지라도 적용된다.

마. 근로시간

비농업 분야 활동에서 피고용인의 정상 근무기간은 연 2,288시간 또는 주당 44시간으로 정한다. 전체 연 근무기간은 매일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일년 전체로 분산할 수 있다.

농업분야 활동의 경우, 정상근무기간은 연간 2,496시간으로 정한다. 동 기간은 관계 정부당국이 고용주 직능단체와 가장 대표성이 있는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일별 근무 기간에 의해 경작 필요성에 따라 기간별로 분산된다.

비농업분야 활동의 경우, 연 2,496시간에서 2,288시간, 농업분야의 경우 2,700시간에서 2,496시간까지는 보수가 삭감되지 않는다.

바. 외국인의 고용

모로코 내에서 외국인이 유급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경찰서(외사계)에 거주허가신청서(양식 경찰서 비치), 유효한 여권과 은행발행 및 은행구좌 개설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취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개인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취업 및 개인사업 이외의 경우는 거주허가 신청 사유서 및 기타 생활능력 증빙 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 노동당국은 자국 내에서 채용이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업허가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 현지인 사회보장

모로코 사회 보장 제도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사회보장기금(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e)에 가입하고, 동 금고에 급여자와 전습자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하는 각출금의 비율은 급여자의 월급으로 산정되는 가족수당 6.4% 전액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단기수당 1% 중 0.67%는 고용주, 0.33%는 피고용자가 부담하며, 장기수당 11.89% 중 7.93%는 고용주, 3.96%는 피고용자가 부담하는데 단, 장기수당 6,000디람을 상한으로 급여를 기준해 산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피 고용주의 의견에 반해 강제 해고하는 경우, 해고 수당은 근무연수 X 1.5월분의 급여를 지불하며, 이는 최대 36개 월을 넘을 수 없다. 이외 직업훈련 명목으로 총급여 기준 1.6%의 부담금을 CNSS에 납부해야 한다.

아. 휴일 및 휴가

고용계약, 단체 근로협약, 내규 또는 관례에 더 유리한 조항이 없는 경우, 모든 피고용인은 동일 기업 또는 동일 고용주의 집에서 6개월 계속 근무 후에는 아래와 같이 정한 기간의 유급 연가 권리를 갖는다.

- ① 근무 개월당 실근무 1.5일 (1년 18일)
- ② 18세 이하 피고용인의 경우 근무 개월당 실근무 2일

유급 연가 기간은 계속 또는 비계속을 불문하고 근무 5년 기간 전체 당 실근무 1.5일 비율로 증대하나 이러한 증가로 전체 연가 기간이 실근무 30일 이상이 될 수는 없다. (실근무일은 주간휴무, 유급 국경일, 기업이 휴무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기한부 고용계약일 경우, 피고용인은 동 계약 만료 전 유급 연가 전체를 받아야 한다. 유급 연가기간은 동 유급연가 기간 중 유급 국경일 또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그 날짜 수만큼 증가되며 질병으로 인한 근무 중단은 유급 연가일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의료 증명서(Certificat medical)로 입증된 임신상태의 여성 피고용인은 고용계약, 단체노동협약, 또는 내규에 더욱 유리한 규정이 없는 한 14주의 출산휴가를 갖는다. 출산 중인 여성 피고용인은 출산 후 7주 동안 고용될 수 없다. 고용주는 출산 전, 출산 직후 기간 중에 여성 피고용인에게 부과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여성 피고용인은 출산 예정일 7주전부터 출산일 후 7주까지 기간 중 근무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출산 예정일보다 앞서 출산하였을 경우, 고용계약의 중지는 동 여성 피고용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14주의 고용계약 중지기간을 소진할 때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일 전 출산한 여성 고용인은 수취증명 등기우편으로 고용주에게 결근 동기와 업무 복귀 희망 일자를 알려주어야 한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산모 피고용인은 출산 후 7주 또는 경우에 따라 14주 기한 소멸 시 늦어도 출산 휴가 만료 15일 전 고용주에게 통보함을 조건으로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계약의 중지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산모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동의하에 1년간의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 현지고용인 사회보장세 및 고용주세

현지 고용인의 사회보장세 및 고용주세, 현지고용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고용주 부담	고용인 부담	합계	비고
사회보장	8.60%	4.29%	12.89%	과표상한 6000 디람
의료보험(AMO)	3.50%	2.00%	5.50%	과표 상한 無
가족수당	6.40 %		6.40%	과표 상한 無
합계	18.50%	6.29%	24.79%	

이밖에 교육훈련세 1.6%는 고용주부담이며 개인소득세는 전액 고용인이 부담한다.

차. 해고

정당한 동기 없는 피고용인의 해고는 금지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처벌 또는 해고의 정당한 동기가 될 수 없다.

- ① 노조 가입 또는 노조 대표 직입 수행
- ② 근무시간 외 노조 활동 참여 또는 고용주의 동의 또는 단체 노동협약 또는 내규에 의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참여
- ③ 피고용인 대표직 입후보, 수입, 또는 수행
- ④ 고용주에 대한 소원제기 또는 법적 쟁소 참여
- ⑤ 인종, 피부색, 성, 기혼여부, 가족관련 책임, 종교, 정치적 의견, 조상의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
- ⑥ 장애인으로서 기업 내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내 장애

고용주는 피고용인에 대하여 중대하지 않은 과오에 대하여 아래중 하나의 처벌을 취할 수 있다.

- ① 경고
- ② 견책
- ③ 제2차 견책 또는 8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정직
- ④ 제3차 견책 또는 타 보직 전보 또는 경우에 따라, 피고용인의 주소지를 고려하여 타 근무지 전출

고용주는 단계적으로 처벌을 실시하며 일년 중 처벌조치가 소진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래의 경우 피고용인의 해고를 촉발 할 수 있는 중대한 과오로 간주한다.

- ① 자유를 박탈하는 확정 판결을 야기한 명예, 신뢰 또는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범행
- ② 기업에 손해를 야기한 직무기밀의 노출
- ③ 기업내에서 또는 근무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한 사실 - 절도, 배임, 공공연한 만취, 마약류 사용, 육체적 공격, 소관 직무의 수행에 대한 부당하고 고의적인 거부, 12개월 기간 중 4일 이상 또는 8반일 이상 무단 결근,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태만에 의한 장비, 기계 또는 재료의 중대한 손상, 고용주에게 상당한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피고용인의 과오, 작업 또는 근무지 안전을 위한 수칙의 미준수로 상당한 손해 야기, 방종 선동, 기업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피고용자,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리인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폭력 또는 공격,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업에 대한 피해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한다.

정규직에 연관된 피고용인은 보수의 지급 방법과 지급 주기가 어떠한 동일 직장에서 6개월 근무 후 해고된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고 보상금은 매 실근무 년수 당 아래와 같은 금액과 같다.

- ① 첫 근속 5년 기간 - 96시간 분 보수
- ② 근속기간 6년차에서 10년까지 기간 - 144시간 분 보수
- ③ 근속기간 11년차에서 15년까지 기간 - 192시간 분 보수
- ④ 근속기간 15년차 이상 기간, 240시간 분 보수

피고용인은 부당한 해고시 손해배상과 보상금을 받는다. 피고용인은 실직 보상금도 받는다. 중대한 과오시 피고용인은 사전고지나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불없이 해고될 수 있다. 피고용인의 해고 전, 피고용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적일로부터 8일 이내에 피고용인 대표 또는 자신의 선정한 회사 내 노조대표의 참석 하에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리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14. 조세제도

가. 개요

모로코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국가 재정수입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차에 걸친 조세법령을 개정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조세관련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6년 법개정을 통해 조세제도를 개혁하였으며 이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1년 5차 개정안이 통과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2012년 현재 법인세율(IS)은 30%, 소득세율(IGR)은 최고 38% 이다.

주요 세제는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의 수입 및 이익과 관련된 법인세(IS), 개인과 합명회사의 소득 및 이익과 관련된 종합소득세(IGR), 소비자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VAT) 등이 있으며 기타 세제에는 배당소득세(TPA), 고정소득 투자세(TPPRF), 등록세(D.E), 차량세(T.S.A.V.A) 등이 있다.

한편 IMF가 2004년 7월 '모로코 조세 시스템의 현대화 및 그 관련 부서'라는 제목의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모로코의 조세 운영 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2010년 언론에 공개됐다. IMF는 모로코 조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각종 조세적용의 예외 규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들이 조세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IMF는 2000년 조사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보다 조세 관련 예외 규정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 실망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모로코 정부는 조세 관련 15개 항목의 예외 규정을 인정해 약 1억 7000만 달러의 조세 수입 감소를 야기시켰다. IMF는 EU와의 FTA로 인한 관세 수입의 손해를 예로 들면서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다 짜임새 있는 조세 정책 운영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나. 법인세

과세대상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인과 이익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법인이나 기타법인이 해당한다. 과세기준은 기업의 본사나 주 사업장에서 거둔 총 이익과 소득이며 세율은 30%이다. 법인세 감면대상으로는 영구사업장이 있고 산업기반이나 기술기반이 있는 외국기업은 12%, 영구사업장이 없으나 특허료, 대출이자, 수수료, 채권이자 등의 수입이 있는 외국기업은 1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은 최초 5년간 수출액만큼 법인세가 면제되고 5년 이후에는 50%를 감면시켜 수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통 공예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공예기업과 모로코 북부 땅제 등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에 소재한 기업은 특별 세제 혜택으로 입주부터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개인과 합명회사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 과세 대상소득이며 종합소득 신고일은 매년 5월 1일까지이다. 면세 및 감면 혜택은 법인세와 동일하다.

2012 년 의회에서 소득액 기준을 올리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재무장관에 의해 거부되었다.

종합소득세율

소득액(디람)	세율(%)	감면 세액(디람)
0~30,000	면제	0
30,001~50,000	10	3,000
50,001~60,000	20	8,000
60,001~80,000	30	14,000
80,001~180,000	34	17,200
180,001~	38	24,400

자료: 무역투자진흥청 Chambre de commerce d'industrie

* 소득세 산출 공식 = (연봉X세율) - 감면액

예) 연간소득이 180,000 디람일 경우

$(180,000 \times 34\%) - 17,200 = 44,000$ 디람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간 약 3,667 디람

예2) 연간소득이 250,000 디람일 경우

$(250,000 \times 38\%) - 24,400 = 70,600$ 디람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간 약 5,884 디람

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은 제조업, 상업, 수공업 분야의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된다. 세율은 일반세율이 20%이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된다. 부동산업, 은행업, 자유직, 여행업, 수송업 등에 14%가 부과되며 법률 및 의료 서비스 등의 용역, 소비재 등에는 7%가 부과된다. 자본재, 원자재, 기계 등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마.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1) 회사 설립 시

모로코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의 경우 차별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지 투자 시 일정 기간 동안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등록세는 회사설립 및 증자 시 0.5%가 부과되며 인지세는 회사 설립 시 면제된다. 공증세(Notarial Tax)의 경우 자본금 5,000디람까지는 1%, 5,000~1만 디람까지는 0.5%, 10,000디람 이상은 0.2%를 부과한다.

2) 외국기업 운영 시

현지에서 외국기업 운영 시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 지방세, 특허세 및 총 소득세이다. 건물, 토지 및 생산시설 장비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임대금액의 13.5%가 과세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도심지역은 임대금액의 10%, 시 외곽 지역 및 지방은 임대 금액의 6%가 부과된다. 특허세(Patent)는 비례세로 기업의 장비 종류 및 수에 따라 다르게 과세된다.

한편 종합 소득세(IGR)는 30,000 디람 이하는 면제되고, 30,001~50,000디람은 10%, 50,001~60,000디람은 20%, 60,001~80,000디람은 30%, 80,001~180,000디람은 34%, 180,000디람 이상은 38%가 부과된다. 한편 법인세(IS) 및 법인 소득세(IBP)는 30%가 부과되나 기초 상품(Primary Products)은 10%, 외국 기업의 산업 시설 및 기계장비는 12%가 부과된다.

국가 연대세(National Solidarity Levy: PSN)는 법인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TVA)의 경우 생필품 등에 7%, 부동산, 차·커피 제품 등에 14%, 기타 일반적인 경우는 20%가 부과된다. 이외 주식소득세(TPA)는 15%가 원천 징수되며 고용주가 납부하는 직업 훈련세는 총 고용인 봉급액의 1.6%가 부과된다.

또한 한-모 간의 특수 관계 기업에 관한 조세 협약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15. 금융제도

가. 개요

모로코는 프랑스 금융제도를 받아들여 비교적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상업은행, 정부소유의 특수은행 및 신용조합과 보험회사, 연금기금 및 주식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신용 및 자금공급을 직접 통제하여 왔으나, 1991년 금융자유화 조치이후 신용공급이 자유화되었으며, 중앙은행에서 이자율 조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정 및 개입하고 있으며, 모로코 금융제도는 현재까지 국내저축으로 정부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역할수행을 하고있다.

1959년 설립된 모로코 중앙 은행인 BANK AL-MAGHRIB는 발권 은행으로 외환 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시중 은행을 통제, 정부의 재정 정책을 자문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기초를 인플레이 억제, 모로코 디램화 가치 유지에 두고 있다. 3개 대형 은행(BMCE, BMCI, WAFA)이 예금의 63%, 대출의 55%를 차지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또한 소득층이 양극화되어 저축률이 낮은 편이고 부유층은 아직도 부동산 투자에 매력을 갖고 있다. 환율은 과거에 중앙 은행에서 고시되었으나 1996. 5월, 은행간 외환 시장이 형성된 이후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경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외환 거래가 1993년부터 자유화되었으나 자본 거래는 아직까지 규제되고 있다.

모로코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 16개의 상업은행, 보험회사, 주식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9년 설립된 모로코 중앙은행인 BANK AL-MAGHRIB는 발권은행으로 외환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시중은행을 통제하고, 정부의 재정 정책을 자문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기초를 인플레이 억제, 모로코 디램화 가치유지에 두고 있다.

소득층이 양극화되어 저축률이 낮은 편이고 부유층은 아직도 부동산 투자에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 모로코 거주교민의 송금은 2010년도에 68억 달러에 달해 저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사블랑카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08년부터 나타난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모로코는 비록 눈에 띄는 GDP성장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주변국들보다는 나은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모로코의 외부 금융사정은 꽤 괜찮은 상태이며 중앙정부의 2010년 빚은 GDP의 50%수준으로 여러 OECD국가들보다 낮은 편이다. 이는 2012년 IMF로부터의 62억의 예방대출 제도의 영향도 있었다.

중앙은행은 금리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관대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자금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중앙은행은 2012년 9월 예금 준비율을 6%에서 4%로 낮추었고 2012년 한해 동안 금리 정책을 3%로 유지했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1%에서 2%사이로 유지했다.

2011년 중앙은행이 발표한 신용기관의 활동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0년 328억 디람에서 2011년에는 9% 증가한 359억 디람의 수입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2010년 97억의 순이익에서 4% 증가한 101억의 순이익을 낸 것이고 이 순수익의 75.8%는 이자소득에 의한 것이었다.

OECD기준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모로코 은행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각 도시에 각 은행들의 지사와 ATM이 분포해 있고 지방도 조금은 뒤쳐지지만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저소득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모바일 ATM의 사용은 향후 몇 년 간 은행 확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은행제도

시중 은행은 대부분 유럽계 은행들이 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며, 최대 민간 은행은 ATTI JARIWABA BANK로 2004년 BCM (Banque Commerciale du Maroc)과 WABA BANK의 합병으로 출범했다. 또한, 은행 지분의 29.6%는 모로코 왕가 그룹 ONA가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으로는 Banco Central Hispano, Credito Italiano, Credit Commercial de France 등이 있다.

모로코 중앙은행, 상업은행 15개, 정부 소유의 특수은행 6개, 신용조합 15개, 보험회사, 연금 기금 및 주식 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신용 및 자금 공급을 직접 통제하여 왔으나, 1991년 금융 자율화 조치 이후 신용 공급이 자율화 되었으며, 중앙은행에서 이자율 조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조정 및 개입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Bank Al-Maghrib은 모로코 재무부와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재정 정책 수립, 지폐 발행, 정부 외환 감독 관리, 정부 재정관리, 상업은행 및 특수은행 감독 등 업무와 일반 상업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는 이슬람 문화권의 금융 허브로 발돋움 하기 위해 2012년 5월 이슬람 은행 도입을 위한 법안 제정을 발표했다. 모로코는 이슬람은행 도입을 통해 기존 은행의 경쟁을 부추겨 금융 경쟁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로 인해 2013년 후반 첫 이슬람 은행 지점이 설립될 예정이다.

□ 모로코의 주요 시중 은행

- BMCE
- BMCI
- Banque Centrale Populaire
- Societe Generale
- Credit du Maroc
- Attijariwafa Bank

- CAM (Credit Agricole du Maroc)
- CIH (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 모로코의 주요 외국 은행

- Citibank Maghreb
- Arab Bank

다. 특수 신용 기관

중앙은행과 제휴한 국가 경제개발은행(BNDE), 예치 관리 금고(Caisse de Depot et de Gestion: CDG), 부동산 호텔 은행(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CIH), 모로코 시장금고 (Caisse Marocaine des Marches), 국가농업신용금고(Credit Agricole), 국가 투자회사 (Societe Nationale d'Investissement: SNI) 6개의 특수신용기관이 있다.

□ 6개의 특수 신용기관

- 중앙 은행과 제휴한 국가 경제 개발 은행(BNDE)
- 예치 관리 금고(Caisse de Depot et de Gestion: CDG)
- 부동산 호텔 은행(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CIH)
- 모로코 시장 금고(Caisse Marocaine des Marches)
- 국가 농업 신용 금고(Credit Agricole)
- 국가 투자 회사 (Societe Nationale d'Investissement: SNI)

라. 보험

모로코 보험 시장은 2002년 7월 이래 개방화 과정이 진행되었고 민간 그룹과 다국적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국내외 보험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대의 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으로 최근 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자동차 보험으로 전체 보험 매출액의 약 34%을 차지하고 있다. 모로코 보험 시장은 국제 협약에 의해 2002년도에 공식적으로 개방화되었으나, 자동차 보험은 준비기간을 주장하며 개방이 연기되었고 결국 2006 년도에 보험 시장이 완전 개방화 되었다. 보험 관련 공단 및 주요 회사로는 국가 사회 보험 공단 CNSS, 연금 보험 공단 CIMR, 보험 회사 RMA watanya, Wafa assurance, AXA assurance maroc, SCR, RCAR, CNIA Assurance, Sanad, Es Saada Assurance, Atlanta Assurance가 있다.

모로코 보험 시장은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평가되며 2012년 12월말 기준 시장규모는 260억 디람 규모로, PIB(GDP)대비 3%대로 추정된다. 가장 큰 부분은 생명보험(88.4억디람 규모)으로 전체 보험 매출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2011년 대비 2012년 6.5%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보험 매출액의 약 30.8%을 차지했다. 규모로 따지면 약 80.2억 디람 규모이다. IMF에 따르면 보험산업의 성장은 6년 연속으로 전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며, 보험사 수도 2000년도 이후로 거의 두 배가 됐음을 지적했다. 보험 협회(FMSAR)는 과도기에 있는 보험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2006 년도에는 보험 시장이 완전 개방화 되었다.

□ 주요 보험 회사

- 국가 사회 보험 공단 CNSS
- 연금 보험 공단 CIMR
- RMA watanya, Wafa assurance, AXA assurance maroc, SCR, RCAR, CNIA Assurance, Sanad, Es Saada Assurance, Atlanta Assurance

모로코에는 위 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로코 보험협회(Fédération Marocaine des Sociétés d'Assurances et de Réassurance ; FMSAR)이 있으며 모로코 보험시장의 발전과 회원사간 정보 공유 등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위 협회의 회원사는 18개이며 회원사는 다음과 같다.

상호(회사명)	분야
ATLANTA	일반보험
AXA ASSURANCE MAROC	일반보험
CNIA SAADA ASSURANCE	일반보험
RMA WATANYA	일반보험
SANAD	일반보험
Wafa ASSURANCE	일반보험
ZURICH ASSURANCE	일반보험
LA MAROCAINE VIE	생명보험
COMPAGNIE D'ASSURANCE TRANSPORT « CAT »	자동차,교통보험
MUTUELLE AGRICOLE MAROCAINE D'ASSURANCE « MAMDA »	상호보험
MUTUELLE CENTRALE MAROCAINE D'ASSURANCE « MCMA »	상호보험
MUTUELLE D'ASSURANCE DES TRANSPORTEURS UNIS « LA MATU »	상호보험
SOCIETE CENTRALE DE REASSURANCE « SCR »	재보험
AXA ASSISTANCE MAROC	어시스턴스 보험
IMA MAROC ASSISTANCE	어시스턴스 보험
ISAAF MONDIALE ASSISTANCE	어시스턴스 보험
MAROC ASSISTANCE INTERNATIONALE	어시스턴스 보험
EULER HERMES ACMAR	신용보험

자료: 모로코 보험협회

지난 4년 중에 3년 동안 보험시장 성장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16개의 보험회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했고, 변화속도가 다소 느린 것에 비해 수익 창출에 있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IMF에 따르면 보험 산업의 확장은 6년 연속으로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보다 앞지르고 있지만, 보험사의 수가 2000년도 이후로 거의 두 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둔화된 성장 속도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중앙 재보험 회사(SCR)는 법적 의무로서 재보험에 대한 모든 보험료의 10%를 할당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긴 후로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면서 재보험시장이 2006년 이후로 매출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한 안정성 여부가 확실해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재보험자에게도 모든 권한을 허용한 이후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 증권 시장

증권시장은 1993년 관련법 개정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카사블랑카 증권거래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 중의 하나이며,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모로코 증권시장은 현재 77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총 120억 달러의 상장액을 보유하고 있다. 7개 은행이 총 자본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5개의 증권사가 1/5을 차지하고 있다.

모로코의 주식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미발달로 인해 투자 자금이 모이는 곳이 제한 되어 있고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50여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부동산 개발 주가와 에너지, 지하자원 개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카사블랑카 증시의 10대 상장사

상호(회사명)	분야
AFRIQUIA GAS	그룹
ONA (Omnium Nord Africain)	그룹
CGI (Compagnie General Immobiliere)	부동산
ADDOHA	부동산
Ittissalat Al-Maghreb	통신
HOLCIM (MAROC)	그룹
CIH (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은행
SONACID	그룹
SNI	그룹
ALLIANCES	그룹

주: 2012년 12월 기준

16.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개요

모로코의 외환시장은 경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1993년부터 자유화되었으나 자본거래는 아직까지 규제되고 있다. 디람 태환 자유화는 지난 1997년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BIS비율 8%가 도입되었고, 단일차주에 대한 대출제한 비율이 자본금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모로코 통화인 디람화는 지난 몇 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1달러= 약 8.20DH (2013년 12월 기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외환 거래에 아직도 제약이 있지만 수출입, 국제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 기술 지원, 관광과 관련한 대금결제는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외환관리법에 의거, 모든 외국인은 현지 거주 여부에 따라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개설할 수 있는 계좌는 자국 통화인 디람화 표시 보통계좌(Foreign accounts in convertible Dirhams)와 달러화 표시 보통계좌이며 달러 계좌에서 디람화 계좌로의 환전은 가능하나 디람화 계좌에서 달러화 계좌로의 예치, 달러화 인출은 불가능하다.

최근 들어 현금거래와 외국인 투자 자금을 대해서는 디람화가 점진적으로 태환되고 있다. 환율은 유럽연합(EU) 유로화에 50% 이상의 비중을 둔 통화바스켓 제도에 따라 중앙은행인 Bank Al-Maghrib에서 매일 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한편 2012년 열린 특별감사에서 국영기업과 외환 증권을 비롯한 금융감독기관의 뇌물수수, 독직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개혁정당으로부터 개혁의 압력을 받게 됐다. 2006년 7월~2007년 1월의 기간 중 내부자 거래로 30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5명의 금융인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는 등 증권감독원의 직무 유기를 비롯한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

외환관리국은 모로코 디르함 통화의 환전이 어려운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들어온 비공식 외화의 환전을 대행해주는 등 불법 거래에 앞장서 부당이득을 착복했다. 모로코 정부는 현재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이 많은 부분을 관할하고 있고 특히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대부분을 장악한 정의개발당 측은 이번 감사 청문회와 보고서가 종전처럼 형식적인 서류 작성으로 끝나지 않고 당의 목표인 부패 척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은행인 Bank Al-Maghrib 은 모로코 재무부와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재정정책 수립, 지폐발행, 정부 외환감독 관리, 정부재정관리, 상업은행 및 특수은행 감독 등 업무와 일반 상업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Bank Al-Maghrib은 분기별로 재무부와 같이 모로코 외환시장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나. 외환 관련 제약

현행 주요 외환규제는 모로코 거주자에 의한 자금이동에 관한 것으로 사회, 의료 또는 직업 비용을 커버하는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외환관리 제도하에서 경제주체들은 수출입, 국제 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 기술지원, 관광과 관련한 청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수출업자는 15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모로코 내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정부 산하기관인 외환청(Office des Changes)에서 제반 외환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상거래를 위한 외환 거래를 자유화했으나, 내국인의 외환거래는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연간 한도 액 2,000달러(약 20,000디람)까지만 환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T/T 사전송금에 의한 수입 결제는 모로코 외환청(L'OFFICE DES CHANGE)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즉, 수입 상품이 모로코 영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T/T 사전송금은 최대 2,000달러로 한정되어 샘플 수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어 상품 수입 시 실효가 없으나 생산설비용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의 40%까지 T/T 사전송금이 가능하다. 수입상품 세관 통관 후 즉, 수입 상품 통관이 완료되면 T/T로 100% 송금이 가능하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1 US\$ = 8.20DH / 2013년 12월 기준)

구분	항목	가격(DH)
식품류	쌀 1kg	10
	계란 12개	19
	쇠고기 등심 1kg	83
	생닭1kg	28
	우유 1L	9
	식용유 1L	18
	생수 1L	5.1
	맥주 (하이네켄 330ml)	18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32
	햄버거 (버거킹 와퍼 세트)	54
	김치찌개 1인분	12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3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26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170000
	무연휘발유 1L	11
	자동차 등록비	3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5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3.5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
	시내버스 기본요금	4
	택시 기본요금	7.5
	트램	6
	기차 (라바트-카사블랑카 구간) 2등석	35
	기차 (카사블랑카 Mohammed V 공항 - 카사블랑카 시내) 2등석	40
기차 (카사블랑카 Mohammed V 공항 - 카사블랑카 시내) 1등석	7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유선-> 유선	3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유선-> 유선	12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같은 통신사일 경우	2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1M	199
	3G USB모뎀 1달 기준	199
	휴대전화 3G 유심 (Maroc 텔레콤 1달 데이터 무제한, 유심가격 포함)	2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0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5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45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50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80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35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7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7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3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4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최대44시간
	출산휴가일수	14 주
	연간 국경일수	15
	주5일 근무 여부	주 5일 근무
기타	드라이크리닝 (와이셔츠)	28
	드라이크리닝 (이불)	180
	두루마리휴지(12개)	29
	헤어스프레이	57
	고무장갑	11
	청소부 아주머니	120~150
	샴푸	35
	주방세제	13
	전구	26
	바디샴푸	26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한국인들의 취업유망분야

모로코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의료 관련 직종과 대체 에너지 등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기술에 관련한 분야가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분야와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분야에 취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로코의 자동차 보급률과 그 연식을 보아 자동차 수리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자동차가 모로코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해외취업 유망직종 및 사유

1) 의료직 및 헬스케어

의료부문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는 비영리 두뇌집단인 프로비던트 재단은 2020년이 되면 20만명의 의사와 80만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 원인은 현재 사회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기대수명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로였던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질병들도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완치가 가능해지고 의료기술이 점점 정교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카사블랑카에서 메디컬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는 그만큼 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기업가치 평가 전문가 및 회계 실무자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기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산업에 직접 뛰어들기 보다는 M&A를 통한 기업 확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세계 M&A의 중심에 있는 국가로 인수대상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회계, 감사 기준의 강화와 감량 경영이 절실한 경기 침체기에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투자전문가 및 투자상담사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역시 증권투자에 관한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금융관련 활동을 하는 인력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자산 관리자 및 투자 상담사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직종은 자영업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직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분석, 컴퓨터, 의사소통, 리더십,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등의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자동차 및 항공 엔지니어

자동차와 비행기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오늘날 자동차 업계의 경우 세계 자동차시장의 급변으로 인하여 자동차 메이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로 인해 자동차 기술 발전과 이를 실천할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모로코는 자동차 보급률이 높는데 비해 연식이 오래되어 자동차의 수리 및 관리가 필수인바 정비사, 수리기사의 수요가 높은편이며 현대자동차가 모로코에서 호조를 보이며 한국 자동차 기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게 평가되고 있다. 2013년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카사블랑카에 자동차 관련 전문가 단원 1명이 거주하고 있다.

항공 산업의 경우 우주를 정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우주 시대의 개막이 멀지 않았고,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우주 진출 경쟁이 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카사블랑카에서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국제비즈니스 컨벤션이 개최되어 모로코 항공 시장의 성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항공 산업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브랜드 매니저(프로덕트 매니저)

최근 들어서 '책임감'이 강조되면서, 상품개발관리자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상품개발관리자는 기능 중심의 기능 단위 조직에서, 의사 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그리고 신속성이 강조되는 토탈 마케팅 조직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브랜드 매니저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으로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맡는 동시에 개발 및 생산과 판매를 조율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6) IT전문가

모로코는 인터넷 관련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2009년 모로코 ICT 교육 개혁사업(GENIE) 원조 프로젝트를 명지전문대학 비트컴퓨터가 수주한바 있으며 2011년 한국 벤처기업협회는 모로코 국립 라바트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어 한국 유학 중인 모로코 학생들의 국내 벤처기업 취업 및 현지 진출 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등 인재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등 ICT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인들이 취업하기에 유망한 분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산업은 과거와 달리 3차 산업에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산업과 융복합화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소비패턴이 IT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이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특히 신생회사의 경우 이들의 중요성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세계의 IT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살펴보면, 50% 이상 인도인들로 채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IT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며 모로코의 IT계열에 관한 관심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KT 등의 한국 기업도 모로코 진출을 모색했을 정도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 온 한국 IT 전문 인력들의 세계 시장 진입 기회가 다른 직종에 비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7) 홈페이지 개발자 및 스마트폰 앱 개발자

E-commerce의 발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영업(레스토랑, 미용실)부터 기업체들의 홈페이지 운영이 필수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Hmizate, Mydeal 등 소셜커머스쇼핑몰이 성황을 이루며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 전역의 3G망 보급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곧 4G LTE서비스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발전기 기대된다.

8) 그린칼라

그린칼라는 에너지 절약 전문가나 대체 에너지 전문가, 환경 컨설턴트, 친환경 건축 설계사, 환경전문 변호사, 연료 절약형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 유기농 제품 생산업자, 생태학 교육자 등 친환경 산업에 종사하는 직업군이다. 모로코에서는 갈수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에너지 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9) 국부 펀드매니저

국가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설립한 펀드를 국부 펀드라고 한다. 이런 국부 펀드는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운용된다. 유럽과 미국금융 기관들이 어려워지면서 국부 펀드의 아랍권 국가에서 어려워 지는 상황이 매년 배가 될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국부 펀드들의 역할이 보다 활발해지는 모습이 아랍권 국가에서 나타날 것이다. UAE에서 이런 직업이 유망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려는 아랍권의 원유 달러 들이 이런 투자에 동원될 것이라서 그렇다.

10) 투자자 홍보 전문가

중동의 국가들에서 나타날 현상중의 하나는 유럽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로 취약화되면서 국제 투자자금의 아랍권 투자를 유치하려는 투자자 홍보직(Investment Relations)의 역할이 강화 될 것이다. 외국어를 잘하고 아랍권의 투자 행태를 분석하는 역량을 갖춘 그런 인재들이라면 이런 직업에서 기회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11) 댄스 교습가 및 요가 지도자

보수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이슬람권 국가인 모로코에도 지역 곳곳에 댄스교습소 등이 위치하여 주부 및 여학생들의 참여도가 높다. 남학생들의 비보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 2013년 5월 한-모 교류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국 비보잉팀과 합동 공연을 벌이기도 하였고 관객들의 호응도 역시 높았다. K-pop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방송댄스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의 관심이 젊은층부터 시작되어 다이어트 춤 혹은 요가관련한 지도자도 취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모로코 현지 외국인 고용

모로코 내에서 외국인이 유급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경찰서(외사계)에 거주허가신청서(양식 경찰서 비치), 유효한 여권과 은행발행 및 은행구좌 개설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취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개인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취업 및 개인사업 이외의 경우는 거주허가 신청 사유서 및 기타 생활능력 증빙 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 노동당국은 자국 내에서 채용이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업허가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비즈니스에티켓

가. 역사/문화적 특이사항 및 금기사항

1) 종교(이슬람)와 생활(서구식) 혼용

모로코는 ‘다리(지역)는 아프리카에, 가슴(믿음)은 중동에, 머리(생활)은 유럽에’ 라는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중동-아프리카-유럽의 문화역사적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일방으로 정의하기 힘든 복합적인 양태를 보인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 신도이면서 음주 등 서구식 생활방식에 관대한 동시에 내륙농촌지역은 원주민인 베르베르 족의 유목생활 양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외부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고유의 종교(이슬람)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2) 국왕의 절대적 권위

모로코는 삼권이 분리된 입헌군주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국왕을 정점으로 한 왕실의 국가지배력은 절대적이다. 군통수권자인 국왕은 내각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을 보유하며, 국왕의 연설은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는 물론 금융기관, 기업, 자영업체 등 모든 장소에는 국왕 등 왕실인사의 사진이 걸려 있으며, 언론은 국왕의 동정을 매일 톱뉴스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국왕과 왕실에 대한 비난, 모욕, 야유 등의 행위는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금기시된다. 왕실은 국가경제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통신, 유통, 광산 등 주요 분야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3) 알제리에 대한 이중적 태도

모로코와 알제리는 인종, 종교, 역사, 문화 등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이웃으로서, 양국 국민간에는 형제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서부사하라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으며 양국 간 국경은 폐쇄되어 있다. 특히 양국 정부 간에는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기 때문에 정부 발주 사업의 입찰 시 알제리 측 우호 기업을 보이지 않게 차별하는 관행이 발생하기도 한다. 양국 간의 긴장관계는 모로코와 우호적인 프랑스, 알제리와 결속적인 스페인 등 국가군 간 경쟁의 양상으로 발전되는 상태이다.

4) 법률, 언어, 입찰 등 프랑스 영향

모로코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이지만, 경제, 법률 언어는 아직도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비즈니스 종사자들은 대부분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사업방식도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한편, 영어도 조금씩 확산되는 추세이기는 아직까지 비즈니스에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입찰, 분쟁해결, 금융조달 등 상관행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한 시장 및 사업 조사가 유용한 실정이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1) 약속

방문 등 면담을 위해서는 사전 약속이 필요하며 가능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약속 날짜 1~2일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급한 사정이 생길 경우 사전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요일 오후는 기도시간이므로 가급적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약속 시간에 맞춰 방문대상 회사에 도착하는 것이 좋은 첫 인상을 준다. 한편 모로코 사람들은 약속시간을 중복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2) 식사

모로코인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을 경우 부인 또는 딸과 동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외모를 언급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남녀관계에 대해 보수적이어서 자칫 비정상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모로코에서 와인, 맥주 등 주류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상당수 현지인들이 외국인의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식사 시에는 가급적 주류를 피하고 주스나 탄산음료를 주문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이다. 이슬람 국가이므로 돼지고기는 금기시 되고 있다. 가정으로 초대받을 경우에는 장시간에 걸쳐 부담스러운 정도로 많은 양의 식사를 대접받게 되므로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3) 선물

모로코인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며, 오랫동안 기억하며 좋은 인상을 간직하는 성향을 보인다. 초면에는 한국적인 전통공예품, 인삼제품을 비롯하여 전자앨범, 저장매체 등 한국의 우수한 IT제품 등이 적당하다. 현재 사업관계에 있는 현지기업인에게는 방문 전에 직접 원하는 품목을 물어보는 것도 무방하다. 대규모 사업의 입찰 시 로비 등의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4) 인사

초면에 인사로는 악수가 일반적이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볼을 맞대는 인사도 널리 행해진다. 그러나 여성과 인사할 때는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면에는 성(姓)을 호칭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름을 처음부터 부르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대화 처음부터 본론(사업)으로 접어드는 것은 좋지 않다. 먼저 건강, 가족 등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대화를 시작하여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부인 등 여성 가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언사는 금하도록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의 의견에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로코 사람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공연한 비난은 비즈니스 관계를 크게 훼손한다. 반대의견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적절한 중개인을 활용하여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극히 한정된 몇 마디의 아랍어라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며, '쌀람 알라이쿰'(안녕하세요)에 대한 답변은 '알라이쿰 앓쌀람'(당신께서도 안녕하십니까?)이다. 그외 '함두릴라'(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잘 되고 있다.), '슈크란'(감사합니다) 등이 있다.

5) 복장

비즈니스 복장은 짙은 색의 양복정장이 무난하다. 고위 관료나 대기업 임원 등은 복장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좋다. 여성도 비즈니스 정장이 바람직하며, 신체노출이 심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다. 방문 시기

모로코를 방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로는 라마단 기간, 여름휴가 기간, 희생절, 연말연시 등으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1개월간 계속되는 라마단 기간 중에는 대다수 회사들이 단축근무를 하며 중요한 구매결정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강하므로 가능하면 이 기간을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이슬람 국가가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과는 다르게 모로코는 서구 관습을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이다.

모로코와 모나코는 다른 나라

모로코를 처음 방문하는 한국기업인들이 종종 모로코와 모나코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에너지사업 발주처를 방문한 K사 팀장은 초면의 긴장과 어색함을 풀기 위해 모로코에 대한 첫인상을 이야기 하던 중, 모로코는 한국에서 '그레이스 켈리' 왕비로 유명한 나라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모로코 발주처 인사는 왕비는 잘 지내고 있으며, 더하여 모로코 왕실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사실, 그레이스 켈리는 남부유럽 모나코 왕비였는데, K사 팀장이 모로코와 혼동한 것이다. 모로코 발주처 인사는 실수를 알면서도 바로 지적하기 보다는 다른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분위기를 맞췄던 것이다. 이처럼 모로코 기업인들은 상대방과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심이 강하며, 동시에 상대방도 자신을 존중할 것을 기대하는 성향이 많다.

4. 이주정착가이드

가. 집 구하기

1) 주거 형태

모로코의 주거 형태는 빌라가 주류인 단독 주택과 아파트로 구분되고 있다. 카사블랑카의 비즈니스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라바트에 거주하는 각국 공무원 등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단독빌라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차 시 가구는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가구뿐 아니라 전등까지 준비해서 입주해야 한다. 간혹 Furnished 아파트가 있으나 시설에 비해 고가이며, 장기체류자가 수개월 동안 호텔에 투숙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호텔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주로 임차하는 빌라형 단독주택의 경우, 통상 규모가 대지 150~500평, 건평 80~150평 정도로 대체적으로 큰 편이며 2층 구조가 주류를 이룬다. 월 임차료는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월 2,000~3,000달러 정도이다. 현지 치안사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좀도둑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므로 필히 경비견 사육 및 경 비원(월 급여 약 200달러)을 고용해야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정원사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시내지역에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 또는 거주형 아파트, 시내 주거 전용 지역 또는 시외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분된다.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규모는 통상 40평(침실 2, 응접실, 식당, 부엌, 욕실 1)에서 60평(침실 4, 응접실 2, 식당, 부엌, 욕실 2)형이 보통이다. 임차료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통상 월 300~500달러(가구 없음), 800~2,000달러(가구 일체) 정도이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자체 경비원이 있어 치안은 큰 부담이 없다.

2) 임차 관행

정부 공인 표준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다. 표준 계약서 내용 외에 양자 합의에 의해 추가할 경우 동 내용을 필히 확인한 다음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부동산 등 소개소에 의뢰해 주택계약을 하는 경우 입주자가 1개월 분 임차료에 해당하는 중개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주택 1개월 임차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예탁하고, 임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관례이나 임대인이 임차 계약 종료 후 각종 이유를 핑계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루는 사례가 있으므로 임차계약 종료 시 최종 월분 임차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주택임차는 일정기간(2~3년)을 정해 놓고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임차료를 내는 월세 형식이 보통이며, 주택 임대차법은 한 번 입주하면 소유주가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 퇴거하기 어렵도록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는 현지 자국민에게 주택을 임대한 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법으로도 호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외국인에게 주택 임대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주택 임차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3) 행정 절차

주택 임차 계약을 하면 각 지역마다 산재한 코뮌(Commune)에 가서 법적 효력을 위한 공증 (Legalisation)을 마친 후 임차주와 입주자가 1부씩 보관하며, 동 서류는 전화신청 등에 필 수 서류로 첨부된다.

나. 운전면허 취득

모로코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국제 운전면허증(유효기간1년)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무면허로 처리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반드시 관할 모로코 운전면허 담당사무실(Service des Mines)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모로코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모로코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약이 맺어져, 한국 면허증 소지자는 주 모로코 대사관의 공증을 얻어 모로코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 변경 신청서(Formule III) - 관할 경찰서 발행 거주 확인서(Certificat de Residence) 및 수입인지(Timbre)첨부
2. 출생증명서(Certificat de Naissance) 1부 - 3개월 내 대사관 발행
3. 증명사진 4매
4. 체류증(Carte de Sejour) 사본 1부
5. 한국 운전면허증 (Permis de Conduire Coreen)원본
6. 한국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서 (Certificat d'Authenticite) - 대사관 발행
7. 신체적성검사(Certificat Medical) 1부 - 지정 병원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가된 자동차 운전학교(Auto ecole)에 등록하여 이론(교통법규)과 운전 실기(주행연습)를 수강해야 한다.

교습비는 월 1,500 디람에서 2,000 디람이 소요된다. 운전면허 시험 신청 서류는 소정 신청서와 거주증 또는 신분증(시험 시행기관 소재지 거주 주민이어야 함), 사진 3매, 출생 증명서와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건강증명서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시험은 구두 시험(교통법규) 및 실기 시험으로 나누어 시행되는데 구두시험은 불어로 실시하며, 필요 시 통역을 대동할 수 있다. 구두시험을 합격한 후 시내 주행 시험을 치른다. 구두시험 및 주행 시험 종료 즉시 시험결과를 알 수 있으며, 합격 시 시험일 일주일 후 유효기간 1 개월의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받은 후 혈액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유효기간 1 년의 정식 운전 면허를 발급해 준다. 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2주일 내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최초 면허 발급 일로부터 1 년간 무사고 일 경우 면허증 상에 유효기간 무기한 (Permanent)의 Stamp를 날인해 준다.

다. 구좌개설

외환구좌는 여권으로 간편히 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현지 디람화 인출만이 가능하며 디람 화 입금은 외환법상 불가능하다. (외환 입금, 인출은 가능) 현지 구좌는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들로 개설할 수 있다.

구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현지 디람화만 거래가 가능한 보통 구좌(Compte ordinaire)를 개설하는 방법과 외화 및 현지 디람화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외화 환전 구좌(Compte convertible en dirhams)를 개설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보통 구좌 개설 시 최소한 1,000 디람의 현지화를 예치해야 하며 체류증(Carte de sejour) 및 여권사본이 필요하다.

라. 전화 신청

전화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현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체류증(Carte de sejour)사본 및 거주 증명서(주택임차 계약서사본)와 전신 전화국(Itissalat Al Maghrib) 소정 신청양식, 신청금이 필요하다.

최근 전화 신청 후 가설 기간이 모로코 전화국(Maroc Telecom)의 민영화 추진 등 서비스 개선으로 최소 1~2주 정도로 과거에 비해 대폭 단축됐다. 단기 체류자일 경우 간단히 휴대폰 선불 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저가 휴대폰은 250~300 디람 정도이며 유심칩이 포함된 가격이다. 처음 휴대폰을 구입하면 유심칩에 20디람의 통화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후 추가적으로 선불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데, 10디람부터 500디람까지 단위가 다양하고 충전카드 번호를 문자전송하는 것으로 충전이 이루어진다.

또한 국내/외 전화요금은 신호음부터 적용이 되며, 한국전화시 분당 약 1,500원 정도 부과된다.

마. 인터넷 신청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FIXE, 3G 모뎀 등이 있으며 3G 모뎀인터넷은 Maroc Telecom, Inwi, Meditel 3개 통신사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다. 3G 인터넷 모뎀은 USB 형태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연결하여 3G 신호를 받아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계이다. 가격은 한달에 200디람 정도이며, 각 통신사마다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시기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Inwi의 3G 모뎀은 1달에 200디람이지만 3개월에 300디람, 6개월에 500디람으로 사용할 수 있다. 3G 모뎀의 속도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Inwi의 커버리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3G 모뎀인터넷은 3사 모두 기본적으로는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루에 400MB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트래픽 제한이 걸려 10~20Kbps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FIXE 인터넷은 트래픽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Mbps 상품부터 기업용 10Mbps 상품까지 다양하지만 실제 속도는 그에 못미치는 편이다. FIXE의 신청을 위해서는 체류증(Carte de Sejour)이 필요하며 직접 통신 3사의 대리점에서 모뎀을 받아와 집에 설치하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설치 중 문제가 생길시에 서비스 기사로 요청 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빠른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바. 비품 구입

모로코는 일부 제품을 제외한 공산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관세가 높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싼 편이어서 이삿짐에 휴대하는 것이 좋다.

1) 전기 및 전자 제품

현지 TV 및 Video는 SECAM-PAL 방식이며 대부분 가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 CNN,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외국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므로 TV, Video는 Multi System 구입이 필요하다. 현지 전기규격은 220 V, 50 Hz로 한국에서 구입한 전자제품의 경우 TV, Video는 Multi System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컴퓨터, 오디오 제품 등은 사용 가능하다.

기타 전기 다리미, 선풍기, 전열기, 전기 밥솥, 에어컨, 냉장고, 전자 모기향, 전기장판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로코는 겨울에 실내온도가 낮으므로 전기장판(220V용)을 가져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가구, 비품 및 장식품

현지 주택은 대개 Unfurnished로 가구 비품 등은 현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품질에 비해 고가인 편이다. 소파 등 가축제품의 경우 적당한 제품도 구입 가능하나 품질이 수입품에 비해 떨어진다.

대부분의 주택(단독주택 또는 아파트)은 국내주택보다 규모가 대체로 큰 편 (약 50~80평)이며, Unfurnished이므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한국 가구, 그림, 기타 장식품 등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 좋다.

3) 자동차

유럽 등 타 국가에 비하여 차량 가격이 고가인 편으로 국내 시판 자동차 가격의 2배에 달하므로 한국에서 차량을 이삿짐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 차량 구입은 자동차 대리점이나 신문 등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개인에게 구입이 가능하나 가격이 고가이므로 신 차 구입이 경제적이다.

4) 기타 필요 물품

북부 아프리카에 속해 있으나 4계절이 구분되며, 겨울철(11~3월)은 난방이 필수적이거나, 난방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기장판, 난로, 침구(약간 두터운 것, 오리털 이불 등) 등이 필요하며 서울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실내외 및 주야간 온도 차가 심하여 여름철에도 이불(한국의 초봄, 늦가을 이불)이 필요하다.

바. 종교 활동

한인교회로는 2013년 기준 라바트에 목사 1명(곽상권 목사)이 현지 아메리칸 교회를 이용해 한국어 예배를 보고 있고 각 도시에 영국 및 프랑스 등의 교회가 운영 중에 있어 영어 및 불어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라바트의 한인교회에서는 현지 교민들을 위한 문화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봉사단원 및 선교원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말 카사블랑카에도 한인교회(오동현 목사)가 생겼으며 아직 인원은 많지 않으나 주로 젊은 층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편 천주교인들은 라바트 시내 현지 가톨릭 성당에 나가고 있으며 불교인을 위한 사찰이나 모임은 없다.

모로코는 이슬람교가 국교이며, 국왕이 종교수반을 겸하고 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모로코인에 대한 타 종교 포교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모로코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정통 이슬람권과는 달리 상당히 개방적인 분위기를 보여 금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부분의 이슬람권과는 달리 유럽의 영향으로 일요일이 공휴일이며, 라마단 등 종교 축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음주가 가능하다. 단, 이슬람력에 따른 종교행사인 금요일 오후 예배, 라마단(금식기간)등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사. 치안상태

모로코는 치안이 안전한 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등의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단독 여행자의 경우 개인 신변안전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 및 빈민촌 주변지역을 배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모로코는 정체가 왕국(Kingdom)인 절대 왕정체제로 카사블랑카나 라바트 등 주요 도시에는 교통경찰이 곳곳에 있으며 야간에는 순찰대(Surete Nationale)가 주요지역에 순찰을 돌고 있어 사회질서가 비교적 잘 잡혀 안정되어 있는 편이므로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생활하기에는 치안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5월16일 40명의 사망자를 낸 폭탄 테러 이후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졌으며 최근 들어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절대빈곤층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고 청소년층 인구의 실업률이 높아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 출장 시 심야에 한적한 거리를 보행하거나 혼자 초행지를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 사회보장제도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CNSS에 가입할 경우 현지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대사관을 제외한 현지진출 모든 사기업은 사회 보장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외국 대사관도 모로코 법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CNSS에 가입하는 추세이다.

5. 생활여건

가. 교육여건

모로코 정부는 정부 총 예산의 26.3%를 교육에 투입하며 지역간 격차 축소 및 교육 기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63년부터 7세부터 13세 남녀 아동에 대한 기초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 6월 교육체제 개편을 통하여 기초교육기관을 9년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교육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와 비슷하다. 초등학교(Ecole Primaire) 6년, 중학교(College) 3년, 고등학교(Lyce) 3년, 대학교 (Universite, Ecole Special 혹은 Ecole Superieur) 4년, 대학원 및 박사과정 (Doctorat) 으로 되어있다.

각 교육과정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있다(유아원은 거의 전부 사립임). 공립학교는 초등부터 대학원 및 박사과정까지 무료이나, 사립은 주재국 생활수준에 비하여 학비가 높은 편이다. 각 과정별 졸업은 비교적 엄격한 심사에 의해 결정되며 명문학교일수록 졸업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유아교육 기관으로는 2살 때부터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의 놀이방이나 탁아소 같은 유아원(Ecole Maternelle)과 초등학교 전 단계인 유치원의 2종류로 구분된다.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은 7살까지 이며 입학 후 6년 과정을 9년 내에 마쳐야 한다. 수학기간을 9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취학 및 면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입학 학생 중 졸업율은 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평균 60%~90% 사이이다.

중학교에 진급 후 3년 과정을 수학하면 고등학교 진학시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할 전공분야는 크게 문학, 과학, 기술 및 예술 등으로 구분되며 중학생의 졸업비율은 40%~80% 정도로 학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선택하여 입학하며 고등학교부터는 대 분류된 각 전공분야에 따라 적합한 수업을 받게 된다. 3년의 과정을 마친 후 대학 입학시험이라 볼 수 있는 바카로레아(Baccalaureat)를 치르게 되며 이 시험의 결과는 대학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카로레아의 합격증은 자격증 구실을 하여 일반기업에서의 채용 기준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대학교육기관의 등장으로 대학 졸업증명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1) 아메리칸 스쿨

현지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다수는 비즈니스 중심지인 카사블랑카와 왕궁과 각국 대사관이 위치한 수도 라바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을 자녀 교육기관은 아메리칸스쿨이 대표적으로 라바트에는 Rabat American School(RAS), 카사블랑카에는 Casablanca American School(CAS)이 유치원, 초, 중, 고등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입학 절차는 매년 3월과 9월에 시작되는 신학기 전에 등록 책임자와 사전 면담약속을 한 후 부모가 학생과 함께 직접 학교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간혹 취학 학년이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학교에서 간단한 시험(Replacement Test)을 치른 후 학년과 반을 선정해 준다. 필요 서류로는 영문으로 작성·확인한 재학 증명서, 성적증명서, 예방접종 기록카드 등 건강 기록, 여권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학비는 학년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매년 납부하는 입학/전형료(Application / Examination fee) 90달러, 등록비(Registration fee) 90달러, Building fee 600달러, 연간 수업료(Tuition) 10,000~12,000달러, 사친회비(PTA) 25달러 등으로 연간 기준 학비는 10,000달러 수준이다. 이외에 최초 입학 시 1회 납부하는 Admission fee(1회) 1,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취학 자녀의 등하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School Bus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나 고가이며 그나마 카사블랑카 아메리칸 스쿨은 통학버스가 운행이 안되어 학부모가 직접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취학자녀가 모로코 최 부유층으로 보통 수대의 차량을 보유해 개인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다.

라바트의 RAS는 학칙 및 규율이 엄하고 교육방향이 보수적이어서 교내에서는 워크맨 사용을 금지하고, 학생 및 전 교직원이 금연이며, 위반 시 정학이나 퇴학을 시킨다. 교육수준도 여타국가의 American School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카사블랑카의 CAS는 RAS의 자매(Association) 학교이나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모로코 부유층 자제들로 학비가 라바트의 RAS보다 비싼 편이다.

이외에 카사블랑카에는 Washington American School과 최근 개교 한 아메리칸 스쿨이 있으며 학비는 CAS보다 저렴하나 학생 수가 적다. 모로코의 양대 아메리칸 스쿨인 카사블랑카(www.cas.ac.ma)와 라바트(www.ras.edu.ac.ma) 아메리칸 스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접할 수 있다.

2) 바이링구얼 스쿨

프랑스계의 Lycee Descartes 등 다수가 있으며 초·중·고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 스페인계 학교도 있다. 불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 불란서계 학교 중 선호도가 높은 Lycee Descartes 또는 다수의 불란서계 학교에 등록이 가능하다.

3) 대학교

모로코의 교육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모로코를 식민통치한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모방, 변형한 것으로 한때 모로코 학생들은 자국의 대학 입학시험 합격증으로 프랑스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또 모로코 부유층의 자녀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의 유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유럽각국에서의 이민억제 정책, 특히 아프리카 학생들의 유학을 억제하는 정책 등으로 모로코 학생들의 해외 대학 유학이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로코 정부가 다양한 대학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수용하게 됐다.

모로코 대학의 학제는 아랍어 및 불어교육 4년, 학비는 무료이다. 대학 교육 중 상당수의 학과가 불어로 강의하며 대부분의 교재도 불어로 되어 있다. 입학 요건은 모로코 정부 초청이나 대학교 측이 입학을 인정한 경우 입학할 수 있다. 입학 구비 서류는 주한 모로코 대사관 추천이나 주 모로코 한국 대사관 추천서를 제출하고, 대학 당국에 입학허가를 신청한다.

주요 대학으로는 라바트에 소재한 Mohamed V University, 카사블랑카에 소재한 Hassan II University, 페스에 있는 Sidi Mohamed Ben Abdellah University가 명문이며 이외 1995년 사우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된 미국식 교육을 하는 Ifrane(라바트에서 100km)에 설치된 Al Akhawayne University가 있다.

입학요건은 여타 미국 대학과 동일하고, 학비는 연간 약 5,000달러 정도이며, 학부, 대학원 및 박사과정 등이 모두 개설되어 있다. 1999년 3차례 모로코를 방문한 미국의 힐러리 여사가 300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지원하는 등 미국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 모로코 정부 운영 특수 대학

- ISCAE(Institute Supérieur de Commerce et Administration des Entreprises)
- 카사블랑카 소재 경영전문대학
- ENAP(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Publique)
- 라바트 소재 행정관료 양성대학
- ENSET(Ecole Nationale Supérieure pour les Enseignants Techniciens)
- 모하메디아 소재 교원 양성대학
- EST(Ecole Supérieure de Technologie)
- 카사블랑카 소재 전문 기술 대학
- EHTP(Ecole Hassania de Travaux Publiques)
- 카사블랑카 소재 공과대학
- ENS(Ecole Normale Supérieure)
- 카사블랑카 소재 교원 양성대학
- ISEM(Institut Supérieur d'Etudes Maritimes)
- 카사블랑카 소재 해양대학

- INSEA(Institut Nationale des Statistiques et de l'Economie Applique)
- 라바트 소재 경제 전문대학
- IST(Institut Supérieur de Tourisme)
- 땅제 소재 관광 전문교육대학

4) 한글학교

수도 Rabat 에서는 주말(토요일)에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Rabat 한글 학교(교장: 심재석)는 현재 교사 7명, 학생 수 30명 규모이며 국어와 국사를 주로 가르치고 있다. Agadir 한글학교(교장: 홍성중)는 교사 3명에 학생 수 15명(초등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현지 생활여건

1) 생필품 조달

식품류, 주방용품 등 일반가정용 생필품은 모로코 내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대형 슈퍼 마켓인 마르잔(Marjane)과 창고식 할인 도매점인 메트로(Metro) 등에서 상시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 대형 슈퍼마켓과 비슷하며, 수입공산품의 경우 가격이 다소 고가이지만 전기 밥통, 전기 장판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구입에 어려움이 없다.

모로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류를 포함한 일부 생필품은 모로코 국내에서 생산하나 대부분의 공산품은 프랑스, 스페인 등 인근 유럽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어 가격이 다소 고가이다. 모로코 국내 생산품은 가격이 저렴하나 질이 떨어진다.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 육류는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가격은 한국보다 약간싼 편에 속한다. 회교국이긴 하나 카사블랑카 지역에서는 현지 거주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돼지고기 구입이 가능하다. 이외 도미, 광어, 오징어, 참치, 새우등 각종 생선이 비교적 풍부하나 가격은 현지 여타 식품류에 비해 비싼 편에 속한다. 시금치, 토마토, 당근, 호박, 감자 등 각종 채소와 수박, 사과, 딸기, 바나나, 오렌지 등 과일류는 계절에 따라 풍부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2012년을 지나면서 노상음식 판매대가 급증하였는데, 노점음식(달팽이, 육류, 생선류, 각종 샌드위치, 과자 및 간식류와 음료 등)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식재료의 신선도, 유통과정, 식품제조과정의 위생상태 등을 알 수 없고, 정부로부터 식품안전 및 위생검사를 거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 시 간혹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한국식품 조달 여건

모로코 내에 한국 식품점은 없지만 현지 시장(메디나)에서 중국 식자재를 판매하는 동양계 식품점이 있다. 된장, 고추장, 마른 멸치, 간장, 참기름, 등 고유식품은 한국에서 화물로 배달하거나 이주할 때 상당 양을 가져와서 해결하고 있고 2012년 6월 최근들어 중국 식자재 판매점에서 한국산 부침가루, 돈까스 소스, 라면등이 판매되고 있다.

고추가루는 모로코 현지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맛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쌀은 슈퍼마켓에서 스페인산(새우표)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이나 맛이 한국산 쌀에 비해 떨어지지만 큰 불편이 없다. 무, 배추, 상추, 고춧가루 등 한국 채소는 아가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 자체 재배해 일부 교민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일부 교민들이 한국 채소를 재배하여 자급자족하기도 한다.

다. 교통 및 통신여건

1) 우리 나라와의 교통

□ 항공편

모로코는 유럽, 중동, 북미, 서부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취항하는 정기 항공 노선이 운항되고 있어 여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하여 항공편 연결이 용이한 편이다. 모로코 국영항공(RAM: Royal Air Maroc)이 파리, 마드리드, 로마, 런던, 암스테르담, 아테네 등 대부분 주요 유럽 도시와 뉴욕, 몬트리올 등 북미 대륙, 주요 중동국가, 서부 아프리카 국가에 취항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은 유럽 등 선진국 항공사에 비해 다소 뒤쳐지나 정확한 이착륙시간 준수 등 여타 중동, 아프리카 항공사에 비해 우수한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와 모로코간에는 직항 항공노선이 없어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등 유럽 주요도시 또는 두바이를 경유하여 오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파리를 경유하는 노선은 "샤를 드 골"(CDG 2)에서 3시간 정도 대기 후 비행기를 갈아 타고 직접 카사블랑카로 갈 수 있다. 최근에는 카타르 항공 (인천-상하이-도하-트리폴리-카사블랑카), 아랍에미리트 항공 (인천-아부다비-카사블랑카) 등도 서울 노선을 서비스하고 있어 중동을 경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로코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썬크(Mohamed V)’ 공항 (비행기표 행선지로는 CMN으로 표기)에 내리면 입국 사열장(Immigration)을 통과해 수하물을 찾고 세관을 통과해 나오게 된다. 입국심사시 여권 사증란에 입국 스탬프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일련번호(예: 117044UK / 6자리 숫자와 영문 대문자 2자)를 찍어 주는데, 동 번호는 호텔 체크인 시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외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모로코의 공항은 관광국으로 통관이 매우 수월한 편이다.

□ 비행기표 예약

모로코 내에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주말을 끼고 예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모로코를 출발해 같은 주 수요일에 돌아오는 티켓보다 금요일 모로코를 출발해 일요일에 돌아오는 티켓이 훨씬 저렴하다. 날짜와 항공사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예매가 보편화되지 않아 여러 여행사에 문의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육로 이동

육로를 이용할 경우 스페인 남부 Algeciras-Ceuta / Cadiz-Tanger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페리를 이용(일반 페리 2-3시간, 쾌속정 45분 소요)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철도나 고속 버스편(CTM)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 해상 교통

모로코 북부 지역 주요 항구인 Tanger에서 스페인 남부 Algeciras, 영국령 Gibraltar, 불란서 남부 마르세 이유 항구를 운항하는 페리편으로 승용차를 함께 실어 유럽에서 차량편으로 모로코로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모로코 최북단 지역인 스페인령 Ceuta에서 스페인 남부 Algeciras 항구까지 매일 수차례(여름철 휴가철에는 매시간) 페리가(차량 운송 가능) 운항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카사블랑카 간 화물선박편도 직항해로가 없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나 이삿짐의 경우 "바르셀로나", 마르세이유 등 유럽 주요 항구를 경유하여 환적 해야 하는데, 항해 일수만 최소 45일에서 2달여가 소요되고 있다.

2) 국내교통

□ 트램

2012년 12월 12일 개통한 카사블랑카의 트램은 총 길이 31km, 48 역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의 노선으로 나뉘었다. 카사블랑카의 대중교통정책 (총 5개의 노선, 1개 교외선 추진) 중 1단계로 평균 수송량은 25만명/일, 역간 거리는 4.5분, 시속 19km이며 운행시간은 주중 6시 30분 - 22시, 주말 6시30분 - 23시30분이다. 거리 상관 없이 요금은 6디람이며 최초 탑승시 트램카드 발급비용 1디람이 추가로 소요되며 그 이후 탑승시 그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하면 된다.(2013년 12월 기준).

□ 버스

도로 곳곳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 번호도 잘 표시되어 있으나 버스 시간 및 목적지는 명확하게 게재되어 있지 않다. 요금은 3디람, 3.5디람, 4디람으로 목적지, 버스종류에 따라 다르며 버스안내원이 버스 내에서 요금을 받는다. 카사블랑카의 경우 시내 버스는 100여 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저렴한 편이나 노선이 복잡해 초행자에게는 승·하차가 어렵고 차량 내부가 불결해 방문객 들은 브띠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택시

대형택시(Grand Taxi)는 일반적으로 벤츠 구형이며 정원(6명)이 차야 출발한다. 탑승시 가격 흥정을 해야 하고 도시 간 연결 및 시내 구간 이용도 가능하다.

소형택시(Petit Taxi)는 도시 별로 색상이 다르며 (ex. 라바트: 파란색, 카사블랑카: 빨간색) 보통 소형승용차이다. 택시의 정원은 3명이며, 기본 2디람부터 시작하고 100m당 0.20디람씩 미터기가 올라간다.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요금이 할증(50%)되며 합승이 가능하다. 최소요금은 도시별로 다르나 수도 라바트의 경우 5디람, 카사블랑카는 7.5디람이다. 라바트의 경우 일정 구간을 정액으로 소형택시를 탈 수 있는 소형택시 정류장이 있다. (예: 라바트 Agdal지역에서 Centreville까지 4디람을 받으며 정원(3명)이 차야 출발함) 큰 짐이 있을 경우, 소형택시가 잘 잡히지 않고, 짐 값을 따로 내야한다.

택시 탑승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형택시의 경우 외국인이면 미터기를 조작하여 가격을 높이 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간별 택시 값을 미리 익혀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역 바로 앞이나 CTM버스 정류장 입구의 택시들은 높은 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이나 정류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는 것이 좋다.

□ 시외버스

모로코는 2006년 기준 분쟁지역으로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는 서부 사하라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각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육로로 여행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 최대 상업도시인 Casablanca에서 Rabat를 경유하여 북부 Larache까지 약 300km 구간이 고속도로로 잘 포장되어 있으며, 향후 Tanger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모로코의 총 도로 연장 59,790km로서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최대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어 시외버스를 이용해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시외버스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CTM이 대표적이며 각 도시에 있는 CTM정류장에서 탈수 있고 수화물도 가능하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ctm.co.ma 이며 웹사이트 상에서 구간 예약이 가능하다.(단 모로코 현지 계좌만 결제 가능)

□ 기차

총 연장 1,900km의 철도가 모로코 전역 주요 도시간을 운항하고 있으며, 시설이나 서비스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열차 편으로 여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모로코 국내에서 북부 Tanger 항구까지 열차로 가서 배편을 이용 스페인에 도착 후 다시 열차 편(Europass 등)을 연결하여 유럽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열차를 운영하는 곳은 국립철도청으로 철도(1,2등석)가 구간별로 존재하며 학생일 경우 할인권(10장)을 구입하면 보다 싸게 기차표를 구입 가능하다. 1등석은 좌석제이나 2등석은 그렇지 않고 현재 구형기차와 신형기차 동시에 운행하고 있다. 국립 철도청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oncf.ma이다.

3) 교통정보 / 도로교통

모로코는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인 국가로서 최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높은 교통사고율은 계속되고 있어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방어운전이 필수적이다. (교통사고율 프랑스의 13배)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5년 3,617명, 2006년 3,754명, 2007년 3,838명, 2008년 4,162명, 2009년 3,946명, 2010년 3,778명, 그리고 2012년에는 약 3,93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모로코에서 운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우측 통행이며, 우측방향 차량 우선, 속도제한 및 일단정지, 주차 위반 등 단속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을 급하게 하며 추월도 심하고 차선도 잘 지키지 않으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많으므로 차량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로코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측통행이며, 우측방향 차량 우선, 비보호 좌회전, 속도제한 및 주차 위반 등 단속을 하고 있으며 운전 시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야하고, 운전 시 휴대폰 통화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위 사항을 유의하며 운전해야한다.

대도시 중심가 주차 시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해야하며 무인주차티켓발급기에서 주차티켓을 끊어서 차량 내부에 주차 감시요원이 볼 수 있도록 넣어두어야 하며 주차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주차안내원이 주차를 도와주고 소정의 돈(1-2디람)을 받는다.(관광지에서는 5디람).

모로코 내 전체적인 도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도로가 상당수이며 고속도로에 갓길이 없는 노선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더불어 운전중 불쑥 사람이 뛰어드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속 운전은 절대 피해야 한다. 라바트나 카사블랑카 같이 큰 도시들은 도로 및 가로등이 비교적 잘 되어 있지만 고속도로나 시골길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야간운전 시 특히 조심하여야 하고 특히 시골길에서는 동물(소, 양, 개, 고양이 등)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과의 충돌이 빈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기철, 산길 운행 시 집중 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및 물난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산에 나무가 없고 하수구 시설이 좋지 않아 집중 호우가 있을 시 도로가 쉽게 침수될 수 있다.

교통사고가 연중발생하고 있으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는 여름철, 라마단 기간, 이슬람축제기간이다.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피로와 신경 예민으로 사고 발생율이 더 높음) 교통사고 발생 시, 통상 경찰이 도착 시까지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시라도 경찰이 도착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이나 지방에서 사고 발생 시 경찰 출동이 늦어 사상자를 오래 현장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경미한 접촉사고 시에는 경찰을 부르기 전 운전자와의 합의하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피해사례로서, 2007년 1월 렌트카로 주재국을 여행중이던 관광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2010년 6월 한국인 관광객 17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라바트 인근지역 고속도로상에서 앞차와 충돌하여 현지 모로코인 가이드가 사망하고 한국 관광객 일부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2010년 11월에는 한국인 1명이 도로를 횡단하다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모로코 내에서 교통사고 또는 강력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 또는 응급처리 병원 접수처에서 시간을 다투는 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보다는 경찰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연고자 확인 등 행정절차가 우선시 되는 관행이 아직도 팽배하므로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 보호를 위한 효율적 조치를 위하여 대사관 사고 처리 담당관 전화번호(0661-78-7722 또는 0661-29-1356)를 항상 소지하고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제통신

□ 일반 우편제도

모로코의 우편제도는 선진국 수준은 아니나 비교적 신뢰할 만 하다. 특히, 여타 아랍국가 또는 아프리카 제국에 비하여 훨씬 능률적이다. 우리나라로 우편물 발송 시 약 10-1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Express Mail, 등기우편도 취급하며, 안전한 편이다. 우표는 우체국, 신문판매소(KIOSK), 관광안내소 또는 시내중심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 국제 우편료는 지역에 따라 U\$ 2-5 내외가 소요된다.

□ 등기우편

우체국 내 등기 취급소(Colis Postaux)에서 발송코자 하는 물품을 포장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체국에 가져가서 세관 검사를 끝낸 후 포장해서 등기로 발송할 수 있는데, 포장지, 테이프 또는 끈 등은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등기는 20 Kg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방 길이가 1.5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약 10 Kg 을 선편으로 우리나라에 보낼 경우 약 80불, 항공 소포의 경우 150불 정도가 소요된다.

□ 속달우편 / Express Mail

우체국 내 속달우편 취급소(EMS / Poste Rapide)에서 발송이 가능하며 약 500g의 우편물을 우리나라에 보낼 경우 45불 정도가 소요된다. Express Mail로 우리나라에 보낼 경우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더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DHL, UPS 등 기타 택배서비스

카사블랑카 등 주요도시에 DHL, UPS, Fedex 등 세계유수의 택배서비스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송 시 DHL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최단시간 내에 직접 가져가며, 우리나라까지의 택배서비스에는 3일 내에 운송이 가능 하다.

발송료는 서비스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최소요금인 0.5Kg까지는 80불, 1Kg까지는 120불, 1.5 Kg의 경우 130불 정도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

□ 국제전화

중동 아프리카지역 국가들 중, 전화시설 및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시외 및 국제전화도 용이한 편이다. 1996년부터 디지털신호(Tone)와 펄스신호(Pulse)를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우리나라와의 통신(전화, 팩스 및 e-메일 등 인터넷통신)은 비교적 양호하나, 통신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국제 전화요금은 신호음부터 적용이 되며, 한국 전화시 1분 16디람 1분이상 30초당 8디람이 적용된다. 업무시간외 심야시간 또는 주말에는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모로코에서 한국으로 통화 시 COLLECT CALL 서비스 제도가 없다.

모로코 전화 번호 정비작업으로 인해 2009년 3월부터 일반전화에는 5번, 휴대전화에는 6번을 추가 하여 총 9자리수에서 10자리 수로 변경되었다.(예) 022 12 34 56 → 05 22 12 34 56)

- 월-금요일 / 22:00-24:00: 20% 할인, 24:00-07:00: 40% 할인
- 토요일 12:30-월요일 07:00: 40% 할인
- 국제전화 이용 방법(시차는 한국보다 9 시간 늦음, 섬머타임 적용시 8시간 늦음)
- 모로코에서 외국으로 전화할 경우(DDD)
- 국제전화 접속 번호(00), 국가번호, 지역번호 및 해당전화번호를 순서대로 다이얼링
- 예)서울 500-1234번에 전화할 경우: 00-82-2-500-1234, 서울 핸드폰 016-260-1111번에 전화할 경우: 00-82-16-260-1111
- 한국에서 모로코로 전화할 경우
- 모로코 국가번호(212), 카사블랑카 지역번호 (522)
- 예) KOTRA(Casablanca) 31 42 32에 전화 할 경우: 001-212-522-314232

□ 팩스, 전보 등 발송

우체국에서 전보를 발송 할 수 있으나 팩스는 어려움이 있다. 일부 팩스전용 발송 서비스 업체가 있어 팩스 발송을 대행해 주는 곳도 있으나 찾기가 수월하지가 않다. 주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팩스를 발송할 수 있는데 요금이 비싼 편이다. 보통 A4 분량 1장을 우리나라로 팩스할 경우 10불 정도가 청구되며, 통화 중일 경우에도 기본 요금이 부과 된다.

과거 시장개척단으로 참가한 모 업체가 A4 3장 분량의 원단 샘플을 복사하여 우리나라로 호텔측에 전송을 의뢰했는데, 팩스요금이 250불이 청구되어 항의를 한 결과, 팩스라인이 계속 통화 중으로 그림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전송에 30여분이 걸린 것으로 팩스기기에서 리코딩되어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이는 요금 체계가 전송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 인터넷 환경

지난 1996년도에 최초로 도입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최근 들어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보급률이 50%를 넘어섰다. 일반 전화 회선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회선부족으로 업무 시간대에는 접속이 쉽지 않으며, ADSL라인을 통한 접속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정액제 도입 이후 수요자가 증가했지만 3G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감소세에 접어들다 Inwi가 ADSL에 필요한 인프라를 임대하며 ADSL 서비스를 상품화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FIXE, 3G 모뎀 등이 있으며 3G 모뎀인터넷은 Maroc Telecom, Inwi, Meditel 3개 통신사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다. 3G 인터넷 모뎀은 USB 형태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연결하여 3G 신호를 받아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계이다. 가격은 한달에 200디람 정도이며, 각 통신사마다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시기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Inwi의 3G 모뎀은 1달에 200디람이지만 3개월에 300디람, 6개월에 500디람으로 사용할 수 있다. 3G 모뎀의 속도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Inwi의 커버리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3G 모뎀인터넷은 3사 모두 기본적으로는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루에 400MB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트래픽 제한이 걸려 10~20Kbps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FIXE 인터넷은 트래픽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Mbps 상품부터 기업용 10Mbps 상품까지 다양하지만 실제 속도는 그에 못미치는 편이다. FIXE의 신청을 위해서는 체류증(Carte de Sejour)이 필요하며 직접 통신 3사의 대리점에서 모뎀을 받아와 집에 설치하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설치 중 문제가 생길시에 서비스 기사를 요청 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빠른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Maroc Telecommerce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트래픽 활성화는 평균적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 오후 14시 30분부터 15시에 집중됐다. 일부 비즈니스 호텔에는 인터넷사용을 위한 PC가 설치되고 있으며, 시내에 산재한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속도가 한국보다 느린 편이다.

4) 국내통신

□ 공중 전화

카사블랑카 등 주요도시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 외곽지역이나 지방으로 가면 공중전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지역 및 일부 지방은 전화부스에서 전화카드를 사거나 사용료를 내고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공중전화는 동전용과 공중전화 카드용 2종류가 있으며, 최근에는 카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중전화 카드는 담배가게(Tabacs)나 kiosk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68.50디람, 93.50디람 및 156 디람등이 있으며, 동 공중전화 카드 국제전화도 사용가능하다.

□ 이동통신

1996년부터 이동무선전화가 개통되어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통화 가능 지역은 라바트,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탕제, 아가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타 지역도 점차 중계소 등을 증설하여 통화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사하라 사막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

지역별 호출코드

지역 및 지역번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2) Casablanca, Settat, Ben Slimane, Berrechid, Mohammedia 등 연안 중서부권 및 Marrakech, Agadir, Ouarzazate, Zadora, Laayoune, Tan-Tan 등 남서부 전역 ○ (053) Rabat, Tanger, Al hoceima, Tetouan, Kenitra 등 북서부권 및 Fes, Oujda, Meknes, Azrou, Errachidia, Nador 등 중동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3월 24일부터 모로코 지역번호 통합 * 2009년 3월 9일부터 일반전화 5, 휴대전화 6번 추가 ○ 통합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로코 전역 지역번호 02-05 번으로 구분 하던 것을 052-053 로 통합 ○ 도시 별 통합지역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2) Casablanca, Settat, Ben Slimane, Berrechid, Mohammedia 등 연안 중서부권: 유지 - (053) Rabat, Tanger, Al hoceima, Tetouan, Kenitra 등 북서부권: 유지 - (054) Marrakech, Agadir, Ouarzazate, Zadora, Laayoune, Tan-Tan 등 남서부 전역: 02 로 통합 - (055) Fes, Oujda, Meknes, Azrou, Errachidia, Nador 등 중동부지역: 053 으로 통합

주: 우리나라에서 전화할 경우 앞의 0 번 생략/ 휴대폰 호출 시에도 동일.

주 2: 한국에서 카사블랑카 무역관 전화할 경우: 국제전화코드 + 212(국가코드) + 522(지역코드) + 314280/32(전화번호)

자료: '09년 5월 카사블랑카 무역관

□ 이동통신 / GSM

1996년부터 이동무선전화(GSM)가 개통되어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통화가능 지역은 라바트,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땅제, 아가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타 지역도 점차 중계소 등을 증설하여 통화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사하라 사막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 유럽 및 일부 중동 지역에서도 국제 "로밍서비스"를 통해 통화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단말기를 갖고 모로코에서 한국으로 통화는 전송방식의 차이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1999년 말 모로코 정부의 제 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으로 MediTelecom의 서비스가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 Wana 통신회사가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2010년 회사명을 INWI로 변경), 2010년 기준 3개 통신회사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이 되고 있다.

6) 시내 대중 교통

Casablanca, Rabat 등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은 삐띠택시와 시내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카사블랑카의 경우 시내 버스는 100여 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저렴한 편이나 노선이 복잡해 초행자에게는 승·하차가 어렵고 차량 내부가 불결해 방문객들은 삐띠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삐띠택시의 기본료는 1.7 디람으로 시작하며 주행시 점차 올라가는 미터제이다.

기본 요금은 1.7 디람부터 시작, 매 20m 마다 20 쌍팀(약 3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7.5 디람이 기본 최저 요금으로 7.5 디람 이하의 요금이 나오면 7.5 디람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13년 기준 택시요금 상승과 관련하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확인이 필요하다.

라. 레저여건

현지인들은 박하차(테 마로켄)와 진한 커피인 카페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가정이나 카페에서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 시청하는 것을 가장 즐긴다. 카사블랑카 및 라바트 등 주요 도시에서 전시회, 음악회 등 간혹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으나 일부 상류층을 제외한 현지인을 위한 문화와 레저 시설이 영화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지난 1990년 초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위성안테나 수신기를 통해 유럽각국의 위성방송을 TV로 시청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하계시즌(7~8월)에는 도처에 산재한 해변이 유일한 젊은이들의 쉼터가 되고 있으며 동계 시즌은 보통 영화관이 성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현지 체류 외국인들은 외국관광객을 위해 조성된 마라케시, 아가딜 등 주요 관광지의 레저 단지에서 골프, 승마, 낚시, 스키 등을 즐길 수 있으나 카사블랑카 등 외국인이 주로 사는 곳에서 거리가 멀어 하루 코스로는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지 물가수준과 비교해 보면 이용료가 고가인 편에 속한다.

마. 기타 여건

□ 환율/환전

1) 화폐 단위

화폐 단위는 모로코 내에서는 통칭 디람(Dirham/약칭 DH)으로,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MAD (Moroccan Dirham)로 약칭되고 있으며 1디람은 100쌍팀(Cemtime/CT)이다. 금액 자릿수 구분을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천 단위 구분 표시로 점(.) 을 사용하고 소수점은 콤마(,)로 표시 하니 혼동하기 쉽다. (예: DH 1.200,55 / 천이백 디람 55쌍팀). 주화(동전)는 10, 5, 2, 1디람과 50, 20, 10, 5 쌍팀이 유통되고 있으며 지폐는 200, 100, 50, 20 디람권이 사용 되고 있다.

2) 환율

지난 1990년대 말부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 관련기관에서는 모로코의 디람화가 현실 시장 가치 보다 과대 평가되어 있다는 견해를 밝혀 왔으나, 과거 수 년간 모로코의 디람화는 미 달러화, 유로화 등 국제 기축 통화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을 보여왔다.

1983년에 급격한 외채 증가로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경험이 있지만 이후 성공적으로 외채상환 태도를 개선했다. 2012년 9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단기 2억 9,280만 달러, 중장기 42억 9,850만 달러로 총 45억 9,130만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은 3,660만 달러로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지난 2001.4월 말 모로코 정부는 1990년 이후 최초로 모로코 디람(Dirham)화의 가치를 5% 평가절하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2년 전부터 IMF 등 국제금융기관과 국제 외환시장의 평가절하 압력에도 평가절하를 거부해 온 모로코정부의 갑작스런 평가절하의 배경에는 국내 정치 및 경제적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로가치에 지나치게 연동된 현행 바스켓 통화 체제에서 미 달러화 비중을 늘려 국제 통화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모로코 수출업체 및 IMF 등 디람화 가치 과대 평가 압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외채 상환 부담과 인플레이 압력이 속제로 남아 있다.

2002년 초부터는 다시 디람화의 평가절하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조치가 취해져 디람화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으나, 2008년 평균 US\$1=7.7로 감소하였고 2013년 12월 기준 US\$1= 8.2대로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환전

외환 반입은 큰 문제점이 없으나, 모로코 디람화의 반출은 통제되고 있으므로 사용 후 남은 디람화는 출국 시 공항에서 재 환전해야 한다. 단, 환전 증명서가 없으면 환전해 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전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방문자가 48시간 이상 체류 시 체재기간 동안 환전한 금액의 50%만 달러화로 재 환전 해주기 때문에 단기간 방문 시는 체류기간 중 필요한 경비만 디람(DIRHAM)화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는 공식적으로는 암시장(Black Market)이 없으며, 공항, 은행, 호텔 및 시내 환전소 등에서 유로화, 미 달러화 및 일본엔화 등이 환전 가능하며 환전 공항환전소, 은행 및 주요 호텔(4STAR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환율은 모로코 중앙은행 (Banque Al-Maghrib)에서 매일 고시하는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재래시장 (Ancienne Medina) 주변에서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달러화를 달러가 필요한 현지인에게 현지화로 바꿔주는 암달러상이 일부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신용 카드 사용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하며 (VISA, MAESTRO, MASTER 등) 현금 자동 인출기도 사용할 수 있다. 현금 인출 시 직불카드 수수료보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그러나 특급 호텔을 제외한 호텔에서 신용카드 서비스가 일반화되지 않아 유념해야 한다. 환전소와 은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환전을 하려면 Wafa CASH, WESTERN UNION 등의 간판을 찾아가야 한다.

6. 취항정보

가. 항공사 리스트

모로코는 유럽, 중동, 북미, 서부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취항하는 정기 항공 노선이 운항되고 있어 여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하여 항공편 연결이 용이한 편이다. 모로코 국영항공(RAM: Royal Air Maroc)이 파리, 마드리드, 로마, 런던, 암스테르담, 아테네 등 대부분 주요 유럽 도시와 뉴욕, 몬트리올 등 북미 대륙, 주요 중동국가, 서부 아프리카 국가에 취항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항공편이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은 유럽 등 선진국 항공사에 비해 다소 뒤쳐지나 정확한 이착륙시간 준수 등 여타 중동, 아프리카 항공사에 비해 우수한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와 모로코간에는 직항 항공노선이 없어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등 유럽 주요도시 또는 두바이를 경유하여 오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파리를 경유하는 노선은 "샤를 드 골"(CDG 2)에서 3시간 정도 대기 후 비행기를 갈아 타고 직접 카사블랑카로 갈 수 있다. 최근에는 카타르 항공 (인천-상하이-도하-트리폴리-카사블랑카), 아랍에미리트 항공 (인천-아부다비-카사블랑카) 등도 서울 노선을 서비스하고 있어 중동을 경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사 리스트

Air France	05 22 29 40 40	www.airfrance.com
KLM	05 22 20 32 22	www.klm.com
Lufthansa	05 22 31 23 71	www.lufthansa.com
Royal Air Maroc	05 22 31 11 22	www.royalairmaroc.com
Qatar Airways	05 22 29 54 54	www.qatarairways.com
Arab Emirates	05 22 43 99 00	www.emirates.com
Alitalia	05 22 31 41 81	www.alitalia.it
British Airways	05 22 43 33 00	www.britishairways.com
Air Algerie	05 22 22 56 81	www.airalgerie.dz
Egypt Air	05 22 30 92 25	www.egyptair.com

나. 비행기표 예약

모로코 내에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주말을 끼고 예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모로코를 출발해 같은 주 수요일에 돌아오는 티켓보다 금요일 모로코를 출발해 일요일에 돌아오는 티켓이 훨씬 저렴하다. 날짜와 항공사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예매가 보편화되지 않아 여러 여행사에 문의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공항에서의 교통편

□ 그랑 택시

80년대 구형 흰색 메르세데스 벤츠 공항 택시가 24시간 공항 밖에 대기하고 있다. 요금은 카사블랑카 시내까지 250 디람이지만 지역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고, 외국인의 경우 300 디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을 묻고 나서 타야 한다.

□ 기차

기차 플랫폼은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시내 중심에 위치한 역은 'CASA PORT' 역으로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간 정각에 출발한다. 하지만 노선 특성상 'AIN SEBBA' 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총 소요 시간이 1시간 40분에 달하며, 가격은 1 등석 60 디람(약 8천원), 2 등석 40 디람(약 5500원)이다. 'CASA PORT'행 기차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단축을 위해서는 'CASA VOYAGEURS'역 또는 'L'OASIS'역으로 가는 것이 좋다. 카사블랑카 공항 기차역에서부터 L'OASIS 역까지는 약 22분 가량이 소요되며 가격은 40 디람이다. 기차역에 내리면 택시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시내까지 가는데 20 디람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타야한다.

열차 운행시간 및 가격

기차역	출발시간	소요시간	가격
CASA PORT	06:00 ~ 22:00 매시간 정각	1H 40mn	1 등석 : 60 디람 2 등석 : 40 디람
CASA VOYAGEURS	04:00 ~ 24:00 매시간 정각 05:00, 23:00 제외	32mn	2 등석 40 디람
L'OASIS	"	22mn	2 등석 40 디람

출처: www.oncf.ma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출입국/비자

1) 비자

모로코는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1993.9.1)이 체결되어 있어 무비자 입국 3 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본래 현지 투자나 취업 및 사업 등으로 3 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려면 사전에 주한 모로코 대사관에서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지만 2012 년 기준 현재 주한 모로코 대사관에서는 비자관련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 모로코 선입국 후 모로코내 체류증 발급 또는 3 개월 무비자 체류가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이다.

현지에서 일정 자격이 갖추어질 경우 장기 체류 비자 또는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 현지에서 장기 체류 시는 3 개월마다 인근 모로코 북부 스페인령 (세우타, 멜리나)에 출국했다 들어오면서 국경에서 비자에 스탬프를 다시 받으면 현지 체재에는 문제가 없다.

모로코 현지에서 워킹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신청자격: 16 세 이상으로 주재국에 입국 후 3 개월 내에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발급처
 - 담당부서 : 외국인 고용 담당청(l'Annex du Service de l'Emploi des Migrants)
 - 주소 : Quartier administratif, Chella-Rabat (Ancien siège du 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ifessionnelle)Res de chaussée
 - 연락처 : +212 (0)6 61 04 99 04 (대표전화)
+212 (0)6 61 04 99 03
+212 (0)5 37 68 31 87
 - 이메일 : s.migrant@emploi.gov.ma
- 구비서류
 - ① 외국인 노동비자 신청서 컬러 원본 1 부
 - ② 외국인 노동 계약서 양면 컬러 원본 5 부
 - ③ 아래중 해당서류 3 부
 - 파견국 본사 근무의 경력 증명서 1 부
 - 주재국 고용부에서 확인된 회사 또는 기관과의 고용계약서 (개인)
 - 사업자면허 사본 (사업자)
 - ④ 공증된 주택 임차계약서 1 부
 - ⑤ 전기, 수도료 납입 증명서 혹은 유선전화 납입증명서 (4 번 주거증명용)1 부
 - ⑥ 입국일이 포함된 여권 사본 1 부

- ⑦ 수입인지 (정부 청사 근처 문구점에서 구입)
 - ⑧ 사진 8 장 (실제 6 장이나 때로 8 장을 요구하기도 함)
 - ⑨ 최종 학력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불어공증본 포함) 각 1 부
- 1 번과 2 번 서류는 다음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 입력 후 출력해야 한다.
 - <http://www.emploi.gov.ma/def.asp?codelangue=23&info=1011>

2) 장기 거주 허가

투자, 취업 및 사업 목적 등으로 장기 체류하고자 할 경우 하기 서류를 구비, 거주지 관할 경찰서(Prefecture de Police)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관할 경찰서에 비치)
- 본인 여권
- 사진 8 매
- 은행 계좌 증명(모로코내 은행)
- 주택 임차 계약서 및 임차료 지불 영수증
- 전기료 납입 영수증
- 외국인 워킹비자 또는 투자 등 장기 체류 사유 증빙 서류
- 인지 60 디람

3) 출입국 절차

카사블랑카, 라바트, 탕제, 마라케쉬 등 주요 국제공항과 주요 항만 등의 출입국 심사는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다만, 장기 체류 허가 소지자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후 재입국할 경우 입국이 지연되거나 재입국 허가를 받을 때까지 보호 시설내 감금되는 경우가 있다. 재입국 허가 신청시 통상 2 주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썬크"(Mohamed V) 공항(비행기표 행선지로는 CMN 으로 표기)에 내리면 입국사열장(Immigration)을 통과해 수하물(Baggage)을 찾고 세관(Douan)을 통과해 나오게 된다. 입국심사(Passport) 시 여권 사증란에 입국 스탬프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일련번호(예: 117044UK / 6 자리 숫자와 영문 대문자 2 자)를 찍어 주는데, 동 번호는 호텔 체크인 시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외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모로코의 공항은 관광국으로 통관이 매우 수월한 편이나 아랍 특유의 기질로 입국 심사 시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 검사 없이 통관을 하지만, 휴대품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 검사를 하므로 샘플 등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표시가 필요하고 다량의 샘플(완제품)을 휴대할 경우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샘플 증명서(CARNET)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 여행자 통관 정보

휴대품	통관기준
주 류	○ 1 병 (1 리터)
담 배	○ 담배 200 개비, 여승연 100 개비, 시가 25 개비, 기 타 담배 250g
향 수	○ 향수 150ml 및 화장수 250ml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선물 및 여행 기념품 (현지화 2,000 디람 이하의 가치) ○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용 컴퓨터, 개인용 악기, 스포츠 용품, 자전거 등 각 1 대
외국환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로코 화폐(디람)의 반출 및 반입은 엄격히 금지됨. ○ 휴대 반출입시 신고대상 외화는 현금, 여행자 수표 및 모로코 내에서 유통이 가능한 수표임. <p>(가) 외화반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행객의 경우, 모로코화로 환산 시 100,000 디람까지는 신고 불요, 100,000 디람 이상의 액수를 반출할 경우 소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출국 전 반드시 세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② 모로코 거주자인 경우, 모로코화로 환산 시 100,000 디람까지는 은행에 소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후 여권 상에 확인도장을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bordoreau de charge"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반출이 가능하고, 100,000 디람 이상의 액수는 반출이 불가함. <p>- 100,000 디람 이상의 금액은 은행에 본인 구좌(Convertible A/C)가 있을 경우, 은행 간 송금을 통하여 반출 가능함.</p> <p>(나) 외화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로코화 환산시 100,000 디람 이상의 액수를 반입 시에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p>※ 외국환 휴대 반출입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초과 외화를 휴대 반입 및 휴대반출 시 세관에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소지한 외화를 모두 압수당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량의 개인 사용분은 반입 가능 (단, 의사 진단서, 처 방전 등 증빙 자료 제출하고 세관에 비치된 진술서 작성 후 서명 필요) ○ 개인사용 목적 외에는 보건부의 반입 허가서가 필요 함.
식 품	○ 농산물은 식물위생허가서(certificat phytosanitaire)가 필요 함.
자동차	○ 비거주자가 여행 목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자동차등 교통수단은 3 개월까지 반입 허용.

반입불허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및 탄약 (단, 사냥용 무기 탄약은 경찰청 허가 후 반입 가능). ○ 마약류 ○ 법과 질서 및 도덕을 혼란시킬 수 있는 서류, 인쇄한 종이 등의 기록물 및 영상물 ○ 국제 협약(CITES)에 따라 보존되는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으로부터 입국시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으며, 백신 증명서 요구도 없음. ○ 애완동물 동반하는 경우, 동물 건강진단서 지참 ○ 모로코에서 생산된 전통 민속예술품, 여행기념품 등은 가격에 관계없이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예술품 및 골동품 반출 시에는 문화부 허가 필요함. ○ 모로코에서 검사. 제조 목적으로 휴대 반입 하는 검측장비, 주형 및 전시회용 물품 등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긴급히 사용할 물품을 적시 통관하지 못하거나 모로코 세관 당국에 압류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출처: 주모로코대사관

4) 면세품 휴대 한도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 검사 없이 통관을 한다. 마약, 무기류 등을 제외한 일반 여행자 휴대품 통관은 까다롭지 않다. 술(위스키 1 병), 담배(10 갑), 포도주(3 병), 카메라, 쌍안경, 개인용 장신구, 라디오, 화장품 등 개인 휴대품의 면세 통관은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과다한 샘플 또는 동일한 물품을 다량 반입할 경우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판매용으로 간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샘플 등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표시가 필요하고 다량의 샘플(완제품)을 휴대 할 경우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샘플 증명서 (CARNET)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카메라 등 취재 또는 촬영 장비는 공항 신고 후 통관이 가능하며, 방송용 취재, 촬영 등은 사전에 공보부의 취재 허가를 받은 후, 관할지 경찰서에 사전신고 후 촬영 가능하다.

- 공보부 : Ministère de la Communication
- 주 소 : 10, Rue Beni Mellal, Place de la Grande Poste, Av. Mohammed V. Rabat - Maroc
- 전 화 : 212 537 766016
- 팩 스 : 212 537 766908

2003년 5월16일 카사블랑카 폭탄 테러, 2011년 마라케시 폭탄테러로 인해 공항 출입국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었으며 많은 금액의 외화 현금 소지 시 출국 검사에 압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외화 소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로코 화폐는 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출국 시 소액이라도 압수하는 경우가 많다. 외화 반출 기준은 모로코 화폐기준 100,000 디람(약 12,000 달러 상당)이상의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외화반입 기준은 100,000 디람(약 12,000 달러 상당) 이상의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출국 전 달러등지로 환전을 하는 것이 권고되고 환전시에는 처음 모로코 디람으로 환전한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환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불편한 절차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디람으로 환전하지 않고 필요한 정도만 소액으로 환전하여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관광/호텔/식당/통역

가. 추천 관광명소 안내

모로코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문화가 교차되는 지역으로서 유명한 관광지가 많으며, 주요 관광지는 주로 수도 Rabat 및 최대 상업도시인 Casablanca 와 Marrakesh, Fes, Mekenes 등 옛 유적지를 들 수 있다. 또한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휴양지, 중부 Ifrane 과 그 주변, 남부 휴양도시인 Agadir 을 포함하여, 아틀라스 산맥 남부 사하라 사막이 시작되는 지역들도 관광 명소이다.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Rabat-Sale 및 Casablanca 인근 관광지와 Marrakesh, Fes 등 옛 도시의 관광명소는 아래와 같다.

1) 라바트(Rabat)

정식 명칭은 라바트엘파티프(Rabat el-Fatif)이다. 대서양에 면한 카사블랑카 다음가는 대도시이다. 카사블랑카의 북동쪽, 대서양 연안의 부레그레그강(江) 하구 좌안에 있으며, 북아프리카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다.

고대 로마의 식민도시로 건설되었으나, 현재의 시가는 10~11세기에 이슬람교도인 베르베르인이 이단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것이 기원이다. 성벽에 의해 성 안, 성 밖으로 나누어지는데, 성내에는 마디나(이슬람 시장 거리)와 밀라(유대인 거리)가 있고, 12세기 이래의 카스바테우다이아문(門)과 하산 사원의 첨탑 등이 남아 있다. 신시가에는 왕궁·정부청사·외국공관·유럽인 거리·라바트대학 등 유럽풍과 아랍풍의 건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이다.

부레그레그강의 대안에 있는 살레는 카르타고, 로마시대의 유적이 많은 고도(古都)로 관광 명소이며, 모로코 독립운동 때에는 그 중심지였다. 17세기에는 해적의 근거지가 된 적도 있었으나, 1912년에 프랑스가 모로코 보호령 정치를 둔 후에는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그후 모로코 왕국으로서 독립했을 때에는 카사블랑카와 함께 자치도시가 되었다. 농업이 활발하여 채소와 과일을 수출하며, 근대적인 직물공업이 성하여 용단·모포 등이 생산된다. 그밖에 벽돌과 석면이 생산되고, 어류가공업도 자리잡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고, 유대인·유럽인도 거주한다. 철도·도로교통의 요지이며, 국제공항도 있다.

□ 메디나(Medina)



전통시장으로 우리나라의 남대문시장과 비슷하다. 안달루시아의 성벽과 알모하드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은과 구리로 만든 전통공예품과 가죽제품, 은제품 등 액세서리 상점이 늘어서 있어 아라비안 나이트의 세계를 연상시킨다. 스위스 거리와 교차하는 콩실 거리에는 골동품, 카펫 등 고급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많다.

□ 카스바 우다이야(Kasba des Oudaia)



옛날에 성채와 곡물창고였던 곳으로, 적갈색의 중후한 성벽에서 역사를 느끼게 된다. 완만한 계단을 올라가면 정면에 당당한 자세로 버티고 있는 것이 우다이야 문은 12 세기말에 세워진 것으로 정교한 조각이 눈을 끈다. 성문을 지나 구 시가지를 들어가면 수 백 년 전에 지어진 주택가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을 지나 해변 쪽으로 가면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성곽이 나온다. 이 지친 마음을 잠시 잊게 해준다.

성곽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서양의 경치는 여행에

□ 우다이야 정원(Jardin des Oudaias)



분수가 있는 안달루시아풍의 정원으로, 남국의 꽃들이 아름답다. 이 정원 안에는 민속악기 들을 수집해서 전시한 악기박물관도 있고, 베르베르인의 결혼의상이나 카펫, 도기, 가구 등 민속 공예품을 전시한 우다이야 박물관도 있다. 우다이야 정원에서 부레그레그 강 하류와 살레 백사장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전통 찻집은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서 박하차(Mint Tea)를 한잔 하는 것도 여행의 피로를 털어 준다.

□ 왕궁(Palais Royal)



몰레이 하산 거리와 모하메드 5세 거리와의 교차점에서 Bab Rouah 문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왼쪽으로 위병이 서 있는 문이 있다. 그 문을 지나면, 흰 벽에 녹색 지붕인 호화 롭고 장대한 건물이 보인다. 1894년에 세워진 왕궁으로 국왕이 거주하고 있다. 근처에는 국왕이 기도 하기 위해서 다니는 아루파스 모스크가 있다. 야간에는 왕궁으로 통하는 길의 문이 폐쇄 된다.

□ 모하메드 5세 묘(Mausolee Mohammed V)



실내장식이 매우 훌륭하다.

현재의 국왕 모하메드 6세의 조부인 모하메드 5세 전 국왕의 묘로, 1912년 이래 술탄 벤 유세프는 프랑스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의 선두에서 투쟁 하였고, 1956년 3월 독립을 성취하자, 왕위에 올라 모하메드 5세가 되었다. 이 후 모로코 근대국가 건설에 힘쓰다가 1961년에 사망하였는데, 이 묘는 1962년부터 1969년까지 7년간 400여명의 장인들이 모여 완공했다. 묘속에 석관이 안치되어 있으며,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다. 탑의 남쪽에는 300 개 이상의 돌기둥이 남아 있다. 하산탑 언덕에서는 라바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 하산 탑(Tour Hassan)

라바트의 상징으로 꼽히는 스페인 무어양식의 이슬람교 사원에 있다. 장대한 첨탑으로 한변이 16m 인 정사각형 형태이다. 알모하드 왕조의 제 3 대 야쿠브 엘 만수르(Yakub el Mansur)가 12 세기말 높이 44m 까지 세우다가 사망한 후 공사가 중단 되었고 현재까지

□ 고고학박물관(Musee Archeologique)

알브리히 거리에 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출토품과 로마시대의 유적으로 유명한 보르 빌리스에서 옮겨진 모자이크, 대리석상, 청동의 유바 2 세 상등이 전시되어 있어, 모로코의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박물관이다.

□ 팔레(Sale)

현재는 라바트의 위성도시에 불과하지만, 본래는 라바트에 앞서 11 세기에 생겨난 유서 깊은 곳이다. 17 세기에는 해적선의 본거지로 악명이 높았으며, 13-16 세기에 축조된 건축물이 많아서 관광객을 끌고 있다.

□ 도자기 단지

이 지역은 원래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단지 입구에 전통공예품 전시관을 설치하여 도자기, 목공예품, 은제품 등 각종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시관 뒤편으로 도자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과 가게들이 줄을 이어 있다. 가게마다 모로코 특유의 디자인, 색상 등 특색이 있으므로 돌아보면서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사는 것도 재미있다.

□ 시장(Souk)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가게는 없다. 알 가젤 시장에서는 가젤의 양털이나 양털의 매매 광경이 사방에서 보이고, 알 케비르 시장에서는 주로 현 옷 따위가 매매된다. 근처에는 포장마차 형식의 간이식당이나 카페가 많고, 튀김과 박하의 향내가 가득하다.

2) 카사블랑카(Casablanca)

카사블랑카는 ‘하얀 집’이라는 뜻으로 아랍어로는 다르엘베이다(Dar el-Beida)라고 한다. 카사블랑카는 베르베르인의 어항으로 1468 년 파괴된 고대 도시 안파의 자리에 포르투갈인에 의해 건설되어, 1757 년 모로코 술탄에게 점령되었다. 18 세기 후반에무역항으로서 재건되어 19 세기에 유럽과 미국의 무역업자가 정착하였고, 1906 년에는 무역액이 탕헤르를 앞질러 모로코 제 1 의 항구가 되었다. 1907 년 프랑스가 점령, 1912 년 이후 료티 원수(元首)의 통치하에서 근대적인 항만과 도시가 건설되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상공업의 중심지이다.

모로코 공업 생산의 90%가 이 도시와 주변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 라바트로 통하는 도로연변의 동부와 북동부는 공업지대를 이룬다. 모로코 수출입 무역의 3/4 이 통과하고 국제공항이 있으며 철도·도로망의 중심지이다.

항만 근처에 '구(舊)메디나'라는 옛 아랍 시가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성벽, 미로와 같은 좁은 골목, 흰 벽의 가옥들이 바깥쪽을 둘러싸듯이 건설된 근대적인 시가(프랑스의 도시계획에 의해 건설)와 대조적인 경관을 이룬다. '구메디나'에는 유대인이 살며 이슬람교도인 서민들은 새 시가지의 바깥쪽에 산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1월 연합군의 정상회의(카사블랑카회담)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 하산 2세 사원 (Hassan II Mosque)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및 메디나에 있는 모스크에 이어 세계에서 3 번째로 큰 모스크이다. 하산 2세(재위 1961~1999)가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87년부터 1993년까지 7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였는데, 2만 5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볼 수 있고, 카사블랑카 시내 어디서나 웅장한 모습이 보인다. 대지 8,100㎡에 세워졌으며 200m 높기로 모스크 중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건물 지붕은 약 6분에 걸쳐 개폐되도록 되어 있다. 규모나 실내장식에서도 세계 최고의 모스크로 꼽히는데, 모로코 최고의 실내장식 조각 기술자 3,300명이 6만 7000㎡의 석고, 5만 3000㎡의 목재를 사용하여 1만㎡에 달하는 모로코 전통조각을 완성해 세기의 걸작을 만들어냈다. 관광시간은 금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 11시 및 오후 2시에 영어, 아랍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가이드가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120디람이다.

□ 바 카사블랑카(Bar Casablanca)

모하메드 5세 광장 앞, Hyatt Regency 호텔의 1층에 있다. 왕년의 명화 {카사블랑카}의 "릭스 카페 아메리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당시의 영화 포스터와 주연배우 험프리 보가트, 잉그릿 버그만 등의 사진도 걸려 있다. 피아노 연주자 샴의 피아노 음악이 지금도 들려올 듯한 분위기이다. 세계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여행 중 잠시 들러 음료를 한잔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명소이다. Bar에서 한잔 하노라면 60년대의 영화 속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음료값이 별로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Bar Casablanca는 연중 무휴이다.

□ 구 메디나(Ancienne Medina)

모하메드 5세 광장의 북쪽 해안에 옛 성벽으로 에워싸인 곳으로, 20세기 초까지는 카사블랑카 시가의 전부였다. 메디나에 오면 19-20세기 초의 아랍 세계에 들어선 느낌이다. 규모가 작아서인지 관광객이 적고, 토산품보다는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가 많다.

□ 카사블랑카 항구(Port Casablanca)

아프리카 최대의 항구로서 여객선, 화물선 등이 드나든다. 대서양에서 잡힌 신선한 생선과 새우 따위가 즐비한 어시장도 있다. 항구 입구 근처에 있는 스페인식당(해산물 전문식당)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 양파 힐(Anfa Hill)

고급 호텔들이 늘어서 있는 코르니세 거리에서 존 F. 케네디 거리를 올라가면 약간 높은 구릉이 나타난다. 이 일대가 바로 카사블랑카에서 으뜸가는 고급주택가로 유명한 양파 힐이다. 1943년 당시의 처칠 영국 수상,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등 연합국 수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양파 호텔에서 회담을 가졌던 곳으로 유명하다.

□ 해변(CORNICHE)

카사블랑카에서 가장 정비가 잘 된 휴양지이자 관광지구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대서양을 끼고 약 2킬로미터의 해변도로를 따라 호텔, 해수욕장, 레스토랑, 맥도날드, 커피숍 등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차량의 홍수를 이루며, 밤에는 재즈 바, 디스코텍 등에서 흘러나오는 노랫가락에 객고를 달랠 수 있는 곳이다.

3) 페스(Fes)



수도 라바트의 동쪽 160km, 리스 산계(山系)의 남쪽 기슭에 있다. 801년 이드리스왕조의 제2대 이드리스 2세가 수도로 삼고, 마그레브에서의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후 1276년에 마리니드왕조가 새로운 페스를 건설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 강가의 옛 도시가 페스알발리, 왼쪽의 새로운 도시가

페스알제디드이다. 대서양 연안의 카사블랑카나 라바트에서 지중해 연안의 알제로 통하는 대상로의 요지로서 독자적인 상공업이 발달되고 있다. 857년에 창립한 이슬람신학대학과 아랍문예 중심의 알 카라윈대학도 있다.

□ 페즈 알바리(Fes al-Bali)

왕도가 된 이후로 페스는 튀니지 출신이 모인 케로안지구와 스페인 출신이 많은 안달루시아지구로 나뉘어 발전하다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 후 13 세기에 이 메디나 인접에 새로운 도시 페스자디드가 건설되자, 이전에 있던 옛 도시는 페스알발리(Fes al-Bali) 라고 불리게 되었다.

□ 부 즐루드 문(Bob Bou Jeloud)

페스 알발리의 서쪽 입구에 있는, 페스 알발리의 얼굴이라고 할 만한 문이다. 1913 년에 세워졌는데, 바깥쪽은 페스를 상징하는 청색 타일, 안쪽은 이슬람을 상징하는 녹색 타일로 아라베스크 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 부 이나니아 신학교(Medersa Bou Inania)

14 세기에 부 이나니아에 의해 세워진 메린 왕조 최대의 신학교로서, 무어 양식의 대표적 건축의 하나이다. 지금은 모스크로 되어 있다. 부 즐루드 문에서 탈라아 케비라 거리를 지나 이곳에 이르면, 거대한 나무문의 장엄한 모습에 놀라게 된다.

□ 카라윈 모스크(Mosque Qaraouiyne)

859 년 케로안의 망명자 알페헤리의 딸 파티마에 의해 세워진 케로안인을 위한 모스크로서, 북아프리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 모스크는 뒤에 케로안 대학으로 이용된 적도 있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지금은 다시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다.

□ 안달루스 모스크(Mosque des Andalous)



9 세기에 스페인에서 이주한 이슬람교도를 위해 세워진 모스크인데, 페스 강 동쪽에 발달한 안달루시아 지구의 중심이라고 할 만하다. 모스크의 북쪽에 있는 "불후의 문"이 유명하다.

□ 폰두크 테투안(Fondouk Tsetouanine)

일찍부터 페스는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거래를 위해 다녀갔으며, 이곳은 테투안에서 오는 상인들이 숙박하던 곳이다. 14 세기에 건축된 것으로 입구의 문이 훌륭하다. 지금은 카펫, 액세서리 등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가게로 활용되고 있다.

□ 수크 아타린(Souk Attarine)

부 이나니아 신학교 근처의 향신료 시장. 카르다뭉, 터메릭, 쿠민 따위의 향신료가 많이 진열되어 있어 향긋한 냄새가 떠돈다.

□ 탄네리(Tanneries)

모로코 특산물의 하나로 가죽으로 만든 재킷, 구두, 가방 따위가 있는데, 이곳은 무두질한 가죽을 염색하는 작업장이다. 적, 황, 갈색의 염료가 든 큰 기둥이 여럿 놓인 작업장에서 기술자들이 소, 양 가죽을 씻기도 하고 염색하기도 한다. 주위의 흙벽에 붙여서 건조 시킨다.

□ 바트하 박물관(Musee du Batha)



부 즐루드 문에서 가까운 전통공예박물관이다. 19 세기말에 왕궁으로 세워진 곳으로, 무어 풍의 정원이 있다. 안에는 페스의 도기, 베르베르족의 카펫과 민속의상, 무기, 전통악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문, 모자이크, 나무조각 등 건축의 각 부분을 전시한 코너는 모로코의 건축 양식을 알게 해준다.

□ 페스 자디드

모로코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도시의 하나로서 수도 라바트의 동쪽 약 160km 에 있다. 메디나에서 망명하여 북아프리카 최초의 이슬람 왕조인 이드리스 조(朝, 788~985)를 세운 이드리스 1세(Idris I, 재위 788~793)는 791~792년경 조출한 수도를 정했으나 그의 아들 이드리스 2세(재위 793~828)가 이것을 재건하여 현재의 페스의 기초를 닦았다. 시가는 계곡 사이에 마련되고 강을 사이에 끼고 안달루스 모스크(Jama al-Andalous)와 카라윈 모스크(Jama al-Karawiyn)의 대모스크(다같이 860경 창건)를 중심으로, 안달루시아 지방 및 카이라완으로부터 이주하여 거주했고 이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지금도 약 25만명이 이 좁은 시역에 살고 있으며 구시가는 중세적인 이슬람도시의 모습을 거의 완전히 남기고 있어, 이슬람 도시의 전형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건물은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많으나 상술한 두개의 모스크 외에, 부 이나니아의 마드라사(1355~57), 아타린의 마드라사(1323~25) 등의 마드라사가 특히 뛰어나 있다.

페스는 13세기 메린왕조 때 가장 번영하고, 인구도 증가했다. 1276년 페스 알발리 남쪽에 신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이것이 페스 자디드(Fes Jadid)이다. 여기에는 왕궁, 물레이 압달라 모스크(Mosquee Moulay Abdallah), 13세기에 세워진 알 함라 모스크(Mosquee al-Hamra), 유대인 거주구역 멜라(Mellah) 등이 있다. "자디드(새로운 도시)"라고 해도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도이다.

□ 시디 하라젠크(Sidi Harazem)

페스에서 동쪽으로 1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지역으로, 수영장과 유사하게 건축되어 있어 수영복 차림으로 이용한다.

□ 메린 왕조 묘지(Tombeaux des Merinides)

완만한 구릉에 많은 묘가 있는데, 14-15 세기 술탄들이 여기서 영원히 잠들어 있다. 푸른 하늘을 등진 흰 묘석들이 눈부시다. 메디나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

4) 마라케시(Marrakesh)

카사블랑카의 남쪽 도로에서 약 250km 떨어진 아틀라스 산맥 북쪽 기슭 하우스 평야에 위치하며, 카사블랑카와는 국도·철도·항공로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남부 모로코와 알제리에 이르는 대상로의 기점이다. 1062년 알모라비데 왕국의 수도로 건설되어 알모아데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 그 후에도 북서 아프리카의 이슬람교 중심지로서 모로코의 학술·문화면에서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였으나, 1912년 9월 프랑스에 점령당했다.

하уз평야에서 밀·보리·올리브·감귤류 등을 재배하며, 양·염소·소 등을 사육한다. 옛 왕궁과 수많은 이슬람교 사원 외에도 프랑스가 건설한 근대적인 시가, 마라케시벤 유세프대학 등이 있다. 대아틀라스산맥은 스키·등산지로 겨울철에는 프랑스 등 유럽관광객들로 만원이다. 대아틀라스 산맥을 배경으로 해발 545m에 자리 잡은 도시로 사하라 사막 바깥쪽의 오아시스이다. 흙 색깔, 건물 바깥벽이 온통 붉은 색으로 "붉은 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 메디나(Medina)



흙의 색깔도, 도시를 둘러싼 성벽도, 우뚝 솟은 모스크도, 다닥다닥 붙은 작은 집들도,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도 모두가 붉은 색을 띠고 있어 '붉은 도시' 혹은 '붉은 진주'라 불리는 도시 마라케시는 모로코에서 페스(Fez)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11세기 베르베르인의 알모라비데(Almorabides) 왕조 시대의 수도로 건설되어 12세기 알모하드(Almohad) 왕조 시기에 전성기를 맞았으며, 16세기 사디(Saadis) 왕조 때도 왕조의

수도로 번성했다.

오늘날 마라케시는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의 뒷골목과 아랍 건축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건축물들, 그리고 모로코 사람들의 활기찬 생활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마라케시 메디나의 뒷골목은 페스의 뒷골목처럼 미로처럼 얽혀 있다. 복잡한 미로들 사이로 각종 물품을 만드는 작업장이 이어지고, 향료와 장신구를 비롯한 온갖 물품을 파는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 자마 알 프나 광장(Place Jamaa al-Fna)



'자마 알프나 광장(Jamaa Al-Fna Square)'이라고도 한다. 마라케시의 중심지에 있는 큰 광장으로 '축제광장'으로도 불린다. 예전엔 공개 처형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쿠투비아 사원 앞에 있다. 죄인을 처형하고 그들의 목을 걸어놓았다 하여 '사자의 광장'이란 뜻의 이름이 붙었다. 마라케시의 관광명소이며 하루 종일 많은 인파로

붐빈다. 오전에는 장이 서며, 낮 시간에는 뱀 부리는 사람, 줄타기를 하는 곡예사, 민속 무용단, 짐승 부리는 사람 따위가 모여들어 여기저기서 제각각 재주를 부린다. 밤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온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무대 공연이 열리고, 포장마차나 노점도 들어선다.

□ 쿠투비아 모스크(Koutoubia Mosque)



쿠투비아 모스크는 북아프리카 전역과 스페인, 그리고 사하라 이남 서아프리카의 일부를 지배했던 12세기 무슬림 베르베르계 왕조인 알모하드의 후원으로 지어졌다. 쿠투비아 모스크의 이름은 모스크 앞에서 필사본을 파는 상인들(kutubiyin, 쿠투비인)에서 유래했다. 옛 시가지 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찌르는 듯한 쿠투비아의 미나렛은 제마-엘-프나 광장으로부터 수크(아랍어로 시장)로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쿠투비아 모스크는 T자형 다주식 설계로, 25,000명의 신도를 수용할 수 있지만 비이슬람인들에게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실내는 엄격하고 간소한 형태와 재료가 꽃무늬와 기하학적 문양, 비문 등의 호화로우면서도 절제된 장식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열한 개의 쿠플라는 무카르나로 장식하였으며 기도용 홀은 열 여섯 개의 평행 아일, 그보다 넓은 중앙 네이브, 그리고 11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도용 벽감은 메카의 방향을 가리킨다. 기도용 홀 뒷편의 정교한 민바르는 스페인 코르도바의 알모라비드 왕조 술탄인 알리 벤 유수프의 선물로, 원래 이 자리에 서 있다가 파괴된 모스크에 속해 있던 것이다. 알모하드 왕조는 새 모스크에 엄청난 규모의 정방형 미나렛을 도입했다.

네 개의 구리 구(球)를 올린 이 미나렛은 내부에 축이 있으며, 볼트를 올린 여섯 개의 방이 각 층마다 하나씩 있으며, 맨 꼭대기에는 경사도가 있다. 탑의 네 파사드는 뾰족한 아치, 꽃무늬 모티프, 돌로 새긴 격자 무늬 등을 보여주며, 분홍빛 벽돌에는 한때는 탑의 꼭대기를 장식했던 파란색, 청록색, 하얀색의 프리즈 타일의 흔적이 남아 있다. 쿠투비아 미나렛은 초기 이슬람 건축의 선례가 되었으며, 훗날의 걸작들—세비야의 지랄다와 라바트의 하산 탑 등—은 모두 이 쿠투비아 미나렛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 메나라 별궁(La Menara)



1850년에 물레이 압달 라만 왕이 세운 별궁이다. 하얀 만년설이 덮힌 해발 4,500m의 아틀라스 산맥 앞에 있다. 넓은 올리브 과수원을 지나오면 멀리 보이는 하얀 아틀라스 산맥을 배경 삼아 황톳빛 별궁이 풍부한 물이 고인 저수지에 비쳐 절경을 이룬다. 아틀라스 산맥에서 눈녹은 물이 내려와 형성된 저수지는 주위의 올리브 밭에 풍부한 물을 제공한다.

□ 아그노 문(Bab Aguentaou)

메디나에는 8 개의 중요한 문이 있는데, 아그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모로코의 역사와 관계가 깊은 문이다. 각 문의 모양은 제각기 특색 있는데, 그 중에도 아그노문과 남쪽의 알 케미스문이 가장 유명하다.

□ 알 만수르 모스크(카스바 사원, Al-Mansour Mosque)

아그노문에서 메디나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보이는 큰 회교사원인데, 사이딘 왕조 묘소의 입구에 있다. 흰 벽과 윗부분에 녹색 띠 모양의 장식을 한 첨탑의 대비가 아름답다. 사원 앞은 광장인데 마차 따위가 즐비하고, 선물가게도 많다.

□ 사아딘의 묘소(Tombeaux Saadiens)

사아딘 왕조 시대의 묘소로서, 16 세기의 역대 왕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3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묘소에는 아부 압달라 알 카임 왕, 아부 알 아바 왕, 아메드 알 만수르 왕, 사아딘 왕조 최후의 물레이 알 아바 왕과 그의 친족들이 코란을 새긴 묘석 속에 안치되어 있다. 바닥 타일의 모자이크 무늬,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12 개의 대리석 기둥, 천장의 섬세한 조각, 그리고 우아하며 균형 잡힌 아라비아 풍 실내 장식의 아름다움은 감동적 이기까지 하다.

□ 다르 시 사이드(Dar Si Said)

19 세기말에 세워진 메디나의 궁전으로, 벽의 모자이크 무늬와 천장의 조각이 아름답다. 각처에서 수집된 민속 공예품이 한곳에 모여 있어 관광객에게는 매우 흥미 있다. 전시되어 있는 주요 품목은 민가의 문, 목걸이 따위의 장식품, 단도. 총포 따위의 무기, 주전자, 냄비 따위의 구리로 만든 생활도구, 민속악기, 가죽제품 등이다.

□ 알베디 궁전(Palais al-Bedi)

16 세기말 아베드 알 만수르 왕에 의해 세워진 궁전으로, 지금은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채 만이 남아 있다. 성채의 탑에는 야생의 학이 깃들이고 있어, 옛 왕조시대로 되돌아온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매년 6 월 전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마라케쉬 민속무용제의 무대이기도 하다.

□ 마조렐 정원(Jardin Majorelle)



마라케시 시내 중심으로부터 한적하게 떨어져 있는 자르맹 마조렐은 혼잡한 도시 안의 고요한 오아시스다. 메디나의 성벽 바로 앞에 위치한 이 고요한 정원들은 모로코가 아직 프랑스 식민지였던 1924년, 프랑스에서 건너온 예술가 자크 마조렐이 설계했다. 마조렐의 수채화도 아직 남아 있지만 그가 창조한 진정한 걸작은 바로 정원이다. 자르맹 마조렐의 정원은 1947년에 대중에게 개방된 이래 끊이지 않는 방문객들을 맞고 있다. 1980년 이후 이 정원은 디자이너인 입생로랑과 그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피에르 베르제의 소유가 되었다. 입생로랑 사후, 그의 유골이 이곳에 뿌려지기도 했다.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옛 자크 마조렐의 집 안에 만들어진 이슬람 예술 박물관의 벽과 화분, 그리고 정원의 다른 부분들을 칠한 특별한 색감의 코발트블루이다. 이 밝은 파랑색은 현재 '마조렐 블루(bleu Majorelle)'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이 정원에서는 매, 산비둘기, 종달새, 황새 등 여러 종류의 새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 여러 개의 좁은 오솔길과 전망대를 따라가면 수련, 파피루스와 그 밖의 다른 수생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여러 개의 작은 연못들이 나온다.

변잡한 도시를 벗어난 반가운 휴식, 그 고요함을 깨는 것이라고는 졸졸 흐르는 물소리뿐이다. 이곳에 머무른다면 이슬람 예술 박물관은 한번은 꼭 가 봐야 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도자기, 직물, 무기, 보석과 같은 이슬람 세계의 많은 보물들은 물론 마조렐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 바히아 궁전(Palais de la Bahia)

근대 모로코의 건축미와 정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궁전인데, 1894년부터 6년간의 공사 끝에 준공된 것이다. 건물의 아름다움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특히 감동적인 것은 각각 다른 분위기의 안뜰이다. 타일을 입힌 벽에 쌓인 넓은 공간의 중앙에 샘이 자리잡은 기하학적인 안뜰이 있는가 하면, 재스민이나 부젠빌레아 등 푸른 초목이 무성한 안뜰도 있다.

□ 라바케드메 광장(Place Rahbakedme)

메디나의 중앙에 있는 광장인데, 일대가 장터로 되어 있어 마라케시 생활의 활기, 냄새, 서민의 숨결이 잡음과 함께 느껴진다. 카펫이 가득 드리워진 카펫 상점, 향신료를 가득 진열한 잡화점, 카멜레온을 파는 약장수, 이슬람 모자를 길에 늘어놓은 노점 상인 등이 주의를 끈다.

카사블랑카 - 주요도시간 거리 / Km

도시명	거리	소요시간	도시명	거리	소요시간
라바트	91	1 (고속도로)	탕제	369	4 (고속도로/국도)
마라케시	238	4 (국도)	페스	289	3.5 (고속도로)
메크니스	229	2.5(고속도로)	아가딜	511	8 (국도)

자료: TELECONTACT

나. 호텔 소개

모로코 전역에는 약 550 개의 정부등록 호텔과 9 만 5,000 여 개의 침상(베드)을 보유하고 있는데, 요금은 지역, 등급 및 예약주체(여행사, 사기업 등 주요 고객)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관광 호텔 요금은 하계 휴가 시즌인 성수기(High Season)에는 높은 요금이 적용되기도 하며, 상업 및 관광중심지인 카사블랑카는 타 지역에 비해 호텔요금이 4-50% 높은 편이며 5 등급 및 4 등급과의 요금 차이는 거의 2 배에 달한다.

□ 호텔 예약

일반 요금에 비해 현지 여행사를 통한 예약이 50% 가량 저렴하며, 무역관을 통한 할인은 정상가의 30% 수준이다.

□ 주요 호텔 현황 (카사블랑카)

호텔 명	공항까지 소요시간	전화/팩스	기본요율 (MAD)	KOTRA 적용요율 (MAD)
Sheraton Casablanca	50 분	TEL. 212 522 43 12 34 FAX. 212 522 43 12 30	싱글 (2,200DH) 트윈 (2,500DH)	싱글 (1,350DH) 트윈 (1,550DH)
Le Palace D'anfa	40 분	TEL. 212 522 95 42 00 FAX. 212 522 36 63 21	싱글 (3,359DH) 트윈 (3,619DH)	싱글 (3,359DH) 트윈 (3,619DH)
Golden Tulip Farah	45 분	TEL. 212 522 31 12 12 FAX. 212 522 31 65 14	싱글 (1,950DH) 트윈 (2,200DH)	싱글 (1,350DH) 트윈 (1,550DH)
Kenzi Tower	40 분	TEL. 212 522 97 80 00 FAX. 212 522 95 80 90	싱글 (4,489DH) 트윈 (4,779DH)	싱글 (1,750DH) 트윈 (1,950DH)
Novotel	45 분	TEL. 212 522 46 65 00 FAX. 212 522 46 65 61	싱글 (1,789DH) 트윈 (1,929DH)	싱글 (1,210DH) 트윈 (1,310DH)
Hotel Club val D'anfa	50 분	TEL. 212 522 79 81 81 FAX. 212 522 79 74 67	싱글 (2,340DH) 트윈 (3,180DH)	싱글 (980DH) 트윈 (1,180DH)
Oum Palace	45 분	TEL. 212 522 20 15 00 FAX. 212 522 20 40 90	싱글 (1,530DH) 트윈 (1,860DH)	싱글 (720DH) 트윈 (840DH)
Hotel Ibis	45 분	TEL. 212 522 46 65 60 FAX. 212 522 46 65 61	싱글 (800DH) 트윈 (900DH)	싱글 (713DH) 트윈 (826DH)
Hotel De La Corniche	55 분	TEL. 212 522 79 81 81 FAX. 212 522 79 74 67	싱글 (900DH) 트윈 (1,130DH)	싱글 (900DH) 트윈 (1,130DH)

주 1: 상기 요율은 세금 및 조식 포함 가격이며 객실수급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주 2: 환율 1 USD = 8.20 MAD (13년 12월 기준)

□ 호텔 예약

여행사명	담당자	주소	전화/팩스/핸드폰	e-메일
MAROC HORIZON TOURS	박광수 사장	13 rue Nouakchott, Casablanca	TEL:212 522 44 25 52 FAX:212 522 44 79 12 HP:212 661 32 53 95	moroccotravel@netscape.net casablanca7@mail.com

□ 예약 방법(여행사)

- 현지 여행사를 통해 호텔예약 가능
- 방문객은 두 가지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한국 계좌로 선 입금
 - 카사블랑카 현지 도착 후 현지화(모로코 DH) 지불(카드 결제 불가)

□ 기타 사항

- 도착 당일 현지 사정으로 호텔이 변경될 경우 동급 호텔로 자동 변동
- 항공 및 고객 사정으로 당일 투숙 불가 시 위약금(1박) 지급
- 영수증은 현지 발급(여행사 영수증) 또는 우편으로 송부
- 모로코 타 지역 호텔 및 카사블랑카 타 호텔 예약 가능
- 명절, 전시회 등 성수기에는 호텔가격이 200~300% 인상

다. 주요 식당 소개

모로코 최대 도시이자 경제도시인 카사블랑카에 한국식당 '서울가든'이 영업중이며, 위치는 카사블랑카 시내에 위치한 호텔 팔라스 당파 (Le Palace d'Anfa) 뒷골목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등 선박분야 종사 교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수산 기지인 아가딜 (Agadir)에 선원 등을 대상으로 영업중인 한국식당 두 곳이 있다. 행정수도인 라바트에는 현재 정식 영업중인 한국 식당은 없다.

- 서울가든 전화 : 05 22 39 77 76

유럽 스시 열풍과 더불어 최근 모로코에도 일본식당 체인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사블랑카 쉐라톤 호텔 내에 '사쿠라' 일본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에는 '플라넷 스시'와 같은 일본식당 체인점들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식당은 카사블랑카에 '골든 차이나', '상해가든' 등 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의 베트남 식당이 있다. 프랑스 레스토랑은 주요 대도시와 호텔 등에 많은 편이며 스페인, 이태리 식당도 다수 있다. Fast Food 로는 맥도널드와 피자헛, KFC 등이 주요 도시에 진출해 있다.

□ 현지고유음식

식당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정보
RYAD ZITOUN	31 BD. RACHIDI	05 22 22 39 27	모로코전통음식 (TAJINE, COUSCOUS)
La Fibule	Boulevard de la Corniche, Phare d'El Hank.	05 22 36 06 41 05 22 36 79 69	모로코식 연중무휴
Basmane	bd de l' Océan Atlantique -ex Biarritz ang. bd la Corniche	05 22 79 75 32 05 22 79 70 70	모로코식 연중무휴

□ 양식

식당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정보
LA MER	La Corniche, Phare d'Elhank	05 22 36 33 15	프랑스식, 해물요리 전문점 월-일 12h 오픈
A Ma Bretagne	bd de l' Océan Atlantique -ex Biarritz, Sidi Abderrahmane	05 22 39 79 79	프랑스 식당
OSTREA	Au port de peche	05 22 44 13 90 05 22 44 13 91	해산물전문점, 생굴 연중무휴
TOSCANA	7 Rue Yaala El ifrani, Quartier Racine	05 22 36 95 92	이태리요리(피자, 스파게티) 가격 저렴, 주말 예약필수
LA BODEGA	Rue Allal Ben adallah,	05 22 54 18 42	스페인요리전문점
Luigi Grieco	rue de Normandie ang. rue Abou Yaala Allfrani	05 22 94 07 22	이태리요리(피자, 스파게티) 가격 저렴
Rick's Café	248, bd Sour Jdid 20000-CASABLANCA	05 22 27 42 07 05 22 27 42 08	월-일, 점심 12h-15h 저녁 18h30-1h
Cabestan	bd de la Corniche	05 22 39 11 90 05 22 96 82 58	연중무휴 12h-0h

□ 한식 / 중식 / 일식 / 베트남 / 태국

식 당 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정보
Seoul Garden	6, Rue Assilme, Quartier Rachine	05 22 39 77 76	한국 식당 월-일
GOLDEN CHINA (金華)	12, RUE EL ORAIBI JILALI (EXFOUCAULD)	05 22 27 35 26	한국인 식성에 맞는 중국식 1인당 20-30불 소요 점심 : 월-금 12h 부터 저녁 : 월-토

LE SAKURA	100 Av.des F.A.R	05 22 43 94 94	일식(초밥, 생선회,철판구이) 쉐라톤 호텔 1층
Kiotori	8, rue du Commissaire Ladeuil	05 22 47 16 68	일식 월-일 12h 오픈
Thaï Gardens	av de la Côte d'Emeraude	05 22 79 75 79	태국 식당
Millennium Viêt	8, rue Molière	05 22 39 22 44	베트남 식당 월요일 휴무
Milasia	17, rue Ahmed Charci, Hippodrome	05 22 36 36 77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요리 월-일 12h 오픈
FUJI	2, AV MICHLIFEN RABAT	05 37 67 35 83	일본인 주방장
MATSURI	155, AV JOHN KENNEDY ROUTE DES ZAERS RABAT	05 37 75 75 72	회전 초밥 월-일 12h 오픈
Planet Sushi	25, avenue Hassan , Souktani,Gautier,casablanca	05 22 42 36 36	일식(초밥, 생선회, 철판구이)
O mandarin	185, bd Bir Anzarane	05 22 46 21 72	태국음식 월-일, 저녁 20h-0h30
Kaiten	18, rue Oumaima Sayah -ex Rolland Quartier: Racine	05 22 39 87 66	일식, 월-일 점심:12h-15h, 저녁:20h-0h
Asia Garden	26, rue Ahmed El Mokri	05 22 36 55 44	아시아 음식, 월-일
ILOLI	Najib Mahfoud	06 08 86 66 33	일식 코스요리 오후 12시 30분~3시 오후 7시 30분~11시 30분 월요일 일요일 휴무

3) 음식문화

모로코 요리는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요리로 손꼽힌다. 이는 모로코라는 국가 자체가 이슬람계를 비롯해 베르베르인, 무어인, 지중해 국가 출신자, 아프리카인, 스페인 출신 등의 이베리아계 주민, 유대인 등 다양한 인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왕실에서 전해지던 왕실 요리를 비롯해 수많은 민족의 요리가 지금의 모로코 요리가 있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모로코에서는 지중해 원산 식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대 과일뿐 아니라 다양한 야채가 많이 난다. 또한 양이나 소뿐 아니라 해산물도 많이 나서 그 풍미와 풍부함이 더욱 더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모로코인의 식생활에서 꾸스꾸스(COUSCOUS), 양갈비(꼬트다뇨), 포도주, 박하차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인 만큼 방문 시 적어도 한번쯤 시식을 해 보는 것이 좋다.

꾸스꾸스는 2단 양은 솥 중 아래 솥에 호박, 당근, 양배추 등 각종 야채와 양고기 또는 소고기를 넣고, 위 솥에는 미세한 밀가루(SEMOULE)를 넣은 다음 화덕에 불을 피워 아래 솥의 수증기로 위 솥의 밀가루를 찐 음식이다. 접시에 내 놓을 때는 접시 가운데에 찐 밀가루를 놓고 그 주변에 야채와 고기를 맛깔스럽게 차린다.

9. 출장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기후

1) 기후특성

"태양이 뜨거운 서늘한 나라" 라고 칭해지는 모로코의 기후는 지역별로 위도, 고도, 바람, 해류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특성이 있다.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 지역편차가 큰편으로 해양성기후, 대륙성기후, 사막기후까지 다양하다. 북쪽으로 갈수록 대서양, 지중해 근처일수록 기후가 온난한 편이며 남쪽과 동쪽으로 갈수록 추운편이다. 아틀라스 산맥에서부터 이남지역으로는 겨울에 눈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춥기도 하다.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투부칼이 약 4100m 정도인데 이 산맥을 경계로 날씨가 많이 달라진다. 아틀라스 산맥 바로 위로 대륙성 기후를 보이기도 하지만 해양에 가까워서 대부분의 도시는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나 대서양 근처의 도시들은 일교차가 큰 편은 아니며 대체적으로 날씨가 좋다.

해양도시중 예외는 에사우이라도 이 도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로 각종 해양스포츠가 즐비하고 대회도 자주 개최된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4계절의 기온 차이가 크지는 않은 곳중 하나이다.

아틀라스 산맥과 그 근처는 겨울에는 눈을 볼 수 있는 추운 곳이다. 겨울에 눈이 많은 경우 실제로 길이 막혀서 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설작업이 서툴고 빠르지 않다.

아틀라스 산맥 이남은 대륙성 기후이면서 사막성 기후이기도 하다. 매우 건조하고 50도까지도 올라가며 7월말부터 8월초에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차는 정도이다.

우기(11-4 월) 중에는 온난 다습하며 평균 15 도를 유지한다. 건기(5-10 월) 중에는 고온 건조하며 평균 28 도이지만 건물 내부 등 그늘에는 서늘해 무더위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쾌적한 기후 조건을 보여 왔으나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상 및 자동차 매연 등으로 한낮에도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연중 가장 습한 달은 12 월로 평균 강수량이 86 mm이며, 가장 건조한 달은 7 월로 평균 강수량은 1 mm로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가장 추운 달은 1 월로 평균 섭씨 3-17 도이며, 가장 더운 달은 8 월로 평균 섭씨 18-28 도이다. 우기 때의 중부 이북 지방은 일교차가 극심하므로 동절기 의복과 실내에서는 난방 시설이 필요하며, 일교차(20 도 내외)가 심한 편으로 간단한 감기약 등 비상 의약품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주일에 2-3 일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건기(5-10월)에는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 옷차림이면 무난하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도 많으므로 긴 팔 티셔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북부 지중해 및 대서양 연안지역에 위치한 탕제, 카사블랑카, 라바트, 아가달 등은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에는 온난 다습하며, 여름에는 고온 건조한 기후를 보인다. 마라케시, 페스 등 중부 내륙지역은 대륙성 기후로 겨울-한랭하며 여름에는 사하라 사막의 열풍으로 고온 건조한 편이다. 남부 사하라사막 인근지역은 사막성 기후로 고온 건조하며 일교차가 극심한 편이다.

구분	카사블랑카(최저/최고기온)	마라케시(최저/최고기온)
1월-3월	8-18도C	5-22도C
4월-5월	11-25도C	11-28도C
6월-9월	17-28도C	18-38도C
10월-12월	9-21도C	7-28도C

자료: 모로코 관광청

3) 출장 시 추천 복장

모로코는 주요 고급 호텔을 제외하고는 냉난방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우기(11-4월)에 해가 지면 체감 온도가 영하 이상으로 떨어져 추위를 느끼므로, 약간 두툼한 옷차림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교차(20도 내외)가 심한 편으로 간단한 감기약 등 비상 의약품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기(5-10월)에는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 옷차림이면 무난하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도 많으므로 긴 팔 티셔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겨울은 2002년도에 홍수 피해로 37명이 사망하는 등 한 주에 2~3일이 비가 오는 날씨가 계속되는 우기이며,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5월 건기에도 비가 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나. 시차/근무시간

1) 근무 시간

중동의 회교국들과는 달리 목, 금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유럽과 같이 토, 일요일이 휴일이다. 모로코의 근무 시간은 과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지고 2시간 가량의 점심시간이 있었으나 '07년부터는 관공서 및 은행, 대기업을 위주로 근무시간의 효율화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크게 단축하거나 폐지함에 따라 근무시간이 08:30부터 16:30까지로 조정되었으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예전과 같은 긴 점심시간이 있다.

대기업, 관공서, 은행 등은 주 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일반 중소기업들중에는 토요일 오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08년에 처음으로 서머타임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시행기간은 6.1일-9.30일로서 동 기간 중 1시간씩 앞당기게 된다.

서머타임제도는 그 동안 행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수년간 시행을 미루어 왔었는데, '08년부터 전력공 급과 원유가격 급등에 따라 전격 도입 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4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서머타임이 시작되었으며 7월말경 라마단의 시작과 동시에 서머타임 기간도 종료되지만 이는 매년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

현지 업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 은행 : 월 - 금 08:30 ~ 16:30 ○ 정부 기관 : 월 - 금 08:30 ~ 18:30 ○ 대 사 관 : 09:00 ~ 17:30 / 무역관 08:30 ~ 17:30 - 주 말 : 일요일 - 대형 마트 : 09:00 ~ 21:30 - 일반상점(약국 포함) : 09:00~12:00, 15:30~20:30
----------------	---

2) 한국과의 시차

모로코의 시차는 한국보다 9 시간이 늦어 GMT 기준 시간과 동일하게 되며, 서머타임 기간 중에는 8 시간 차이가 난다.

다. 도량형

프랑스의 영향으로 도량형은 프랑스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길이는 국제표준인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무게	KG
부피	Litter, m3
넓이	m2

라. 공항에서의 교통편

□ 그랑 택시

80 년대 구형 흰색 메르세데스 벤츠 공항 택시가 24 시간 공항 밖에 대기하고 있다. 요금은 카사블랑카 시내까지 250 디람이지만 지역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고, 외국인의 경우 300 디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을 묻고 나서 타야 한다.

□ 기차

기차 플랫폼은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시내 중심에 위치한 역은 'CASA PORT' 역으로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간 정각에 출발한다. 하지만 노선 특성상 'AIN SEBBA' 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총 소요 시간이 1시간 40분에 달하며, 가격은 1등석 60디람(약 8천원), 2등석 40디람(약 5500원)이다. 'CASA PORT'행 기차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단축을 위해서는 'CASA VOYAGEURS'역 또는 'L'OASIS'으로 가는 것이 좋다. 카사블랑카 공항 기차역에서부터 L'OASIS역까지는 약 22분 가량이 소요되며 가격은 40디람이다. 기차역에 내리면 택시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시내까지 가는데 20디람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타야한다.

기차역	출발시간	소요시간	가격
CASA PORT	06:00 ~ 22:00 매시간 정각	1H 40mn	1 등석 : 60 디람 2 등석 : 40 디람
CASA VOYAGEURS	04:00 ~ 24:00 매시간 정각 05:00, 23:00 제외	32mn	2 등석 40 디람
L'OASIS	"	22mn	2 등석 40 디람

열차 운행시간 및 가격 관련정보 제공: www.oncf.ma

마. 시내 대중 교통

Casablanca, Rabat 등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은 삐띠택시와 시내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카사블랑카의 경우 시내 버스는 100여 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저렴한 편이나 노선이 복잡해 초행자에게는 승·하차가 어렵고 차량 내부가 불결해 방문객들은 삐띠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삐띠택시의 기본료는 1.7디람으로 시작하며 주행시 점차 올라가는 미터제이다. 기본 요금은 1.7 디람부터 시작, 매 20m 마다 20쌍팀(약 3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7.5 디람이 기본 최저 요금으로 7.5 디람 이하의 요금이 나오면 7.5 디람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13년 기준 택시요금 상승과 관련하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확인이 필요하다.

바. 출입국시 주의점

개인별 입국 시 입국카드에 모로코 내 주소를 특정 유명 호텔로 기입하는 것이 가장 빨리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환전은 공항과 시내 환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쓰고 남은 디람을 달러나 유로로 다시 바꿀 때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규제가 많으므로 소액만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관공서 관행

1) 민원처리기간

관공서 사무처리는 각종 법령과 지침에 준하는 원칙과 문서주의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자국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가 늦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처리를 특권으로 생각해 급행료를 요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 민원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당일 처리되는 간단한 계약서 공증과 1달 이상 소요되는 자국민의 여권발급업무 등으로 사안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 환부를 위한 사고증명서(P. V)를 받기 위해서 급행료를 주었을 경우 교통 경찰관이 사고조서를 작성 후 법원에 서류를 송부해 민원서류를 찾는 데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보험금을 환부 받을 때까지는 보통 사고 후 3개월여가 소요 된다.

한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관련 민원은 비교적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다. '06년 기준 모로코는 모하메드 6세의 집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맞고 있어 민원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모로코 관공서의 업무 처리 관행은 관료적이며, 번문욕례(레드 테이프)가 많고 배타적이다. 외국인이 모로코 관공서에서 신속히 일을 처리하고자 하면 현지 모로코인을 대동하여 급행료를 주는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단독 방문 시에도 매우 친절하게 맞이하며 자국민 민원을 제쳐두고 먼저 처리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 일전에 면담약속을 신청하고, 방문 시에는 가급적 정장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며 약속시간 전에 도착해 대기해야 한다.

고위층일 경우 긴급한 외부약속으로 출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방문 수시간 전에 약속시간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관공서에는 입구 내부 정면에 국왕의 대형사진이 걸려 있으므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세관관련 업무 처리 시에는 관행적으로 소액의 수고료나 급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하급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분위기이다.

아. 공휴일

1) 휴일 지정방식

양력에 의해 일자가 고정된 공휴일(National Holidays)과 이슬람력에 의해 매년 일자가 변동되는 공휴일(Religious Holidays)로 구분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에서 금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이슬람권에서 튀니지와 모로코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말이다. 시중은행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 및 관공서들은 토요일도 휴무를 하며 일부 사기업에서는 토요일 오전(08:30-12:30)에만 근무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토요일 휴무 내지 격주 휴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슬람력에 의한 종교휴일은 모로코 정부에서 해당휴일 전날 달이 지는 시간대를 정확히 관측한 후 공식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휴일일자를 바로 수 시간 전에 공식 발표하기 때문에 휴일전일 당일의 휴일여부를 두고 일부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모로코의 2014 년도 공휴일

일자	휴일명[국문]	휴일명[영문]
01 월 01 일	신년	New Year's Day
01 월 11 일	독립운동기념일	Independence Manifest
01 월 13 일*	모하메드 탄신일	AL maoulid "prophet birthday"
05 월 01 일	노동절	Labour Day
07 월 28 일*	라마단 종료축제	Break fast day of Ramadan
08 월 14 일	서부사하라 수복기념일	Reunification Day
08 월 20 일	식민통치 쫓겨기념일	King's and People's Revolution Day
08 월 21 일	국왕탄생기념일	Anniversary of King Mohammed VI
10 월 04 일*	양 희생제	Feast of sacrifice
10 월 25 일*	이슬람 신정	Islamic new year
11 월 06 일	녹색행진 기념일	Anniversary of the Green March
11 월 18 일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

이슬람력에 의한 공휴일 / 매년 변동

일자	휴일명	휴일명[영문]
01 월 13 일	모하메드탄신일(AIDALMAOULID)	AL maoulid "prophet birthday"
07 월 28 일	라마단 종료 축제	Break fast day of Ramadan
10 월 04 일	양 희생제	Feast of sacrifice
10 월 25 일	이슬람 신정	Islamic new year

이슬람력에 의한 공휴일은 해당 휴일 전날 달이 지는 시간대를 정확히 관찰한 다음 휴일 여부를 결정해 공식 발표되므로 양력일자로 산정 시 1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추어 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2) 출장 지양기간

모로코는 프랑스 식민통치의 영향을 받아 사회 제도가 프랑스의 복사판이다. 따라서 휴가문화(Vacances)가 발달하여,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는 여름휴가기간으로 일부 민간기업, 경제 관련 단체들은 집단휴가를 실시하여 접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도 휴가기간으로 담당자 부재 및 단축근무 등으로 업무추진이 어렵다.

또한 이슬람국가에서 매년 한달 여간 일자가 당겨지면서 시작되는 라마단 안식절은 이슬람 교도들의 전통적인 금식기간으로 단축근무 등에 의해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므로 출장 시 동 기간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2년 라마단 기간은 7월 16일부터 시작해 8월 20일 라마단 종료 축제와 함께 끝이 났다. 2013년 라마단 기간은 7월 9일에 시작해 8월 8일에 끝날 예정이다.(단, 달의 모양에 따라 1~2일 정도 차이가 있음)

자. 여행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 의복

일반 방문객들은 모로코가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해 무더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4 계절 의복이 필요한 기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름에 해당되는 하계시즌(5-10 월)은 6 개월 정도 지속되지만 일교차가 심해서 조석으로는 서늘해 별도의 냉방시설이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와 비슷하여 그에 맞는 옷차림이면 무난하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도 많으므로 긴 팔 티셔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초겨울 날씨에 해당되는 우기(11-4 월)에는 난방이 필요할 정도로 서늘한 기후를 접하게 되나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체감 온도는 영하로 느껴지므로 우리나라 초겨울 복장을 준비해야 한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심한 편으로 감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전기규격

전압은 220 V, 50 HZ 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110 V 도 공급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200V 가 주로 공급되고 있다. 한편 대형 주택 및 건물, 공장 등에는 380V 가 공급되고 있다. 전기코드는 유럽식 원형의 Two-Pin 형으로 접지용 구멍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류는 한국(60HZ)과 다른 50HZ 이다

2) 여행여건

□ 치안

이슬람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선임국왕인 모하메드 6세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매우 지지하였던 바, 후임국왕인 핫산 2세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별다른 동요 없이 왕권을 이어가고 있다.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외국인들의 여행 또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테러단 및 조직적인 범죄 단체는 없으나, 빈곤층이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하여 발생시킨 2003년 5.16일 카사블랑카 폭탄테러사건(40명 사망)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서부 사하라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광 등 외국인의 여행에 통제를 가하지 않고 있으나 빈부 격차 심화, 청소년 인구증가에 따른 실업률 증가 및 경제침체 등에 따른 사회 불안 요인이 상존 하고 있어, 도시 외곽지역에서 절도 등 잡범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야간 여행이나 혼자 벽지 또는 원거리 여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여자 여행객의 경우 시내외곽 지역이나 뒷골목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3년 8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2013년 7월 모로코를 방문한 스페인 국왕 후안 카를로스가 자국민 죄수 48명의 사면을 요청한 가운데 이 중 4~15세의 아동 11명을 강간하고 포르노 영상을 찍은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아 모로코 북서부도시 케니트라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다니엘 갈반 비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왕이 이 소아성범죄자를 사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로코 전역이 반대 시위로 들끓게 되었고 모로코 정부는 교정당국이 잘못된 범죄기록을 제공했다며 해당 교도소장을 해임하고 비나에 대한 사면조치를 철회했지만 비나가 이미 모로코를 떠나 스페인으로 출국한 것이 전해지면서 반대 여론은 계속 되었다. 이 후 스페인 경찰이 비나를 스페인 남동부 무르시아에서 체포해 마드리드로 이송하였고 스페인 최고형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 2012년 모로코 사건사고 사례 / 한국 여행객 날치기 사건 발생

2012년 7월 24일(화) 06시 30분경 한국인이 자신이 묵고 있던 수도 라바트 소재 호텔주변 산책중 현지인에게 스마트폰 및 현지화 100 디람(약 12달러 상당)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날치기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행객은 온라인으로 은행카드 거래 정지를 요청함.)

아울러, 모로코는 최근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 등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날치기, 강도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의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변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 사건·사고 현황

모로코는 입헌군주국으로 정치, 경제, 종교 등 제반분야에서 안정을 유지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의 국가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생활여건 향상 등으로 모로코의 치안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어 외국인들의 여행 또는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다. 2010 년도 모로코 방문 관광객 수는 약 950 만명으로 2009 년 대비 약 100 만명 증가하였다.

모로코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경제 상황 전반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빈부격차가 심하고 청년 실업률이 다소 높은 등 사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외곽지역이나 관광지의 해안가 등에서 강도(차량 강도 포함), 절도, 날치기, 소매치기 등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빈도는 잦아 들고 있다. 2013 년 9 월 현재 모로코 전 지역은 여행경보 1 단계 지역이다. 신변 안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관광지 및 대도시에서는 절도 및 강도 등의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지품(여권, 카드, 현금 등) 관리 등에 주의를 요하며, 선편으로 유럽과 연결되는 북쪽 항구도시 탕제에서는 현지어(불어 또는 아랍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강도, 날치기 등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모로코 정부는 카사블랑카 테러사건(2003.5 월) 이후 대테러활동 강화하고 사전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테러단체와 연계된 다수의 테러범들이 미국과 동맹국, 모로코 정부의 요인 및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다 모로코 당국에 체포되는 등 모로코에서의 잠재적인 테러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출입시에는 신변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

□ 2011 년 테러조직 활동 사례

- 1.4 서부사하라지역에서 알카에다 마그렙지부(AQMI)의 전진기지를 설립하려는 조직원 다수 체포.
- 2.20 모로코 58 개 지역에서 37,000 여명이 반정부시위에 참가, 탕제 및 마라케쉬등지에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6 명이 사망하고 130 여명이 부상함.
- 3.20 모로코 전국 주요도시에서 약 35,000 여명이 참가한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가 개최
- 4.28 마라케쉬 자말 알프나 광장의 아르가나 레스토랑에서 폭탄테러가 발생, 인관광객을 포함하여 15 명이 사망하고 22 명이 부상당함.
- 5.11 모로코 정부당국은 마라케쉬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의 용의자 6 명을 검거하고 행위가 알카에다 마그렙지부(AQMI)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 사건·사고의 유형

○ 노상강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 주로 흉기(칼)로 위협을 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빈번하다. 또한 차량강도 행위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 외곽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가능한 정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량 정차시 항상 차문을 잠그고 있어야 한다. 이후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도난신고하고, 여권을 도난당했을 경우엔 대사관에 신속히 연락 후 방문해 임시 여권을 발급받도록 한다. 혹시 큰 상해를 입었을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 후 대사관에 연락 요함.

○ 테러

테러가 일어날 경우, 긴급히 그 장소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본인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속히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한다.

○ 기타

남녀 불문, 야간 여행이나 혼자 벽지 또는 원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곽지역이나 시내 뒷골목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은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 유의해야 할 지역

○ 탕제(Tanger)

유럽(스페인)에 근접한 항구 도시로 유럽을 목적지로 한 밀입국자들과 마약거래자 등 범법자들이 많아, 여행객들을 노리는 강도 및 절도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선박편 출입국시 제 3 국인의 한국 여권 위조 사례가 많아 우리 여권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므로,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카사블랑카(Casablanca)

모로코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로 외국관광객들과 사업가를 노리는 날치기 및 강도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노천카페 및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항구 주변을 조심해야 한다.

○ 페스(Fès)

주요 관광지인 메디나는 골목이 무척 비좁고 복잡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상인들의 호객행위도 심하므로 가이드를 동반함이 바람직하며 비좁은 골목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뿔뿔히 흩어지기 및 소지품 분실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서부사하라

서부사하라 주민들은 1973 년부터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Polisario Front)이라는 지역 독립무장단체 중심으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전개해왔다. 1976 년에 스페인의 통치가 종료되면서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모로코와 모리타니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전이 발생했다.

1979 년에 모리타니가 폴리사리오와 협정을 맺고 영유권을 포기했고 1991 년에 UN 의 중재로 모로코와 폴리사리오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UN 의 사하라 주민투표 감시단이 파견되었으나 주민투표가 거듭 연기되는 등 현재까지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부사하라 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알제리도 이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폴리사리오를 지원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있다. 서부사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 의 중재 하에 모로코, 폴리사리오와 유관국인 알제리, 모리타니가 참석한 비공식회의에서 모로코 정부가 포괄적 서부사하라 자치안을, 알제리 정부가 독립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실시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서부 사하라 지역은 모로코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으나 폴리사리오가 계속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부사하라에는 모로코 보안군과 폴리사리오군이 군사적으로 대치중이며 일부지역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지뢰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지난 2010.11.8 서부사하라의 중심도시인 Laayoune 시 외곽의 난민캠프촌에서 모로코 보안군과 난민촌 시위대간의 충돌로 다수의 인명 피해와, 관공서 및 은행, 상점, 주택 등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모로코 정부는 1980 년부터 서부사하라지역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ued Draa 지역, Oued Saguia El Hamra 지역, Oued Eddahab 지역에서 수만여개의 대전차지뢰 및 대인지뢰를 제거했다. (2010 년 9 월, 사하라의 Assa Zag 주 지역을 지나던 차량이 매설된 지뢰 폭발로 운전자 1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부상 당함)

□ 자연재해

모로코 내에서 폭풍이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는 없으나, 모로코 북쪽 Al Hoceima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몇 차례 발생한 적이 있다. 지진이 오래전부터 비주기적으로 있었으며 강도 높은 지진이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금까지 지진 발생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2010 년 8 월 5 일, 수도 라바트 남동쪽 약 420km 지점의 Azilal 지역에 진도 4.8 의 지진 발생,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음
- 2010.6.2 수도 라바트 북부 약 400km 지점의 Al Hoceima 주 Imrabten 에서 진도 3.6 의 지진 발생.(동 지역은 2004.2 월 진도 6.3 의 지진으로 600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음)

- 2010.4.26 수도 라바트 남쪽 600km 지점의 Taroudant 주 Sidi Moussa Lhamer 에서 진도 3.7 의 지진이 발생.(인명 및 재산 피해 없음)
2010.4.22 수도 라바트 북동쪽 144km 지점의 Larache 시에서 진도 4.0 의 지진이 발생.(인명 및 재산 피해 없음)
- 2010.4.13 수도 라바트 북서쪽 200km 지점의 Sidi Kacem 주 Ain Dfali 시에서 진도 3.7 의 지진이 발생.(인명 및 재산 피해 없음)
- 2009.12.17 Tanger 서쪽 300km 떨어진 대서양에서 진도 5.5 의 지진이 발생하여 수도 라바트, 탕제, Kenitra, 마라케쉬 까지 건물이 흔들림.(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음)
- 2004.2 월 Al Hoceima 에서 진도 6.3 의 지진으로 500 여명 사망, 2,000 여명 부상
- 1990 년 Al Hoceima 인근에서 진도 6.0 의 지진 발생
- 1960 년 Agadir 에서 12,000-15,000 명이 사망하고 도시 전체가 매몰되어 신도시로 이전

□ 교통사고 주의

모로코는 교통사고율이 높은 나라중의 하나이므로 운전 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하며, 방어 운전이 필수적이다. 우측통행이며, 우측방향차량 우선, 속도제한 및 일단정지, 주차 위반 등 단속을 하고 있다. 운전자가 급하게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추월이 심하므로 장거리차량 여행 시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통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므로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이나 지방에서 사고 발생시 경찰 출동이 늦어 사상자를 오래 현장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지방의 경우 병원시설 및 의료진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예가 일어나고 있다.

□ 종교관련

모로코는 헌법 제 6 조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99%가 이슬람교(수니파)를 믿으며 종교적인 전통이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 5 번씩 아잔(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이 울리며 길가에서 기도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라마단 기간(금식 기간으로 약 한달, 이슬람력으로 정해지므로 해마다 시기가 변동됨)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공공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흡연이 금지되며 대부분 식당들이 문을 닫는다. 이 기간 동안 현지인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차량 운전 시 안전 운전엔 신경 써야함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현지인들을 자극할 만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 (평소보다 라마단 기간에 교통사고 발생이 15% 더 많음)

또한 모로코에서 선교는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처벌대상이다. 모로코인(이슬람교도)에 대해 선교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자는 모로코형법(code penal) 제 220조에 의거 6개월-3년의 징역형 또는 강제추방 조치된다. 동 조항은 이슬람교도의 어려움을 활용하거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물품 지원) 선교활동을 하거나, 교육, 보건, 보호시설, 고아원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선교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고, 관련시설은 영구 또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폐쇄된다.

최근 선교관련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추방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0.11 월 : 2010 년 3 월 선교혐의로 강제추방된 한국인이 모로코에 재입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적발되어 강제 출국됨.
- 2010.9 월 : 한국인 1 명과 외국국적 배우자가 선교활동을 한 혐의로 강제 추방
- 2010.3 월 : 한국인 3 명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브라질, 네덜란드, 남아공 등 외국인 선교사 및 동조자 약 60 여명 강제 추방
- 2010.2 월 : 미국인 선교사 추방
- 2009.12 월 : 외국인 선교사 5 명 추방
- 2009.4 월 : 카사블랑카에서 스페인, 독일 선교사들의 교리교육 현장 이 발각되어 추방.
- 2008.11 월 : 외국인 1 명이 모로코인에 대한 기독교 선교혐의로 체포되어 벌금 500 디람(63 불) 및 6 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출국조치.
- 2008.3 월 : Zagora 에서 성경과 CD 롬을 소지한 2 명의 프랑스 관광객이 선교혐의로 체포되어 출국 조치됨.

또한 모스크(이슬람 사원)가 곳곳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스크 방문은 무슬림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으나, 유명한 관광지의 큰 모스크는 정해진 시간에 입장료를 내고 방문할 수 있다.

□ 기타 주의사항

모로코 국왕이나 왕가를 포함한 국왕제 비난, 이슬람 종교에 대한 모독이며 서부사하라에 대한 모로코 주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절대 금물이니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 현지인과 종교 관련 토론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현지인에 대한 타종교 포교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대화 시 유의해야 한다. 모로코는 회교 국가이므로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소란 등은 금물이며 매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시장에서 물품 구입 시 가격 흥정 하는 것이 관례이며 물품에 따라 20 - 50%까지 깎는 것이 가능하다. 모로코 인들은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않아, 호텔 등 고급 식당을 제외한 일반 대중식당 등에서 취식은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특히 과일 및 샐러드는 더욱 유의), 가능한 식수는 Mineral Water 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좋다.

실제로 2009 년 11 월에는 외국인 봉사단원이 동 마라케쉬지역에서 봉사활동중 식중독으로 보이는 폐혈증에 걸려 사망하였으며 2010 년 7 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노상에서 판매하는 오렌지쥬스와 일반식수(수돗물), 닭고기 등을 섭취한 후 복통과 고열, 설사 등으로 탈진되었다가 현지 의사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회복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사원, 항만, 공항, 군사지역은 사진촬영 제한지역이며 서부 사하라 지역 등 분쟁지역에서의 사진 촬영 및 취재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촬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 중 외국인에게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관광국이나 노천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나 소란 등은 금지하고 있다. 관광지, 시장 등 구걸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필요 시 1 디람짜리 동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페스 및 마라케시의 메디나(구 도시) 관광은 체류 호텔에 의뢰해 가능한 지정된 관광안내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국왕이나 왕가 또는 체제에 대한 비난은 절대로 금물이며 현지인과 종교상의 토론이나 비난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모로코인에 대한 타 종교전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일부 선교사들이 모로코인에 대한 선교 및 복음전파를 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모로코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길거리에서 소지품 탈취 등의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우범지역 방문을 삼가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 버스, 기차 터미널 등에서는 지갑,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모로코 여행(방문)시 신용카드, 휴대전화, 여권 등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법
- ① 신용카드 또는 휴대 전화를 도난 분실 했을 경우 신속히 한국의 신용카드 회사 및 휴대전화 통신회사에 연락하여 사용정지를 신청한다.
- ②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분실 신고(Attestation de Perte)를 작성해야 하며, 분실신고서는 귀국 후 보험 청구에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 ③ 경찰 도난 신고는 본인이 경찰에 직접 출두해야 한다.
- ④ 여권 분실시에도 상기와 같은 경찰서 방문 분실신고 절차를 마친 후 대사관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는다.
- 긴급 연락처 : 주 모로코 대사관 212-661-787-722, 212-661-291-356

□ 응급 및 의료/보건 여건

수도인 라바트에는 UN 병원, Sheikh Zayed, Clinique Agdal 등 비교적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있으며 외국(특히 프랑스)에서 수련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의료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보여지며 개인이 필요한 치료 및 건강진단은 가급적 국내에서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치과의 경우 국내에서 사전에 진료를 받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질병 또는 전문의의 진료 또는 처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내 의료진의 진찰을 받은 후, 필요한 약품이나 의료 기록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한 약품 구입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으나 중요한 약품일 경우에는 처방전 필요하며 약국은 여러 곳에

분포 되어 있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지역별로 지정된 약국에서만 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약들이 수입품으로 한국보다는 약값이 비싸므로 여행 전에 간단한 상비약품은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모로코는 의료보험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개인병원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위주로 운영되고 종합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한다. 진료시간은 보통 일반 사무실 운영시간과 비슷하고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하는 응급병원이 항상 운영된다. 진료비는 보통 기본 진료비와 추가검사료 등으로 구분된다.

카사블랑카 등 주요도시의 일반적 의료수준은 여타 아프리카국에 비해 잘 갖추어진 편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의료시설이나 전문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지방에는 의료시설 및 의료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여행 시 사전에 비상구급약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긴급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앰블런스를 부를 수 있다. 앰블런스 호출은 지역마다 전화번호가 있으며, 종합병원 응급실로 갈 수 있다. 이 외 야간 의사를 호텔로 부를 수 있다.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 지역별 주요 병원

지 역	병원명	연락처
Casablanca	Hopital Ibn Rochd	(022)265102
	Hopital Mohammed V	(022)340376
Agadir	Hopital Hassan II	(028)846686/841477
Tantan	Hopital Hassan II	(028)877126
Dakhla	Hopital Hassan II	(028)897705
Laayoune	Hopital Moulay Hassan Ben El Medhi	(028)893650
Fes	Hopital Al Ghassani/Dar Dbibegh	(035)622776/77/78
	Hopital Omar Drissi/Fes Medina	(035)634551/52
	Hopital Mohammed V/Sefrou	(035)662088
Marrakesh	Hopital El Razi	(024)302141/302905
	Hopital El Antaki/Medina	(024)310682
Tanger	Hopital Mohammed V	(039)930856
	Hopital Al Kortabi	(039)934242

주: 06년 3월 24일 지역번호 통합에 의한 전화번호 변경

자료: 카사블랑카 무역관

약국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처방전에 의해 약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기초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약국 역시 일반 사무실 근무시간과 비슷하며 야간 및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응급약국이 운영되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수준차가 매우 심하며 농촌의 경우 1/2 정도만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1/5 정도만이 위생, 소독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

□ 팁 관행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썬크" 공항에 내리면 "포터"가 짐을 승용차까지 실어주는데, 이때 팁은 짐 1 개당 5~10 디람(0.5~1 달러)을 주면 무난하다. 호텔에 도착하여 포터가 짐을 객실까지 운반해 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팁은 수고의 표시로 고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통 식당(불란서식당 등 고급 식당)에서 식대의 약 5~10%정도 주면 무난하다. 식사비가 600 디람이 나오면 30~60 디람을 주면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주요 호텔 부속 레스토랑 등 일부 고급 식당의 경우 통상 10%의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식수

현지인들은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석회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끓여 사용하고 직접 마시는 물은 미네랄워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도물(L'eau portable)을 그냥 마시나 석회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가능한 식수는 Mineral Water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위생상 바람직하다. 현지 로컬 미네랄 워터로 "시디알리"(Sidi Ali)와 "시디 하라젬"(Sidi Harazem)의 2종류 상표가 있다.

일반 슈퍼판매 가격은 1.5 리터(6 디람)와 0.5 리터(4.5 디람)이나 레스토랑 및 호텔객실 미니 바에서는 5 배 정도 받는다. 이외에 에비앙(Evian)등 프랑스 수입품도 있으나, 현지 산에 비해 3 배 이상 고가이다. 우리 입맛에는 물맛이 부드러운 "시디 알리"를 구입해 마시는 것이 무난하다.

□ 이발소

시내 이발소의 통상 커트 요금은 100-120 디람이며, 팁은 10-20 디람 정도 줘야 한다. 간혹 커트 시 "매니큐어"(손발톱 손질)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해 고개를 끄떡거리면 커트 요금과 비슷한 요금을 치르게 되니 주의를 요한다.

시내에 산재한 현지인이 이용하는 일반 이발소의 경우 40-50 디람으로 저가이나 현지인 스타일로 커트를 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현지인이 이용하는 일반 이발소는 커트가 40~50 디람, 얼굴 마사지가 30 디람, 면도가 10 디람 정도이며, 팁은 10 디람 정도 지불하면 된다. 미용실은 시내 부유층 대상 고급 미용실이나 호텔 미용실을 이용해야 하며, 퍼머 400 디람, 드라이 150 디람, 커트 200 디람 정도이며 팁은 10% 정도 별도로 주어야 한다.

□ 구두닦이

카페나 철도 및 고속 버스역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는 구두닦이 통을 맨 소년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구두요금은 3 디람이나 외국인인 경우 10 디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5 디람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처럼 구두 광을 내는 것이 아니라 2-3 분에 걸쳐 먼지를 떨어내는 수준이다. 주요 호텔에는 자동식 구두닦이 기계(Shoeshine machine)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쇼핑

□ 물가

카사블랑카는 상업 중심지인 동시에 관광지이므로 물가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수도 라바트에 비해서도 주택 임차료 등 일반적인 생활물가가 20-30% 비싼 편이다. 외식의 경우 유럽 물가수준이며 생필품 등 일반공산품은 대부분 수입해야 하므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단 과일 및 야채 등 농산품과 일부 모로코 내에서 제조하는 공산품은 수입품목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다.

모로코에는 현지인과 관광객이나 일반 비즈니스맨에게 적용되는 가격이 이원화된 물가구조를 보이고 있다. 모로코의 저소득 계층의 1 달 급여는 약 300 달러로 한 가정이 그럭저럭 지낼 수 있다.

□ 쇼핑장소



일반 상점(magasin)과 재래 전통시장(souks)이 있으며, 지역별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재래 전통 시장에서 흥정하며 특산품을 쇼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도시에는 메디나(Medina)라고 하는 지역에 "쭈크"(souks)라는 재래 전통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남대문시장과 비슷하다. 페스의 카펫, 쉘레의 도자기 등 액세서리 상점이 늘어서 있어 관광객들을 부르고 있다.

2011년에는 카사블랑카에 대형 쇼핑센터인 Morocco Mall 이 개점했다. 프랑스 유명 백화점 라파에트와 루이비통, 구찌 등 고가 브랜드에서부터 Zara, H&M 등의 실속형 브랜드까지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해있다. 또한 2013년에는 카사블랑카에 대형 쇼핑센터인 Anfa Place 가 개점했다.

- Megamall
- 모로코 최초의 쇼핑몰, 2005년 라바트 오픈
- 3층에 걸친 80개 브랜드의 매장과 800m² 크기의 스케이트장이 있음
- <http://www.megamall.ma>

- Morocco mall
 - 아프리카 최대의 쇼핑몰, 2011 년 12 월 오픈, 카사블랑카 위치
 - 305 개 점포, 푸드코트, 3D 아이맥스 영화관, 아쿠아리움 포함 10 헥타르 부지.
 - 연간 방문객 1300 만 명
 - <http://www.moroccomall.net>

- AnfaPlace
 - 2013 년 오픈, 총 면적 36,000 m², 점포수 80 개 카사블랑카 위치
 - <http://www.anfaplace.com>



□ 특산품

불어로 가죽제품이라는 뜻인 "마로키네리"(maroquinerie)로, 가방, 벨트 등 일반가죽제품은 이태리, 프랑스산 고급제품에 비해 끝마무리가 투박하고 디자인은 조잡하나 가죽 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편이다. 카펫 및 금은세공품들이 유명하며 이외에 특산품으로는 화석(Fossil)이 가장 무난하다. 카사블랑카 중앙시장(Marche central)내 화석 취급상이 3 곳 있다.

차. 유용한 연락처

비상연락처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번호 안내(Renseignements)	160
경찰(Police)	190
고속도로 순찰대(Gendarme Royale)	117
교통사고 신고	19
소방경찰구조대(Pompiers-Police Secours)	15
긴급의사(SAMU)	05 22 90 50 50
SOS 의료/앰블란스(카사블랑카)	05 22 44 44 44
택시호출(Privair, s.a.r.l.)	05 22 91 41 88
콜택시(Appel-taxis)	05 22 89 24 89
택시호출(Casa Air Service)	05 22 90 30 36
역 (Casa Port Station)	05 22 22 30 11
공항 (MOHAMMED V)	05 22 53 90 40 / 05 22 53 91 40

자료: TELECONTACT

주요 항공사

연락처	전화번호
RAM(Royal Air Maroc)	05 22 31 11 22 / 91 20 00
AIR FRANCE	05 22 43 18 18 / 43 18 63
LUFTHANSA	05 22 31 24 02 / 31 28 20
BRITISH AIRWAYS	05 22 22 94 64
ALITALIA	05 22 31 41 81 / 31 39 50
SWISS AIR	05 22 53 94 25 / 53 94 26
TUNISAIR	05 22 29 34 52 / 20 14 15
카사블랑카 공항	05 22 53 90 40 / 53 91 40

자료: TELECONTACT

□ 은행

모로코의 시중은행들은 보통 월-금요일 오전 8:30 부터 11:30, 오후 14:00 부터 16:30 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다. 토요일은 휴무이며 개점시간이 하계 및 라마단 기간에는 단축 영업되고 있다. 카사블랑카, 라바트, 탕제 등 주요도시에는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국제 신용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마라케시, 페스 등 주요 관광지의 주요 호텔에도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은행명	위 치	전화번호	상 세 정 보
Bank Al Maghrib (중앙은행)	Av.Mohammed V, Rabat	05 37 70 26 26	금융정책수립, 지폐발행, 정부재정관리
BMCE	140, Av.Hassan II,Casa	05 22 20 24 70	모-불-이 공동출자
Cibank Maghreb	Zénith Millenium, imm. 1 lotiss, Attaoufik, Sidi Maarouf., Casa.	05 22 48 96 00	Citibank

자료: 카사블랑카 무역관

경제단체

단 체 명	위 치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모로코수출입업자협회 (ASMEX)	36 B, bd d'Anfa, Casa	212-522-261033 212-522-202215	www.asmex.org
상공회의소연합회	6, rue d'Erfoud, Rabat 51	212-537-767071	www.fccism.cci.ma
카사블랑카상공회의소	Bd Mohammed V,Casa	212-522-264327	
카사블랑카박람회공사	11, rue Boukraa, Casablanca	212-522-271545	foire@ofec.co.ma www.ofec.co.ma
외환청(Office de change)	Rabat	212-537-726134	www.oc.gov.ma

자료: 카사블랑카 무역관

한국기관

기 관 명	위 치	전화번호	상 세 정 보
대사관	Madhi Ben Barka, Soussi,Rabat	(0537)756791	영사과 동일건물
KOTRA	Ghandi Mall,Boulevard Ghandi Immeuble 8, 2éme etage N ° 4	(0522)9896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라바트한인회	Villa des Hotes Royaux	(0537)753846	84.7 창립, 박재용회장

자료: 카사블랑카 무역관, TELECONTACT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외무부	www.diplomatie.ma
재경부	www.finances.gov.ma
농업부	www.agriculture.gov.ma
보건부	www.sante.gov.ma
산업자원부	www.mcinet.gov.ma
수산부	www.mpm.gov.ma
문교부	www.enssup.gov.ma

나. 공사

IT규정국	www.anrt.net.ma
외환관리청	www.oc.gov.ma
수도청	www.onep.org.ma
통신공사	www.anrt.net.ma
철도공사	www.oncf.ma

다. 은행

BANK AL-MAGHRIB	www.bkam.ma
ATTIJARIWAFABANK	www.attijariwafabank.com
BMCI	www.bmci.ma
SOCIETE GENERALE	www.societegenerale.com

라. 상공회의소 및 유관 기관

모로코 전경련 G.Confederation of Moroccan Companies(CGEM)	www.cgem.ma
모로코 자동차 산업 협회 Moroccan Association for Automotive Trade and Industry	www.amica.ma

마. 언론기관

2M (TV/RADIO)	www.star28.com
SAWA (RADIO)	www.radiosawa.com
L'economiste 모로코 일간신문사	www.leconomiste.com
Le matin 모로코 일간신문사	www.lematin.ma

바. 기타

모로코 항공사 Royal Air Maroc(RAM)	www.royalairmaroc.com
주모로코 한국 대사관	mar.mofat.go.kr

11. KOTRA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위치 및 연락처

1) 무역관 오시는 길

무역관은 "간디 대로"(Boulevard Ghandi)변에 위치한 5층의 빌딩인 "간디몰"(Ghandi Mall)의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모로코 카사블랑카 수도국 "리텍"(Lyonnaise Des Eaux de Casablanca : LYDEC)이 있으며 도보로 3-5분 거리에 있다.

카사블랑카공항(에어포르 모하메드 생크)에서 무역관을 찾아오려면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그랑 택시/백색중고벤츠)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30여 킬로 정도이며 소요시간은 교통소통 상황에 따라 30여분이 소요된다.

택시요금은 통상 시내까지 30-35 유로 정도이며 공항환전소에서 사전에 택시요금과 비상용으로 U\$100불 정도 환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무역관 연락처

- 주 소 : Ghandi Mall, Boulevard Ghandi Immeuble 8, 2eme etage N.4, Casablanca, Morocco
- 전 화 : (212-522) 98.96.27 / 98.46.36
- 팩 스 : (212-522) 99.45.13
- E-mail : kotracasablanca@gmail.com

3) 무역관 근무시간

- 정기휴일 : 토, 일
- 근무일 : 월 ~ 금
- 근무시간 : 08:30 - 17:30 [중식(월-금)12:30-14:00]

나. 무역관 주요 업무 안내

□ 시장개척사업

1) 해외세일즈출장지원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이 시장개척을 위하여 관할지역 방문시 바이어와의 상담주선, 호텔예약, 안내 등 제반 세일즈 활동 지원

2) 시장개척단 지원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업체를 시장개척단으로 구성하여 해외에 파견하며,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바이어와의 상담을 주선했으므로 직접적인 수출성과가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3) 조사대행

한국에서 해외의 바이어 정보나 시장동향 정보를 희망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해외사업지원단을 통하여 신청하는 사업으로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직접 조사 수행

4) 방한 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방한 바이어 지원

한국제품에 관심있는 해외 바이어의 방한 구매단 또는 개별 방한바이어에 대하여 국내업체와의 개별상담을 주선했으므로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본사에서는 상담주선은 물론 방한일정 작성 및 호텔예약 등 지원

□ 조사사업

1) 수출 유망 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조사

특정 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 추이 분석 등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업계에 전파

2) 수출 직결정보 수집 및 거래알선

박람회, 전시회, 시장개척단, 한국상품구매단 등 각종 수출마케팅 과정에서 입수되는 바이어의 구매오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업계에 전파 - 원격지에 소재한 한국 수출 업체와 바이어간의 교신에 따른 애로사항 지원

다. 인원 현황

성명	직위	전화번호	업무
김선기	관장	+212 (0)5 22 98 96 27	무역관업무 총괄
허밖음	현지	+212 (0)5 22 98 96 27	지사화
Kaouter HINSI	현지	+212 (0)5 22 98 96 27	시장조사, 사절단
이지혁	인턴	+212 (0)5 22 98 96 27	시장조사, 고객응대
나윤환	인턴	+212 (0)5 22 98 96 27	시장조사, 고객응대